

박태승 법사 (풍기 심우원 상임법사)
소년병 3260위 위패 모시고
새벽마다 '성불염원' 40년
16 · 17면

현대불교

창간 20년
2014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58년 단기 4347년(음력 5월 21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제997호 2014년 6월 18일 수요일



금주의 법구-〈법구경〉
어리석은 사람은 탐욕으로 인해
자신을 피안으로 건너지 못하게 한다.
탐욕은 자신과 이웃 모두를 해친다.

관리 일변도 '법인법' 개정되나

조계종, 개정위 구성… 11일 첫 회의 개최

제정 이후에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조계종 법인법에 대한 개정이 이뤄진다.

조계종 총무원은 최근 법인법 개정위원회를 발족하고 6월 1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

법인법 개정위원회는 자문위원회와 실무TF팀으로 구성돼 있다. 자문위원으로는 교육원장 현응 스님과 종회의원 성직 스님(선학원대책위원장), 만당 스님(불교광장 종책위원장), 총무부장 정만 스님, 기획실장 일감 스님이 참여하며, TF팀은 총무국장 명본 스님, 기획국장 남전 스님, 이석심 총무차장으로 구성됐다.

비공개로 진행된 첫 회의에서는 현행 법인법의 미비점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는 취합된 의견들을 정리해 대체 입법안을 만들어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조계종 승려와 사찰이 만든 법인들을 종단 등록해 관리하는 법인법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은 계속 제기돼 왔다.

실제 적지 않는 법인 관계자들은 "총무원장이 임원 해임을 요구하는 것도 문제인데 국가가 인정한 법인에게 다른 법인장이 명령을 하는 상황이어서 법 시행 이후 얼마든지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다"면서 "법인의 자율성을 인정하면서 관리할 수 있는 합리적인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지난 3월 18일 개원했던 조계종 중앙종회 제197차 임시회의 결과에서도 법인법 개정의 필요성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당시 임시회에서 총무원은 법인 등록 기한을 1년 더 연장하는 개정안을 제출했고 종회는 3개월로 연장하는 것으로 조율 · 통과시켰다. 이후 중앙종회의원 스님은 종책 질의를 통해 법인법의 실효성에 대해 따져 물었다.

특히 종회의원 장명 스님은 질의를 통해 "△정관 개정을 위해서는 사전에 총무원에 보고 · 승인해야 하는 것(제12조 정관 개정) △법인 임원을 총무원장이 요구하고 이사회의 처리를 강제하는 점(제20조 임원 해임) △법인 산하 사찰 등록을 금지하는 것(제18조) 등은 법인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규제"라고 비판했다.



조계종 총무원은 법인법 개정 위원회를 구성하고 6월 11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법인 성격 등 재분류될 듯
지원 방안도 함께 모색 중
6월 임시 종회 상정 계획

현재 준비되고 있는 개정 법안에는 그간 문제가 된 법인의 정의를 다시 정하고 이에 맞게 법인들의 성격을 분류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규제와 관리 일변도였던 법인법에서 지원책도 함께 삽입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또한 법인법을 놓고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선학원과 관련된 조항도 일부 완화된 것으로 알려져 문제 해결 조석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TF팀에 참여하고 있는 남전 스님은 "조계종 종도와 소속 사찰의 삼보정재가 출연된 법인을 잘 관리해 정재가 유실되지 않도록 하는 취지와 기조는 유지하면서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단순히 관리하는 법이 아닌 정진과 포교를 잘하는 법인들을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담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법인법 개정안은 개정위원회에서 법안을 만들어 종헌종법제개정특별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6월 25일 열리는 조계종 중앙종회 제198차 임시회에서 상정될 전망이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남원 실상사 원지 전경. 북쪽으로는 정자로 추정되는 건물지 등이 발견됐다. 연구소측은 선종사찰 수행과 연관된 것이라 추정했다.

불교문화재硏 발굴 성과 학계서 '주목'

실상사 苑池 확인… 삼국유사 속 '미탄사' 실체 찾아

불교계 유일 문화재 연구 기관인 조계종 불교문화재연구소의 발굴 성과가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조계종 불교문화재연구소는 6월 11일 지난해 불교계 최초로 시발굴 조사에 들어갔던 경주 미탄사(味呑寺)지에서 '미탄(味呑)' 이라는 명문(銘文)이 새겨진 기와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경주 미탄사는 〈삼국유사〉에 최치원의 옛집을 설명하며 딱 한번 언급되는 사찰로 황룡사지 남측에 위치하고 있음이 알려졌지만 정확한 유구가 발견되지 않았다.

박찬문 발굴팀장은 "이번에 발견된 명문기와는 미탄사 위치를 최초로 증명할 뿐만 아니라 최치원 고택인 독서당의 위치를 방증하는 자료"라며 "왕경 구성과정과 황룡사와 미탄사 등 주변사찰이 어떤 관계를 띄었는지 추가로 살펴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시발굴조사에서는 '미탄' 명 기와와 함께 강당으로 추정되는 건물터 등 유구, 연꽃무늬 · 당초무늬가 새겨진 와당류와 인화문(印花紋 · 도장무늬) 토기 등이 출토됐다.

이와 함께 불교문화재연구소는 남원 실상사(南原 實相寺) 템플스테이 시설인 양혜당과 보적당 건립부지에서 독특한 모습의 고려 시대 사찰의 원지(苑池)를 확인했음을 밝혔다.



미탄사지 '미탄' 명문기와

남원 실상사지
선종 사찰 연못 첫 확인
추가조사 · 학술대회 예정

경주 미탄사지
'미탄' 명문 와편 찾아내
왕경 구성과정 확인 의미

원지와 수로(水路) 시설은 그동안 국내 다른 사찰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불교문화재연구소는 원지가 고려 시대 초기에 조성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선종사찰에서 정원의 기능과 의미를 살펴보는 중요한 단서로 보고 있다.

임석규 불교문화재연구소 유적연구실장은 "일본의 원지가 있는 사찰 100여 개중 50여개가 선종사찰로, 이번 실상사 원지는 선종사찰에서 정원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살펴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에서는 부여 정림사지, 익산 미륵사지, 군위 인각사지 등에 연못이 있지만 이번 실상사 원지와 같이 입수로와 배수로까지 구축된 것은 최초다.

불교문화재연구소장 정안 스님은 "향후 추가조사와 함께 학술대회 등으로 관계 상황을 조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韓日 불교 "청소년에 꿈 · 희망 찾아주자"

6월 9~10일 큐슈 일원서 35차 불교우호교류대회 5개항 공동선언문 채택

한국과 일본 양국 불교계가 세월호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길을 찾는데 노력하겠다고 선언했다.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회장 자승)와 일한불교교류협의회(회장 미야바야시 쇼겐)는 6월 9~10일 일본 큐슈(九州) 후쿠오카현(福岡縣) 일원에서 제35차 한일불교교류 일본 선도사대회를 개최했다.

이 대회는 이 대회에는 양국 회장 스님을 비롯해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이사장 도산 스님(태고종 총무원장), 부회장 춘광(천태종 총무원장) · 향적(조계종 중앙종회 의장) 스님과 회정 정사(진각종 통리원장), 사무총장 법등정사(총지종 통리원장), 상임이사 월도 스님, 천태종 종의회의장 문덕 스님, 일한불교교류협의회 이사장 니시오카 료코 스님, 불자 등 양국 불교지도자와 불자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장 자승 스님〈사진 왼쪽〉과 일한불교교류협의회장 미야바야시 쇼겐 스님이 6월 9~10일 일본 큐슈 일원에서 열린 제35차 한일불교교류대회에서 선물을 교환하고 있다.

본 대회는 10일 오전 10시 30분 일본 큐슈 후쿠오카현(福岡縣) 쿠루메시(久留米市) 젠도지(善導寺) 본당에서 세계평화기원법요식과 '불교사상과 청소년 교육'을 주제로 한 학술세미나) 등으로 진행됐다.

이날 한국 측 법등정사와 일본측 노자와 류코 사무총장은 참석대중을 대표해 5개항으로 구성된 평화선언문을 발표했다. 양국 불교도들은 평화선언문을 통해 "급속도로 변모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청소년 교육에 대해 어떻게 접근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제언을 들었다. 양국 불교도는 이 문제를 진지하게 받아들여 항상 자비로 청소년들의 인격형성에 도움이 되는 불교정신 함양의 중요성을 확인했다. 청소년 교육에 이바지 하겠다"고 다짐했다.

평화선언문에 앞서 세계평화기원 법요식이 봉행된 법요식에서는 올바른 한일 불교 교류에 대한 다짐이 이어졌다.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장 자승 스님은 인사말에서 "세월호 사건을 함께 슬퍼하고 위로해 주신 일한불교교류협의회에 진심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생명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사회 속에서 고통받는 모든 이들의 치료를 위해 양국 종교계가 한마음 한뜻으로 정진해 가자"고 당부했다.

평화기원법요식에 이어 오후 1시 30분부터는 '불교사상과 청소년 교육'을 주제로 학술세미나가 열렸다. 학술세미나는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부회장 회정정사(진각종 통리원장)의 인사말에 이어 한국측에선 허남결 동국대 문화윤리학과 교수, 일본측에선 히로사와 타카유키(廣澤隆之) 대정대학교 불교학부 교수 각각 발제했다.

신성민 기자

비구니 호계위원 결국 '초심'만 참여

종헌특위, 11일 회의서… 25일 중앙종회 임시회서 발의

조계종 중앙종회 종헌개정 및 종법제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장적, 이하 종헌종법특위)는 6월 11일 제16차 회의를 열고 비구니 스님들의 호계위원 참여를 가능하도록 하는 종헌 개정안을 6월 25일 개원하는 중앙종회 제198차 임시회에서 재발의하기로 결의했다.

재발의된 종헌 개정안은 초심호계원에만 비구니 스님들이 참여토록 수정했다. 종헌종법특위가 이날 수정한 종헌개정안에 따르면 호계원은 9인으로 구성되는 초심호계원과 9인으로 구성되는 재심호계원으로 구성된다. 다만 초심호계원의 경우 비구니 호계위원 2인을 두도록 명시했다.

신성민 기자

사 고

알립니다

서울지방우정청의 우편 집중국 토요우편창구 운영 폐지 방침에 따라 오는 **7월 1일 이후 제작되는 신문부터 발송이 지연될 수 있음을 독자 제현에게 알립니다.** 되도록이면 빠르게 발송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혜량바랍니다.

현대불교신문사

디자인 등록원

명품 청동 촛대세트

현 불 샵
단독입점

웅장함을 토대로 세련된 형태의 장식미를 갖춘
국내에서 한국 장인이 직접만든 명품청동촛대세트

- 불법을 수호하는 길상동물인 거북 · 사자 · 코끼리를 형상화하여 제작한 디자인 특허제품으로 오직 현불샵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 각 공법에 따라 4번의 주물작업을 통하여 완성된 작품입니다.
- 일반 촛대와 다르게 넘어질 염려가 없고, 안정성과 균형미가 뛰어 납니다.
- 한국 장인이 주문제작을 받아 직접 만드는 작품이므로 주문부터 발송까지 1주 ~ 15일 소요됩니다.

촛대(大) 촛대(中) 촛대(小) 향로 향통 다기

품 명		규 격 (세로 / 지름)
촛대	사자 코끼리	(大) 51㎝×21㎝ (中) 41㎝×21㎝ (小) 35㎝×21㎝
	거북이	(中) 41㎝×21㎝ (小) 35㎝×21㎝
향로	거북 용두	(大) 28.5㎝×34㎝ (中) Ⓐ 21.5㎝×29㎝ (中) Ⓑ 18.5㎝×23㎝ (小) 15.5㎝×18㎝
다기	다기	(大) 26㎝×20㎝ (中) Ⓐ 22㎝×14㎝ (中) Ⓑ 20㎝×13㎝ (小) 17㎝×12㎝
향통	원형	(大) 15.5㎝×7.5㎝ (小) 11.7㎝×5㎝

저작권이 등록된 제품임으로 무단도용시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구입처 : 현대불교 현불샵 TEL 02)2004-8216

불미전 활성화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돼

공동위원장 손연칠 · 허길량 氏

대한민국 불교미술대전(이하 불미전) 활성화를 위한 추진위원회가 구성됐다.

조계종 문화부(부장 혜일)은 6월 1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불미전 역대 수상자 간담회가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수상자들은 '불미전 활성화를 위한 추진위원회(가칭)' 라는 이름의 모임을 구성키로 의견을 모았으며, 추진위원 10명을 위촉했다. 공동위원장으로 손연칠 · 허길량 작가를 선출했다.

이날 조계종 문화부장 혜일 스님은 "그동안 여러 수상자들의 요청으로 오늘의 자리를 마련했다. 불교미술의 발전을 위해 애써온 여러분들이 인적 교류가 없었기에 작가들의 역량이 사장되고 있다는 이야기기 많다"면서 "이번 모임이 불교 미술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추진위원회는 오는 6월 25일 첫 모임을 갖고 발전 방향을 논의한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승적관련특별조치법 즉각적인 개정 필요"

삼화도량, 11일 성명 발표

승적관련특별조치법에 대한 즉각적인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계종 중앙종회 종책모임 삼화도량은 6월 11일 발표한 성명에서 "용주사 운영위원장 정호 스님이 4일 조계종 법무감사국에 '승적관련특별조치법 유권해석' 을 요청한 것은 특별조치법이 제정된지 1년 3개월이 지났지만 종도들이 제정 취지에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사례"라면서 "승적관련특별조치법의 즉각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방의 의견을 수렴해 승적 위변조 · 허위 수계기록 · 수계 미수지자를 제외한 승려들에 한해서만 적용할 수 있도록 특별법 개정 작업에 즉각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두 번째 주지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조계종 2교구 본사 용주사는 8월 중 산중종회를 열고 차기 주지를 선출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용주사 운영위원회(위원장 정호)는 6월 9일 열린 회의에서 하안거 해제일인 8월 10일 이후 산중총회일을 정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이날 회의는 성직스님이 주지직무대행으로 임명된 것과 관련해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됐다.

신성민 기자

10.27법난 기념관 "명예회복 · 치유 공간 돼야"

조계종 10 · 27법난 학술발표회서 기념관 운영 방안 제시

10 · 27법난 기념관 건립 불사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기념관 내 법난 연구 및 체험시설과 함께 치유시설, 복합문화공간 등을 함께 건립 ·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같은 주장은 조계종 총무원이 6월 1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개최하는 '10.27법난 명예회복을 위한 학술발표회' 에서 발제되는 일련의 논문에서 제기됐다. 특히 10.27 법난 기념관 운영 방안과 건립 구상에 대한 발표문은 눈길을 끈다.

이날 발표로 나서는 임채도 인권의학연구소 사무국장은 미리 배포한 '국가폭력 피해자 인권상황과 통합적 치유모델' 을 통해 "'5 · 18 피해자들 중 1980년대 25명, 1990년대 3명, 2000~20011년까지 12명이 경제적 보상 이후 자살을 선택했다"며 "고문 등 인권피해자들에게 사회적 명예회복과 심리치유 등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사무국장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고문 피해자의 경우 일반인 우울장애 5.6%에 비해 약 4배 높은 23.1%의 우울장애 진단을 받았다.

임 사무국장은 "법난 피해 스님들의 경우 성직자임에도 그 고통이 쉽게 잊혀질 수 없으며, 오히려 세속 권력으로부터 받은 박해는 일반인 피해자들에 비해 훨씬 클 수 있다"며 "이들의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시설과 프로그램 운영이 필수적이다"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법난기념관 기본설계를 맡은 김구현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장은 '10 · 27 법난 기념관 기본구상' 을 통해 법난 기념관을 기념관 1동과 치유시설 1동 등 총 2개동으로 구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5 · 18 등 피해자 심리장애 4배높아
전문가 "성직자 트라우마 더욱 심각"
치유 및 불교문화 증진 시설 건립

김 사무소장은 "법난 기념관 부지인 조계사 일대는 높은 인지성과 접근성으로 인접한 고궁과 인사동을 방문한 많은 관광객들이 기념관으로 자연스럽게 유입되는 만큼 한국전통과 불교문화를 전달하는 곳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와 함께 트라우마를 겪는 피해자들을 치유하기 위한 시설을 따로이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 사무소장은 "치유시설은 생존 피해자에 대한 요양시설 역할을 하며 여기서는 트라우마 관련 연구 및 치유상담과 재활프로그램 노하우를 축적하는 관련 기관도 함께 입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경순 문학박사는 '10 · 27 법난 기념관 운영방안 연구' 를 통해 "법난 기념관의 당위성은 한국불교 명예회복과 인권가치를 되살리는 것"이라며 "기념관 운영은 전시, 연구, 교육, 공연 네 파트로 법난 콘텐츠의 상설전시와 함께 역사교육과 불교문화 체험, 불교문화재 활용 교육 등이 이뤄지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박사는 기념관 내에 공연장을 구성해 인권과 평화 등을 주제로한 창작연극과 영화 · 애니메이션 등을 상영하는 곳으로 조성하고 이를 토대로 인권영화제 등을 불교계가 주도해 진행했으면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한편, 조계종이 발표한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10 · 27법난 기념관은 종교에 대한 국가 폭력에 대한 의미를 알리는 기념관과 치유 전문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치유센터로 나눠진다.

기념관 건축계획에 따르면 법난 기념관에는 연면적 20,100㎡(6070평)에 지하 5층, 지상 6층 건물로 전시실, 불교문화체험실, 불교자료열람실, 사무 · 연구공간, 강당 등이 들어선다. '피해자 치유시설' 은 연면적 1,418㎡(425평)에 지하 3층, 지하 1층 건물로 물리치료실과 치유시설, 법당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기초생활법 개정이 빈곤문제 외면 부추겨"

조계종 노동위, 11일 빈곤 대책 토론회서

송파 세모녀 죽음 100일을 맞아 빈곤문제의 사회적 해결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조계종노동위원회(위원장 종호)는 6월 11일 오후 2시 템플스테이종합정보관 3층에서 그간 발표됐던 빈곤 대책의 실효성을 점검하는 토론회를 마련했다.

노동위는 토론회 개최 이유에 대해 "송파 세모녀 자살 후 정부와 국회에서 앞다퉈 관련법들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지금껏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며 "빈곤으로 인한 죽음에 대해 국가적 책임과 사회적 관심을 되새기고자 마련하게 됐다" 밝혔다.

토론회는 김윤영 빈곤연대 사무국장의 '박근혜 정부 복지3법, 새정치민주연합의 세모녀법의 비판과 대안' 발제 후, 중앙승가대학교 유승무 교수를 비롯한 빈곤, 사회복지 전문가들의 상호 토론 순서로 이어졌다.



조계종 노동위원회는 6월 11일 송파 세모녀 죽음 100일을 맞아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윤영씨는 "2013년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는 135만명인데 반해 비수급빈곤층은 400만명으로 추정된다"며 "문제는 복지 소외계층 발굴 조사를 했더라도 까다로운 기준으로 상당수가 수급에서 탈락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내놓은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은 기존 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 등 7가지를 통합적으로 지급하던 것을 맞춤형 개별급여로 나눠서 지급하는 것으로써, 최저생계비를 무너뜨리고 책임주체를 각 부처로 떠넘겨 빈곤문제에 대한 국가 책임을 부정하는 개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기초생활보장법의 최저생계비 현실화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근로 강제 조건부수급조항 폐지 등을 주장했다.

이어 이동현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는 복지제 혜택을 받지 못한 빈민들은 기본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 범죄자로 전락하는 현실을 지적하기도 했다.

배현진 기자

〈관련기사 31면〉

첫 개최 조계종 학인염불대회 'HOT'

참가 접수만 296명… 일시 7월 17일로 변경

염불 대중화를 위해 조계종 교육원이 개최하는 제1회 학인염불시연대회에 대한 열기가 뜨겁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은 6월 1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는 7월 1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공연장에서 개최할 시연대회를 하루 늦춘 17일 치루기로 했다고 밝혔다. 본선 장소도 조계사 앞마당 특설무대로 변경됐다.

시연대회의 일정과 장소가 바뀐 이유는 참여 학인의 수가 예상치를 훌쩍 넘었기 때문이다.

시연대회 참가 접수를 한 학인은 개인부 110명(사미 42명, 사미니 68명), 단체부 186명(사미 6팀, 사미니 6팀) 등 총 296명이다.

대회는 7월 17일 당일 예심과 본심으로 나눠 진행된다. 오전 9시부터 진행되는 예심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과 2층 회의실,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 등에서 나눠 열린다.

예심을 통해 선발된 개인부 10명(사미 5명, 사미니 5명)과 단체부 4팀(사미 2팀, 사미니 2팀)은 오후 2시부터 조계사 앞마당 특설무대에서 본심을 치르게 된다. 개인부는 12분간 지정염불과 자유염불을, 단체부는 10분간 시연한다.

염불 수행의 대중화를 위해 열리는 대회인만큼 심사 기준은 창의성과 대중성 등에 주안점을 둘 방침이다. 심사위원장은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맡게 되며, 의례위원 스님과 외부 전문가들이 심사위원으로 인선될 예정이다.

교육부장 정도 스님은 "그간 교육원에서 기본교육기관에 염불교육 지도를 꾸준히 해온 만큼 염불에 대한 학인 스님들의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대회가 염불 대중화 실현의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환경 훼손 지리산 선교사별장 철거하라"

조계종 환경위, 별장 문화재 등록 움직임에 항의

지리산 왕시루봉에 위치한 선교사 별장을 근대문화유산으로 등록하려는 기독교 단체의 시도에 대해 조계종 환경위원회가 건물 철거를 요구하고 나섰다.

조계종 환경위는 6월 11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해당 건축물은 "등록문화재 기준상 역사성과 유산적 가치가 미비하다"며 "지리산 국립공원과 자연유산을 손상시킬 수 있으므로 조속한 철거와 자연생태 원형복원"을 주장했다.

지리산 왕시루봉 위치한
가건물 수준 별장 12채
"문화재 등록 기준 미달"

외국인 선교사들이 한국전쟁 당시 지은 별장은 선교사 휴 린튼이 다시 재건, 현재 집 10채와 교회 1채, 창고 1채 등이 남아 있다. 별장 문화재 등록을 추진하고 있는 지리산기독교선교유적지보존연합 이사장 인요한씨는 휴 린튼씨의 아들이다.

문제는 별장이 지리산 자연을 훼손하고 있는 시설이라는 것이다. 최근에는 불법으로 위성TV와 태양광 집광판을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위는 이에 대해 "생태환경보존을 위해 매우 엄격한 보존 관리가 이루어져야하는 지역에서 무분별하게 자연보존지구를 훼손하고 있다"며 "국립공원으로서의 중요성과 보존을 위해 철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2007년 국립공원관리공단 지리산남부사무소에서는 별장을 위탁관리하고 있는 서울대학교에 철거요청을 했고 학교측에서도 이를 승인한 바 있다.

현재 선교사 별장은 교육부 재산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서울대학교에서 관리하고 있다.

환경위는 별장 문화재 등록과 관련해서도 "목조슬레이트로 지어진 가건물 형식의 별장은 문화재라 하기에 터무니없는 수준"이라며 "문화재 요건 중 어느 것도 충족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현행 등록문화재 주요 등록 기준은 '근대사의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가치가 있는 것', '지역의 역사 · 문화적 배경이 되고 가치가 널리 알려진 것', '기술 발전이나 예술적 사조 등 그 시대를 반영하는 데 가치가 있는 것' 등으로 규정돼 있다.

성명서에서 환경위는 문화재청에 "별장 등록문화재 지정은 우리나라 1호 국립공원 지리산의 자연유산을 손상시킬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신중한 검토와 현명한 결정을 내릴것"을 촉구했다.

앙시루봉 선교사 별장은 이미 2004년에도 문화재 가지정을 신청했으나, 전라남도 문화재위원 최종 심의 결과 '지정 부결' 된 적이 있다.

향후 근대문화재분과에서는 별장 현장방문 후 문화재 등록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배현진 기자 linus@hyunbul.com

한국불교 대각종 창종 선포문

설립 취지문

어언간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 땅에 전해진지 1650여 년, 그 동안 불교는 우리 역사 속에 녹아들어 온 국민의 빛나는 문화를 창조하는 원동력이 되었으며, 온 국민들의 생활 속에서 정신의 바탕이자 지주로 자리매김 했습니다. 석가세존께서 이 세계에 오신 이유는 무명의 어둠에서 헤매는 모든 중생들을 깨우쳐주시기 위함입니다. 지금 전 세계 인류는 탐욕과 고정관념으로 큰 어려움을 맞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친 욕심을 버리고, 자신을 선량하게 제어하도록 가르치신, 부처님의 고귀한 말씀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지금이라도 온 인류를 지배하고 있는, 탐욕과 개인의 고정관념을 버리고, 나보다는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지극히 평범하고도 당연한 도리를 실천할 때, 비로소 이 세상은 환희와 행복이 가득한 이상향이 됩니다.

우리불자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여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 위해, 그리고 세상을 맑게 하는 여의주가 되기 위해, 수행을 늦추지 말고 더욱 정진해야 합니다.

대각은 지금 사회의 팽배한 배금주의와 감각에 의한 향락주의의 문제를 깨닫고,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조금이나마 밝혀, 향락에 눈멀고 물질에 사로잡혀 고정관념과 탐욕을 버리면, 우주가 하나고 진리가 하나이듯, 인류의 마음도 인류의 육신도, 이기심보다 이타심을, 말하기보다 경청을, 향락보다 봉사를, 고집보다 양보를 이행하면, 결국에는 하나임을 천명하고자 합니다. 너와 내가 하나일 때를 부처님께서는 동체대비라고 합니다. 이 동체대비를 몸으로 실천하신분이 우리나라의 원효성사입니다. 왕족의 혼척이면서 서민과 함께 행복을 찾으신 원효성사. 원효성사를 본받아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여 국민의 행복을 추구하려고 대각이란 깃대를 세우기에, 알맞은 대각종을 창종합니다.

대각종은 원효사상을 수행의 모체로 삼고 위로는 석가세존의 교리를 봉행하며 일관된 화쟁사상으로 모두가 일불제자임을 알린 원효성사를 종조로 모십니다.

불기 2558년 5월 20일 제정
불기 2558년 5월 23일 공포 시행

한국불교 대각종 총무원장 무염대각 계수

현행 윤리 · 도덕교과서 '불교 홀대' 심각

14일 불광연구원 세미나서 현직 교사들 지적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가치관을 심어주는 초중고 윤리 · 도덕 교과서에 불교 사상의 비중이 적을 뿐만 아니라 내용도 정리되지 않은 채로 기술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불광연구원과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가 6월 1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초 · 중 · 고 윤리교과서의 불교 서술체재와 내용' 을 주제로 공동개최한 학술연찬회에서는 현직 교사들의 문제점 지적이 이어졌다. 이날 세미나는 초 · 중 · 고 윤리 · 도덕교과서 15종에 나타난 불교 서술체재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개선책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교과서 '유교' 편중 심각

이철주 대전 중원초 교사는 '초등학교 도덕교과서의 불교서술 체재와 내용' 발표를 통해 동양사상 비중이 높아지고 있지만 유교 편중 구성으로 불교 내용이 상대적으로 빈약해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 교사는 또 "불교관련 인물은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하는 부분이 있다"며 "석굴암, 팔만대장경 등 불교문화의 자료들도 그 영향력에 비해 일부만 소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사는 "이 같은 문제들은 교과서 집필진이 대부분 서양 도덕교육을 전공했거나 동양의 경우 유교나 성리학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로 생긴 현상"이라고 분석하며 "따라서 불교관련 전공자들 내지는 불교에 관심 있는 연구자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시급히 요구되며, 더불어 교과서 집필에서 불교관련 전공자들이 참여해야 이와 같은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불교용어 뒤죽박죽… 통일돼야

신희정 경남 진영중 교사는 '중학교 도덕교과서의 불교서술 체재와 내용' 발표를 통해 불교계가 교과서 내 용어 및 내용 정리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교사는 "불교관련 용어와 내용이 교과서 별로 차이가 난다"며 "불교계가 이러한 교과서 내의 불교용어의 통일과 내용의 정확성 검증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신 교사가 예로 든 부분은 불교의 이상사회를 표현한 것으로 한 교과서에는 극락, 불국정토, 미륵세상으로 자세하게 서술하는 반면 다른 교과서에서는 아예 제시하지 않거나, 부처와 석가모니 등 불교의 이상적 인간상만을 제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 교사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불교분야의 질적 심화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며 공평한 서술 비중을 지나치게 고려하다 보니 불교의 경우 유교, 도교, 에피쿠로스학파,



서양종교 · 유교에 비해 '빈약'
제작에 불교학자 참여 필요해

스토아학파, 그리스도교와 같이 동서양 방법 중 하나로 제시돼 학생들에게 혼동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자본주의 극복 불교윤리 담아야

이철훈 경기 상현고 교사는 '고등학교 윤리교과서의 불교서술체재와 내용' 발표에서 "교과서에 자본주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불교 윤리적 지혜가 서술돼야 하며, 이를 위해 불교계 학자들 간의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사는 "심화된 고교 유교 윤리분야 서술과 비교하면 불교는 초기 불교의 연기설, 사성제, 삼법인 등에 머물러 있다"며 "유교는 공자, 맹자, 순자의 사상적 특징을 기본으로 하여, 성리학과 양명학에서 이기론, 심성론, 수양론을 다루고, 퇴계와 율곡으로 이어지는 한국 성리학의 사단칠정론이 당시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까지 전개하지를 기술한 것에 비하면 대조적"이라고 지적했다.

윤리교과서 기술 어떻게 할까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불교계가 학제적 노력을 지속해서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단순히 호교적인 입장에서 비중을 늘려달라고 주장하기 보다는 용어 통일을 시작으로 내용을 정리하고, 우리 윤리사상에서 불교사상의 역할을 조명하는데 힘을 모아야한다는 것이다.

박병기 한국교원대 교수는 "도덕 교육에 불교계가 계정혜 삼학의 구조를 도입할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관심이 이웃종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며 "우리 교육의 현실에서 불교적 관점에서 해답을 제시하는 수준까지 확산돼야 한다"고 말했다.

고병철 한국학중앙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불교윤리학자가 주도하는 교과서가 더 많이 만들어질 수 있는 환경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며 "불교 전공자가 교과서를 집필할 정도로 학계의힘을 키우고 비전공자들에 의해 집필된 내용도 제자리를 잡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文 총리 후보, '종교편향 · 민족비하' 망언

2011년 온누리 교회 강연… "식민 지배는 하나님 뜻"



"위안부 日사과 필요없다" 주장
교계 반발, 총리 후보 철회 전개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사진)가 과거 교회 강연에서 일제의 식민 지배와 남북 분단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발언을 했던 것으로 뒤늦게 드러나 논란을 빚고 있다. 이와 함께 문 후보자는 지난 4월 재직 중인 서울대 강의에서도 "일본으로부터 위안부 문제 사과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말해 위안부 할머니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KBS와 일반 언론들에 따르면 문 후보자는 2011년 용산 온누리교회에서 "하나님께 '왜 이 나라를 일본한테 식민지로 만들었습니까' 라고 항의할 수 있겠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야. '너희들은 이조 500년 허송세월 보낸 민족이다. 너희들은 시련이 필요하다' "라며 "(하나님이) 남북 분단을 만들어 주셨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다. 당시 우리 체질로 봤을 때 한국한테 온전한 독립을 주셨으면 우리는 공산화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했다.

민족성에 대해서는 "조선 민족의 상징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게으른 거야. 게으르고 자립심이 부족하고 남한테 신세지는 거, 이게 우리 민족의 DNA로 남아 있었던 거야"라고 비하기도 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한 문 후보자의 발언과 칼럼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일본이 사과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컷뉴스 등의 보도에 따르면 문 후보자는 지난 4월 강의에서 "우리는 위안부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도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언론인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반일감정에 지나치게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좀 더 객관적인 시각으로 국제적 분위기를 파악하지 못하는 것 같다"는 등의 발언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의 발언은 공직자로서 자질의 의심케 한다는 것이 불교계의 중론이다. 민족의 아픔을 하나님의 뜻이라는 역사관도 문제지만 종교적으로도 편향적 사고가 그대로 드러난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일본 위안부에 대해서도 국가 정책 방향과는 정반대의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

안신권 나눔의 집 소장은 "생존해계신 위안부 할머니들을 욕보이는 것"이라며 "배춘희 할머니가 별세하신지도 얼마 되지도 않아 전해진 문 후보자 발언때문에 할머니들이 공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일본 아베총리가 우리나라 국무총리로 지명된 것과 다름없다"며 "역사의식은 물론 많은 부분에서 실망스러운 인사다. 사회통합을 위해 나서야 할 분이 오히려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대표 퇴휴)는 지명철회 운동을 시작했다. 이를 위해 실천불교전국승가회는 6월 13일 오후 2시 조계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총리 후보의 지명 철회와 대대적인 국정 개혁을 촉구하기도 했다. **신성민 기자**

"진영논리 삼팔선 넘어 해원상생의 길 열자"

화쟁 100일 순례 10일 회향
'대한민국 야단법석' 선언해
"진영 타파, 진실담론 세울 것"
삼화도량, "전시행정" 비판도

"우리는 국민적 아픔인 세월호 문제를 잊지 않고 헛되지 않도록 천일동안 기도하고 순례하는 마음으로 진실을 드러내고 희망을 만드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화쟁코리아 100일 순례가 진영 논리를 벗어나 국민 통합 담론을 생산해낼 대한민국 야단법석으로 확대 · 전환됐다.

화쟁코리아 100일 순례 추진위원회는 6월 10일 조계사에서 '화쟁코리아 100일 순례 회향 및 대한민국 야단법석 시민위원회 선언식' 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세월호 참사 추모 및 좌우희생자 합동위령제도 함께 진행됐다.

무엇보다 이날 가장 눈길을 끈 것은 '대한민국 야단법석 시민위원회' 선언이다. 화쟁코리아 100일 순례를 통해 확인된 갈등과 반목을 넘어서기 위해 만들어진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이날 참가자들은 선언문을 통해 "내 편만 옳다고 주장하는 양극단은 진실일 수 없다. 한쪽에서 치우친 극단을 벗어나야 한다"면서 "이제는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진실의 길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세월호 참사 오늘의 슬픔과 아픔을 잊지 않도록 하겠다. 철저하게 진실을 밝혀서 이를 토대로 안전한 사회, 생명이 우선인 사회로 전환될 수 있도록 국민적 노력을 지속해 가겠다"면서 "온 국민이 상주된 심정으로 천일기도, 천일 순례를 하는 마음으로 천신인 민심을 형성할 '대한민국 야단법석' 을 펼쳐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앞으로 활동 방향에 대해서는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고 희망을 만들어 갈 것 △진영의 벽을 허물고 온 국민이 다정한 이웃으로 함께 사는 길을 열어갈 것 △진실 화해, 화쟁 회통, 국민 통합의 담론을 생산할 대한민국 야단법석을 지속적으로 개최할 것 등을 밝혔다.

하지만, 뚜렷한 성과와 대중적 공감대가 없는 100일 순례를 1000일 야단법석으로 전환하는데 대한 지적도 나왔다.

조계종 중앙종회 종책모임 삼화도량(대표 영담)은 6월 11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24시간 생명평화의 염원이 꺼지지 않도록 하겠다며 거창하게 시작한 '생명평화 1000일 정진' 도 텅 빈 채 조계사 입구에 방치됐다"면서 "화쟁코리아 100일 순례 역시 내용없이 겉치레에만 신경 쓰는 '전시성 졸속 행사' 로 전락한 것이 아닌가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속빈 강정' 식의 전시성 사업에 연연할 게 아니라 진정성 있는 자세로 종도와 국민들에게 공감을 얻으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화쟁코리아 100일 순례 추진위원회는 6월 10일 조계사에서 '화쟁코리아 100일 순례 회향 및 대한민국 야단법석 시민위원회 선언식' 을 개최했다. 사진은 순례단이 입장하고 있는 모습. **사진= 박재완 기자**

"밀양 송전탑은 국민 무시하는 폭거"

조계종 환경위 등 긴급 성명서 발표

밀양 송전탑 문제가 극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데 대해 조계종이 무자비한 공권력 집행을 규탄하고 나섰다.

조계종 환경위원회(위원장 장명)와 자성과쇄신결사추진본부(본부장 도법)는 6월 10일 밀양 송전탑 행정대집행을 중단하고 정부와 한전 측에 즉각 주민과 대화에 응할것을 주장했다.

환경위는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일방적 공권력 투입을 두고 "합리적 해결방안을 도모해 온 국민들의 노력을 무시하는 폭거"라고 단언한 후 "그동안 밀양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종교계와 정치계, 시민사회 등이 밀양 주민에 대해 보인 지지와 응원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자성과쇄신결사추진본부 역시 고압적인 공권력 투입에 대해 "불행한 결과가 불보듯 뻔한 일"을 정부와 한전이 자초했다는 입장이다.

결사본부 측은 "세월호 참사로 온 국민이 비통함에 젖어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사회적 불행이 발생한다면 공동체에 절망은 더욱 깊어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밀양 주민들이 정부와 대화를 원하고 정치 · 종교계에 중재를 호소하고 있는 만큼 공권력 투입을 멈추고 대화장 마련에 적극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배현진 기자**

[사단법인 등록번호 234121-0001373]

사단법인 대원불교 조계종 종도모집



석가여래부촉법 제 77세
청봉 석정산 대종사





◈ 입 종 안 내 ◈

1) 입종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 **총본산 :** 경남 양산시 주진동 656번지 불광사 총무원장(직)
010-3565-2462 혜오 원장 스님
총무원 070-4187-4747
종정예경실 055)364-4747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승려증 (법사증, 포교사)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간부스님에 한함)

※ 계좌번호 : 농협 351-0227-1551-63
예금주 : (사) 대원불교 조계종

종 정 청봉 석정산 (종정실 예경실장 : 석무량 / 종정실 사서실장 : 석보각 / 종정실 의전실장 황정재)
대한불교종단총연합회 회장 · 동아매일신문사 사장

원로회
고 문 석홍섭
원로회장 석무공
부 회 장 석무겸

승정원
승정원장 석원정

중앙종회
종회의장 석덕오
부 의 장 석월오

호법원
호법원장 석원명

감찰원
감찰원장 석만오

사정원
사정원장 석법경

총무원
총무원장 석혜오
총무부장 석윤오
재무부장 석법담
정보부장 석보각
행사부장 석지혜
사무총장 석초오
부 원 장 석용암
교무부장 석성오
사회부장 석혜주
동원부장 석법원
의전부장 석근홍

호계원
호계원장 석지원

문화원
문화원장 석설산

감사원
감사원장 석지명
부 원 장 석법호

포교원
포교원장 석혜광

기획원
기획원장 석우암
부 원 장 석법승

교육원
교육원장 석보행
부 원 장 석대명
강원원장 석법오

교구종무원
구미종무원장 석혜광
전북종무원장 석설산
마산종무원장 석법경
전남종무원장 석법진
진주종무원장 석덕오

총본산 인터넷 주소 : www.dwbk.net

– 부 고 –
대원불교조계종 총무원장 혜오(김봉규)스님 모친상
▶ 상 주 : 김봉규(혜오스님)
▶ 고 인 : 박순석
▶ 빈 소 : 부산 주례 보훈병원 장례식장 2층 205호실
▶ 발 인 : 6월 13일 오전 6시
▶ 문 의 : 010-3565-2462
*천도재는 매주 화요일마다 진행하며 막재는 양력 7월 29일 회향합니다.

직지인심 견성성불을 체득하고 대승사상 지장보살행을 용으로 하며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종지로 삼고 있는
(사)대원불교 조계종 총본산 불광사에서는 부처님의 불법을 함께 펼쳐 나갈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만약 본 총무원을 사칭하며 금품, 또는
물품 판매를 강요하는 자가 있으면 즉시 총무원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일 주 문



월주 스님 비구니회 기금 전달

조계종 원로 월주 스님은 6월 3일 전국비구니회에 비구니회관 운영기금으로 3000만원을 전달했다.



제15회 호국영령천도법회

군종특별교구장 정우 스님은 6월 22일 10시 용산 전쟁기념관 광장에서 '제15회 호국영령천도법회'를 진행한다.



반결제 산행 및 공승법회

예산 수덕사 주지 지운 스님은 6월 24일 하안거 반결제 산행 및 공승법회를 개최한다. (041)330-7700



월정사 8각 9층탑 탑돌이법회

평창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은 6월 14일 월정사 팔각구층석탑 탑돌이 법회를 개최했다.



동국대 경주캠 발전기금 전달

의성 고운사 주지 호성 스님은 6월 10일 동국대 경주캠퍼스에 발전기금으로 1000만원을 기부했다.

제23회 행원문화상 수상자 공모



주영운 행원문화재단 이사장〈사진〉은 6월 30일까지 제23회 행원문화상 수상자를 공모한다.

시상부문은 학술상과 예술상 2개 분야다. 학술상은 불교와 불교학 발전에 뛰어난 학술연구저서를 출간한 이나, 최근 2년 이내 출간한 학술연구저서를 대상으로 한다.

예술상은 불교사상을 토대로 한 예술(음악 · 미술 · 연극 · 무용) 분야에서 업적을 이룬 이로 최근 2년 이내 작품을 대상으로 한다. 상금은 각 500만원이 수여되며 수상자 발표는 8월 중순 시상은 9월 24일 진행된다. (02)586-6521 노덕현 기자

화촉

김규보 법보신문 기자

김규보 법보신문 기자는 6월 22일 오후 1시 40분 서울 더컨벤션 교통회관 1층 그랜드볼룸에서 신부 강미희 씨와 화촉을 밝힌다. (010)2746-7810

양원준 조계종 사회부 행정관

양원준 조계종 사회부 행정관은 6월 22일 오후 1시 30분 서울 라루체 4층 아이리스홀에서 신부 이명선 씨와 화촉을 밝힌다. (010)3887-9292

"불교학위, 평생교육원서 받으세요"

박경준 동국대 평생교육원장

동국대 평생교육원이 교육부장관이 규정하는 학점은행제 불교학전공 표준교육과정을 신설했다. 이에 불교에 관심 있는 성인 누구나가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불교학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동시에 대학 졸업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박경준 동국대 평생교육원장〈사진〉은 6월 11일 간담회를 갖고 평생교육원 학사학위과정 불교학 전공 개설에 대한 설명과 앞으로의 계획을 전했다.

"동국대 평생교육원은 불교정신의 확산과 포교 및 대학의 지역사회공헌을 위해 2013년 6월 국내 평생교육기관 최초로 학점은행제 불교학 표준교육과정 신설을 서울대를 비롯한 국내 주요 9개 대학의 동의를 받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제안했습니다. 이에 2014년 5월 표준교육과정으로 최종 승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학점은행제 불교학 전공은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불자와 불교에 관심 있는 성인이 현업과 학습을 병행하며 불교학전공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도 있으며, 기존 학사학위소지자들의 경우에는 불교학 전공 48학점 이상을 취득하면 불교학전공 문학사 학위를 받을 수 있다.



국내 최초 불교학 전공 신설

학점은행제 학사학위 취득 가능

학점은행제 학사학위과정 불교학 전공의 신설은 1998년 학점은행제교육이 시작된 이래 그 동안 불교계와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의 숙원사업이었다. 1999년 기독교신학 전공이 신설되고 2004년에는 가톨릭신학 전공이 신설되어 수많은 개신교와 가톨릭 신자들에게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기관에서의 체계적인 신학 공부와 질 높은 신앙생활을 병행하며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만, 불교학 전공은 최근까지도 표준교육과정조차 검토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사실 이웃 종교에 비해 많이 늦었고 여러 이유로 미루어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불교학과 교수인 제가 평생교육원 원장으로 있는 동안은 꼭 이 과제를 이루고 말겠다는 발원으로 강력하게 추진한 끝에 1년 2개월 만에 이루어낸 성과라고 할 수 있죠. 이 과정이 개설되고 앞으로 각 대학에서도 평생교육원 불교학 과정이 신설된다면 불교학 박사학 수료자들에게도 강의의 기대가 확대된다는 점에서도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불교학 전공의 신설을 통해 동국대를 비롯한 전국의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은 불교에 관심이 있는 성인들에게 대학 졸업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으며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불교학을 학습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불교학자의 연구 활성화와 강의 기회의 확대를 가능하게 하였으며, 전국 주요 사찰의 불교교양대학을 학점은행제기관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어, 불교의 발전과 새로운 불교신행문화의 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동국대 평생교육원은 올 12월 수강생을 모집 2015년 3월부터 주 · 야간, 주말반 등으로 나뉘어 본격적인 수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02)2260-3730 정혜숙 기자

수불 스님, 동국대에 발전기금 1억 전달

제2건학기금 · 장학기금 등 총 30억 원 넘게 쾌척

부산 범어사 주지 수불 스님이 동국대에 발전기금 1억 원을 쾌척했다. 수불 스님은 6월 11일 김희옥 동국대 총장에게 중앙도서관 발전을 위해 써 달라며 1억 원을 전달했다.

이번 기부로 수불 스님이 동국대에 전달한 기부금은 30억 원을 넘어섰다. 수불 스님은 그동안 학교 시설 및 환경개선과 불교학 연구, 국제선센터 지원 및 장학기금 등으로 지속적인 기부를 실천해왔다.

수불 스님은 "도서관은 학생들이 학업에 힘쓰며 꿈을 키우고 연구자들의 지적 탐구가 이루어지는 소중한 공간"이라며 "동국대가 한국불교 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새 도약을 위해 추진하는 건학108주년기념관 건립 모금도 원만성취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서 동국대 중앙도서관(관장 계환)은 수불 스님의 기부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중앙도서관 3층 IC ZONE 컨퍼런스룸을 '수불 컨퍼런스룸' 명명해 헌정했으며, 평생 도서대출증도 전달했다.



노덕현 기자

나눔의 집 배춘희 할머니 별세

정부지원금 모아 3000만원 승가대 기부… "불교 귀의 못한 것이 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 배춘희(91) 할머니〈사진〉가 6월 8일 오전 5시 경 노환으로 별세했다. 이로써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 237명 중 생존자는 54명으로 줄었다.

경기 광주 나눔의 집 입소자인 배춘희 할머니는 1923년 경북 성주에서 태어나 19살 때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성노예라는 것을 모르고 정신대에 자원했다. 한국에 돌아온 것은 예순이 훌쩍 넘은 1980년대. 광복 후 한국에 돌아왔지만 적응하지 못하고 일본으로 건너가 엔카 가수 생활을 하다 고국으로 돌아온 것이다.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를 자유롭게 구사하던 배춘희 할머니는 예술가로 불릴 정도로 예술에도 탁월한 재능이 있었다. 나눔의 집에 외국인이 오면 통역을 자처했을 정도다. '생전 불교에 귀의하지 못한 게 한으로 남았다'는 할머니는 정부 지원금을 모아 3000만 원을 중앙승가대에 장학금으로 내놓았을 정도로 불심이 남달랐다.



배춘희 할머니의 장례식은 불교식으로 진행됐다. 10일 나눔의 집에서 노제를 한 후 추모식이 진행됐으며 유골은 합천 해인사에 안치됐다. 광주 나눔의 집에는 현재 9명의 위안부 할머니들이 살고있다. 배현진 기자

영암 대종사 열반 27주기 다례재



봉은사(주지 원학)는 6월 4일 봉은사 법왕루에서 '영암대종사 27주기 다례재'를 봉행했다. 이날 원로회의 의장 밀운 스님은 "오늘날의 봉은사 면모가 2만평의 규모를 가질 수 있던 것은 영암 스님의 큰 원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영암 스님 기일에 봉은사 전신도가 동참해서 추모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례재에는 문도대표 대운 스님, 해인사 원로 도성 스님 등 500여 대중이 참석했다. 원학 스님은 "영암 스님은 공사가 분명하셔서 해인사에 주석하실 때도 심지어 연장도구 하나도 사중용과 개인용을 따로 구분해서 사용하실 정도이셨다"고 추모하면서 스님의 큰 가르침을 본받아 계승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2014년 제12회 대원상 후보 공모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김규칠)에서는 2014년 제12회 대원상 후보를 공모한다.

상금 총액 5,000만원 이내를 수여하는 포교대상은 불교의 현대화에 기여한 스님 및 재가 개인 및 단체 3인(곳) 이내를 시상하며, 상금 총액 4,000만원 이내를 수여하는 콘텐츠대상은 불교 미디어 영상포교 자원 개발과 지원을 위해 불교를 소재로 한 스토리텔링, 다큐멘터리, 드라마, DOCUDRAMA(다큐+드라마) 및 영화, 애니메이션, INFORTAINMENT(정보+오락), 오디오(작곡 등), 미술 · 일러스트레이션 등 관련 분야 작품을 대상으로 시상한다.

서류 제출은 대한불교진흥원 홈페이지(www.kbpf.org)에서 소정양식을 내려받아,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접수 기간은 9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한편, 대원상(大圓賞)은 고(故) 대원 장경호 거사의 뜻에 따라, '세상을 위한 불교'라는 기치 하에 불교를 현대적으로 재조명하고, 21세기 현대사회에 적합한 새로운 포교방법을 창출 · 장려하기 위해 시상하는 상으로 포교대상 · 콘텐츠대상으로 구분하여 시상한다. (02)719-2606, 719-1855 정혜숙 기자

조계사 신중단오재 성료



서울 조계사(주지 원명)는 6월 2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신중단오재를 개최했다. 행정국장 성진 스님 사회로 진행된 이날 단오재에서는 부처님께 올리는 육법공양에 이어 영단 헌다, 소금단지 봉안, 신도 세족식 등이 진행됐다.

노덕현 기자

생전 예수재 기도의 중요성은 무엇인가?

생전 예수재는 살아 있을때 사후(죽은 뒤)를 위하여 공덕을 쌓아서 지옥고를 받지 않고, 극락왕생하도록 법의 공덕을 저축하는 의식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생전예수재가 사후의 극락도 보장하지만, 살아있을때, 전생의 빚을 갚는 의식을 겸한 재로써, 이 재를 지내면 그시점부터, 단계적으로 빚을 갚아 나가게 되므로 살아있는 동안에 빚을 갚은 만큼, 그 복을 받을 수 있다는데 있습니다.

이것은 이 기도로써 업장소멸이 거의다, 이루어 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전생의 빚을, 단계적으로 갚아 나갈 수 있는 생전예수재 기도 방법과 방편을 마련하였습니다. (사진과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성스러운 방편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이 방법으로 이제 생전예수재 기도를,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쉽고, 간편하게, 또한 저렴한 비용으로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불자님들께 드릴 생전예수재 기도의 중요성 책자가 준비되어 있으므로 전화 주시면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기도신청방법

생전예수재 기도 책자를 받으셔서 읽어보시고, 본회를 방문하시거나 전화로 기도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생전예수재 기도의 성취효과는 매우 크며, 자신의 간절한 소원을 써넣고, 기도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불자님들께서 다른 좋은 기도도 많이 있지만, 이번에 한번 해 보실 만한 기도로써, 생전예수재 기도를 권해드립니다. 그동한 살아왔던 삶이 괴로우셨다면 이 기도를 시작해 보십시요.

상담문의 및 책 자 신 청 성지관음회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성지빌딩)





조계종 의례위원회는 한글의례문 〈천수경〉과 〈표준한글독송집〉 CD를 발간했다. 사진 오른쪽은 〈표준한글독송집〉 CD녹음 작업에 참여하고있는 스님들.

"한글 의례는 신행 혁신의 으뜸 불사"

조계종, 표준 한글 천수경 · 독송 CD 발간…19일 조계사서 봉정식

94년 개혁 이후 경전 한글화 추진
합의 못이뤄 실패… 2008년 본격화
포교원 중심으로 한글 의례 추진
반야심경 · 칠정례 등 성과 이어져
불자들 한글로 법회 · 의례 진행해야

대한불교 조계종(총무원장 자승)과 의례위원회(위원장 인묵)가 지난해 12월 표준의례로 공포한 한글의례문 〈천수경〉이 한글반야심경과 칠정례와 함께 책과 CD로 제작돼 전국 사찰 및 타종단 사찰에 보급된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원)은 "1994년 개혁종단 출범 이후 포교원이 주축이 돼 법요집 한글화를 진행해 온 결과 지난 5월 표준한글독송집 CD제작을 완성했다"며 "이제 각종 법회 현장에서 가장 많이 봉독되는 반야심경과 칠정례, 그리고 천수경이 보급됨으로써 음곡의 통일을 이루어 한국의 불자들이 한글로 법회와 의례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에 발간된 〈한글 천수경〉에는 불자들이 가장 많이 독송하는 경전인 〈천수경〉과 함께 〈칠정례〉 〈반야심경〉이 담겨 있다. 〈반야심경〉의 경우 2011년 공표돼 현재 상용화 단계를 거치고 있다. 함께 제작된 CD 〈표준한글독송집〉에는 중앙종회 동의를 거쳐 공포된 한글반야심경, 한글 칠정례, 헌다게, 오분향게, 천수경이 실렸다.

포교원장 지원 스님은 "그 동안 여러 차례 법요집 한글화가 진행됐지만 종단적 합의를 이루지 못해 미완성으로 그치고 말았다. 한글 운곡이 확정되지 않아 대중적 보급의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제 의례를 통한 포교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 한국불교 신행혁신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조계종은 6월 19일 오전 11시 조계사 대웅전에서 '표준 한글 천수경 및 독송 CD 봉정식' 을 거행한다. 행사에는 총무원장 자승 스님, 포교원장 지원 스님, 교육원장 현응 스님, 의례위원장 인묵 스님을 비롯한 주요 사찰 스님과 포교 · 신도단체가 참석할 예정이다. 행사는 △봉정 고불문 낭독 △봉정사 및 법어 △한글천수경 시연 △공로패 전달 순으로 진행된다.

불교 입문서로서 사상적 측면에서 가장 널리 읽히는 것이 〈반야심경〉이라면, 신앙적 측면에서 가장 중시되어 독송되고 있는 것이 〈천수경〉이다.

오늘날 천수경은 도량을 청량하게 엄정하고 삼매를 닦거나 염불 및 법회, 각종 불공 등의 사전 참회, 발원 작법 등에 두루 사용되고 있다. 암송하기에 분량도 적당하고 운곡도 휼륭하며 각종의례에 등장한다.

〈천수천안관자재보살광대원만무애대비심대다라니경〉의 준말인 천수경은 천개의 손과 눈을 가진 관세음보살의 대자대비심으로 중생이 어려움을 해결하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나라 때 가범달마(伽梵達磨)가 번역했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천수경은 의식을 하기 위해 근간에 편집된 것이다. 이러한 천수다라니계 경전은 〈염불작법〉(1575)과 〈삼문직지〉(1769), 〈고왕관세음천수다라니경〉(1881), 〈불경요집〉(1925), 〈조석송주〉(1932), 〈석문의 범〉(1935), 〈행자수지〉(1969) 등을 거치면서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됐다. 즉 〈천수경〉은 20세기 근세에 이르러 〈조석송주〉 의식을 합편한 종합적인 송주의식집으로 정립됐던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현행 〈천수경〉과 〈한글 천수경〉은 우리나라에서만 진행되고 있는 한국화된 불교신행의 핵심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천수경〉을 비롯한 불교 의례문에는 부처님과 역대 조사들의 주옥같은 가르침이 담겨 있지만, 그 내용이 한문으로 전달돼 한글세대인 현대인들이 듣고 이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 같은 이유로 조계종에서는 여러 차례 법요집 한글화를 진행해왔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해 미완성으로 그쳤고, 여러 사찰에서 천수경을 한글로 번역해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

조계종은 종단개혁이 일어난 1994년 통일법요집 편찬을 주요 종책사업으로 상정하고, 포교원이 중심이 돼 1995년 3월 통일법요집 편찬 사업을 시작했다. 첫 법요집은 2003년 1월에 발간됐으나, 발간 동시에 수정의견이 제시됐다. 2003년 10월 편찬위원회가 발족돼 〈한글법요집〉 개정판 작업에 들어갔고 2006년 한글통일법요집이 완성됐다. 이후 2008년 1월 편찬위원회가 다시 구성되면서 〈한글 천수경〉도 재검토 됐다. 포교원 포교연구실이 중심이 돼 진행되던 한글의례의식은 의례법제정 이후 의례위원회로 통합됐다. 기존에 편찬위원회에 활동하던 연구위원들은 의례실무위원회 편입돼 활동을 이어갔다.

위원회는 △의례분야 △음악분야 △문학분야로 나뉘어 해당분야의 전문위원들을 중심으로 한글화의 원칙을 정하고 원본에 대한 검토, 문맥의 간결성과 문학성, 음곡의 다양성, 의례의식 절차의 적절성 등을 점검하며 한글화 연구를 진행했다.

위원회가 천수경 및 한문 의례를 한글로 번역하면서 세운 원칙은 △가능한 쉬운 우리말로 한다 △부처님 말씀, 경에 부합되게 한다 △의식에 부합하도록 가사와 음악의례의 종합을 추구한다 △오역은 무조건 수정한다 △시방, 보시, 도량 등 이미 굳어진 어휘들은 관용하는 음대로 적는다 등이다.

의례위원회가 결정한 〈한글 천수경〉은 가능한 우리말을 사용하고, 원뜻과 맥락을 고려해 3음보와 4음보 율격을 쓰면서 간혹 2음보도 넣어서 자유롭게 했다. 염불호흡도 고려해 445조 4444조, 344조도 포함시켰다.

이런 과정을 거쳐 완성된 한글 천수경은 17차의 회의를 거쳐 2013년 12월 16일 최종 확정됐으며, 12월 19일 총무원 종무회의에서 공포를 결의하고 〈한글 천수경〉을 공포했다. 위원회와 포교원은 2014년 5월 한글 천수경을 〈표준한글독송집〉CD로 제작했다.

포교원은 헌다게와 오분향게, 칠정례는 독송(비구, 비구니)과 합송으로 나누어 제작했다. 반야심경, 천수경 독송은 화암 스님(의례위원회 위원)과 금강 스님, 합송은 어산작법학교 스님들과 전승원 스님들이 참여했으며, 합송은 법안 스님(의례실무위원회 위원)과 염불교수아사리 스님 등이 참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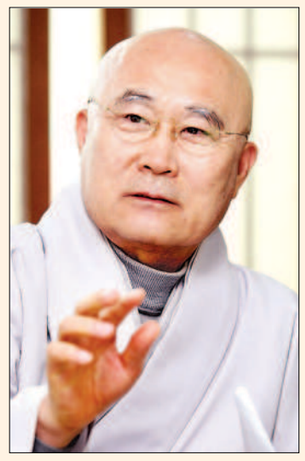
이나은 기자



1994년 종단개혁이 일어나면서 불교의례의식 한글화 작업이 본격 추진됐고, 포교원은 그간 〈통일법요집〉과 〈한글법요집〉 등을 편찬했다.

"한글의례 상용화에 동참하자"

조계종 포교원장 지원 스님



포교원장 지원 스님〈사진〉은 이번 한글 의례문 〈천수경〉과 CD 발간에 대해 "종단 차원에서 의례위원회를 구성하기 전에 포교원에서 일상 의식이나 천도다비의식을 한글화해 줄곧 진행해 왔지만, 종단적 합의를 얻지 못해 한글 의례가 널리 확산되지 못했다"며 "수 차례에 걸친 공청회와 회의를 거쳐 이제야 천수경이 공포되고 CD로 제작돼 감개무량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지원 스님은 한글 의례가 대중화되려면 결국엔 사찰과 스님들의 관심이 필요하다며 "각 사찰 스님들이 앞장서서 한글의례로 조석예불과 법회는 물론 각종의례의식을 진행해야 하고 신도들도 한글의례를 일상화 하는데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원 스님은 "한문으로 된 경전이나 천수경을 100독 1000독 해도 그 의미를 모르고 읽으면 아상만 쌓일 뿐이다. 경전의 뜻을 알고 그것이 아름다운 음곡을 타고 전해질 때 감동과 감화가 밀려온다"고 말했다.

또한 지원 스님은 "앞으로 어린이 ·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글 의례를 상용화 할 수 있도록 보급하고, 불자들이 아침 저녁으로 하는 예불과 사시불공 및 상장례문도 한글화해 보급할 계획"이라며 "한글 천수경을 비롯한 한글 의례가 신행 현장에 스며들어 부처님의 가피를 입고 '평화로운 나, 행복한 세상' 을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불교 생활의례문 한글화에도 주력"

조계종 의례위원장 인묵 스님



의례위원장 인묵 스님〈사진〉은 2011년 의례위원장을 맡아 반야심경, 칠정례에 이어 최근 천수경까지 한글화를 이뤘다.

인묵 스님은 "그동안 포교원 주관아래 통일법요집이 편찬되긴 했지만 수년간 논의를 거쳐 불교의례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사찰과 불자들이 좀 더 관심을 갖고 일상에서 한글 의례문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글 천수경이 공포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인묵 스님은 "단어 하나 선택하는 데도 의례위원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 의견을 모으기가 쉽지 않았다"며 "함축적인 표현을 다른 말로 표현하거나 좀 더 좋은 뜻으로 고르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스님은 "1700년 한국불교역사 동안 한문 의례가 고착화돼 있는 상황에서 이제 시작한 의례 한글화 작업을 완벽하게 한다는 것은 욕심"이라며 "한글화 작업을 시도했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앞으로 불공 및 상장례문 등 불교 생활의례문 한글화 보급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나은 기자

관세음보살님께서 대한민국 서울에 대자대비의 그늘을 드리우시다!!

관세음보살님께서 머무시는 사바세계의 주처,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로 소원을 이루는 영험한 기도도량 – 현지사 서울분원





불정심관세음보살모다라니 10만독으로 소원을 성취하다

2012년에는 아들딸이 좋은 배필 만나기를 발원하면서 '불정심관세음보살모다라니' 를 10만독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하다 보니 10만독까지 7개월이 걸렸습니다. 10만독을 다 마치고 난 어느 날, 아들에게서 급박한 전화가 왔습니다. 퇴근 후 귀가하다가 차가 터널 벽을 들이박아 두 바퀴를 돌아버린 대형 전복사고가 났는데 지금 용인병원에 있다는 겁니다. SM5 승용차는 종이짝처럼 구겨져 폐차했습니다만 아들은 기적처럼 전혀 다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발원했던 바대로 아들 딸은 모두 마음에 들어하는 배필을 만났습니다. 우리 집의 어려운 사정을 알고 며느리가 될 새색시가 뜻밖에도 좋은 집을 마련해왔습니다. 딸도 인턴 수련의와 곧 결혼하게 됩니다. 부모로서 자녀의 결혼에 대해 걱정을 놓게 되어 얼마나 마음이 가벼운지 모릅니다. 관세음보살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가피이야기 ①' 중에서 – 경기도 안양시 최안나

관세음보살님 기도 및 공부법

〈관세음보살보문품〉을 1독하고 '불정심관세음보살모다라니' 를 3,5,7회 독송하고 참회발원하고 '관세음보살' 칭명염불을 합니다

서울분원 관음재일 안내 ; 매월 음력 24일 오전 10시 30분
현지사 재일 안내 ; 음력 1일, 15일, 23일, 25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11길 18 (혜민병원 뒤) 02-453-5953

불자 여러분들에게 정법과 사법(邪法)의 여섯 가지 구별기준을 제시합니다!!

"삿된 외도의 길을 가는 사람은 대지의 흙과 같이 많고, 정법을 만나 수행하는 사람은 손톱 위의 흙과 같이 적다!"

「잡아함경」

정법교단은 ①청정계율을 엄격하게 지키고 ②부처님의 실존을 믿으며 ③지옥 · 극락 등의 사후세계가 확실히 있음을 가르치고 ④영혼체가 윤회주체임을 설하며 ⑤금강경 등 경전을 중시하고 칭명염불을 정통수행법으로 채택하며 ⑥부모 · 조상님에 대한 효행, 스승 공경과 나라 사랑, 이타의 보살행을 핵심 수행덕목으로 삼고 실천하는 교단입니다.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영서로 4892-23 현지사 춘천본사 033)243-1787 이메일 hyunjigung@hanmail.net, 현지사 홈페이지 http://hyonjisa.com

“품위있는 노년으로 살자”

한마음과학원, 어르신 마음공부 ‘행복한 사계절’ 운영

노년을 위한 마음공부 프로그램이 마련돼 눈길을 끈다.

한마음과학원(원장 혜수)은 6월 7일부터 7월 26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한마음과학원 국제회의실에서 ‘행복한 사계절’ 을 진행한다.

‘행복한 사계절’ 은 한마음과학원과 조계종 포교원이 노인을 위한 명상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마음공부 프로그램으로 65세 이상 남녀어르신을 대상으로 한다.

프로그램은 △사바의 인연-소중한 만남 △감사하기-그대 행복을 주는 사람 △내 인생의 보물찾기 △미워도 다시 한번-용서와 화해 △내가 살던 고향은-동심을 찾아 △당신은 모르실거야, 내 마음! △타임머신-소원을 말해보세요 △마음 꽃을 피워요-변화하는 나 등으로 구성된다.

프로그램을 통해 어르신들은 매회 명상을 하고 내면을 알아차리는 마음의 힘을 증장시켜 가족, 친지 등 타인에 대한 공감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어르신들은 교육시간 동안 음악, 율동, 미술, 조활동 등 다양한 방법을 배우고 활용할 예정이며, 매주 변화하는 자신을 위해 실천하고 싶은 것을 정해 일상에서 체험할 계획이다.

한마음과학원은 “이번 프로그램은 어르신들이 실제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실천과제를 지도하고 음악명상, 노래와 합창 등을 실시해 품위있는 노년을 위한 교육이 되도록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한마음과학원은 6월 7일 한마음과학원 국제회의실에서 ‘행복한 사계절’ 입재식을 가졌다.

이날 입재식에는 한마음선원 주지 혜원스님, 혜수 스님, 조계종 포교원 포교연구실장 법상 스님, 포교연구실 사무국장 혜안 스님을 비롯해 어르신 36명이 참석했다.

이나은 기자



한마음과학원은 6월 7일부터 7월 26일까지 어르신을 위한 마음공부프로그램 ‘행복한 사계절’ 을 진행한다. 7일 입재식에는 36명의 어르신이 참가했다.

북한산 절경 아래 맛보는 사찰음식의 진수

(사)문화나눔, 6월 22일 외국인 대상 한국문화체험행사 개최

한국 산하의 빼어난 아름다움과 정갈한 사찰음식의 진수를 외국인들에게 소개하는 행사가 열린다.

사단법인 문화나눔(이사장 권영구)은 6월 22일 외국인을 대상으로 북한산 둘레길 트레킹과 진관사 사찰음식 체험행사를 개최한다.

조계종 국제포교사회(회장 권영구)의 부설법인인 문화나눔이 지난 4월 설립된 후 갖는 이번 첫 행사는 오후 1시에 지하철 6호선 독바위역에서 시작해 둘레길 트레킹을 마친 후 진관사에서 사찰음식 체험으로 이어진다.

북한산 둘레길은 서울의 대표적인 관광명소인 북한산 국립공원을 둘러볼 수 있는 트레킹 코스로, 편안하고 아늑한 산책길은 외국인들에게 인기가 높다. 진관사는 조선 건국 초부터 국행수륙대재를 봉행했을 정도로 사찰음식의 명소로 유래가 깊은 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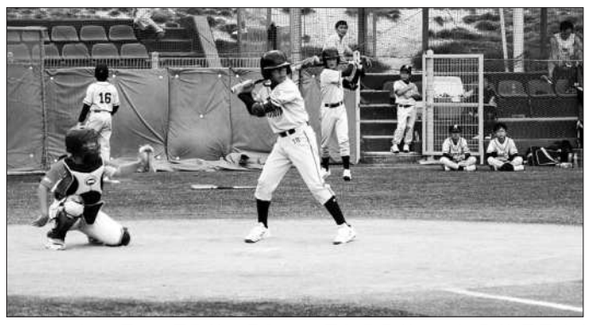
사단법인 문화나눔의 권영구 이사장은 “외국인들에게 한국자연의 아름다움과 사찰음식을 직접 체험하게 하는 행사를 통해 한국문화의 저변에 깃든 우수성과 전통의 아름다움을 알릴 계획”이라며 “이번 첫 행사를 통해 정기적인 외국인 체험 프로그램으로 정착시켜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사단법인 문화나눔은 조계종 국제포교사회 부설법인으로 한국문화의 우수성과 전통사상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창립된 비영리 문화법인이다. 권 이사장은 “앞으로 차별화된 문화상품을 통해 세계 속의 문화강국으로서 한국전통문화를 알리는 데 앞장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나은 기자

스포츠로 사찰에 활력 불어 넣는다

축구 · 야구로 스포츠 포교하는 사찰들





사찰에서는 야구 · 축구단을 조직해 불자들의 건강을 다지는 것은 물론 신심을 증장시키고 화합을 도모하고 있다. 사진은 석왕사 룸비니 어린이 야구단과 신흥사 아마추어 축구단인 ‘설호 축구단’.

불암사… 사회인 야구 리그 참여

신흥사… 지역 축구대회 꾸준히 출전

석왕사… 야구 꿈나무 육성 주력

“누구나 즐기는 스포츠로 방문객 늘어”

스포츠는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게임이며 놀이다. 그래서인지 스포츠만큼 구심력이 강한 문화컨텐츠도 없다. 4년마다 한번씩 지구촌을 달구는 월드컵이나 올림픽 열기를 보면 이를 알 수 있다. 특히 스포츠는 남성들에게 있어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즐기고 함께 땀을 흘리며 우의를 다질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다. 더욱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요즈음, 스포츠를 통해 건강한 여가를 보내려는 이들도 더욱 증가하는 추세다.

이런 가운데 몇몇 사찰들이 야구단 · 축구단을 만들어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경기도 남양주 불암사(회주 일면)는 2011년 ‘불암사 불일야구단’ 을 창립해 신도들의 신심 증장은 물론 친목 도모와 종교 화합에 앞장서고 있다.

20세 이상 남성으로 구성된 불암사 야구단에는 현재 50여명의 단원들이 함께하고 있다. 이들은 사회인 야구리그인 남양주리그 화이트 조에 속해 본격적인 경기를 펼쳐오고 있으며, 창단 첫해에 4강에 오르는 등 좋은 성적을 거두기도 했다.

특히 불암사 야구단은 종교간 친선도모와 화합을 목적으로 2013년 10월과 올해 3월 ‘불자친선야구경기대회’ 를 열었다. 2회째 열린 올해 경기에는 울산 월봉사 샤프니스야구단, 진각종 JGO 포티세브너스 야구단, 원불교 강남교당 원티드 야구단 등 모두 4개 팀이 출전해 친목을 다졌다.

일면 스님은 “불자들의 건강을 다지고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현재 불일야구단 감독을 맡은 최정기 감독(전 LG프로야구 선수), 불암사 신도들과 창단했다”며 “야구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사회에 전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는데 2회째 사회야구단과 친선경기를 하는 등 좋은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속초 신흥사(주지 우송)는 사찰을 찾는 불자들 가운데 남성이 여성에 비해 확연히 부족하다는 점에 주목하고 거사들의 발걸음을 사찰로 이끌기 위해 2010년 아마추어 축구단인 ‘설호 축구단’ 을 창단했다.

축구를 좋아하는 40세 이하 청년층 25명과 장년층 28명 등 재가 불자들이 주축이 돼 출범한 설호축구단은 실업축구팀 선수 출신의 불자를 감독으로 영입하고, 매주 토요일마다 지역 내 잔디구장을 임대해 훈련하고 있다. 지속적인 연습을 통해 조직력을 강화한 설호 축구단은 2010년 포교원장배 축구대회에서는 우승을, 만해축전 축구대회에서도 준우승을 차지하는 등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 이 밖에 강원도 지역과 불교계의 크고 작은 아마추어 경기에 꾸준히 출전해 팀워크를 다져왔다.

신흥사의 관심과 지원은 축구단 선수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 신흥사는 축구단 운영을 위해 30여 명으로 구성된 후원회를 조직해 연간 35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 운영하고 있으며 선수들의 유니폼과 축구화 등 축구용품도 후원하고 있다.

신흥사 주지 우송 스님은 “이 밖에 신흥사는 어린이법회에서 체육교실과 축구교실을 운영하면서 불자들이 많은 관심을 갖게 됐다. 스포츠는 지역 사찰의 포교 역량을 확대하는 새로운 방안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천 석왕사(주지 영담)은 2013년 ‘룸비니 어린이야구단’ 을 창단하고 어린이 포교와 야구꿈나무 육성에 주력하고 있다.

석왕사가 룸비니 어린이야구단을 창단한 것은 어린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라나도록 지원하고 지역사회 유소년 야구 저변 확대에 기여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석왕사는 야구단 운영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으며, 학부모들의 자율적인 참여로 야구단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 또한 신종철 경기도의원이 단장을 맡아 지역 유소년 야구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프로야구 MBC 청룡 선수 출신인 최정기씨가 감독을 맡아 야구단을 지도하고 있다.

최자운 석왕사 사무국장은 “야구는 여타 스포츠에 비해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야구를 중도에 포기하는 아이들이 있다”며 “룸비니 야구단은 야구선수로서의 꿈을 가진 아이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야구를 계속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런 활동들이 잠재적인 불자를 양성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지역 사찰 및 불교단체에서 스포츠 동호회를 조직해 활발한 활동을 해나가고 있다. **평창 월정사**는 국내 불교계에서는 처음으로 불자들로 구성된 사회인 야구단인 ‘만월(滿月) 야구단’ 을 창단해 지역화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울산 월봉사**(주지 오심)는 올해 초 ‘월봉사 샤프니스 야구단’ 을 창단해 23명의 선수들이 매주 일요일 연습을 하면서 지역 아마추어 야구단과 교류경기를 해오고 있으며, 30~50대 월봉사 신도 30여명으로 구성된 축구단도 창단해 스포츠 포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밖에 **진각종** 포티세브너스 야구단은 2009년 결성돼 불교 포교와 친선도모에 주력하고 있다.

불교계에 몸담고 있는 사회인들이 모여 2011년 창단한 축구회인 **FC붓다**는 불교계 업체, NGO, 언론매체, 신행단체 등에서 종사하고 있는 불자들로 구성돼 월 2회 이상의 자체 경기와 친선 경기를 치르며, 각종 아마추어 대회에도 참가하고 있다. 이밖에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축구모임 **사자후**, **봉은사 · 불광사 연합팀**도 축구를 통해 친목을 도모하고 있다.

이처럼 스포츠 동아리를 운영하는 사찰들은 불교포교에 있어 긍정적인 효과를 얻고 있다.

최상균 불암사 신도회장은 “불암사 야구단을 창단한 후부터 남성분들이 관심을 갖고 불암사를 찾아오는 경우가 많아졌다. 야구는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기 때문에 친구, 연인, 가족들도 덩달아 사찰을 찾아오기 때문에 야구단 창단이 불교를 알리는데 도움이 된다고 말할 수 있다”며 “이런 긍정적 효과를 계기로 불암사는 리틀 야구단 창단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종교와 인문학의 만남으로 오세요

화쟁아카데미 · 시민행성, 6월 여름 정기 강좌 개강

불교지식의 인문화를 추구하는 화쟁아카데미와 실천적 인문공동체 시민행성이 ‘같은 크기의 창을 들고, 대화’ 를 주제로 여름학기 정기 강좌를 시작한다.

이번 강좌엔 조성택, 김진호, 이형대, 진태원, 이원 등 종교계와 인문학계 등에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는 학자, 문학가들이 대거 참여한다.

강좌는 △종교 △고전 · 인문학 △예술을 테마로 총 8개의 강좌가 진행된다. 종교 분야에는 조성택 고려대 교수가 우리 시대 불교의 선 자리와 갈 길을 새롭게 가늠해보는 ‘21세기 한국불교를 위한 교판’ 을, 김진호 제3시대 그리스도교연구소 실장이 바울의 재해석을 통해 오늘날의 기독교가 어떻게 현실의 문제에 응답해야 하는가를 다룬 ‘리부팅 바울 – 권리 없는 자들의 신학을 위하여’ 를 6차례에 걸쳐 강의한다.

고전 · 인문학 분야에는 박수밀 한양대 교수가 ‘세계의 중심에서 새로운 세계를 구상하다, 최고의 고전 〈열하일기〉’ 를, 이형대 고려대 교수 등이 ‘세상의 바깥에서 연대하라, 고전시대의 아웃사이더들’ 강좌를 진행한다. 이밖에 진태원 고려대 교수가 ‘자크 랑시에르의 민주주의론’ 을, 최호근 고려대교수 등이 ‘인문학, 도래할 시민법을 상상하다’ 를 8차례에 걸쳐 강의한다.

예술분야에는 〈불가능한 종이의 역사〉의 시집을 펴낸 이원 시인이 ‘내 마음 만들기 프로젝트 – 심장이 뛴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와 ‘부모 스쿨 – 캥거루 버스’ 강좌를 각각 6차례에 걸쳐 강의한다.

이나은 기자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87기 佛教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 (1 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4년 6월 30일 까지

◆ 개강일시 : 2014년 7월 1일 (화요일) 개강. 매주 (화, 금)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명리학 과정 (임성도 교수)

① 명리학 : 초급, 중급, 고급 (각과정 3개월) 2시 반 ~ 4시

② 성명학 : 초급, 상급 (각 3개월) 1시 ~ 2시 반

▶ 개강일시 : 2014년 7월 7일 (매주 월) ◀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CCTV 설치 종합 안내서 무료발송

현재 사용중인 법당 앰프에, 스피커의 교체만으로도 장엄한 소리를 책임집니다.

마이크에서 소리크기를 직접 조절하는 주지스님 전용 고성능 구즈넥마이크를 먼저 사용 해 보신 후 구입하십시오!!

● yk-308 표준 법당앰프 씨리즈
전국일절 설치비 : 1,800,000원



◇앰프 구성 :
· 스테레오 앰프 300왓트 1대 · 최고급 법당 전용 스피커 1셋트
· 소형 믹서 5채널 1대 · YD-675 핸드 마이크 1대
· 탁상형 구즈넥마이크 1대 · 무선 핀 마이크 +헤드셋 1셋트
· 사회자용 마이크 스탠드 1대 · 고급 앰프케이스 1개
· CD기기 1대

● 법당전용 스피커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 다이나믹 마이크
V-620 : 65,000원
YD-675 : 115,000원



● 무선마이크용 고성능 헤드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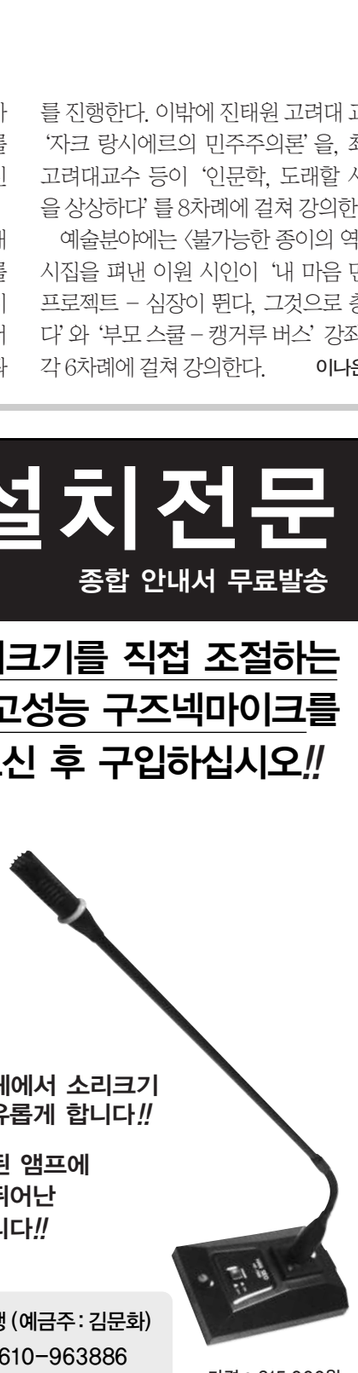


● 무선마이크



■마이크 자체에서 소리크기 조절을 자유롭게 합니다!!

■어떤 오래된 앰프에 사용해도 뛰어난 소리가 납니다!!



송금계좌 : 우리은행 (예금주 : 김문화)
1002-610-963886

가격 : 215,000원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음향연구가, 무선설비기사
010-5335-2695
전화 (02)2697-9976
팩스 (02)2601-8284

‘이달의 환우’ 생명의 불씨 지피기 15년

병에 한 번 걸리면 가계파탄은 감내해야 한다. 암 등 중대 질병 치료비는 수천만원을 훌쩍 넘어간다. 18대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4대 중증질환 병원비를 100% 국가가 부담하는 제도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던 건 최소 천만명 이상으로 추산되는 중증질환 환자와 가족들을 겨냥해서였다.

건강보험이 질병으로부터 가정을 보호해 주지 못하자 몇 년전에는 1인당 1만1천원을 더 내는 대신 모든 의료비를 건강보험 하나로 해결하자는 ‘1만1천원의 기적’ 같은 시민운동이 등장한 적도 있다.

돈이 없으면 생명권마저 위협받는 상황에서 국가 복지의 빈 곳을 메워주는 쪽은 아무래도 민간 몫이다.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 이하 생명나눔)의 환자치료비 사업인 이달의 환우 선정도 그 중 하나다.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 중 기초생활수급자등 가정형편이 어려운 이들에게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2000년 시작됐다. 그동안 635명의 환자들이 26억 5813만원을 지원받았다. 1인당 평균 지원받은 금액은 418만원.

치료비 지원 대상 선정은 전국 병원, 복지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시군구 사회복지과 등에서 추천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매월 이루어진다. 공식적인 창구를 확보함으로써 환자 선정과정에서의 형평성 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했다. 매달 접수되는 인원은 13명 내외. 그 중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을 우선으로 치료비, 개인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자체 심의 후 결정한다.

지원 방식은 크게 세 가지다. 정기지원은 가장 지원이 시급하다고 판단된 환자를 매월 1명 선정해 생명나눔실천본부 소식지나 언론 등을 통해 모금한 금액을 전달한다. 최근에는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의 홍보매체를 활용하기도 하지만 아직까지는 교계 쪽 지원비율이 높다.



2010년 다리 수술을 받아야 했던 이금성씨는 생명나눔실천본부를 통해 치료비를 지원받고 수술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생명나눔 저소득 가정 환자 치료비지원 사업

2000년 부터 635명 환우에게 26억 여원 지원

매월 600만원 모연 타인 위로가 환자에게 힘

한 달 모금 금액은 대략 6~700만원이지만 1인당 수혜금액은 500만원이다. 나머지 금액은 특별지원형식으로 선정과정에서 탈락된 환자들에게 1백만원의 후원금 혹은 쌀 20kg으로 전달된다.

후원을 받은 환자들은 고맙다고 눈물을 훔치기 일쑤다. 잠시나마 생계 걱정을 덜 수 있다는 이유외에도 타인이 보여준 연대가 그들에게는 큰 힘이 된다.

2010년 직장암으로 생명나눔 치료비를 지원받은 유정미씨 또한 “많은 사람들이 보여준 관심에 고마워하며 매순간 이를 기억하며 살고 있다”고 말했다. 유씨는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서 세 아이를 키우던 중 암판정을 받고 생명나눔을 통해 항암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이천구씨 역시 신장이식에 필요한 수술비를 생명나눔을 통해 후원받았다. 이씨는 “또 다른 삶을 선물받았다고 생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사회에 조금씩이나마 보답하며 살아가고 싶다”고 했다.

환자들은 생면부지의 사람들이 보여주는 따뜻한 관심에서 위로와 희망을 얻는다고 말한다.

그러나 수천만원의 병원비가 필요한 이들에게 현 후원금은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 생명나눔의 장기 계획은 지원규모를 늘려가는 것이다. 자활 가능한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기존 개인후원자에만 의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기업후원을 발굴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는 것이 생명나눔측의 설명이다. 불교계 경제인사들에게도 접근해봤지만 단 한건도 호의적 반응을 얻지 못했다.

생명나눔 심정민 사무총장은 “이웃종교의 경우 종교지도자 분들이 홍보활동에 적극 앞장서고 교구별로 환자 지원사업을 하는 등 나눔에 대한 인식이 교리와 맞물려 자리잡은 덕분에 모연이 수월하게 되는 걸로 알고 있다”며 “후원금 역시 천만원에 달하는 등 지원규모가 크다”고 덧붙였다. 이어 “불자들의 경우 생명나눔 사업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는 있지만 결정적으로 행동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구심점 역할이 부재하다”며 평소 불자들의 신뢰와 공경을 받는 스님들의 적극적 관심을 당부했다.

배현진 기자 linus@hyunbul.com

스님도 이젠 가족상담 전문가

조계종복지재단, 6월 20일~22일 상담 교육 실시

포교현장 일선에서 신도들의 귀가 되어 주고 있는 전국 사찰 스님들을 대상으로 한 가족상담 교육이 이루어진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자승)은 6월 20일부터 22일까지 중앙승가대학교에서 스님들을 대상으로 ‘불교적 가족상담 지도자 교육’ 을 실시한다.

신도들이 일상에서 겪고 있는 가족문제에 대한 이해를 돕고, 가족 내에서 발생 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불교적 해결기법을 교육하는 과정이다.

지난해보다 전문적이고 현장 적용이 가능한 교육을 준비해 한층 더 체계적인 심화 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겨레심리상담센터의 장석환 고문, 강숙정 소장을 비롯한 전문 강사진이 강의할 예정이다. ‘가족발달 주기에 따른 상담’ , ‘심리장애와 치료’ , ‘주요 면담기법 별 사례실습’ 등 다양한 교육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번 교육은 전국 사찰의 비구 · 비구니 스님 및 사미 · 사미니 스님 5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불교적 가르침에 기초한 2박 3일간의 집중교육을 통해 참가 스님들은 한국사회의 문제를 불교적 생명관과 가족관 측면에서 재조명하고 불교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기회를 갖게된다.

조계종복지재단 측은 “이번 교육은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한 불교의 사회 실천력 증대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가족상담 지도자 교육은 2012년 시작된 이후 참가 스님들로부터 신도상담에 실질적으로 큰 도움을 받았다는 평을 받아왔다. 지난해부터는 신도상담 사례중심의 교육에 대한 의견을 반영, 단계별 커리큘럼을 구성해왔다.

조계종 교육원 인증과정인 본 과정을 수료한 참가자에게는 수료증과 함께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연수교육 이수와 동등한 17시간 인증을 통한 30점이 부여된다.

배현진 기자

맑고 향기롭게, 의료비 지원 대상 모집

맑고 향기롭게(이사장 덕운)가 제3회 의료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신청기간은 6월 10일~7월 31일이며 사례 심의를 거쳐 8월 8일 지원자를 선정 발표한다. 지원대상은 병원 치료비 마련을 위해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는 의료보호 및 수급자, 저소득가정, 다문화가정, 이주노동자들로 선정된 지원자에게는 최대 200만원 한도에서 수술비 등을 포함한 병원 치료비를 의료기관으로 입금해준다.

신청은 각 사회복지기관 실무자(사회복지사) 또는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 지역모임, 회원 등이 할 수 있다.

신청서류로는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진단서 각 1부를 제출하면 되고 해당자의 경우 장애인증명서,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증명서를 구비해 이메일(clean94@hanmail.net)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02)741-4696

정혜숙 기자

역삼청소년, 여성가족부 청소년 공모사업 선정

바다지키기 · 문화재가이드 등 3개 프로그램


지난달 진행된 흙사랑 희망농장 활동 모습

역삼청소년수련관(관장 보련)의 청소년 사업이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2014년 청소년 프로그램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선정된 프로그램은 ‘여바라(여수바다를 지켜라)’ , ‘한국사이’ , ‘물에서 날자! 비상구(飛翔口)’ 다.

활동프로그램에 선정된 ‘여바라’ 는 여수기름유출사고와 관련하여 청소년들이 여수로 내려가 직접 방제작업을 하며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한국사이’ 는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우리나라 문화재를 공부하고 외국인들에게 해설해주는 활동이다.

‘물에서 날자! 비상구’ 는 지역내 장애인 청소년과 비장애 청소년이 1:1 짝꿍을 맺은 후 신체활동 등을 함께하는 프로그램이다.

장애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지역사회에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역삼청소년수련관은 서울시 지원사업에 선정되는 경사를 맞기도 했다. 수련관내 소속 댄스동아리인 ‘걸스온탑’ 과 중창보컬단 ‘아베스’ , 밴드동아리 ‘각시탈’ 등은 올해 서울시 청소년 동아리지원 사업에 선정됐다.

한편 6월 21일에는 도심 속 환경에서 자란 청소년들이 자연과 함께하는 체험활동을 떠난다.

역삼청소년수련관은 6월 21일 ‘흙사랑 희망농장 6기’ 를 인천 강화도자연체험농장에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활동 주제는 갯벌체험활동이며, 가축동물 먹이주기, 전통농기구 체험, 말달구지타기, 보트타기, 미꾸라지 잡기 등이 이루어진다.

역삼청소년수련관장 보련 스님은 “청소년들이 자연과 함께하는 흙사랑 희망농장 체험활동을 통해 생명존중의 마음을 되새기고 자연의 소중함을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역삼청소년수련관은 서울시 지원사업에 선정되는 경사를 맞기도 했다. 수련관내 소속 댄스동아리인 ‘걸스온탑’ 과 중창보컬단 ‘아베스’ , 밴드동아리 ‘각시탈’ 등은 올해 서울시 청소년 동아리지원 사업에 선정됐다.

배현진 기자

장애아동과 함께 야구 보러 가요


지난해 진행된 베스트원 야구단 발대식에서 장애아동과 멘토들이 웃고있다.

야구단 자원봉사자 모집

한솔종합사회복지관(관장 효진)은 지역사회 내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함께하는 스포츠 활동 'BEST ONE(베스트 원) 야구단' 자원 봉사자를 모집한다.

장애인식 개선을 위해 진행되는 야구단 사업은 장애아동들의 사회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모집 대상은 대학생 이상 성인으로 장애아동과 1:1 멘토-멘티 관계를 이뤄 프로야구 경기를 함께 관람하는 문화체험활동을 돕게 된다. 활동기한은 6월부터 11월까지며 화요일이나 목요일 중 일주일에 한번 활동을 하게 된다. 시간은 오후 4시부터 6시까지다. (031)8022-1100 배현진 기자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열침의효능 헬스밸트 금강약돌 온열복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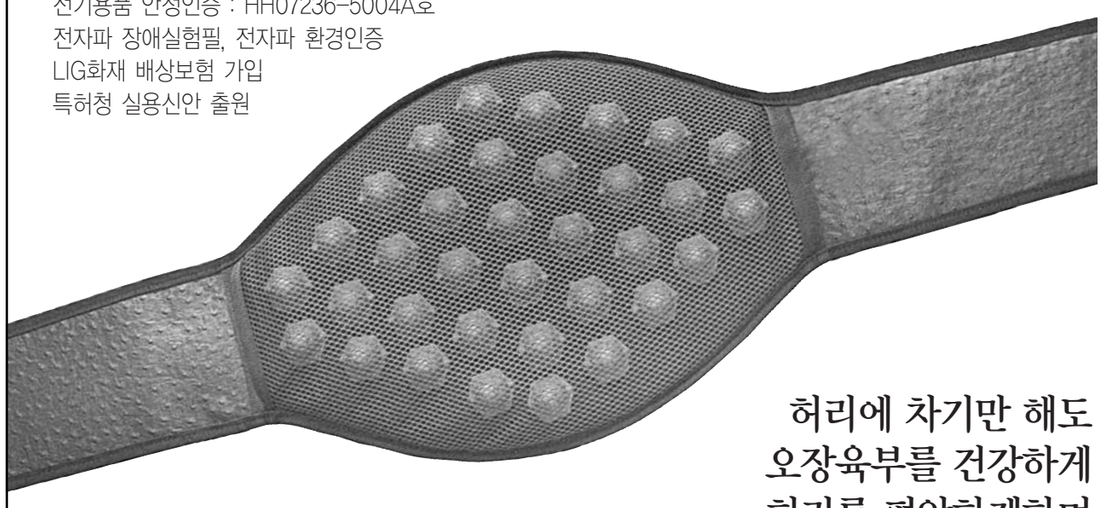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볼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 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 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식약청의료용구 개인용온열뜸기 : A83060호
식약청 의료용 전자기 발생기 : A85020호
전기용품 안정인증 : HH07236-5004A호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LIG화재 배상보험 가입
특허청 실용신안 출원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신분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053-12-125418 강환영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대리점 및 딜러모집
(조합자극건강매트, 오십견조끼, 요추베개등 자매품다양)

“원칙과 기본 지켜야 일류 국가죠”

tvN 특집 토크쇼 ‘종교인들의 세상이야기’

법현 스님 · 인명진 목사 · 홍창진 신부

종교계 멘토 3인방이 전하는 지혜의 메시지가 안방극장을 찾았다. tvN이 준비한 특집 토크쇼 ‘종교인들의 세상이야기’는 ‘열린 스님’ 법현 스님, ‘포청천 목사’ 인명진 목사, ‘괴짜 신부’ 홍창진 신부가 출연 종교를 뛰어넘는 공감과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패널로 참여한 종교계 멘토 3인방은 평소에도 종교 간의 소통과 화합을 몸소 실천하는 것은 물론, 우리 사회 발전을 위해 쓴 소리도 아끼지 않는 시대의 멘토들이다. 이번 방송에서는 각기 다른 종교의 대표 얼굴들이 모여 대한민국의 행복을 이야기했다. 5월 29일 첫 방송은 세월호 사건 이후 흔들리고 있는 대한민국을 ‘기본’부터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다. MC로는 정치평론가 고성국 씨와 개그우먼 김숙이 참여했다. (이하 호칭 생략)

정리=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tvN 특집 토크쇼 ‘종교인들의 세상이야기’에 법현 스님, 인명진 목사, 홍창진 신부가 출연해 우리 사회의 ‘기본’에 대해 얘기했다.

종교인들에게 기본이란?

MC:종교인들에게 기본이란 어떤 것일까요?

인명진 예수님께서 ‘한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습니다. 성경의 핵심적인 가르침은 사람입니다. 저는 기본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사람이 아니라 돈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죠. (세월호 등)현재 우리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은 사람 위에 돈, 권력, 출세가 중심이 되어 생긴 문제들입니다.

홍창진 종교는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본을 지키는 정의에 대해 외쳐야 하지만 또 그를 어긴 사람들이 와서 죄를 고백하면 토닥거려줘야 합니다. 모순되지만 이 모두가 종교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간직해야하고 이 사랑을 지속적으로 놓지 않겠다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법현 불교에서는 종교심의 출발을 두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가 스스로 부끄러움을 아는 것이고 두 번째가 남에게 부끄러움을 아는 것입니다. 기본이란 결국 부끄러움을 아는 것입니다. 상식과 기초 배려도 꼭 필요합니다. 내가 평안하고 즐겁고 이익을 얻는 것이 상대방의 평온과 이익과 즐거움을 침해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결국 자기가 편하기 위해서 남을 배려해야 합니다.

홍창진 그러고 보니 성경에도 나와 있는 말씀이네요.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법현 (웃음) 통하는 부분이 있네요. 우리 대부분은 유치원부터 중학교까지는 99% 기본을 지켰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후에 안 지켜도 되는 맛을 보기 시작하면서 결국 규칙을 어기는 것을 특혜로 생각하게 되죠. 그러니 어른들이 기본을 지킬 때 이 사회는 달라질 것입니다.

인명진 종교인들에게 지켜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정신적인 가치를 잘 지도했는지 이것에 대해 책임져야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종교인들이 기본적인 책임을 지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최근 일어난 사고의 공통점은 정신적 가치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중독에 빠진 대한민국

MC: 술 마시는 사회 대한민국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홍창진 술 마약 도박 모두가 다 중독입니다. 마음 둘 곳 없는 사회를 대변하는 거죠. 술을 마시면 가정이 피괴 됩니다. 개인적인 노력으로 가정을 위해 봉사해야 되고 사회 전반적으로는 꿈을 공유하는 사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개인과 사회가 공동으로 노력해서 중독 현상을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인명진 사회의 기본이 가정입니다. 가정이 우리 사회의 기본 단위입니다. 행복은 가정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가정 때문에 우리 사회가 불행으로 가고 있기도 합니다. 현대사회의 또 다른 폐해가 가족 이기주의입니다. 부모들은 내 새끼가 잘 되어야 한다 이런 이기주의로 자식들을 사회로 내몹니다. 재벌들의 재산세습도 이 범주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죠.

공공질서 어떻게 지켜야 하나?

MC: 야간 운전시 횡단보도 신호를 지켜야 할지 말아야할지 고민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법현 야간에 사람이 없다고 해서 규칙을 위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때일수록 더더욱 열심히 지켜야 사고가 나지 않습니다. 밤늦게 거리에 나왔다면 그만큼 급한 사정이 있을 건데 그런 마음으로 운전을 하면 사고 날 확률이 높죠. 그래서 저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MC: 만약 야간에 사람이 없어 그냥 지나갔는데 벌금 통지서가 날아왔다면 당연한 일일까요 억울하고 재수 없는 일일까요?

법현 대부분의 사람들이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하지만 이는 법과 현상을 혼돈하는데서 비롯되는 문제입니다. 과거 교통경찰들은 법에 근거하기보다는 실적을 쌓기 위해 혹은 돈을 로비하기 위해 이렇게 했던 정황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위반은 위반이죠. 저는 경승으로 경찰들에게도 법문을 하는데요, 교통경찰들에게 위반될 만한 장소에서 숨어서 단속하지 말고 앞으로 나서서 계도하라고 말합니다.

인명진 “사람이 기본 되는 사회”

홍창진 “불공정 사회 상대적 박탈감 커”

법 현 “시민의식이 리더 만든다”

MC: 우리는 기본을 모르는 걸까요 알면서도 못 지키는 걸까요?

홍창진 환경의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큰 도둑놈들은 점잖게 사는데, 이만한 걸 가지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억울하다 생각합니다. 이미 세상이 구정물인데 나 하나 튀긴다고 해서 뭐 어떻게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나 하나쯤이야 이런 생각이 초래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공평하게 기본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인명진 더 많은 법을 어기고 훨씬 더 기본을 망각한 사람이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데, 교통 규칙 위반했다고 그걸 잡아내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불공정 사회에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지속적인 감시와 요구가 공정한 사회의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은 안 지켜도 된다는 안일한 생각을 뒤집을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리더의 중요성

MC: 그렇다면 우리 사회가 제대로 된 리더를 못 만나서 이렇게 된 걸까요?

홍창진 합심의 핵에는 사회를 이끌어주는 리더가 있어야 합니다. 정부가 집행을 잘하면 국민이 믿고 맡길 겁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구멍이 나고 허술해지면 사회 지도자들이 나서면 됩니다. 구성원들의 힘을 이끌어내는 믿을만한 사회 리더가 필요합니다.

법현 거꾸로 생각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태풍의 눈이라는 것이 있죠. 태풍의 눈이 힘을 가진 핵이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에너지가 없고 진공과 같은 상태입니다. 주변의 에너지들이 빈곳을 향해 메꾸어 가면서 태풍이 발전을 합니다. 우리 사회도 이와 같습니다. 사회 구성원들이 깨어있어야 그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를 자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MC: 결국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리더라는 말씀이네요.

법현 책임은 위에서부터 져야 되지만 리더를 만드는 시민의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시민이 깨어있지 않는 한 리더들은 책임을 인식하지 않을 겁니다.

MC: 우리 사회는 고속성장을 하면서 기본을 제대로 쌓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참사를 업보처럼 받고 있습니다.

인명진 이제는 돌아볼 때가 되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내 책임이다’ ‘내가 잘못 살아서 그런 거다’ 책임의식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넘어졌으니까 일어나서 둘러봐야지요. 우리가 어디로 가려고 이러나 이것이 정말 행복이냐 이렇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현 혜민 스님의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라는 책처럼 천천히 생각하고 천천히 말하고 천천히 행동하면 잘못하기 어렵고, 서두르지 않을 때 실패하기 어렵고 성공하기 쉬워집니다. 실천의 길을 분명하게 걸어가야 합니다. 그 부분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홍창진 우리가 돌아갈 곳은 있나, 가야할 곳은 어딘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원래 꿈꿨던 것이 무엇이지 우리가 바라고 이루고자 했던 목표가 무엇인지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또 국가를 통해 이루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지도요. 이 꿈을 명확하게 그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민 한 명 한 명이 이에 대해 직시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삼류 국가에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보람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일류 국가를 이루어야 합니다.

멘토 3인방 프로필

법현 스님

불교생명윤리협회 집행위원이자 한국불교태고종 열린선원 선원장인 법현 스님은 ‘쉬운 불교’를 모토로 시장 한복판에서 상인과 손님들을 대상으로 마음공부를 가르쳐온 ‘열린 스님’이다. 운산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서봉 스님을 계사로 1985년 사미계를, 덕암 스님을 계사로 1991년 비구계를 수지했다. 태고종 총무원 총무부장, 교무부장, 사회부장, 교무부원장 등 종단 중책을 두루 역임했다.

인명진 목사

촌철살인 언변으로 유명한 인명진 목사는 7·80년대 노동운동과 민주화 운동을 주도하며 ‘포청천’으로 불려왔다. 스마트교육재단 이사장, 한나라당 윤리위원회 위원장, 한국방송공사 이사 등을 역임했으며 사랑의 채널 이사, 갈릴리 교회 목사로 활동하고 있다.

홍창진 신부

홍창진 신부는 사회적 약자 중의 약자인 기지촌 여성, 미혼모, 난치병 어린이들을 꾸준히 지원해 온 천주교계의 ‘에너지 맨’이라 불린다. 1989년 사제 서품을 받고 광명본당 주임신부로 활동하고 있다.

心 靈 治 療 (심령치료)

당신은 심령치료를 믿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마도 대부분이 “노우”라고 대답하리라 생각합니다.

석학이신 이희승 박사 편저 국어대사전에 심령법에 관해 해설되어 있습니다.
또 **심령학 · 심령현상 · 심령술**에 관해서도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심령요법은 **비종교** 행위입니다.
그럼 심령치료에 대하여 설명해 보면 미국과 소련 등에만 보급되어 있고 미국에는 심령학회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동양에는 매우 뒤져 있을 뿐 그나마 일본에서는 “일본심령과학협회”라는 간판아래 운영되고 있습니다.

◆ 심령치료의 종류

① 재령에 의한 방법
② 인연 해제에 의한 방법
③ 영계 의사에 의해서 치료하는 방법 등이 있으며

심령치료에는 접촉치료와 손바닥 치료가 있고 저마다 효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약이나 물리적 치료 등은 일절 하지 않습니다.
심령학 · 심령술 · 심령현상 등 복잡한 내용이 있으나 여기서는 다만 심령요법에 대해서만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심령학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본원에 오셔서 공부하셔도 됩니다.
오래된 병으로 고생하시는 분, 의학 등 방법으로 못 고치는 분은 심령치료를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건강을 원하시는 분도 효과가 있습니다. 2 ~ 3일 이면 반응을 알 수 있습니다.
본원에서는 많은 환자를 심령요법으로 치유하였습니다.

서울시 도봉구 방학 2동 602-4호 **靑 岩 禪 院** 전화 02)992-8624

전통식품교육사

전통식품교육사란? 국가에서 인정한 식품 원재료를 활용하여 보건식품을 개발하고
개인의 체질에 따라 식품을 맞춤 처방하는 전문가로서 전통식품원을 개원할 수 있음

보건복지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자격검정)

자 격 과 정	교 육 기 간
인체생리학(인체해부학), 자연치유의학, 식품영양학, 식의학(동양의학, 양생학, 변증), 중탕이론 및 실습(법제론), 전통식품교육론(변증학, 방제학), 약용식품학, 총 7개 과목 ※ 특강 : 자연건강법(자세교정, 기공, 양자파동), 식품위생법규, 약초기행실습, 전통식품 효소발효액	14주 과정 목요일 반

접 수 처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교육일정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바랍니다.

문 의 02)3147-2020 www.kile.or.kr ▼

지 부 교 육 원

제 기 동 02-966-0020 창 원 055-243-6333 호 남 063-288-5623 전북익산 063-854-1060
부 산 051-441-0111 울 산 052-260-1037 충청북부 043-263-9966 대 구 053-566-1116
강원서부 033-252-3682 경 남 055-932-5877

교육부공익법인 / 한국평생교육기구
한 국 보 건 교 육 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

“백초월 스님 일대기, 스토리텔링 접목하자”

송명호 교수, 6월 10일 ‘백초월 스님 순국 70주기 학술세미나’서 제시

대표적인 독립운동가인 백초월 스님의 일대기를 불교계가 주도해 시나리오, 드라마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송명호 중부대 교수는 6월 10일 백초월 스님의 순국 70주기 및 ‘국가보훈처 6월의 독립운동가’ 선정 기념 학술세미나에서 스토리텔링을 통한 활용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송 교수는 ‘스토리텔링으로 살펴본 백초월’에서 직접 쓴 ‘불혼(佛魂)’을 소개하며 “소설, 시나리오, 드라마, 만화, 애니메이션 등에 활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송 교수는 “백초월 스님의 일대기를 담은 ‘불혼’은 3·1 독립운동 정신과 민족정체성 등 역사의식을 높이고자 제작한 작품”이라며 “불교 스토리텔링을 통해 먼저 신도교육에의 도입부터 가능하다”고 말했다.

송 교수가 소개한 ‘불혼’에는 백초월 스님 뿐만 아니라 만해 한용운 스님, 백용성 스님, 데라우치 조선총독부 초대 총독 등 당시의 다양한 인물이 등장해 항일독립운동의 전개를 그려낸다.

첫 시작은 1907년 지리산 연곡사에서 고광순 의병대가 몰살된 것에서 시작하며 조선불교 말살을 위한 일제의 조동종협약에 백초월 스님이 반발하는 내용, 진관사, 대각사, 경성감옥, 탑골공원 등에서 독립운동을 펼치는 내용 등으로 이어진다.

이야기의 끝은 2009년 8월 10일 진관사에서 항일 태극기와 당시 백초월 스님이 펴낸 지하신문 등이 발견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이에 대해 논평자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는 “불교계에서 이러한 활용방안을 적극 수용해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등에 나선다면 포교에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높게 평가했다.

김 교수는 또 이같은 불교 스토리텔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부처님 가르침에 근간할 것 △신도교육에 활용될 수 있는 내용이 중심이 될 것 △현대사회에 맞는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사용할 것 △다양한 영역의 작가를 발굴 할 것 △스토리텔러 양성과 활동의장 마련 △교육, 비즈니스, 상담 등 분야의 활동사례를 구축할 것 등이다.

김응철 교수는 “스토리텔링 관전에서 불교는 무한한 자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동안 이를 활용하지 못했다”며 “불교 내부에서 활용하는 것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신구의 삼업행을 정화시키는 방안으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백초월 민족운동의 재조명’을 주제로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는 이동언 독립기념관 책임연구위원이 ‘백초월의 민족운동과 혁신공보’를, 김광식 동국대 교수가 ‘백초월 민족운동의 성격 및 위상’을 각각 발표했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에 앞서 진관사에서는 70주지 추모재가 함께 열렸다. 추모재에서는 국가보훈처의 ‘이달의 독립운동가 선정 기념패’ 봉정, 광복회의 ‘이달의 독립운동가 선정 축하기념패’ 증정, 민족정기선양사업회의 ‘영구보존용 태극기’ 전달, 헌시 ‘태극기’ 낭송 등이 진행됐다.


송명호 교수(사진 왼쪽)의 발표 이후 김응철 교수(사진 오른쪽)가 논평을 통해 불교계 스토리텔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남기형 민족정기선양사업회 회장이 계호 스님에게 영구 보존용 태극기를 증정했다.

행사를 준비한 계호 스님은 “우리들에게는 백초월 스님 등 순국선열의 피땀어린 노력이 헛되지 않게 할 막중한 책임이 있다”며 “백초월스님 추모는 물론 나라 발전과 국민 행복으로 이어지도록 모두가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행사에는 안중현 서울지방보훈청장, 백초월스님 증손자 백외식 선생, 하얼빈조선민족예술관 등 중국의 임시정부 독립기념 관련부처 7곳의 해설사 8명 등 총 150여 명이 참석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불교도서 7종 학술원 우수학술도서에 선정

인문학 분야 5종 · 한국학 분야 2종

대한민국학술원이 최근 2014년도 기초학문육성 우수학술도서 총 300종을 선정한 가운데(인문학 93종, 사회과학 88종, 한국학 51종, 자연과학 68종)을 선정한 가운데 불교관련 학술서적은 총 7종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선정목록에 따르면 인문학 분야에선 △라드나끼르띠 저 · 우제선 역 〈찰나명논증〉 △김종명 저 〈국왕의 불교관과 치국책〉 △전홍철 저 〈돈황 민간문학 담론〉 △강우방 저 〈수월관음의 탄생〉 등 5종이 선정됐다.

한국학분야에서는 △최병헌 저 〈한국불교사연구입문〉 △정효구 저 〈한용운 ‘님의 침묵’ 다시읽기〉 등 2종이 선정됐다.

한편 대한민국학술원은 기초학문분야의 연구 및 저술활동 활성화를 위해 매년 우수학술도서를 선정하고 있으며, 이번에 선정된 도서들은 각각 1500만원 내외에서 이를 구입해 대학도서관에 보급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백용성 대종사 총서’ 번역 워크샵

대각회 대각사상연구원(원장 보광)은 6월 26일 오후 2시 동국대 충무로영상센터 227호에서 ‘백용성 대종사 총서 발간 및 전산화 사업 워크샵’을 개최한다.

‘백용성 대종사 총서 발간 및 전산화 사업’은 백용성 대종사 자료 보존과 사상 계승 및 현창을 위해 〈백용성 대종사 총서〉 출간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워크샵에서는 신규탁 연세대 교수의 사회로 △동국대 교수 보광 스님의 ‘근대문화재 등록의 문제점’ △임영민 문화재연구소 연구원의 ‘근대고승의 문화재 발굴 및 정리방향’ △김광식 동국대 교수의 ‘백용성 대종사 자료의 발굴 및 현황’ △봉선사 지환 스님의 ‘근대 고승의 일대기 샘플 및 심화연구’ 등을 발표한다.

보광 스님은 “2차년도에는 백용성 조사의 관련 추가 자료인 기고문, 보도기사문, 서간문, 비명 등을 조사 · 발굴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그동안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제반 문제점과 방법론을 논의하는자리”라고 말했다. (02)6713-5138

노덕현 기자

‘동아시아 불교’ 한·중·일 공동학술대회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소장 권탄준)는 6월 21~22일 양일간 일본 동양대에서 ‘동아시아 불교에 있어서의 대립 · 논쟁과 그 의의’를 주제로 제3회 한 · 중 · 일 공동 불교학술대회를 개최한다.

금강대와 일본 동양대, 중국 인민대가 공동개최하는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양혜림 인민대 부총장의 ‘아베 마사오(阿部正雄)의 종교 대화 이론’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한지연 금강대 HK교수의 ‘서역에서 소승교단과 대승교단은 대립했는가’, △하야시 카나 금강대 HK교수의 ‘아미타신앙과 미륵신앙의 대립’, 장규언 금강대 HK교수의 ‘중관과 유식의 관계에 대한 원측 인식의 특징’ 등이 발표된다.

중국 측에서는 △쉬엔팡 인민대 교수의 ‘인순과 여징의 〈아비담심론〉 의견에 대한 검토’, △장원량 인민대 교수의 ‘진관의 혜원 비판과 화엄종 조통설’ 등이 발표된다.

일본 측에서는 요시무라 마코토 동양대 교수의 ‘중국 화엄사상에 있어서의 유식사상의 해석’ 등이 발표된다.

노덕현 기자

불교의례문화硏, 한·중·일 의례 조명

동아시아불교의례문화연구소(소장 법안)는 6월 28일 오후 2시 서울 템플스테이센터 문수실에서 ‘제3차 상반기 학술발표회’를 개최한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중국절강성 철학연구소 교수 법지 스님이 ‘중국사원의 의규 약람’을 통해 현재 중국불교 사원에서 일상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제반의례를 살펴본다.

또 이성운 조계종 의례실무위원이 ‘수륙재의 이운과 차서의 정합성 고찰’을 통해 현행 수륙재와 영산재 이운의식의 차이와 차서 정합성을 고찰하고 현재의 행법에 대해 〈범음산보집〉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에 대해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前불교문화재연구소 소장 미등 스님, 불찬음악연구소 소장 혜일 스님, 오용석 조계종 교육원 연구원 등이 참석한다.

노덕현 기자

“삼국유사에 민족의식 고취 ‘답’ 있다”

한국불교사硏, 〈삼국유사〉 인식 집중세미나

“육당 최남선을 시작으로 근대 학자들은 〈삼국유사〉를 민족의식과 문화의식의 바탕으로 삼았다. 〈삼국유사〉의 단군 기록과 신화 원천 등을 조명하는 것은 일제의 민족문화 압살에 맞서는 전략이자 민족의식 고취 방안이었다.”

고영섭 동국대 교수〈사진〉는 한국불교사연구소(소장 고영섭)가 6월 7일 동국대에서 개최한 ‘대한시대 인문학자 불교학자의 〈삼국유사〉 인식’ 집중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고영섭 교수는 〈삼국유사 해제〉를 펴낸 육당 최남선의 의식은 ‘고조선’을 통해 단군을 복원한 일연 스님의 의식과 맞닿아 있으며 이는 민족 자존에 대한 흐름과도 맞닿아있음을 지적했다.

고 교수는 “최남선은 〈삼국유사 해제〉 집필을 통해 일본학계의 단군부정론에 대응하며 우리역사를 복원하려 했다”며 “이러한 인식은 권상로, 리상호 등에 이어졌다. 2014년 최광식 · 박대재 등 현대 학자들까지 이런 ‘해제’를 원용하는 등 그 인식은 민족의식에 대한 전형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고 교수는 “〈삼국유사〉에는 남과 북을 아우르는 민족의식을 담고 있어 현재 분단을 맞은 지금 역사 공동체와 민족 공동체를 회복하는 이정표이자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삼국유사〉에 대한 다양한 조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집중세미나에서는 고운기 한양대 교수의 ‘퇴경 권상로의 〈삼국유사〉 인식과 번역’, 김성주 동국대 초빙교수의 ‘무애 양주동의 〈삼국유사〉 향가 인식’, 엄기표 단국대 교수의 ‘우현 고유섭의 〈삼국유사〉 탑상 인식’ 등을 통해 근대 학자들이 〈삼국유사〉를 통해 각자의 학문분야에서 어떻게 민족의식 등을 인식했는지가 발표됐다.



노덕현 기자

근대 외래종교가 불화에 미친 영향

동악미술사학회(학회장 정우택)는 6월 21일 국립중앙박물관 소강당에서 제64회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학술세미나에서는 최엽 가천대 교수의 ‘한국 근대기 불화에 보이는 외래종교와 미술의 영향’ 발표가 눈길을 끈다.

이와 함께 △이선진 동국대 교수의 ‘18、19세기 철제입사공예품 연구’ △신현경 이화여대 교수의 ‘지림사 삼세불서 연구’ △이원복 경기도박물관 학계연구사의 ‘공민왕의 그림세계’ △정우택 동악미술사학회장의 ‘조선전기 지장보살설법 · 18지장도’ 등이 발표된다.

정우택 학회장은 “근대 미술에 미친 다양한 주변 영향을 살펴볼 수 있는 자리”라며 불자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02)2260-3722

노덕현 기자

남경중의학대학 중국 국립 한의과대학 특차 모집

‘한국캠퍼스 총장의 추천 입학제’로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남경대학 한국캠퍼스와 함께 세계를 향한 날개짓을 하십시오.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1 모집요강
- 한의학과 5년 – 120명
- 석사과정 3년 – 10명
- 박사과정 3년 – 10명
- 재경대학 4년 – 10명

2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3 원서 교부 및 전형방법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접수마감 : 2014년 6월 20일

4 문의처

한국상담 안내처 : 불교조계종 총무원 (135-887)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전화 : 02) 511-2026~7, 02) 511-1080 팩스 : 02) 511-2028
인터넷홈페이지 : www.njutcm.co.kr ※ 입학원서는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남 경 중 의 약 대 학
(南京中醫學大學) 02)511-1080,2026

무등산 대표사찰 잇는 탐방로 조성

증심사·약사암·문빈정사 연결하는 의재길에 탐방데크 시설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현재 탐방로(사진 왼쪽)와 새로 조성 예정인 의재길 탐방로(사진 오른쪽)

광주광역시 사적1호인 무등산 증심사와 약사암, 문빈정사를 잇는 탐방로(의재길)가 정비된다.

국립공원관리공단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안시영)는 증심사 입구 탐방코스 중 하나인 '증심교~약사사 구간' 을 오는 9월까지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저지대 탐방로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대상 구간은 일반 방문객, 노약자, 사찰 신도 등 탐방객 이용이 많은 무등산국립공원의 대표적인 저지대 탐방코스이다.

다만, 보도와 차도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아 통행 혼잡과 차량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으며, 실제로 지난겨울에 탐방객을 피하려다 눈길에 미끄러지는 차량 전복 사고도 발생한 바 있다.

이에,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는 해당구간에 흙길 탐방로 및 자연훼손을 최소화하는 캔틸레버(cantilever) 한쪽만 고정시키고(고정단) 다른 끝은 돌출시켜(자유단) 그 위에 하중을 지지하도록 한 구조의 목재데크를 설치하여 안전한 탐방로를 조성하고, 소규모 벤치 등의 쉼터 공간도 설치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탐방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다른 국립공원인 지리산, 치악산, 가야산 등 차량과 탐방객이 혼재된 탐방로가 있는 국립공원에서는 대부분 차도와 보도를 분리해서 탐방로를 정비하여 탐방객 안전한 등산로를 확보한바 있다.

증심사 종무소는 "국립공원으로 승격이 되면서 평상시 많은 등산객들이 무등산을 찾고 있으나 탐방로는 아직 예전 그대로여서 안전사고에 많은 위험이 노출되고 있다. 특히 겨울철 눈이 오거나 비가 오는 날씨에는 차도와 인도가 구분이 없어 위험한 상황에 있다"고 말했다.

이에 무등산국립공원은 지난 4월 24일에는 학계 전문가, 광주광역시 등 유관기관, 시민단체, 사찰 및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기본설계 심의위원회를 가졌으며, 본 구간을 이용하는 탐방객을 대상으로 현장설명 및 의견수렴 과정과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등 관련법에 따른 협의를 추진 중에 있다.

한편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1일 성명을 발표하고 의재길 탐방로 확장 계획 재검토를 촉구하면서 "현재 무등산이 국립공원으로 승격된 이후 탐방객 수가 늘고, 자치단체들은 관광객 유도를 위해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가장 고려돼야 하는 것은 무등산 보전이다"며 "지속가능한 무등산을 위해 직접적인 이용 수요 조절이나 환경 부담을 최소화 하는 이용을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무등산국립공원 내에 있는 문빈정사, 증심사, 약사사의 주통행로인 '의재로' 는 현재 증심사지구 주차장에서 약 500여 미터까지는 인도와 차도가 분리된 2차선 도로 폭을 유지하고 있으나, 증심교에서 증심사에 이르는 800m 구간은 차 한대가 지날 수 있는 도로에 차량과 참방객들이 엉켜 늘 안전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특히 약사사가 있는 400m 구간은 더욱 여건이 취약한 환경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모 심으며 생명의 소중함 깨달아요"



전북불교시민연대가 창단한 청소년생명평화실천단(단장 오종근)이 6월 6일 생명평화 모내기 체험을 개최했다.

전주시 삼천동 농촌마을에서 열린 모내기 체험은 청소년 생명평화실천단 40여 명과 지도교사들이 동참해 직접 모내기를 체험하며 노동의 소중함과 먹거리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모내기에 동참한 김연아(정읍여고 2) 양은 "그동안 무심코 먹던 먹을거리의 소중함을 깨닫게 됐다"며 "실천단을 통해 접하기 힘들었던 체험을 하면서 생명평화를 한 번 더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오종근 단장은 "생명평화실천단의 가장 중요한 사업중의 하나가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위한 이해도를 높이는데 있다" 며 "로컬푸드, 슬로우푸드 등의 정신과 친환경농사 등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높여 생명농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이런 행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날 학생들이 심은 모는 가을 벼 베기 체험을 거쳐 시민단체를 통해 연말 어려운 이웃들에 전달될 예정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익산 왕궁리 유적' 국제학술심포지엄


익산 왕궁리 유적의 고대 도성터 항공사진

익산 미륵사지, 제석사지와 더불어 익산 지역의 3대 백제 사찰터인 왕궁리 유적에 대한 국제 학술심포지엄이 열렸다.

문화재청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소장 배병선)는 6월 10~11일 익산 원광대 숭산기념관에서 '동아시아 고대 도성과 익산 왕궁리 유적' 국제학술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익산 왕궁리 유적(사적 제408호) 발굴조사 25주년을 기념해 마련된 이번 국제학술 심포지엄은 한국, 중국, 일본의 연구자 20여명이 발표와 토론에 참여했다.

총 4개주제로 진행된 심포지엄은 첫날인 10일 △한 · 중 · 일 동아시아 국가의 도성 제도 △ 도성 조사 · 연구의 다양한 방법론에 대해 11일은 △한 · 중 · 일 고대 도성 조사 · 연구 성과 △ 도성 유적의 보존과 복원 등이 다뤄졌다.

특히, 이번 심포지엄에는 배병선 소장, 충남대학교 박순발 교수, 중국 인민대학 위견(魏堅) 교수, 일본 임부균(林部 均) 등 고고 · 지리 · 건축 · 도시계획 · 조경학 등 고대 도성과 관련한 다양한 분야의 국내외 연구자들이 참여했다.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는 이번 심포지엄이, 왕궁리 유적 발굴조사 결과에 대한 각 분야 전문가들의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동아시아 고대 도성에 대한 연구 성과를 정리할 계획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운주사 천불천탑 박물관 건립된다

화순군, 총 54억 원 투입해 2015년 준공 목표



'천불천탑' 으로 널리 알려진 화순 운주사를 널리 알리기 위한 사업이 진행된다.

전남 화순군(군수 홍이식)은 6월 8일 화순 운주사 관광지 내 천불천탑 박물관을 건립한다고 밝혔다. 국비 32억 4000만 원 등 총사업비 54억 원이 투입되는 운주사 천불천탑 박물관은 1400㎡에 지상 2층 규모로 2015년 12월 준공된다.

박물관은 천불천탑과 와불의 신비를 살린 특색 있는 공간으로 조성된다. 그동안 운주사의 와불과 천불천탑은 풍화로 인해 붕괴 위험에 처했다는 학계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번 박물관 건립은 운주사의 다양한 불상을 보존하고, 홍보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운주사 천불천탑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화순군은 2012년부터 전문가와 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추진준비위원회를 구성해 활동을 펼치고 있다.

화순군은 "천년을 눈과 비를 맞으며 눈과 코가 사라진 화순 운주사의 불상과 숱한 바람과 구름이 스쳐 지나간 탑을 보존하는 것이 우선적인 목표"라며 "천불천탑과 와불의 신비를 살린 특색 있는 다양한 유적 및 문화재를 보유한 화순군의 위상에 맞는 문화관 건립으로 운주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존 · 홍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화순군은 지속적으로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기로 했다.

노덕현 기자

"빛고을 아이들 부처님 품안에서"

동련 광주지구 제7회 빛고을연꽃문화제



광주지역 어린이 포교 활성화의 신호탄이 될 어린이 잔치가 열렸다. 동련 광주지구(지구장 도제)는 6월 6일 광주 무각사 앞마당에서 '제7회 빛고을연꽃문화제' 를 개최해 미래 어린불자들에게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

만 5세 이상부터 초등학생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번 행사에는 글짓기, 그리기 등에 300여 명의 어린이와 학부모들이 참여하여 자신의 솜씨를 뽐냈다. 행사 접수를 시작으로 10시부터 법요식과 함께 10시 30부터 작품 활동이 시작됐다.

이날 어린이들이 글과 그림으로 표현한 시제는 '내가 가장 하고 싶은 말', '어머니', '칭찬', '세월호' 4가지로 다양한 글과 그림이 접수됐다. 무각사에서 제공한 점심공양 이후 1시간 동안은 보물찾기와 노란리본 찾기가 진행됐다.

이날 행사의 백미는 오후에 진행된 제3, 4부. 3부에는 김동준 소리마당 선생님 사회로 아시아밝음 난타공연, 자성사 댄스, 숙대머리 등 식전행사에 이어 댄스, 음악경연대회와 자유체험활동이 펼쳐져 참가 학생들에게 즐거운 시간을 선사했다.

4부에는 '도전! 범종을 울려라' 는 예선에 선발된 20여명의 아이들이 불교예절과 상식을 겨루는 시간으로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도제 스님, 성거사 주지 혜공 스님, 지용현 광주전남신도회 회장, 방철호 목사(광주시 사회복지협의회장) 등이 참여하여 행사를 축하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무각사 로터스 갤러리 신인작가전 열려

무각사 로터스 갤러리에서는 제2회 신인작가 기획 전시회를 개최한다.

지난 6월 2일부터 시작된 전시회는 엄기준(6월 2~15일, 이세현(6월 16~29일), 김경란(7월 1~13일), 려은(7월 14~27일), 노여운(7월 28일~8월10일), 이조흠(8월 11~24일) 신인작가 등을 차례로 개최한다.

두 번째 이세현 작품전은 '경계' 라는 주제로 '화두를 던지다' , '돌은 던지다' . '돌은 역사다' 라는 소제목의 전시회다.

작가는 "인간의 역사를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인간과 자연은 대립적인 구도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무의식적으로 자연으로 돌아가려는 의지도 함께 보인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우리는 또한 무의식적으로 자연으로 돌아가려는 의지도 함께 보인다. 자연에 대한 반성을 하는가 하면 그들과 같아지려고, 비슷해지려는 여러 행위들을 한다. 우리는 이렇게 자연을 갈망하고 한편에서는 그리워한다. 자연에서 나온 생명체로서 자연에 가지고 있는 본능이지 싶다"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한편 로터스 갤러리는 매년 역량있고 발전가능성이 엿보이는 신인작가들을 발굴하고 기획전을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6명의 신진작가를 발굴해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에 걸쳐 전시회를 개최한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禪農敎團 宗務法人 우리불교 曹溪宗 종도모집

입 종 안 내

1) 입종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 뒤 사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승려증 (법사증 · 포교사)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 (간부스님에 한함)

◦ 총본산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신덕리 209-8번지 광덕사

◦ 총무원 : 전화 041)584-4153 / Mobile 010)6478-1569

세계불교종단연합회(WBOA)

작금 세계불교문화가 수직적 종신제(교황적 이념)에
집착되어 불교문화의 수평적(평등이념)
지위를 잃어 가는 말세적 불교 문화의 분열상을
보면서 불교 국가간 종단간 소통과 교류 및
연대만이 더 큰 불교세계를 이루고 소멸되어가는
불교 문화의 재 창달의 길이라 여겨
세계불교 연합체를 만들고자 합니다.
(군소 종단의 적극 동참을 희망 합니다)

문의 041)584-4153
H·P 010-6478-1569

응화세존 3천 4십 1년 음 10월 1일

WBOA 총재 영공 도성 (부산 태종사 조실)
회장 홍산 현불 (우리불교조계종 종정)

(宗)선농교단 우리불교 조계종에서는 도제양성과 포교에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부산 시민과 함께 환우돕기 나섭니다”

원광사 양산부산대학병원 난치병어린이 후원

부산 원광사(주지 인오)가 부산 시민들이 십시일반 모은 보시금으로 난치병어린이를 돕는다.

원광사의 난치병 어린이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발전후원회 후원금 전달식’이 지난 6월 9일 양산부산대학병원(원장 성시찬) 원장실에서 있었다.

이날 전달된 기부금 300만원은 원광사가 지난해부터 약 1년 동안 사찰 앞 문수전에 ‘난치병어린이돕기’ 불전함을 설치, 근처 약수터를 오가던 시민들이 기부한 금액을 꾸준히 모은 보시금이다. 불자 비불자 모두의 마음이 모아졌기에 이번 전달식의 의미는 무엇보다 컸다고 할 수 있다.

원광사 주지 인오 스님은 “통도사에서 소임스님으로 지낼때부터 ‘가만히 법당에 앉아있는 것보다는 신행단체 등을 통해 좋은 일을 하면 어떨까’ 하고 고민해왔다. 사찰은 크지 않지만, 원광사를 방문하고 함께 해주는 신도님들의 뜻을 우리 사회 필요한 곳에 회향하면 의미 있을 것 같아 병마로 인해 고통 받는 천진불들을 도와주기로 했다”며 후원금을 모으게 된 계기를 밝혔다.

성시찬 양산부산대학병원장은 “후원할 때 중요한 것은 금액이 아니다. 이렇게 직접 오셔서 환우 가족들을 격려하시는 모습이 참으로 감사하다. 우리 병원은 아시다시피, 경남 내에서 어린이만을 위한 병동을 가진 유일한 대학병원이다. 많은 분들이 후원해주시지만, 병원 내에서의 복잡한 후원 절차 때문에 병마로 고통 받고 있는 어린이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때가 적다.

1년동안 사찰 앞 불전함 설치
인근 약수터 오가던 시민들
십시일반 보시금 모아 전달
난치병 환우돕기 이어갈 예정

인오 스님의 뜻을 시작으로 양산부산대학병원 어린이 병동 내 어린이들과 가족들에게 적극적인 도움을 주고자 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한, 인오 스님은 후원금 중 100만원은 양산부산대학병원 내 법당 자경원(지도법사 지현)의 어린이 환우 가족 2명에게 각각 50만원씩 직접 전달 되기도 했다.

자경원 지도법사 지현 스님은 “병원을 처음 건립할 때부터 종교실이 정해져 있었을 만큼, 병원 내의 법당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환우 가족들의 고통 받는 마음을 부처님께서 조금이나마 덜어주셨으면 한다. 또한, 오늘 위로금을 받은 가족들을 비롯해 어려움에 처한 환우 가족들에게 좋은 인연이 맺어지기를 늘 기도한다”고 전했다.



원광사 주지 인오 스님이 6월 9일 난치병 어린이들을 위한 ‘발전후원회 후원금 전달식’을 양산부산대학병원에서 가졌다.

격려금을 받은 법운지(37)보살은 “지현 스님은 좋은 일을 항상 조용히 하신다. 기부금 이야기도 오늘 듣게 됐다. 인오 스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렇게 위로금을 받은 것도 전부 좋은 인연이라 생각한다. 아픈 아들 때문에 자주 법당을 방문하지는 못하지만, 마음으로나마 항상 신심을 간직하고자 한다”며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준 지현 스님과 인오 스님에게 감사함을 표했다.

마지막으로 인오 스님은 환우 가족들에게 “어려운 조건 속에서 활짝 피어나는 것이 바로 신심이다. 신심이 높으면 원하는 것도 성취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신심을 잃지 말고 인연을 잘 받아들여서 우리 어린이들이 빨리 쾌유하기를 발원하자”고 격려했다.

한편, 어린이 환우를 위한 원광사의 자비행보는 이번 후원금 전달을 시작으로 꾸준히 양산대학병원에서 이어질 예정이다.

김나영 객원기자

천도재로 전쟁 아픔 씻고 평화발원

범어사 · 홍법사 등 부산 사찰들 보훈 및 추모 행사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추모하고 나아가 한반도의 평화를 발원하는 보훈의 달 행사가 부산 사찰 곳곳에서 봉행됐다.

6월 6일 부산 홍법사(주지 심산)에서는 호국영령을 위로하는 ‘제24회 허공마지 홍법바라밀재’가 홍법사 야외 잔디마당에서 펼쳐졌다. 육법공양으로 시작한 홍법바라밀재에는 영축총림 통도사 주지 원산 스님, 홍법사 주지 심산 스님, 설동근 동명대 총장, 그리고 한국전쟁 참전 미군용사 10여명과 참전용사 3명 등 사부대중 4천여명이 참석했다.

1951년에 한국전쟁에 참전한 샘(88, Sam) 씨는 “방문을 처음 제안받았을 때는 망설였다. 하지만 방한을 하면서 본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모습과 강인함은 믿기지 않을 정도로 놀랍고 행복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오전 천도재 및 통도사 주지 원산 스님의 특별법문 이후에는 청소년들의 호국 정신을 고취시키는 ‘제4회 호국의 숨결대회’가 경내 야외에서 펼쳐졌다. 3천여 초 · 중 · 고 학생들은 그리기 및 글짓기, 서예로 경합하며 나라를 위해 희생된 순국선열의 넋을 기렸다.

한편, 같은날 범어사에서는 ‘호국영령과 수륙 고혼을 위한 천도재’가


홍법사 천도재에 초대받은 미군참전용사및 가족들의 표정이 진지하다.

허공마지 홍법바라밀재
범어사, 호국영령 천도재 등

범어사 대웅전 앞 영단에 위패를 모시면서 시작됐다.

‘임진왜란 이후 호국승병 각 열명 영가’, ‘진도 세월호 및 부산외대 희생자 각 열명영가’ 등 나라를 위해 혹은 예기치 못한 불의로 세상을 떠난 영가들의 위패를 모신 범어사는 현화, 천도재 의식을 비롯한 범어사 방장 지유 스님의 법어, 주지 수불 스님의 봉행사, 이윤희 범어사신도회장의 추도사 등의 엄숙한 순서로 추모의 뜻을 전했다.

주지 수불 스님은 “우리나라는 국가적 재난이 발생했을 때 한마음 한뜻으로 이를 극복하고 부흥의 계기로 삼았다. 오늘 천도재로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고귀한 분과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넋을 기리고자 한다”며 천도재의 의의를 밝혔다.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이번 천도재에는 율학승가대학원장 수진스님, 승가대학장 용학스님, 허남식 부산시장, 서병수 부산시장 당선인 등 사부대중 3천여명이 참석했다.

김나영 객원기자

편안한 미소로 환우 마음 위로

울산 정토마을자재요양병원 약사여래불 점안식

울산 정토마을자재요양병원(이사장 능행)이 약사여래불 점안식을 6월 5일 봉행했다.

통도사 방장 원명 스님의 집전으로 진행된 이번 약사여래불 점안식에는 정토마을자재요양병원 이사장 능행 스님 및 소임스님, 약사여래불을 불사한 오채현 조각가가 참석했다.

오채현 조각가는 “정토마을자재요양병원에 오시는 분들의 병고에 힘겨워하는 마음을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해드리고자 부처님의 얼굴을 미소 띤 모습으로 불사하게 됐다. 또한, 가족 분들이 겪는 아픔까지 안아주는 이 시대의 진정한 부처님이 되셨으면 한다”며 약사여래불의 의미를 전했다.

오채현 작가가 6개월 동안 제작한 정토마을자재요양병원의 약사여래불은 경주 화강석으로 높이가 3.5미터에 달하며 무게는 16톤이 넘는다. 한편, 정토마을자재요양병원은 6월 15일 개원식을 갖고 공식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정토마을자재요양병원에 점안된 약사여래불

김나영 객원기자

안동 대선정사 점안식 및 개원법회

안동 용상리 대선정사(주지 용산)가 6월 8일 부처님 점안 및 개원법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대한불교화엄조계종 종정 법정 법사스님과 종단 종회의장 혜수 스님을 비롯한 원로의원스님, 포항불교사암연합회 홍보부장 청담 스님 등 사부대중100여명이 동참했다.

이날 행사는 예불의식과 함께 관음시식과 합동천도재 등이 진행됐다.

종정 법정 법사스님은 “공덕은 쌓을수록 커지고 구슬은 굴려야 보배가 되듯이 기도정진을 열심히 해서 이 자리에 동참한 사부대중들에게 부처님의 가피가 충만하길 염원한다”고 법문했다.

이어 주지 용산 스님은 “대선정사의 상호와 같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많이 나누고 베풀어, 나와 더불어 사부대중들과 함께 행복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수행정진에 매진하겠다”고 인사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안동 대선정사가 6월 8일 부처님 점안 및 개원법회를 가졌다.

사찰 속 문화체험 특별한 추억 선사

기장 동림사 청소년 문화체험 템플스테이 진행

청소년을 위한 1일 문화체험형 ‘템플스테이’가 6월 5일 기장 동림사(주지 성타)에서 진행됐다.

이번 템플스테이에 참가한 양운중학교 80여 학생들은 주지 성타 스님을 비롯한 학교 지도 선생님들과 함께 전통염색하기, 선화 그리기, 명상 등 다양한 문화체험 활동에 참여했다.

양운중학교 학생들은 평소 진로활동인 ‘창의체험활동’ 중 하나로 동림사에서 문화체험을 선택해 사찰에서의 특별한 추억을 쌓고 있다.

이미경(51) 양운중학교 교사는 “주지 성타 스님께서 진행하시는 다양한 활동은 아이들에게 높은 만족도를 주고 있다. 지루하지 않게 신체부터 창의 활동까지 골고루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라며 동림사 체험형 템플스테이의 장점을 꼽았다.


기장 동림사가 마련한 청소년을 위한 1일 문화체험형 ‘템플스테이’ 장면.

양운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유현아(16) 학생은 “학교에서 학업에만 열중하다가 친구들과 함께 사찰이라는 공간 안에서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것이 신기하고 좋다”고 소감을 전했다.

주지 성타 스님은 “아이들에게 불교문화를 자연스럽게 포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고심하다가 이와 같은 템플스테이를 마련했다. 또한, 불교문화와 전통의 중요성에 대해 일깨워 주고 싶었다”며 템플스테이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오전 10시~오후 3시까지 진행된 이번 템플스테이에서는 성타 스님이 직접 지도하는 참선과 선화 그리기가 아이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051)508-29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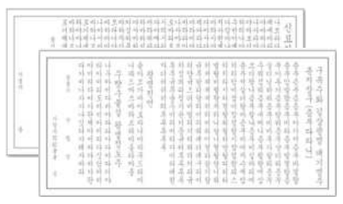
김나영 객원기자

※ 경전사경 ※


1호 반야심경(한문) 2호 금강경(한문) 3호 반야심경(한글) 4호 금강경(한글)

할인가 3,500원(50권 이상) 정 가 5,000원(1권)
• 내 지 : 70장 자연색메트지 • 표 지 : 레자크지 옵셋 4°
• 제 본 : 한장본 실제본 • 크 기 : 220㎜×310㎜


11호~17호 법화경(한문)1~7
할인가 4,200원(50권 이상) 정 가 6,000원(1권)
19호~25호 법화경(한글)1~7
할인가 3,500원(50권 이상) 정 가 5,000원(1권)


신묘장구대다리 / 츰부다라니
할인가 150원(500장 이상) 정 가 200원
• 구 성 : 한지낱장
• 크 기 : 636㎜×313㎜

※ 여러종류의 사경책 · 사경지가 있으니 전화문의 바랍니다!!

※ 금지 관음도 액자 ※


문수보살 보현보살 양류보살 월광보살 유리보살 일광보살

금지 관음도 액자 6종
할인가 20,000원 (10점이상) 정 가 30,000원
• 포 장 : 골판지 • 크 기 : 38㎝×58㎝

양초 할인판매!!
고급 국내산 양초 2박스 이상 무료배송!



밀 대 (70개입) 한박스 90,000원
돈타레 (40개입) 한박스 90,000원
원기둥 (20개입) 한박스 90,000원


영가옷 B형-남 정가 1,300원 영가옷 B형-여 (할인가 1,000 (100벌 이상))


영가옷 D형-남 정가 1,000원 영가옷 D형-여 (할인가 800 (100벌 이상))


수자영가옷 정가 900원 (할인가 700 (100벌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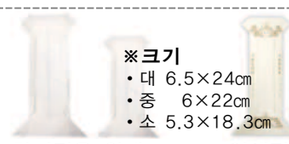

영가천도다라니 정가 1,000원 (할인가 800 (200개 이상))


금강경탑다라니 정가 200원 (할인가 160 (600개 이상))


예수재함A (50개 1박스) (할인가 50,000 (50개 이상))


예수재함B (50개 1박스) (할인가 60,000 (50개 이상))


종이신발(남/여) 1켤레
100개이상 할인가 1,300원
정 가 1,600원


※크기
• 대 6.5×24㎝
• 중 6×22㎝
• 소 5.3×18.3㎝
한지접은 위패(대/중/소)/인쇄접은 위패(대/소)
정 가 30,000원 / 30,000원 (100개)
할인가 @250원 / @250원 (1000개이상)


※크기
• 15.5×19㎝
한지·인쇄접은영가옷(남/여)
정 가 27,000원 (100벌)
할인가 @240원(1000벌이상)


금강호신경
1000조 @160원
대량주문시 전화주세요.

동진기획 · 붓다쇼핑
☎(051) 515-8888
www.buddhashopping.com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364-2
TEL.(051)515-2988, 555-1087, 508-9377~8 FAX.(051)508-0101
인터넷전화 . 070-7425-0518 H.P 011-554-2988
※동진기획 붓다쇼핑에는 100여종의 서적, 900여종의 용품이 있습니다.
※불교용품카다록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로 주소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
[불교달력,서적,사경지,연등,염주,향,양초,다포,4.8용품,백중용품]

제주 불교 역사가 흐르는 삼나무 숲길

제주의 사찰을 찾아서- ⑤ 관음사

한라산 650m 기슭에 자리한 조계종 제 23교구 본사인 관음사는 제주의 30여 사찰을 관장하는 제주 불교의 중심도량이다.

그 힘의 근원은 제주의 불교 역사에서 찾을 수 있다. 관음사는 불교전래 초기에 창건돼 발전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 증거는 제주의 여러신화, 전설, 민담에 관음사를 괴남절(제주 방언으로 관음사), 개남절, 동괴남절, 은중절이라고 민간에 유포돼 전래해 오는 것이다. 구전에 따르면 고려 문종때(1046~1083) 창건됐다는 설이 있고, 조선시대에도 존재한 사찰이라는 기록이 남아있다.

그러다 조선시대인 1702년 이형상 목사에 의해 제주지역 사찰 전부가 훼철되면서 관음사도 함께 사라진다. 200여년간 명맥만 유지돼 오다 지난 1908년 안봉려관 스님에 의해 중창됐다. 스님은 지역민들의 반대에 부딪히는 어려움 속에서도 해월굴에서 3년간 관음기도를 드리며 법당과 요사채를 완공한다. 절의 외형을 갖추는 불사가 일단락되자 제주 중심지인 중앙로에 시내 포교당인 대각사를 세워 제주도민과 함께 호흡하며 적극적으로 포교활동에 나선다. 오랜시간 맥이 끊겼던 제주의 불교가 관음사를 중심으로 살아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다 관음사는 1939년 화재로 대웅전 등이 모두 불타 없어지면서 질곡에 찬 역사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 들고 만다. 이어 1948년 제주 4·3 당시 관음사의 위치가 전략적 요충지였기에 토벌대와 입산 무장대가 관음사를 중심으로 상호간 첨예하게 대치했고, 이러한 과정에서 관음사는 모든 전각이 전소되는 아픔을 맞는다.

이후 관음사가 현재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한 것은 1962년 한라산 입산금지가 풀리면서 부터다. 1969년부터 다시 시작된 중장불사는 대웅전을 시작으로 선방, 영산전, 해월각, 사천왕문, 일주문, 종각 등이 차근차근 불사가 이루어지면서 지금의 모습을 되찾는다.

제주불교의 역사를 밟아온 관음사, 그것은 비운의 섬 제주가 걸어온 슬픈 역사와 닮은꼴이기도 하다. 그래서일까. 명사들의 방문이 잦은 곳 중 하나도 바로 관음사다.

특히 할아버지가 관음사 초대 신도회장을 역임한 강금실 前 법무부 장관은 마음이 복잡할 때면 제주를 찾는데, 그때마다 이 곳 관음사를 참배한다고 한다.

일주문서 사천왕문에 이르는 삼나무 숲길에 투박하면서도 정감가는 현무암 부처님들이 관음사의 매력이라 말한다고 한다. 마치 남방불교의 선원을 들어가는 듯한 이국적인 정취다.

그 길을 지나면 대웅전이 보인다. 1973년 8월 완공됐다. 내부에는 주불로 석가모니불이, 또 제주도 유형문화재 제 16호로 지정된 목조관음보살좌상도 함께 봉안중이다. 탱화는 근래에 조성한 영산회상도를 비롯해 신중탱화가 있다.

옆에 있는 청동 범종은 지난 1993년도에 만든 것이다. 대웅전안에서 눈여겨 볼만한 것은 바로 목조관음보살좌상이다. 이 불상은 지난 1698년 조성된 것으로 본래 전남 영암 성도암서 개금된 이후 해남 대흥사에 봉안돼 있었는데, 이후 안봉려관 스님이 1925년 관음사로 이운했다.

이 보살상은 17세기말 전형적인 불상 양식을 두루 갖춘 단아함과 눈코입의 양감있는 얼굴표현, 화려한 옷 주름 등으로 당대의 수작으로 꼽히고 있다. 또한 이 보살상은 머리에 삼산보관을 따로 쓰고 있는 등 문화재적 가치가 높아 1999년 10월에 제주 지방 문화재로 지정되기도 했다.

3차례 소실, 1969년부터 본격 불사
대웅전 안 목조관음좌상 문화재 지정
대불, 현무암 불상 참배객들에게 '눈길'

대웅전을 나와서는 제주대불쪽으로 발길을 옮겨보자. 대불은 불자들에게 이 세상 모든 중생들이 과거때부터 미래생까지 다 겁생토록 충만한 삶을 살기를 바램이 새겨져 있어 참배객들에게 인기가 높다. 2009년 2월 전통목재 양식으로 건립된 2동의 선센터에서도 다양한 불교문화체험을 할 수 있다. 현재는 내외국인들에게 템플스테이 공간으로 활용중이다. 마지막으로 관음사서 빼놓지 말고 챙겨볼 게 또 있다. 제주불교의 중흥조인 안봉려관 스님의 흔적이다. 해월굴 입구에는 스님의 석상과 행장을 기리는 행적비가 세워져 있다.

관음사=제주불교 이병철 기자


일주문서 사천왕문에 이르는 삼나무 숲길은 투박하지만 정감이 있다. 양쪽에 도열된 현무암 부처님들은 이국적인 정취를 자아낸다.


조계종 제23교구 본사인 관음사 전경.


공원 형식으로 조성된 관음사 미륵대불.

"유치원 조성 올해 큰 불사"

주지 성효 스님



관음사는 2007년 관음사 사태 이후 흩어져 버린 신도와의 관계가 불안정해 왔다. 아직도 마무리 되지 않은 법적분쟁은 아물지 않은 상처다.

주지 성효 스님 "아직은 미흡할 지라도 기본적인 뼈대를 통해 흩어지고, 돌아섰던 신도들의 마음을 돌리는데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꼭 추진하고 싶은 사업이 있다는 스님은 "미래불자가 곧 한국불교의 희망이듯 새싹불자를 육성하는 사업으로 관음사 산하에 유치원을 조성할 계획"이라며 "교구본사로서 짊어지고 나가야 할 책무이자 제주불교를 살리는 길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또한 스님은 "템플스테이 개념의 사찰음식 체험관은 최근 트렌드에 맞는 '힐링음식'을 바탕으로 한 건강과 포교, 수행이 연결되는 구조"라며 "미륵대불 인근에 관음사 신도뿐 아니라 인근 등산객까지 향유할 수 있도록 복합적인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행수첩

〈가볼만한 곳〉

▲한라산 관음사 야영장

최근들어 캠핑문화가 유행을 타면서 제주에도 가장 저렴하면서도 힐링을 전하는 관음사 야영장이 인기다.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는 여름철 밤이면 제주시민들에게 최고의 피신처이기도 한 관음사 야영장은 해발 620고지에 위치, 시내권보다 5도 정도 낮기 때문에 제대로 된 피서를 즐길 수 있다. 특히 제주도에도 많은 캠핑장이 많지만 비용과 주변환경, 편의시설을 감안하면 관음사 야영장이 으뜸이다. 이용방법은 선착순이며, 운연기간은 연중무휴다. 이용요금은 소형텐트 3천원, 중형텐트 4천5백원, 대형텐트 6천원이고 주차요금은 1천 8백원이다.

문의)064-756-9950(관음사탐방안내소).

▲제2도깨비도로

제주에 많이 알려진 도깨비 도로는 제1과 제2 도깨비로가 있는데 제1도깨비도로는 1100도로에, 그리고 제2도깨비도로는 5.16도로에서 관음사로 향하는 산록도로변에 있다.

도깨비도로는 내리막길인데도 불구, 차가 거꾸로 올라간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사실 이 도로는 착시현상으로 실제 경사도가 낮은 곳이 시각적으로 높게 보여서 생기는 현상이다. 착시 구간이 100m정도 되는 이 도로에서 신비함을 맛볼 수 있어 관광객들이 꼭 한번 거쳐 가는 단골 코스다.

▲한라산 관음사 코스(아래 사진)

한라산 관음사 인근의 한라산관음사등산코스는 한라산 정상인 백록담을 오를 수 있는 8.7km의 탐방로이며 편도 5시간 정도 소요된다. 계곡이 깊고



산세가 웅장해 한라산의 진면목을 볼 수 있는 코스다. 특히 전문 산악인들은 물론 성판악 코스 탐방객들도 하산 할 때 주로 이 코스를 이용한다.

▲관음사 가는길=주소는 제주시 산록북로 660이다. 제주국제공항서 77번 버스를 타면 약 1시간 정도 걸린다. 77번 버스는 주말과 공휴일에만 운영된다. (064)724-6830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영산재
범패소리 명상 힐링치유

영산재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인도의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하시는 모습을 재현한 불교의식으로 시공을 초월하여 본 도량으로 오롯이 옮기고 영산회상의 제불보살님께 공양을 올리는 의식이다. 그리하여 산자와 죽은자가 부처님의 참 진리를 깨달아 이고득락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데 의의가 있다. 〈영산재보존회 사회부장 처명〉

■ 범패는 천년을 이어온 영혼의 소리로 우리나라 삼대 성악곡(판소리, 가곡, 범패)의 하나임.
■ 범패를 활용한 소리명상 힐링 치유는 인간의 감정과 내면의 세계를 다스리는 이 시대의 정신적 안식처로서의 가장 수승한 수행임.
■ 장 소 : 영산재 보존도량 봉원사 경내
■ 일 시 : 매주 금요일 저녁 7:00~9:00
■ 수강대상 : (1) 범패소리 명상을 통한 약사여래부처님의 가피로 몸과 마음을 치유 받고자하는 모든 분
(2) 범패소리 명상을 수행하고자 하는 모든 분
(3) 병의 근원인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분
■ 문 의 : ☎ 02)393-8027

지도 : 봉원사 법화정토회 처명(선광)스님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과정
• 중앙승가대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남부구치소 교정위원,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영산재 범패소리명상힐링연구소(소장 : 처명)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

HEALTH FOOD
수행자를 위한 禪食
수행자에게 꼭 필요한 건강식품! 여기에 있습니다.
당사는 울금(강황)과 한방재료를 이용하여 건강식품을 만드는 전문회사입니다.
본 제품들은 울금과 강황에 대해 재배생태와 약리분석으로 석 박사를 모두 취득한 국내 최고의 전문가인 김용식 한약학 박사가 직접 만든 것으로 불자들의 수행에 도움이 되는 식품입니다.
제품의 함량과 질적인 면에서 최고라고 자신합니다.
울금과 강황 절대로 남용하면 안됩니다. (본제품들은 하루 적정섭취량임)

대표제품
● 울금128 : 누구나 드실 수 있는 생활속의 울금.
● 당찬하루 : 당당한 하루를 위하여 당찬하루를 마신다. 울금의 적정 섭취량에 황기나 구기자 등 궁합이 잘 맞는 한방제품으로 이루어져 있음.
● 팔 자 보 : 자(子)로 끝나는 여덟가지 한방재료로 만들어짐.



Sanchon Herb www.sanchonherb.co.kr 산촌허브 전국대리점 모집
(사찰내영업, 포교원, 주지스님답례품, 기타판매점을 가지고 계신분 환영함)
산촌허브(주) 055)632-2233 / 010-3215-3998
농협 : 351-0633-0485-13 산촌허브(주)

新 사찰 건축
10. 국제선센터

현대 사찰 건축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


2010년 완공된 국제선센터. 이를 설계한 김개천 교수는 전통을 현대로 대체하는 것에 대한 의문에서 새로운 사찰 전형을 제시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신라의 황룡사 9층탑 모티브
보는 방향 따라 한옥·탑·빌딩 공존
전통처럼 보이지만 전통 넘어서

국고 150억 투입된 종단(조계종) 사업
도심 최초 템플스테이 사찰
새로운 사찰 전형 제시하고파

흔히 '새로운 사찰', '현대식 사찰' 하면 세련된 미술관 같은 외관을 떠올리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다. 전통 사찰의 외양과 구조가 시대적인 흐름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2010년 11월 전통과 새로움의 문제 사이에서 또 하나의 건축이 시도됐다. 서울 신정동에 지어진 국제선센터이다.

"현대의 전통화." 설계자인 건축가 김개천 교수(국민대 조형대학)는 지상 7층 규모의 콘크리트 한옥빌딩인 선센터를 이렇게 말했다.

한옥으로 빌딩 짓기

국제선센터는 보는 이의 시선을 단박에 사로잡는다. 20여m에 달하는 거대한 탑모양의 한옥, 누가봐도 '절스러운' 건물이 아파트와 통유리 빌딩 사이에 위치한 까닭이다.

국제선센터는 그동안 많은 불교관련 건축물의 설계를 담당했던 건축가 김개천 교수가 설계를 담당했다. 하지만 그동안 김 교수가 설계했던 다른 불교 건축물과는 많이 다르다는 느낌을 준다. 직선의 미학이 녹아있는 만해마을과 현대적 법당의 백미로 꼽히는 정토사의 무량수전과 견주면, 마치 다른 사람의 작품처럼 느껴질 정도다.

"다들 전통의 현대화를 말하죠. 그러나 이를 시도한 많은 건축물이 대부분 실패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오히려 '현대를 전통화'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죠. 거꾸로 출발하는 거에요."

김 교수는 전통의 현대화와 그 역은 같으면서도 전혀 다른 말이라고 했다. 전자가 전통을 어떻게 현대화시킬지 고민하는 것이라면 후자는 현대적 형식을 어떻게 전통처럼 표현할까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이다. 전통과 현대, 불교건축을 논할때면 항상 빠지지 않는 단어다.

김 교수의 이러한 접근은 관련 스님들의 반응이 한몫했다. 처음에는 현대식 건물로 디자인한 가설계안을 프리젠테이션했다. 스님들 사이에서는 이렇다할 반응이 없었다.

김 교수는 전통과 새로움 사이에서 또 한 번 고민했다. 전통과 새로움, 과거와 현재 사이에 놓인 '건축' 이란 문제는 늘 어려운 것이었다. 김 교수는 시대적인 요청을 과거로 돌아가 해결한다. 사라진 불사(佛事), 신라의 황룡사 9층탑에서 숙제를 풀기 시작했다. 황룡사 9층 목탑을 모본으로 디자인한 설계안이 통과됐다.

당시 선센터는 템플스테이의 문화적 가치를 인정한 정부가 조계종과 협의해 국고 150억원을 지원한 건물이다. 도심에 불교건축물을 세울 수 있는 흔치않은 기회였고, 도심사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일종의 테스트베드였다. 불교계 전체가 주시하고 있었던 큰 프로젝트였다. 하나부터 열까지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던 터라 스님들 입장으로서는 원하는 바를 속시원히 말할 수 없었던 것 아니었겠냐고 김 교수는 당시를 회고했다.

김교수 스스로도 현대 건축에 의문이 들었다. "전통을 왜 그럴싸한 현대적 건물로 대체해야 할까. 스님들도 원하고 간화선을 체험하러 오게 될 외국인 역시 한국 전통을 보고 싶어하지 않을까." 김 교수는 현대를 고전적으로 재해석했다. 불교의 국제교류가 활발했던 신라의 황룡사 9층탑이 모티브가 됐다. 한국의 수행문화를 알려나갈 장소에는 제격이라고 생각했다.

선센터의 역설

그렇다고 선센터가 전통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은 아니다. 외양은 전통 양식을 따랐지만 속살을 들여다보면 어딘지 기존 양식과는 차이가 있음을 느낄 수 있다.

9층탑과 7층 본건물로 나뉜 듯한 구조부터가 그렇다. 탑 안에는 엘리베이터가 있어 7층 건물과 연결된다. 기존 사찰이 탑과 대웅전이 개별적으로 분리된 형식인 반면 선센터는 하나의 건물이다. 전통적 가람배치를 고집하기에는 대지 면적에 한계가 있었던 것이다.

건축면적 1,244㎡의 국제선센터는 지하1층에 교육관과 어린이 법당이, 1층 사무실과 2층 대적광전 위에는 공양간과 템플스테이관, 선방이 있다. 부처님 머리위에는 아무것도 두지 않는다는 예전 사고방식에 비추어보면 어림없는 이야기지만 많은 대중들이 찾게 될 법당은 접근성 좋은 아래층에 위치하는 게 합리적이었다. 선방은 제일 높은 곳에 자리잡았다.

"공경하는 마음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지나치게 현실을 지배하면 곤란해요. 이념이 삶을 지배해 버리는 것이니까요. 현대적 불교는 그러한 점에서부터 유연해질 필요가 있는 것 아닐까요. 승방이나 템플스테이 개인방마다 화장실을 만든 것 역시 합리적 배치죠. 일부러 힘들게 살라고 강요할 필요는 없는거죠."


밑에서 올려다 보면 지붕이 보이지 않게 된다. 한옥의 모습이 사라지고 현대식 모습만 보인다.

김교수는 국제선센터를 설계할 당시 비례나 형태적으로 아름답게 보이는데는 관심이 없었다. 육중한 건물이라 권위적일 수도 있겠다싶어 시각적 여백을 주고자 했다. 본건물에 회랑을 둘렀다. 비어 있으면서 동시에 채워진 듯한 양가적인 모습은 공과 색이 따로 있지 않음을 이야기해준다.

선센터의 역설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멀리서 보면 분명 처마에 동기와를 올리고 있는 한옥건물이다. 반면 밑에서 위로 올려다 보게 되면 지붕은 보이지 않는다. 대신 나무로 마감한 평평한 판들이 겹겹이 쌓여있다. 한옥은 사라지고 현대식 건물의 층들만 남는다. 이를 위해 기존의 탑형식과는 반대로 탑신부를 좁히고 위 간격은 균등하게 분할했다. 처마밑 공포와 서까래도 없앴다. 높이 탓에 가까이가면 건물을 올려다볼 수 밖에 없는 시선의 변화를 고려해 형태에 변주를 준 것이다. 그로인해 국제선센터에는 동서남북, 위, 아래 등 보는 방향에 따라 한옥, 탑, 빌딩이 공존한다. 국제선센터라는 건축엔 고정된 형상이란 없다.

전통속에 숨은 현대

"일본풍이다 중국풍이다 말들을 많이 하지만 선센터는 한국적 양식도 아닙니다. 어디에도 없는 건물이죠."

자를 대고 그은 듯 반듯한 선이 강조된 국제선센터는 곡선으로 대변되는 전통건축의 통념과는 반대다. 때문에 건물 정체성에 대해 논란이 일었지만 김 교수는 "한옥이 아닌 한옥을 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 시대 한옥을 만들기 위해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형태를 찾아나섰다. 창살 문양, 벽돌 등을 전부 새로운 방식으로 디자인했다. 전통 세살무늬 대신 대각선, 격자 등을 자유자재로 배치했다. 간격도 벌어졌다 좁아졌다를 반복한다. 7층 선방의 벽돌 역시 한 장씩 엇갈려 쌓은 것이 아니라 두 장을 포개서 쌓았다. 전통에 없는 형태지만 전체적으로는 전통처럼 다가온다는 데 선센터의 건축적 재미가 숨어있다.

"디테일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예전 것을 쓰지 않는 것을 기본 출발로 삼았다"는 김 교수는 "새로운 것을 계속해서 만들고 보태야 새로운 문화유산이 만들어진다"고 강조했다. 전통을 얘기하되 그에 대한 집착을 버렸고 얽매이지 않음으로써 어설픈 전통 흉내 역시 멈출 수 있었다.

국제선센터는 다른 '현대식' 사찰보다는 확실히 전통에 더 방점을 찍고 있는 듯 보인다. 현대식 건물 안에 전통적 의미를 함축해 시를 읽듯 공간을 읽어야 하는 건물들과는 달리 쉽고 솔직하다. 그래서 국제선센터는 새로운 족보로서 당당하다. 묘하게 이질적이고 낯설면서도 숨어있는 전통의 유전자로 인해 친근하게 다가온다.

김 교수에게 국제선센터는 또 다른 시도였다. 무엇이 바람직한 건축인가에는 답이 없다. 사찰 형식에 대한 당위성 역시 어디에도 없다. 다만 그는 도심에 위치한 현대 사찰의 또 다른 전형을 제시했다.

배현진 기자 linus@hyunbul.com





국제선센터는 전통에 없는 형식으로 전통을 완성했다. 창살의 무늬는 기존 양식과 다르고(사진 왼쪽), 벽돌을 쌓는 형식 역시 새로운 형태다.(사진 가운데와 오른쪽)

찬덕연등의 기술을 보유한 연등시공 전문기업
BORYEON 보련기획
특가행사 진행중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연등시공


만 월 등

바 림 등

자 비 등

정품 LED전구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1년 하루 6시간 전기요금 : 98원/1kwh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팔각주름등

공 단 등

팔 각 접 등

인 등

연꽃만월등

연 화 연 등

차 걸 이

보련기획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문현로 189번길 27
H·P 010-9446-1862
전화 031)526-2201 / 031)526-2202

마지막까지 절개 지키며 '無上大道' 추구하다



만해 스님 열반 70주년

'만해의 길을 가다'

⑪ 심우장과 만해 그리고 열반



서울 성북동 심우장 외경. 1933년 만해 스님이 지인들의 도움으로 마련한 자택이다. 이곳에서 만해 스님은 말년을 보내며 여러 사회 · 민족운동을 전개한다.



심우장의 내부. 스님이 살던 모습으로 잘 정리해 놓았다.



망우리에 있는 만해 스님의 묘소.

만해 스님의 삶은 그 범위가 매우 다채롭다. 수행자로서 삶을 살면서 항일 운동을 했다. 구도와 독립의 염원을 노래한 시인이었고 사회 계몽 운동을 전개한 선각자이기도 했다. 선각자로서 면모를 잘 보여준 것이 바로 출판사업이다.

만해 스님은 1931년 6월 당시 유일한 불교 잡지였던 〈불교〉를 인수해 〈유심〉에서 못 이룬 불교 대중화 · 계몽운동을 펼쳐나갔다. 84호부터 시작했던 만해 스님의 〈불교〉는 108호까지 발간됐으며, 종교에 관련한 글뿐만 아니라 청년의 교육문제, 민족의 향방 등 다양하고 깊이 있는 내용들을 다뤘다.

필자들도 대부분 당대 지식인과 저명인사들이 참여했다. 저자들을 살펴보면 박한영, 방한암, 송만공, 백용성, 송종헌, 권상로, 김영수, 김태흡, 백성욱, 정인보, 이광수, 고유섭, 김법린, 유엽 등이 이름을 올렸다.

고은 시인이 쓴 만해 스님 평전에는 당시 〈불교〉에 만해 스님이 얼마나 열정을 쏟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 있다. 김영수 씨가 고은 시인의 만해 스님 평전에 털어놓은 당시 회고는 이렇다.

"나는 그 무렵 하와이의 불교 청년대회에 참석하고 돌아왔었지. 만해 화상은 〈불교〉지 운영 때문에 그나마 볼품없는 얼굴이 반쪽이 돼 있었어. 그러나 우리 필자들은 원고료 따위는 상상도 하지 않았어. 그만큼 열성들이었으니까."

또한 만해 스님은 광기의 시대에도 좌절하지 않고 경전 인출 등에도 신경을 썼다. 1931년 7월 전북 전주 안심사에 보관된 한글 경판 원본인 〈금강경〉, 〈원각경〉, 〈부모은중경〉과 〈유학〉, 〈천자문〉등을 발견 · 조사하고 찍어냈다.

그해 9월에는 윤치호, 신흥우 등과 나병구제연구회를 조직하고 여수, 대구, 부산 등지에 간이 수용소를 설치해 나병 구제에 정력을 쏟았다. 하지만 스님 자신은 머리 누일 방 한칸이 없이 떠돌이 생활을 했다. 여기에 요시찰 인물이었던 만해 스님에게는 항상 일제에 협조하는 조선인 경찰이 따라 다녔다.

실제 구하 스님이 만해 스님에게 통도사 산내 암자를 맡아 조용히 지내라고 해서 통도사에 잠시 내려가 있을 때에도 조선인 경찰이 찾아와 통도사를 압박하기도 했다. 이 당시 만해 스님은 '모기'라는 시로서 조선인 경찰에 일침을 가했다.

"모기 너는 영웅호걸의 피를 빨고 어린아이의 피도 빨고 지조가 없는 얄미운 놈이다. 하지만 너에게 두손 합장하고 크게 배울 것 하나는 동족의 피는 빨지 않는다는 점이다."

불교 대중화 위해 〈불교〉誌 인수
사회 · 독립운동하며 대중 계몽나서

만년 돼서야 성북동에 '심우장' 마련
총독부가 싫어 북향 지은 일화 '유명'
창씨개명 · 학병징용 반대 운동 전개
조선 독립 못보고 1944년 열반 들어

만해의 마지막 거처 '심우장'

만해 스님은 1933년, 55세에 이르러서야 성북동에 집 한칸을 얻게 됐다. 마음 놓고 기거할 방 하나없는 생활을 보다 못한 몇몇 뜻있는 인사가 마련해 준 것들이다.

당시 조선일보사 사장이었던 방응모의 주도로 집을 마련하려하자 벽산 스님이 자신의 토굴로 사용하려 했던 땅 54평을 내놓았고, 거기에 60평을 보태 집을 짓게 된다. 중등학교 수학 교사 최규동이 설계를 맡아 5간 한옥을 설계했으며, 집을 지을 때에는 박광, 김관호 등이 많은 일을 거들었다고 한다.

심우장 건축에는 유명한 일화가 전해진다. 심우장은 한국 전통 가옥이 선택하는 남향이 아닌 북향을 하고 있다. 이유는 만해 스님이 남향으로 집을 지으면 조선총독부를 바라보게 되기 때문이었다. 조선을 수탈하고 있는 일제의 총독부를 마주할 수 없어 겨울에 춥고 여름에 더운 북향을 선택한 것이다.

이렇게 북향으로 주춧돌을 놓고 지은 것이 '심우장(尋牛莊)'이다. 만해 스님이 손수 지은 택호(宅號)는 불교의 깨달음의 과정을 도상화한 '심우도'에 기인한다. '심우도'에서 소는 마음에 비유된다. 마음자리를 닦아 깨달음에 이르는 수행자의 삶을 기저에 두고 있는 만해 스님의 심상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스님은 심우장에서 자신의 마음을 수행하는 도량으로 사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잡지 〈삼천리〉 1936년 6월호에 게재된 '심우장에서 참선하는 한용운 씨를 찾아'를 보면 알 수 있다.

당시 만해 스님은 불당 같은 곳이 칩거하면 답답하지 않냐는 기자의 질문에 "틈만 있으면 정좌하고 속념에서 물러나 참선하는 것이 매일의 중요한 일과"라고 답변하고 있다. 이어 "조용하고 틈이 있으면 언제든지 몇 십분이고 몇 시간이고 참선을 하게 된다"면서 "아침 일찍 세수한 다음 저녁밥이 지난 뒤 잠자리에 들어가기 전에는 매일 같이 참선을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시대의 소도 같았던 심우장

심우장에서는 알려지지 않은 여러 역사적 사건들이 있었다. 〈흑풍〉, 〈박명〉, 〈후회〉 등의 신문 연재 소설과 적지 않은 글이 여기에서 집필됐다. 또한 당시 금서로 묶여 있던 단재 신채호의 〈조선상고사〉를 부도 속에 넣어 '단재탑'을 만들다가 사전에 발각돼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눈길을 끄는 일화 중 하나가 애국지사 일송 김동삼 선생의 5일장을 심우장에서 지내게 된 일이다. 김동삼은 국권 강탈 후 만주로 망명해 김좌진 등과 함께 '독립선언서'를 발표한 인물로 1931년 일제에게 체포돼 서대문형무소에서 수감 중 1937년 옥사했다.

민족의 지도자였던 김동삼의 갑작스런 죽음에 만해 스님은 며칠동안 통곡을 할 정도로 슬퍼했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세간은 달랐다. 연고자는 시신을 인수해 가라는 공고가 나붙였는데도 조선총독부의 눈이 무서워 어느 누구도 시신을 책임지려 하지 않았다. 만해 스님은 서대문형무소로 찾아가 시신을 심우장으로 모시고 와 5일장을 지냈다.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효당 최범술의 회고가 남아 있다.

"(일송의 영구)를 자기 자택 안방에 옮겨 모신 뒤 5일장을 치를 무렵에 이 소식을 들은 국내 유지들은 모두들 심우장에 운집했던 것이다. 그때 참석한 인사를 몇 사람 꼽을 것 같은면 정인보, 홍벽초, 김병로, 이인 씨 등 무려 수백 명 이었다 한다. 만해 선생은 일송 영구를 껴안고 방성통곡하였는데 평생 만해 선생이 눈물을 흘린다거나 또는 호곡한다는, 만해 선생을 아는 사람은 처음이었을 것이며, 또한 단 한 번이었을 것이라고들 말한다."

만해 스님은 일제 말기 혹독한 무단 정치 아래서 일제의 황민화 운동을 전 조선인에게 강요할 때 끝까지 굴하지 않았다. 창씨개명 반대운동을 벌이고, 조선인 학도병 출병을 반대해 나갔다. 한편으로는 경전 번역에도 힘써 〈유마경〉을 출간하기도 했다.

심우장에서의 생활에 대해 전보삼 남한산성 만해기념관장(한국박물관협회장)은 "만해 스님은 중생이 아프기에 내가 아프다는 유마거사의 가르침을 따르면서 민족의 아픔을 당신의 아픔처럼 아파했다"면서 "청년들에게는 만지풍설 속에서 꽃을 피우는 매화의 정절을 닮으라고 역설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마지막까지 꿈꾼 조선독립

1933년 심우장에서 말년 생활을 시작한 만해 스님은 11년 뒤인 1944년 6월 29일 66세를 일기로 열반에 들었다. 학도병 징병을 거부하고 일제가 주는 배급을 거부해 영양실조까지 갔기에 그 마지막은 더욱 안타까웠다.

스님의 다비는 자신이 김동삼을 영결했던 미아리의 조그마한 화장터에서 조촐하게 거행됐다. 그마저도 일제의 삼엄한 감시로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지 못했다. 남은 유골들은 수습해 망우리 공동묘지에 안장됐다.

조종현의 기록에 따르면 유해는 모두 소골(燒骨)이 됐으나 오직 치아만이 타지 않고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고 한다. 당시 장례에 참가했던 사람들은 불가에서는 치아의 출현을 매우 귀하게 여기고 있으므로 스님의 깊은 법력에 감복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독립을 뜻하는 무슨 길조(吉兆)가 오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깊이깊이 합장했다고 전해진다. 이 치아 역시 항아리에 담겨져 유골과 함께 망우리 공동묘지에 안장됐다.

만해 스님은 수행자이면서 민족운동가였고, 시대를 선도했던 사상가였으며, 깨달음의 열망과 자유 의지를 노래한 근대 시인이었다. 그가 보여준 치열한 삶의 궤적은 지금도 많은 귀감이 되고 있다.

실제 위당 정인보는 "인도에는 간디가 있고, 조선에는 만해가 있다", "청년들은 만해 선생을 본받아야 한다"고 상찬했으며 홍벽초 스님은 "칠천 승려를 합하여도 만해 한 사람을 당하지 못한다. 만해 한 사람을 아는 것이 다른 사람 만명 아는 것보다 낫다"고 말하기도 했다.

만해 스님의 법신은 영원히 남아 역사의 등불이 되고 주고 있다. 어두웠던 근대 민족사에서 인간의 근본 정신과 민족 자주의 의지를 심기 위해 노력한 스님의 사상을 다시 상기할 때이다. 마지막으로 만해 스님을 추모하기 위해 조종현이 쓴 시의 일부를 소개한다.

만해는 중이냐? 중이 아니다
만해는 시인이냐? 시인도 아니다.
만해는 한국사람이다. 뚜렷한 배달민족이다. 독립지사다. 항일투사다.
강철 같은 의지로 불덩이 같은 정열로
대쪽 같은 절조로 고고한 자세로
서릿발 같은 기상으로 최후 일각까지 몸뚱이로 부딪쳤다.〈중략〉
만해의 진면목은 생사를 뛰어넘은 사랑이다. 뜨거운 배달의 얼이다.
만해는 중이다. 그러나 중이 되려고 중이 된 것은 아니다.
항일투쟁하기 위해서다.
만해는 시인이다. 하지만 시인이 부러워 시인이 된 건 아니다.
남을 뜨겁게 절규했기 때문이다.〈하략〉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약사선원 석정수 스님의 기적의 약손비법

석정수 스님은 약사여래 부처님 가피를 통해 환부에 있는 병마를 직접 손으로 뽑아버리는 신비의 약손을 가진 스님입니다.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불자님들의 건강상담은 물론 전생업장소멸. 사업성취 등을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온갖 질병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약수선원에서 하는 일

1. 수행하시는 스님들께 약차보시 및 건강을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2. 노숙자. 장애자들에게 대중공양(주먹밥)을 하고 있습니다.
3. 우울증, 수면장애, 신경통, 위장병, 요통, 당뇨, 고혈압, 견비통, 중풍, 부인병, 갑상선 등 상담을 통해 병을 치유시켜 드립니다.
4. 육신의 병, 정신의 병, 잡신의 병, 귀신의 병 등 각종 빙의로 고통받는 분들의 수행도량



상담전화 : 010-2766-7677 약사선원 경기 양주시 장흥면 부곡1리 58번지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 · 천불 · 삼천불 · 만불 · 개금 · 탱화 · 금고 · 범종



지장 보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성화불교예술원
(공장 내 불교 전시관)
☎ 031)641-2747, 011-302-1022
경기도 이천시 율면 고당리 473-2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인터넷으로도 『성화불교예술원』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화불교예술원 전시관 부처님 상호를 보시는 방법

NAVER 성화불교전시관

주 · 야 상담 합니다



백봉 김기추 거사의
미발표 법문록

공부는 본 뿌리 법신자리가 한다

법 신 ②

그러니까 이것을 모르면은 남자는 남자 대로 무슨 고민이 있어. 생사문제도 있고 하니까 잘 산다 못 산다는 거. 남자는 남자 몸 대로 고민을 받아야 돼. 여자는 여자 몸 대로 고민을 받아야 돼. 젊으면 젊은 대로 고민을 받아야 돼. 학교 가서 공부하려면 그거 괴롭지 않아요? 사실에 있어서는. 또 늙으면 늙은 대로 고민을 받아야 돼. 전부가 고민이라. 돈이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고민이라. 그러나 그 자리를 딱 캐치해서 안다 하면은 고민이 있을래야 있을 것이 없지 않아요? 그러하니 지금까지 말한 요 대목이 그 대목입니다.

가는 것도 없고 오는 것도 없어. 앉는 것도 없고 눕는 것도 없어. 이 도리. 그만해말쑥한 그 슬기의 자리, 이거를 아는 것은 누만겁을 통해서 공부를 해야만 아는 것이 아니란 그 말입니다. 부처님도 누만겁을 공부를 했어요. 석가세존께서. 우리처럼 간단하게 이리 한 것이 아닙니다. 누만겁을 공부를 했는데, 그렇다면 부처님도 석가모니도 누만겁을 통해서 전생 전생 전생 그 전생에. 공부는 누가 공부를 하느냐 이것부터 알아야 됩니다. 공부는 이 색신, 가죽주머니가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죽주머니는 무정물이거든요. 가죽주머니를 끌고 다니는 법신자리가 공부를 합니다. 이거 하나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가슴이 덜렁할 겁니다. 아이고 그렇구나. 나는 색신이 공부를 하는 줄 알았더니만 이 색신을 끄집고 다니는 법신, 이 자리가 공부를 하는구나 이걸 생각하면 금시 내가 말한 것이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석가모니불께서는 그 석가모니불의 삼십이상 팔십종호가 공부를 한 것이 아니고, 공부를 할라 했자 어떻게 공부를 할 거여. 이거는 자성이 없는 물건인데. 느낌이 없어. 느낌이 없는 건데 어떻게 공부를 하겠습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석가모니불이 누만겁을 통해서 공부를 하셨다 하는 것은 법신자리가 한 거 아닙니까? 법신자리는 나는 것도 아니고 죽는 것도 아니다. 나는 듯해서 색신을 나투었을지언정 나중에 인연이 다하면 거두어들이고 또 다른 색신 나투고. 그러니까 본 뿌리는 그대로 가만히 있거든요. 그러면 공부를 하는 것은 본 뿌리, 법신자리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색신이 공부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의 색신을 끄집고 다니는 그 법신자리가 공부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지금부터 공부를 시작했다 하면 여러분도 누만겁을 할 수가 있어요. 몸은 자꾸 바뀌. 나이가 많으면 나중에 또 내버리고 다른 몸 받고, 다른 몸 받을 때 법신이 또 하고 또 이거 쓰다가 내버리고 또 다른 몸 받아. 그러면 법신이 또 공부를 하고. 그리 되는 건데. 여러분도 누만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온 말도 그 말이거든요. 부처님께서 누만겁을 공부를 해서 공덕을 이루어. 그래서 가고 오고 앉고 눕지 않는다는 이런 것을 다 아셨는데 우리도 그리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거 말마디는 아주 지극히 간단한데 의미가 심상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리

> **가죽주머니는 무정물**
> **색신을 끌고 다니는 법신이**
> **공부를 한다.**
>
> **법신자리는 나는 것도**
> **죽는 것도 아니다**
> **그래서 공부를 시작하면**
> **누만겁을 할 수 있다.**

했어요. 누만겁을 통해서 각고 고행을 했습니다. 괴로움을 새겨. 새길 각자, 고행을 했어요. 각고 수행을 했어요. 부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런데 사실로 이 자리에 있어서 부처님의 법신분이나 우리의 법신분이나 사실 둘이 아닙니다. 둘이 아닌데 왜 부처님은 부처님이고 내면 내다 이렇게 하느냐. 이 놈. 가죽주머니 이 놈. 이 놈 때문에 지남철(자석)에 끌리듯이 여기에 쓸려서 딱 여기에 들어앉았기 때문에 부처님은 부처님이고 내는 내라고 요렇게 생각할지언정 실은 그건 지 생각뿐이지, 이 색신에 들어앉은 것을 바탕으로 한 생각뿐이지 사실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그 자리는 부처님의 법신과 하납니다. 하나. 그러니까 이런 의미도 있어요. 이 말을 갖다 여기 써 놓지는 않았는데 그런 의미도 있어요.

가만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서 이 몸을 방하착해 보세요. 이까짓 거 불구덩이나 흙구덩이로 가는데 이까짓 거 뭐 생각할 거 없다 말이야. 그러나 내가 이거 있을 때까지 내 관리물이니까 관리는 하지만 이거 내 아니다 하고 생각해 보세요. 딱 한 번 얼굴 들어 보세요. 뭣이 있는가. 아무 것도 안 봬. 백주(괜히) 잠재의식이 들어서 여긴 내 가슴이다 여기는 내 팔이다 여기는 내 다리이다 그렇게 할지언정 다리라 해 봤든 그거 실다운 거 아니고 팔이라 해봤든 그 실다운 것 아니고 가슴이라 해 봤든 이거 불구덩이나 흙구덩이로 가는 건데 뭐 그까짓 거, 그거 할 거 있어요? 그러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이걸 방하착을 해. 방하착 딱 하고 허공을 딱 한 번 쳐다봐. 나중에 허공 문제 나옵니다. 아무 것도 없네. 사실로 이거 거짓말 아니여.

지금 나의 분수로 봐서는 나 아무 것도 없어요. 그래도 내 말하고 있거든. 아무 것도 없어. 이래 보니 내가 있긴 있어요. 이래 보니. 하하하. 여러분도 마찬가지에요. 그러기 때문에 부처님이다 내다 이렇게 분별을 하는 것은 왜 그러냐. 이것 때문에. 너무나 여기에 젖어가 있어. 너무나 여기에 젖어가 있어. 또 이것이 없으면 공부도 못합니다. 하긴 하지만은. 그래서 둘로 보는 거라 말이죠. 둘로 보는 건데, 그걸로 보더라도 우리가 요 도리만 딱 깨치면 바로 성불하는 겁니다. 부처님 자리에 오르는 겁니다. 다른 데 갈 데가 없어. 그러하니 나중에 가서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오늘은 부처님하고 우리를 둘로 보자 말이야. 실은 하난데, 둘로 볼 수가 없는데. 실은 하나거든요. 하나지만은 둘로 보자 말이야. 둘로 봐서 부처님께서 누만겁을 공덕을 이루었어. 우리는 못 이루었어. 이렇게 보자 말이야. 보면 어떠한 결과가 있느냐. 부처님께서 공덕을 이룬 그걸 갖다가 전부 혓바닥을 굴려서 가짜 혓바닥을 빌어서 말씀을 하셨거든. 그 말씀을 또 우리가 귀를 통해서 이 법신이 듣는다 말이지. 들어 놓으면은 부처님은 고생을 해서 알았지만 우리는 하나도 고생 안 하고 아는 거나 한 가지라 말이여.

진실행 보살, 알아듣소? 그렇지 않아요? 어떻습니까? 부처님께서 고생을 해서 알았다 말이죠.

백봉 김기추 거사 기념사업회



다시 읽는 효당 최범술 스님의 법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부처님은 최초의 등불이었다

⑥ 청전법륜(請轉法輪)

南無至心歸命禮西方阿彌陀佛佛(一拜)
十方所有世間燈 最初成就菩提者
我令一切皆勸請 轉於無上妙法輪
親觀如來無量光 現前授我菩提記
蒙彼如來授記已 化身無數百俱胝
願共諸衆生往生安樂國

전법륜(轉法輪)을 청한다. 즉 진리의 수레바퀴를 굴러 주십시오 하고 우리들이 여래께 청을 드린다는 뜻 이를테면 우리들에게 좋은 말씀을 일러 주십시오, 하는 뜻이다. 권해서 청한다는 권청(勸請)이라는 말이 있다. 이것도 우리에게 좋은 말씀을 일러 주십시오 하고 청한다는 것이다. 이 권청은 방법장(訪法障)을 제거한다. 방법장은 법(法), 진리를 비방하는 장애다. 이 장애를 제거해야 된다. 진리를 비방한다는 것은 진리를 알아듣지 않는다는 말과 통한다. 이를테면 소승(小乘)이니 소인(小人)이니 하는 것과 같다. 소인이란 어진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고, 소승은 활발한 대승(大乘)의 말을 듣지 않고 조그만 자기라고 하는 그것만이 유일무이(唯一無二)한 것이라고 믿는 태도다. 그러므로 이것은 적극적으로 비방하는 것보다도 더 근원적인 것이며 더 질이 악성이다.

부처님의 경우는 어떤 사람에게서라도 널리 진리를 구하고, 얻어 듣고, 지식을 자꾸 넓혀 나간다는 태도를 우리에게 가르치신다. 진리는 유독 자기 혼자서만 알아지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또 자기가 혼자서 스스로 터득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혼자의 점유물일 수는 없다. 우리는 일상 생활에 여러 사람과 접촉하는 가운데 들을만한 말이 있을 것이며, 또 대사회의 생명, 대 사회성의 자각에 입각한 생활을 영위할진데는 많은 사람을 대하므로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이를 종합할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는 권청을 한다. 좋은 의견을 일러 주십시오, 좋은 진리를 우리에게 일러 주시어 우리로 하여금 사회와 국가, 전 인류에게 행복과 복지를 가져오게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다.

이와같이 하므로서 우리는 누가 진리를 알고 있느냐? 혹은 누가 사회를 구제할 경륜과 포부를 갖고 있느냐? 그러한 사람을 찾아 그 진리와 경륜을 우리에게 베풀어 줄 것을 요구하고 그러한 기회를 마련하고, 성의를 다하여 간청해야 한다. 그러면 그 기회는 성대한 형식을 띈 시민회관 같은 공석상일 수도 있을 것이며 또는 단 둘이서만 마주 앉았을 경우에도 천지가 움직일 수 있는 자리를 베푼다는 것은 진리의 비, 법우(法雨)가 세상에 흔건히 내려 만물을 윤택하게 하고 생기를 돋구어 준다는 뜻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전법륜(轉法輪)을, 진리의 수레바퀴를 굴리어 우리에게 말씀을 베풀어주십시오, 하고 성심껏 권청(勸請)한다.

"부처님은 최초의 등불이었다.
우리는 이분께 청한다.
진리의 아름다운 수레바퀴를 굴려
말씀을 들려 주시기를.
부처님의 한량없는 광명,
예 있으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환한 세계.
아, 온갖 것이 오늘 제 자리에

> **진리의 아름다운 수레바퀴를 굴려**
> **말씀을 들려주시고**
> **한량없는 광명 베풀어 주시니**
> **삼라만상이 오늘 제 자리에서**
> **뚜렷이 미묘한 모습으로 보인다**

뚜렷이, 미묘한 모습으로 보인다."

이렇듯 우리는 신 · 구 · 의 삼업(三業)으로 묘법륜(妙法輪)을 굴리시라고 은근히 청한다.

⑦ 청불주세(請佛住世)

南無至心歸命禮西方阿阿彌陀佛
十方所有諸衆生 願離憂患常安樂
獲得甚深正法刹 滅除煩惱盡無餘
諸佛若欲示涅槃 我悉至誠而勸請
唯願久住刹塵劫 請佛住世轉法輪
願共諸衆生往生安樂國

청불주세(請佛住世)는 부처님을 청하여 이 세상에 오래 머물러 계십사 하는 것이다. 부처님을 오래 계셔 달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모든 지식이 있고 덕 있는 사람더러 우리와 더불어 여기 계셔 주시오 하는 말이다.

그러면 이런 어진 이들을 머물러 계시게 하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들이 사시는데 여러 가지 구애되는 번거로운 일이 없도록 편리를 돌봐드리고 지공(지성으로 공양)하고 봉사해야 한다. 모든 중생은 오늘 슬한 걱정과 혼란과 괴로움 속에 헤매고 있지만 이런 불행을 없애려면 스스로 마음을 안태하게 가라앉히고 번뇌와 망상을 끊는 일도 중요하지만 어진 이들의 밝은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되고, 어진이들은 이런 중생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되고, 그리하여 이런 상호유대(相互紐帶) 속에서 사회는 차츰 밝아진다.

덕 있는 이들이 세상에 오래 머물러 계시어서, 진리의 수레바퀴, 법륜(法輪), 덕륜(德輪)이 항상 굴려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고, 길을 밝히고, 광명(光明)스러운 천지에 우리가 있게 해 주는 일이다.

"중생들은 모두 다
걱정들과 혼란 속에 있다.
이 괴로움을 풀 길은 없을까?
마음을 가라앉히어야 하리.
번뇌를 죄다 끊어야 하리.
그러나, 혼자 스스로
진리는 알기 어렵다.
우리들 중생에게 누가 와서
열반(涅槃)을 가르쳐 준다면
그를 받들어 귀 기울인다.
아, 덕있는 이여,
가지 말고, 우리와 더불어 여기
천년이고 만년이고 머물러 주소서
진리의 수레바퀴가 구을러 가고
덕있는 말씀이 들리는 동안
우리들 중생은 기어코 살 길을 찾을 것입니다."

바라건데 모든 인류가, 너 나 할 것 없이 모두 한결같이 청불주세의 생각을 하고, 성의를 다하여 덕 있는 이들을 받든다면 우리는 이 지구 상에서 고뇌를 물리쳐 우리가 염원하는 안락국(安樂國)을 이룩하여 지혜로운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이 글은 지난해 12월 발간된 〈효당 최범술 문집(편자 · 효당사상연구회 회주 원화 채정복)〉 전 3권(민족사 刊) 중 제 2권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봉 국운융창 국태민안기원 행

대한불교전통조계종 창종 14주년법회 제 5대 종정추대 및 총무원장취임식

한국불교 중흥조 경허선사로 이어온
선맥을 전수받은 만공선사, 혜천선사, 도일선사의
법을 이은 고봉당 지산대종사께서
본 종 제 5대 종정으로 추대되어 취임식을
봉행하기로 하였습니다.

本宗은 釋迦牟尼佛을 敎祖로 太古 普愚 國師를
宗祖로 하여 釋迦世尊의 自覺覺他 覺行圓滿한
根本敎理를 奉體하며 直指人心 見性成佛
傳法度生을 종지로 하고 있습니다.

종도모집중
현 종도 422명. 등록사찰수 382개 사찰

종 정 예 하 : 고봉당 지산 대종사
전계대화상 : 석능인 대종사
원 로 의 장 : 범아 대종사

총무원장 : 혜송
교육원장 : 무변
문화원장 : 영봉
종회의장 : 법장
포교원장 : 효천
무술연수원장 : 도천
사정원장 : 법화
호계원장 : 인묵
중앙선원장 : 덕암
염불원장 : 상호
사서실장 : 원담
교육부장 : 혜광
교학부장 : 혜성
총무부장 : 혜천
호법부장 : 광명
포교부장 : 혜광
비구니부장 : 홍신
사회부장 : 인연
재무부장 : 수연
규정부장 : 도신
경기교구종무원장 : 인덕
경남교구종무원장 : 금조
충북교구종무원장 : 정진
대구교구종무원장 : 법천

불기 2558년 6월 7일 대한불교전통조계종 창종 14주년 법회, 제5대 종정추대 및 총무원장 취임식을 여법하게 봉행 하였습니다. 대법회에 참석해주신 대덕 큰스님, 사부대중께 지면을 통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총무원장 혜송 합장

■ 총본산 : 경북 칠곡군 지천면 낙산로5길 197번지 각황사 053) 325-0400 팩스 053) 325-4848 ■ 대본산 : 울산시 울주군 삼남면 가천리 1040번지 운진사



한암(漢岩) 선사의 편지 〈11〉

“분수 지키며 산 속에 사는 것이…”

효봉 선사(曉峰禪師)에게 보낸 답서

편지를 받은 지 오래되어 해가 바뀌었는데도 아직 답신을 보내지 못했으니, 나의 허물이 실로 작지 않습니다. 법체가 항상 시절에 따라 만중(萬重)하시며 또 사내(寺內)도 두루 평안하시다니, 우러러 경하하여 마지 않습니다.

법우(法友 한암 스님 자신을 가리킴)는 작년 동지달 초순 무렵에, 새벽에 문밖을 나가다가 발을 헛디뎌서 허리와 팔을 다쳤습니다. 그래서 겨울 내내 누워 지냈습니다. 아직도 완쾌하지 못하여 기혈이 쇠약한 것이 팔구십 노인보다 더합니다. 상황이 그러한데 무슨 심정으로 다른 곳으로 옮길 생각이 나겠습니까. 나는 그저 스스로 졸렬한 분수를 지키면서 깊은 산속에 자신을 감추고 사는 것이 분수에 족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일이란 앞날이 꼭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니, 만약 석장(錫杖, 주장자. 선종사원에서는 입방, 移居의 의미로 쓰인다)을 옮긴다면 귀사(貴寺)에 갈 뜻이 있습니다. 비록 나에게 오라는 말을 하지 않더라도 때가 되면 가서 동참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량(海諒)하시어 주시고, 이 일은 제쳐두고 더 이상 말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만 줄이옵고 답서의 예를 갖추지 않습니다.

병술년(1946년) 2월 초3일
한암은 절하고 답서를 올립니다.

〈추신〉
대중스님들에게 나를 위하여 대신 문후(問候)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향봉(香峰)스님은 지난 가을 탄허(呑虛)와 함께 남방에 있었습니다. 근래 편지를 받았는데, 월명암(月明菴)에서 동안거를 났다고 합니다.

이 편지는 효봉(曉峰) 스님에게 보낸 답서이다. 보낸 해는 1946년 병술(丙戌) 음력 2월 초3일로 상원사에 계실 때이다. 그리고 효봉 스님은 통합 종단 때 종정을 역임한 고승으로, 평양 고보(高普)와 일본 와세다대학 법대를 졸업한 후 판사를 지냈다고 한다. 38세에 금강산 신계사 보운암으로 출가하여 석두스님을 은사로 수계했다.

한암 선사의 답서로 미루어 본다면, 효봉 스님이 한암 선사께 ㅇㅇ사(寺)로 옮겨서 법을 펴 주셨으면 하고 청을 한 것 같다. 이에 대하여 한암 선사는 “작년 동지달 초순 무렵, 새벽에 문밖을 나가다가 발을 헛디뎌서 허리와 팔을 다쳐서 겨울 내내 누워 있었고, 아직도 완쾌하지 못하여 기혈이 쇠약한 것이 팔구십 노인보다 더한데 무슨 심정으로 다른 곳으로 옮길 생각이 나겠느냐”고 심경을 밝히고 있다. 이어서 “나는 그저 스스로 졸렬한 분수를 지키면서 깊은 산속에 자신을 감추고 사는 것이 분수에 족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일이란 알 수 없으니, 만약 어디로 옮긴다면 귀사(貴寺)로 갈 뜻이 있으니, 이 일은 놔두고 더 이상 말씀하지 마시라”고 당부하고 그런데 효봉 스님이 한암 선사께 어느 사찰로 이거(移居)해 달라고 청한 것인지는 효봉 스님의 편지가 없어서 알 수 없다. 한암 선사가 효봉 스님에게 답장을 보낸 것은 1946년 음력 2월 초이다. 이 무렵 효봉 스님은 1946년 동안거 때부터 1950년 여름까지 5년 간 해인사 가야총림 방장으로 있었다. 그 이전에는 송광사 삼일암에 계셨다. 송광사 조실이나 방장으로 오셔달라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이 가야총림 방장으로 있으면서 해인사로 이거(移居)해 달라고 청한 것인지는(그렇다면 해인사 방장으로 모시겠다는 것이고) 알 수는 없으나 두 곳 가운데 하나였을 것이다.

효봉 스님의 이거 요청에 대한 답
이거처는 정확히 알 수 없어
추신 통해 대중에게 문후와
향봉 · 탄허 스님의 소식 전해

〈추신〉에서 한암 선사는 대중스님들에게 나를 위하여 대신 문후(問候)를 올려달라고 부탁하고 있다. 또 향봉 스님(香峰. 효봉 스님의 師弟)은 지난 가을 탄허(呑虛, 수제자)와 함께 남방(경남지역)에 있었는데, 근래 편지를 받았는데, 월명암(月明菴)에서 동안거를 났다고 소식을 전하고 있다.



윤창화(도서출판 민족사 대표)

소년병 전사자 3260위 위패 모시고 새벽마다 예불 40년 ‘성불염원’

호국의 달에 만난 박태승 법사 (풍기 심우원 상임법사)

포화 속으로 들어간 17세 소년

다 죽을 판이었다. 1950년 6월 25일에 시작된 한국전쟁. 남한은 속수무책이었다. 불과 한 달이 좀 지난 8월초에 이미 전 국토의 90% 이상이 적에게 넘어갔다. 남은 곳은 오직 낙동강 이남부터 부산까지. 소위 낙동강 방어선이 구축되는 긴박한 상황이었다.

열일곱 살 소년이 무엇을 알았을까? 사흘 전에 입대한 형의 뒤를 따라 군인이 되었다. 말이 군인이지 그냥 맨몸으로 전장에 던져지는 거나 다름없었다. 제대로 된 군사훈련도 생략한 채 총을 들고 전선에 투입 되었다. 이름은 박태승(朴泰承) 군번은 0350115.

그렇게 전쟁 통에 소년병이 되어 신녕 지구와 영천 지구 전투를 비롯해 서울 수복, 38선 돌파, 평양 입성, 평북 박천까지 진격해 올라갔다. 혹독한 전쟁터에서 그래도 승승장구하며 북진하던 기세는 중공군의 개입을 변곡점으로 다시 남하해야 했다. 그러던 중 형은 강원도 소양강 지구에서 전사했다.

전쟁은 끝났지만 병력이 부족해 군에 남아 있었다. 3년 동안의 전쟁을 다 치루고 1955년 2월에 전역했다. 6년 만에 돌아 온 집에서 기다리는 것은 가난과 맏아들을 잃은 부모님의 슬픔뿐이었다. 결혼 1년 만에 입대해 전사한 맏아들을 가슴에 묻은 부모님을 ‘청상’ 이 된 형수가 극진히 모시고 있었다. 맏며느리로서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겠지만, 그 자체가 이미 통한이 아니던가. 그런 판에 형수는 시동생을 장가보내고 아들을 낳으면 양자로 들여 대를 잇겠다고 했다. 눈물을 머금고 형수를 밀쳐 내어 새 인연을 만나게 했다. 형수의 인생에는 새로운 변화가 되었겠지만 형과 조상님 뵐 면목은 끝내 없는 노릇이었다.

살아야 했다. 누구나 어려운 시절, 헐벗고 굶주리는 세상에 먹고 사는 것 보다 큰일은 없는 법. 전쟁 통에 소년병이 되어 중학교 2학년이 학력의 전부였으니 별 뾰족한 수도 없었다. 막노동과 품팔이를 하며 생계를 꾸렸고 고향을 떠나 객지를 전전해야 했다. 그러다가 불교를 만났고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 못 배우고 가난한 것에 대한 원망으로 얼룩졌던 삶에 새로운 목표와 희망이 생긴 것이다.

불서 읽으며 원망을 희망으로

경북 영주시 풍기읍. 인삼으로 유명한 풍기에 박태승 법사가 정착한 것은 나이 40에 들 무렵이었다. 먹고 살기 위해 떠돌다가 잠시 닻을 내린 곳이라 생각했는데 평생의 터전이 됐다. 풍기에서 불교를 만남으로써, 먹고사는 것보다 더 큰 문제를 해결했으니 그에게 풍기는 복전(福田)임에 틀림없다.

“늘 억울하고 원망스럽다고 생각했어요.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한가? 왜 이 나라는 이 모양인가? 누가 이렇게 만

17세에 소년병으로 6.25 참전
전역 후 고난 속에서 ‘불교’ 만나
불서 읽고 삶에 대한 생각 달라져
소년병의 한 풀어주기로 서원
기도는 단순 극락왕생 아닌 성불염원

1974년 풍기불교법우회 창립
법명 ‘서주(西舟)’ 가 곧 평생 화두
“소년병은 정식 군인, 학도병과 달라
예우 없고 실존마저 인식 없어”
전국에 소년병 위한 현충시설 전무

들었단 말인가? 뭐 이런 생각에 세상사는 게 결코 즐겁지 않았죠. 어렵게 살다보니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때부터 불교 책을 조금씩 보게 되었는데, 무슨 책이었는지 기억은 없지만 그 책들이 내 생각의 방향을 조금씩 돌려주었어요. 그 원망과 한이 부모 탓은 아닐 것이라 생각했죠. 어떤 부모가 일부러 자식에게 가난과 무식을 물려주겠는가 말입니다. 또 하늘의 뜻인가? 하는 의문에도 아니라는 생각이 앞섰어요. 그렇게 생각을 굴려가다가 ‘모든 게 나의 문제’ 라는데 이르렀고 ‘그렇다면 답도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는 게 달라지더라고요.”

그때부터 불교 공부를 하게 되었고 세상을 보다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바라보니 모든 게 희망적이었다. 그러던 차에 살아 있는 한 꼭 해야 할 일이 있음을 자각했다. 가슴을 억누르고 있던 소년병 시절의 기억들과 자식을 가슴에 묻은 부모님들의 통한을 풀어내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그로부터 박태승 법사는 전사한 소년병전우들의 위패를 모시고 매일 기도를 했다. 40년이 넘는 시간동안 새벽예불을 하며 전우들의 넋을 달래는 것이다.

“나는 전우들의 영혼이 중음신이 되어 구천을 떠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천도하여 극락에 보내고자 기도를 하는 게 아닙니다. 육도윤회의 굴레를 따라 이미 다른 모습으로 나기를 거듭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 있는 내가 먼저 간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단순한 극락왕생의 발원이 아닙니다. 어느 생에서든 해탈 성불하여 육도윤회의 굴레를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박태승 법사의 기도도량은 풍기읍내에 위치한 ‘심우원(深牛苑)’. 재가불자들의 신행모임인 풍기법우회의 법당이다. 풍기법우회는 박태승 법사가 풍기에 정착해 불교와 인연을 맺은 뒤에 창립된 단체다. 물론 박 법사의 노력이 컸고 초대 회장을 지냈다. 불심 깊은 도반과 법우들이 많아 현재도 60세 이상 연배가 모이는 법우회, 60세 이하의 모임인 달마회, 여성불자들의 모임인 구도회가 매월 법회를 보면서 신행하고 있다.

현재의 법당은 5년 전에 마련한 것인데 그때부터 박태승 법사는 아예 법당 요사채에서 생활한다. 아미타 삼존불이 여법하게 모셔진 법당에서 새벽마다 예불을 올리고 소년병 전우들을 위해 기도를 할 수 있으니 더 없이 좋은 일이다.

“여기 오기 전에는 집에서 모셨어요. 늘 죄송한 맘이었죠.”

법당 중앙에 아미타 삼존불이 모셔졌고 그 왼쪽에는 태극기가 걸려 있다. 그 아래 ‘참전순국소년병영가3260위’ 위패가 있다. 3260명의 명부도 한 권 놓여 있다. 명부에는 성명, 군번, 계급, 입대일과 전사일 등이 적혀 있다. 2011년 국방부가 집계한 2573명과 박태승 법사가 확인한 687명을 합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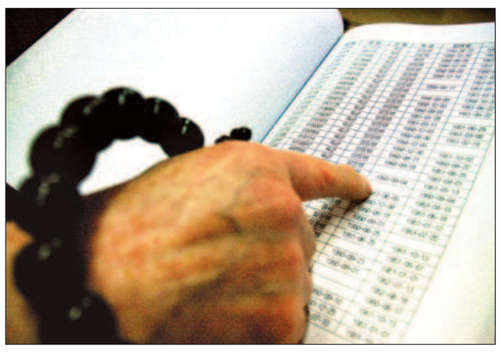
40년 째 매일 새벽예불을 올리며 참전소년병전사자의 해탈성불을 기원하는 박태승 법사.



심우원 법당에 모셔진 태극기와 참전소년병 위패.



1952년 12월 미8군 제45보병사단 사령부에서 근무하던 당시의 박태승 법사(오른쪽).



6.25참전 소년병들의 인적사항이 기록된 명부.

마하연 투어



마하연투어 강력 추천상품

– 대만 불광사 공승법회 5일 8월 16일 출발

– 중국 4대 불산

지장도량 관음도량 6일 6월 28일 출발
보현도량 (아미산) 5일 8월 11일 출발
문수도량 (오대산. 석가장) 5일 8월 20일. 9월 16일 출발
구채구. 황룡 6일 7월 10일 출발
민족의 영산 백두산 5일 7월 3일, 7월 17일, 8월 27일 출발

– 황금불탑의 나라 미얀마

동방의 정원 양곤/바간/달라 5일 7월 16일, 8월 6일, 8월 19일 출발
불탑과 호수 양곤/바간/헤호 6일 7월 9일, 7월 21일, 7월 30일 출발
황 금 불 탑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 6일 7월 19일, 8월 30일 출발

– 은둔의 나라 라오스

라오스 비엔티엔/방비엔/루앙프라방 5일 8월 14일 출발

– 세계문화유산 스리랑카

완전일주 스리랑카 8일

–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인도

인도 / 네팔 13일 11월 20일, 2월 27일 출발

“미얀마 위빠사나 수행” – 상담문의 (수속대행)

태국 방콕/파타야 5일 요금문의
캄보디아 씨엠립 5일 요금문의
3대불교성지 족자카르타 보로부두르 5일 요금문의
“힐링요가” 여행 인도 5일 요금문의
인도 8대 성지순례 10일 요금문의
네팔 핵심일주 5일 요금문의
스리랑카 핵심 순례 / 인도양의 보석 몰디브 8일 요금문의
북유럽(노르웨이,덴마크,핀란드,스웨덴) 9일 요금문의
동유럽 3개국 9일 (음악회와 왕의 호수 쾨니히) 요금문의
하와이 5일 요금문의

www.mahayeon.com
(주)마하연 투어 ☎ 02)365-7747
대덕 큰스님, 불자님들의 인연 소중이 생각하겠습니다. 대표 : 혜거 두손모음

마하연투어 공통사항
① 모든경비 포함 ② 모든 상품 품격 진행
③ 타여행사 비교 필수 ④ 2억원 여행자 보험 가입

뱃사공 노릇 똑똑히 해야

"이게 내 법명입니다."

박태승 법사가 책상 위의 명패를 가리켰다. 이름 앞에 '서주(西舟)' 라는 법명이 새겨져 있다.

"서쪽으로 가는 배. 그 배의 노를 젓는 사공이 되라는 뜻의 이름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석주(昔珠) 스님에게 받은 법명인데, 자신의 '일생과업' 에 딱 들어맞아 법명이 곧 화두가 됐다. 전우들의 극락왕생을 위해 매일 염불을 하는 것이 바로 서방정토로 가는 배를 저어가는 것이라 생각하면 한 순간도 소홀할 수 없다.

"여기 법당에 모신 소년병 3260위를 비롯한 모든 전사자들의 해탈성불을 빌고 그 부모님들의 고통이 소멸되기를 빌라는 것이 석주 스님께서 법명에 실어주신 나의 원력이 아닌가 싶은 겁니다."

자신이 소년병으로 참전하여 삶과 죽음의 경계를 수없이 넘나들었고 형이 전사했으며 그로인해 고통 받는 부모님을 피눈물 흘리며 봉양했으니, 세상의 모든 참전용사와 전사자 그리고 그 부모들이 결코 자신과 다른 존재일 수 없다는 것을 박태승 법사는 몇 번이고 강조했다.

"세월호 침몰 사고가 났을 때 나는 정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뉴스를 보면서 선장과 선원들이 한 생각을 잘못하여 저토록 많은 인명이 희생되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며, 나의 법명에 실린 뜻을 생각하니 등에 땀이 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나도 뱃사공 노릇을 잘 못하면 저 무명의 세계로 나의 전우들과 부모님들을 밀어 넣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곱씹게 된 겁니다."

세상에는 '육군대장의 가슴에서 빛나는 무공훈장도 전사자의 무덤 앞에서는 빛을 잃는다' 라는 말이 있다. 아무리 빛나는 훈장도 죽음에는 비길 수 없다는 말이다. 죽음으로 임무를 다 한 전사자는 훈장으로도 다 보상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참전소년병의 경우는 그 역사적 실존마저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현재 박태승 법사는 소년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고 국가 차원의 예우 문제 등을 풀어나가는 '6.25참전소년병전우회' 의 회장을 맡고 있다. 회원은 950여 명.

"참전 소년병은 약 3만 여 명으로 추산됩니다. 3000명 이상이 전사했고요. 대개 어려운 집안의 아이들이었지요. 돈이든 권력이든 있는 집 아이들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개념부터 다른 학도병과 소년병이 같은 개념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소년병은 정식 군인이었는데 그에 따른 예우는 없었거든요. 아침마다 옛 전우들의 위패 앞에서 천수경과 반야심경을 봉독하고 일 만 번의 염불로 해탈열반을 빌어 드리는 것 말고도 참전 소년병으로서 내가 할 일이 많은 이유이기도 하죠."

박태승 법사는 1996년 소년병전우회중앙회를 조직하면서 잊어졌던 소년병 복원 문제를 사회적으로 부각시켰다. 2001년 무연고 소년병 870위를 서울 현충원에 모셨고, 매년 6월 합동 위령제를 지내고 있다. 올해도 오는 20일 대구 앞산공원 승전기념관에서 위령제가 열린다. 소년병의 실체조차 국가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할 일은 아직도 많다.

'소년병' 역사적인 재조명 필요

박태승 법사의 일생에 6.25라는 숫자는 아주 큰 의미다. 집 전화와 사무실 전화는 물론 휴대 전화의 번호도 모두 0625다. 소년병으로 참전했던 기억이 그만큼 깊은 골로 남아 있고, 그로부터 비롯된 삶의 모든 의미가 '서주' 라는 법명의 원력으로 빛을 발하고 있으니 그 숫자가 곧 삶의 전부가 된 것이다.

"취재에 응할 생각이 없었지만, 나의 이야기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의 가슴에 호국과 애국 그리고 순국선열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다시 한 번 새기는 기회가 된다면 무엇인들 못하겠느냐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박태승 법사는 자신이 직접 쓴 글이 적힌 종이를 내밀었다. 참전소년병의 역사적 존재성에 대한 국가 사회적 시각이 변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절절했다. 읽다가 중간에 눈길이 멈춘 한 대목은 이렇다.

'국가와 부모님의 보호와 사랑을 받으며 자라야 할 아동들이 누구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바쳤는가? 피어보지도 못한 꽃 봉우리가 왜 전장의 이슬로 산화하였는가? 그 장하고 거룩한 순국영령이 무려 3260위, 임들이야 말로 이 시대의 화랑관창이요 류관순이라고 할 것이다. 전국에 300여 기의 현충시설이 산재해 있지만 소년병의 것은 단 한 기도 없다. 포성이 멎은 지도 어언 60년, 이제는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아니 된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순국소년병의 거룩한 구국정신이 역사에 재조명되어야 하고 현충시설 등을 건립해서 후세에 귀감으로 전승해야 나는 것이 당연지사라 하겠다.'

소년병 전사자를 위한 기도와 그 존재성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 백발에 홍안인 박태승 법사는 40년 넘도록 지켜 오는 원력이 하루속히 성취되길 바라며 내일 새벽에도 어김없이 향과 초를 올리고 목탁을 잡을 것이다.

풍기=임연태 논설위원



박태승 법사는 … 1933년 중국 요녕성 개원시에서 태어났다. 1950년 소년병으로 입대 6.25 한국전쟁에 참전했고 1955년 전역했다. 1972년부터 불교에 입문했다. 석주 스님으로부터 계를 받고 '서주' 라는 법명을 받았다. 1974년 풍기불교법우회를 창립하고 회장에 취임했다. 1988년부터는 조계종 포교사로로 활동을 시작했으며 영풍군 정화위원장 소임을 맡았다. 안동, 청송교도소 종교위원과 보병 제50사단, 70사단의 법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1996년에는 6.25참전소년병전우회 부회장에 취임했다. 2009년에 심우원 법당을 건립하고 현재 심우원 상임법사로 활동하고 있다.

전법일기

두만강 건너 온 지현이의 희망

지현이는 내가 만난 통일(탈북보다는 작은 통일의 의미로 이렇게 불러야 한다고 생각함) 청소년 중에서도 유독 똑똑하고 야무진 친구다. 16살 때 혼자 두만강을 건너 북에서 중국으로 건너갔던 소녀가 19살에 한국에 들어오기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다. 이런 지현이가 2014년도 4년제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듣던 날 오뚜기쉼터 식구들 얼굴에는 함박꽃이 피었다.

"스님, 저 검정고시 학원에 다니면 어떨까요?"

어느 날 쉼터에 들어온 지 3개월 된 지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초등학교 4학년과정이 지현이가 북한에서 배운 공부의 전부였다. 더구나 남한은 초등과정이 6년 기간이라 학습량이 차이가 컸다.

"스님, 나중에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왜 엄마는 고등학교 졸업장이 없냐고 묻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검정고시로라도 고등학교 졸업장을 따고 싶어요."

사실 남한 사회는 어느 학교 출신이냐에 따라 대접이 다르다. 취업이나 연애도 학벌로 사람을 구분하니까 지현이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기죽지 않도록 공부하도록 지원해야 했다.

지난 2년간 처음 쉼터에 왔을 때보다 지현이는 2cm가 더 자랐고 태국의 수용소 생활로 앙상해진 몸에도 살이 올랐다. 지현이는 남의 말에 휩쓸려 이러저리 방황하는 또래들과 달랐다. 쉼터 선생님들과 모든 것을 상의하고 공유했다. 처음에는 감시를 받는다는 생각에 불편했단다. 차츰 의지할 곳 없는 청소년들의 정착을 위한 보호하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하니 오히려 안정적이었다고 한다. 홀로 넘어온 지현이는 쉼터에서 생활하며 정부에서 매달 지원하는 30만원을 아꼈다. 옷 한두 벌과 교통카드 충전, 핸드폰 비용을 제하고 모두 저축했다. 그렇게 2백만원을 모아 북에 있는 부모님께 보내드렸단다. 참 대견한 아이다.

"저는 공부 외에 외출할 일이 없잖아요. 부모님이 아프실까봐서 걱정이에요."

부모 품에서 곱게 자라는 요즘 아이들과 비교했을 때 무척 의젓하고 속이 깊었다.

지현이는 학과 공부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었다. 인터넷으로 또래 아이들이 관심 갖는 유머나 음악, 책, 문화 같은 요소를 검색해 열심히 찾았다. 공부하지 않으면 아무리 국적을 취득했어도 그 사회에 속할 수 없다는 걸 본능적으로 아는 듯했다. 11시에 잠들면 어김없이 5시에 일어나 영어 공부를 하는 지현이는 오뚜기 쉼터의 좋은 본이 되었다.

기쁜 소식이 이어졌다. 최근에 지현이의 엄마도 한국으로 무사히 건너왔다. 딸을 찾아 위험을 무릅쓰고 용기를 낸 것이다. 하지만 아버지는 북에 남기로 했다. 고향을 두고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을 두려워 하셨다고 한다. 어쩌면 평생 만나지 못할 지도 모르는 아버지. 지현이는 아버지가 보고 싶어 중국에도 다녀왔다. 두만강 근처에서 고향쪽을 바라보며 아버지를 그리워 하다가 끝내 눈물을 쏟았다. 매사에 윤리적이고 엄격했던 아버지, 그런 아버지의 가르침 때문에 힘든 순간에도 자립심을 가질 수 있었다는 지현이. 남한에서 이런저런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자기 생각을 갖고 열심히 노력하는 지현이를 보면서 나는 보람을 느낀다. 이미 와 있는 작은 통일에 더 많은 관심과 배려를 기대한다. 앞으로 남북이 자유롭게 오고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지현이와 같은 아이들이 성장해 보다 더 큰 통일을 준비하게 될 것이라는 희망, 그런 희망은 이미 싹을 틔우고 있다.

새로운 계획이 있다. 남북한 당국의 허가를 받아 서울에서 평양까지 통일의 염원을 담은 평화마라톤으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다녀오고 싶다. 그래서 불교계를 중심으로 통일운동이 번져가길 바래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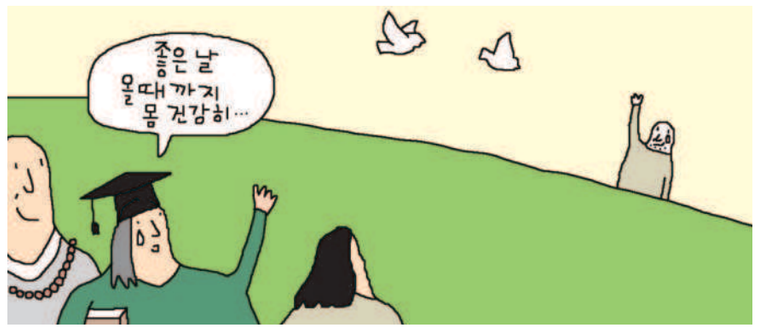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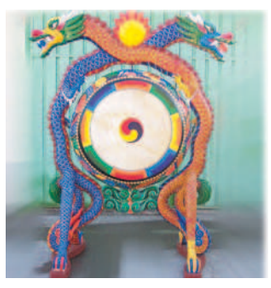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진오 스님
(꿈을이루는사람들 대표 · 구미 대둔사 주지)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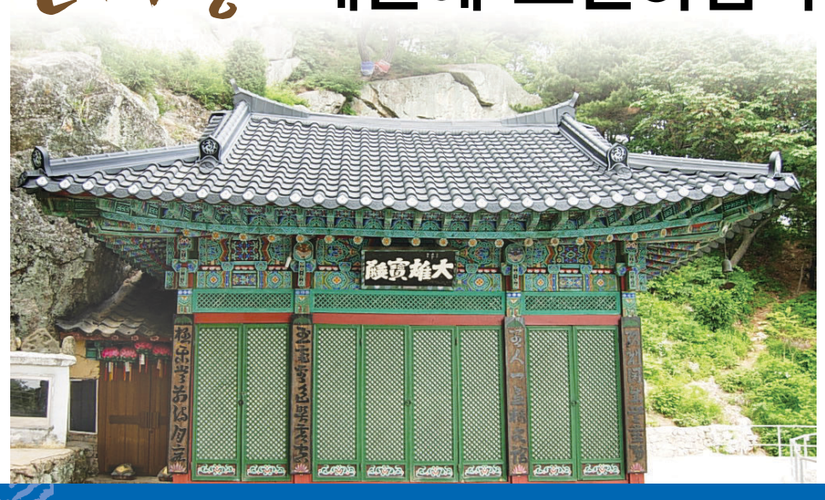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0-5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0-5264-3906 www.yjkukak.com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 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 9 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9190-3350
전라도 : 011-248-6298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공 사

美 군인출신 스님, 풀스빌 시민 마음 움직여

돌마 스님, 소령직 놓고 출가
명상 · 침술봉사로 포교

남다른 경력을 뒤로 한 채 수행자의 길을 선택했고, 그 초심을 지키며 자비행을 실천하고 있는 벽안의 비구니 스님이 화제다.

〈The Gazette〉 지가 "육군 소령이라는 세속의 직함을 버리고 티베트불교의 수계를 받고 자비행을 실천하는 수행자의 길을 걷고 있는 돌마 조아니슨(Dolma Johanison · 49) 스님에게 메릴랜드 주의 지역 주민들이 주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테네시 주에서 파트타임 경찰로 사회 첫 발을 내딛었던 돌마 스님은 테네시 주립대학을 졸업하고 미 방위군에 입대한 후 미 국방부에서 분석가로 근무하기까지 승승장구의 삶을 살았다.

그러나 2008년 돌마 스님의 삶의 여정은 급회전했다. 자신에게 아프가니스탄 파병 명령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돌마 스님은 전역을 결심했다. 그리고 메릴랜드 주 몽고메리카운티의 소도시인 풀스빌(Pooleville)에 있는 쿤장 팔율 조링(Kunzang Palyul Choling) 사원에서 200여 가지가 넘는 계율을 받고 수행자의 길을 나섰다.


육군 소령이라는 세속의 직함을 버리고 티베트불교의 수계를 받고 자비행을 실천하는 수행자의 길을 걷고 있는 돌마 조아니슨 비구니 스님이 주목받고 있다.

"20여 년 전 중앙아메리카 지역에 평화유지군 자격으로 두 달 정도 머문 적이 있다"는 돌마 스님은 "그때 한 여성이 피골이 상접한 자신의 어린 자녀를 우리 일행에게 의탁하려고 했었는데, 긴급 이동 명령을 받았던 우리는 여성의 부탁을 거절할 수밖에 없었다"며 당시를 회상하고, "평화 유지군으로 근무할 때는 그 일을 잊고 있었는데, 본국(미국)으로 돌아온 후부터 그 기억이 떠오르기 시작했고 그때마다 자신의 반성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The Gazette〉 지에 따르면 돌마 스님이 불교와 인연을 맺기 시작한 것은 그러한 '반성' 에서 비롯됐다.

이후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주 방위군에서 복무할 때는 불교사원이나 명상센터를 찾는 일이 잦았다.

"사원에서 예불을 올리고 센터에서 명상을 수행할 때 마음이 가장 평온했다"고 말한 돌마 스님은 "총으로써는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없다는 생각에 전역을 결심했고, 비구니계 수계에 이어 메릴랜드대학 부설 타이 소피아(Tai Sophia) 연구소에서 침술을 배우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The Gazette〉 지는 "돌마 스님은 현재 자신이 출가한 쿤장 팔율 조링 사원에 주석하며 풀스빌 주민들에게 명상을 가르치고 무료 침술을 시술하는 등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리고 실천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며 "여성 수행자, 돌마 스님의 활동이 풀스빌 지역 주민들의 신심을 키우는 데 산파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The Gazette〉 지는 "가르치고 시술하는 지금의 삶이 그 어떤 여정보다 행복하다"는 돌마 스님의 말을 인용, "깨치고 베푸는 삶이 한 인간을 얼마나 풍요롭게 할 수 있는 지를 돌마 스님이 보여주고 있다"며 "이는 바쁜 일상에 쫓기며 살아가고 있는 풀스빌의 시민들의 마음에 불심을 심어주는 단초가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종욱 편집위원

매사추세츠에 다목적 불교 공간 들어선다

태국불교공동체, 태국정부 지원으로 진행

미국 매사추세츠 주의 브리스틀 카운티(Bristol County)의 레이넘(Raynham) 시에 다목적 불교 · 문화복합공간이 들어선다.

〈Daily Taunton〉 지는 "수행자나 명상가의 전유물이 아닌 다목적 불교복합공간, 나와민타라라(Nawamintarar) 사원의 건축이 막바지에 이르렀다"며 "태국 불교계의 원력을 모은 이 공간은 수행과 신행 공간에 앞서 종교를 떠나 지역 주민의 커뮤니티 역할에 더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번 프로젝트를 이끈 폴 채플(Paul Chapple) 법사는 "6천만 달러(약 611억 원)가 들어간 나와민타라 사원은 태국 불교의 전통을 지키면 한편으론 종교를 떠나 포럼, 연수, 쇼핑, 공연 등의 공간으로 적극 개방될 것"이라고 말했다.

〈Daily Taunton〉 지에 따르면 나와민타라 사원은 지난 2011년 태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건축을 시작해, 현재 98%의 공정을 밟고 있다. 또한 태국의 수도 방콕을 제외하고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가 될 나와민타라 사원에는 50여 명의 태국 스님이 상주할 예정이다.

"법당에는 4.6미터의 금동 불상을 봉안하고, 그 주변으로 10대 제자도 모셔, 장엄함을 극대화했다"는 폴 채플 법사는 "수행과 신행의 공간으로서 손색이 없는 것은 물론 태국불교의 정수를 보여줄 사원이면서도, 미래 불자가 될 수도 있을 동시대 대중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도 많이 고심을 했다"고 말했다.


태국불교공동체는 미국 매사추세츠 주 레이넘 시에 다목적 불교 · 문화복합공간 설립을 앞두고 있다.

〈Daily Taunton〉지는 "나와민타라 사원에는 일반인들도 편안하게 묵을 수 있는 객실이 마련되는 것은 물론 전시 · 공연 · 세미나 등이 가능한 대규모 문화 공간이며, 쇼핑 공간도 마련되었다"며 "이는 지역사회에서 나와민타라 사원을 '종교 · 문화복합시설' 로 보는 까닭"이라고 전했다.

또한 〈Daily Taunton〉 지는 "레이넘 걸스카우트를 비롯해 지역 사회의 대표적인 단체나 회사 또는 조직들이 향후 '낯설지만 편안하고 쾌적한 공간' 에서 종교를 떠나 그들만의 행사를 진행하는 관경을 보게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

폴 채플 법사는 "명상과 수행을 하고 싶은 불교도에서 단지 불교를 궁금해 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행사나 모임을 마련하고 싶은 일반인까지 모두 끌어안는 부처님 요람으로 나아가길 희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종욱 편집위원

감리교회 건물이 명상 센터로

LA 프랭클린 애비뉴, '종교간 소통' 귀감으로 주목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투구 모양의 지붕과 스테인드글라스의 창문 등 전형적인 교회 건축 양식을 보여주는 오래된 교회 건물이 불교 사원으로 탈바꿈하고, 지역 주민의 신심을 두드리고 있다.

〈LA Weekly〉 지는 "74년간 프랭클린 애비뉴(Franklin Ave.)에서 지역 주민의 영성을 이끌었던 감리교회의 건물이 오는 6월 말경 카담파(Kadampa) 명상센터로 지역 주민들에게 다가선다"며 "서로 다른 종교가 도심 속 종교 부지를 주고받으며 '종교 화합' 이라는 귀감의 단초가 되었던 '옛 건물' 이 향우 어떤 모습으로 지역 주민에게 다가갈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보도했다.

"서로 다른 종교이지만 '서로 소통하고 사랑하라' 는 지순한 가치를 공유하고 있어서, 옛 교회 건물에 명상센터가 들어설 수 있었다" 고 전제한 겐 켈상 릭빠(Gen Kelsang Rigpa) 스님은 "프랭클린 애비뉴에 있는 감리교회 건물은 포교에 적합한 지리적 여건을 갖춘 곳이라는 데 주목했다"며 "특히 지역 주민들의 접근성이 탁월해 명상, 교리 등 불교 관련 다양한 프로그램을 잘 이끌어갈 수만 있다면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데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보였다.

"프랭클린 애비뉴는 종교 시설의 위치로 최적의 장소."라고 강조한 데이비드 펠레이(David Farley · 감리교회) 목사는 "사이 교세가 늘어 보다 넓은 장소에서 사역을 펼치고자 이 건물을 부동산 시장에 내놓았을 때, 다른 종교와 계약할 의사는 없었다"며 "그러나 카담파 측의 설득과 아시아에서 이주한 일부 주민들의 바람을 저버릴 수는 더더욱 없었다" 고 말했다.

지역 사학자 도날드 셀리그만(Donald A. Seligman) 박사에 따르면 카담파 명상센터로 탈바꿈한 이 건물은 1,700여 평방미터 규모로 1938년 로스앤젤레스 감리교단에 의해 세워졌다. 당시 토지 매매 비용을 포함해서 2,700여 달러라는 막대한 건축 비용이 소요되면서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지 등 주요 언론의 취재 발길도 끊이질 않았고, 대중의 시선 역시 끌었다.

오는 6월 말경 개원 법회를 계획하고 있는 '옛 교회 건물' 의 카담파 명상센터는 현재 건물 지붕에 설치된 흰색 십자가를 내리고, 자비와 지혜를 상징하는 두 마리 황금 사슴 상을 올려놓았다. 또한 건물 내부에 부처님을 봉안하고, 불교 관련 프로그램이 진행될 다목적 공간도 마련했으며, 여기에 기존의 스테인드글라스를 연꽃 등 불교 상징을 수놓은 스테인드글라스로 바꾸는 등의 공사도 진행됐다.


로스앤젤레스 프랭클린 애비뉴에 있던 감리교회 건물이 명상 센터로 탈바꿈 했다. 사진은 명상 센터 내부.

겐 켈상 릭빠 스님은 "6월 말경 대중들에게 처음 공개하는 것을 목표로 건물 안팎 정비에 노력하고 있다"며 "카담파 명상센터는 개원 법회를 시작으로 명상, 교리 등을 가르치는 프로그램 등을 우선 선보이며 지역 주민들에게 다가설 것"이라고 말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日 정토진종 '혼간지파' 주지 37년 만에 교체

6일 몬슈 법통 계승식… 고준 스님이 25대 취임

일본 정토진종(淨土眞宗) 혼간지(本願寺)파(본산 · 니시(西)혼간지, 교토시 시모교구(京都市 下京區)는 6월 6일, 몬슈(門主, 일문의 법통을 이은 주지) 교체에 따르는 '법통 계승식' 을 니시혼간지에서 진행했다. 교체는 37년 만으로, 전국의 승려와 신도 등 약 8천 명이 참석했다.

오타니 고신(大谷光眞) 전 몬슈의 뒤를 이른 장남 고준(光淳) 스님으로 그는 취임사에서 "미래를 향해 (정토진종의 가르침의) 법의가 전해져가게 하기 위해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신 전 몬슈로부터 계승한 보라색 승복을 입은 고준 새 몬슈는, 동일본대지진 재해지의 부흥을 실례로 현대의 여러 문제에 대응할 것을 호소했다.

혼간지파에 따르면 고준 새 몬슈는 교토시에서 태어났다. 1992년 승려가 될 득도식을 치뤄, 몬슈 후계자인 신몬(新門)이 됐다. 호세이(法政)대학을 졸업해, 2008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도쿄 쓰키지(築地) 혼간지에서 부주직을 맡았다.


일본 정토진종 혼간지파의 새로운 주지로 선출된 고준 스님.

혼간지파는 신도 약 780만 명(2013년판 종교연감)을 안는 일본 최대급 불교교단. 몬슈는 종조 신란(親鸞)이래, 오타니 가계에서 세습이 이어지고 있으며 몬슈 경험자의 생존중 양위는 4차례 째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승가건강비법 신비의 효능
마가목


대진스님(참나선원)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굽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못낳는 여인네가 방안에 마가목 가지를 두기만 해도 수태를 한다는 신령한 나무로서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우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진귀한 마가목과 약초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한달분 60봉 두 재 분량) 요청에 의해 보내드립니다.

-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 KBS-2 TV "건강하게 삽시다" 「강원도 오대산 승가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방영
- 2000년 10월25일 수요일 – KBS-1 TV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나무차 소개」 방영
- 2010년 10월24일 일요일 – 오전 7시 20분 MBC TV "고향이 좋다" 「마가목」 효능방영
- 2013년 10월16일 수요일 – KBS1 TV 05시50분 내고향스페셜 설악산 백담사마을 마가목 효능 방영

한방무현기록
첫째,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 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관절염, 기관지염, 방광염, 위염, 폐결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
셋째, 중풍, 동맥경화, 고혈압, 풍 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콩팥)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보혈, 신기허약, 조갈증, 당뇨와 고지혈증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 체질(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며)과 성인병 예방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우며 숙취를 해소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실험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더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상담문의 031-773-7838
※ 수행선원이나 강원스님께 대중공양하실 불자님 연락바랍니다 ※
■ 농협 : 227027-51-090791 (예금주 : 남궁성균) · 제조원 : 구암식품 · 식품제조업 : 대구 북 제00619호

좋은인연 대출안내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전화 주시면 좋은인연이 되겠습니다

님폴께서 사찰을 매매 하실 때 사기를 당하여 피해를 보거나 제대로 된 감정평가와 권리분석을 하지 않아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미리 의논하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매매관련세금 · 부동산권리분석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기본5년
- 근저당설정비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단체명의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전무 이강욱 ☎ 010-9842-4200
부장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사찰 화재보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악의적인 파괴행위 담보 가능함

❖ 가입시 필요자료 ❖
· 사찰등록증
· 각 전각의 건축(증, 개축)년도 면적
보험사 현장 실사후 보험가입 함

사찰화재보험
서일석(圓明) 합장
010-7344-1881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704

※ 보험가액 평가료와 소정의 출장료가 있습니다.

월호스님의 명쾌한 게송 이야기

부처도 될 수 있는데 무엇인들 될 수 없으랴!
의식의 지평을 넓혀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열어주는 책



삶은 환타지다

'근심 걱정을 없애주는 게송', '애착을 버리는 게송', '화를 다스리는 게송', '행복을 부르는 게송', '마음을 보는 게송' 등 주제별 게송에 얽힌 스토리텔링. 현대적 교훈이 어우러져 재미와 의미를 만끽하게 된다.

■ 월호 스님 지음 | 변형 신국판 328쪽 | 13,500원

지금 여기에서 자신의 주인이 되어 완전 연소하는 대자유의 삶!

"꽃은 피었다 지고 다시 피어납니다.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정된 실체는 없지만 끊임없이 생겼다 사라지고 다시 생겨납니다. 이른바 삶은 환타지(幻)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멋진 환타지 영화로 꽃피울 것인가, 우울하고 기분 나쁜 공포 영화로 만들 것인가? 스스로에게 달려 있습니다. 인생은 다 내 작품입니다." -머리말 중에서

사바에서 부르는 불이(不二)의 노래

깊이와 넓이를 모를 정도로 방대하여 팔만사천대장경이라 불리는 불교경전!
불교의 핵심·진수가 담겨 단 한 권의 경전으로 손꼽히는
유마경의 세계를 드라마틱하게 펼쳐놓았다.



유마경과 이상향

"유마경의 번역과 더불어 해설 내지는 잡다한 군더더기를 덧붙였는데, 이는 독자에게 본문 이해와 함께 일반적 불교 교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시도였다. 불교 교리를 연구하는 입장에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불교를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도 읽힐 수 있는 내용이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시도한 것이다."
-머리말 중에서

■ 화공 강의 | 신국판 양장본 604쪽 | 29,500원

대한민국호를 타고 함께 업을 짓고 사는 우리들…

이즈음 세월호 참사로 혼돈과 좌절과 아픔 속에 헤매는 우리들의 마음 치유를 위해, 이 땅을 이상향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꼭 필요한 책. 고통을 참고 견디며 살아가야 하는 사바세계, 불교는 물론이고 동서양 철학을 꿰뚫은 화공 스님이 고통의 근본 원인을 조목조목 분석하고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명쾌하게 제시하고 있다.

우리 시대 수행자 스물한 분의 스승 이야기

어른을 만나고 싶었다



흠모

금생은 안 태어났다 생각하고 공부하다
죽어라, 세상의 인재가 되어 중생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 몸 바치라는 스승들…

"머리만 깎았다고 중 된 것이 아니다. 거기에 맞게 살아야 한다. 중은 평생 정진하다가 논두렁 베고 죽을 각오를 해야 된다 이야기. 중노릇이 쉬운 기는 아니다."
-성철 스님께서 갓 출가한 원택 스님에게 해 주신 말씀

■ 유철주 지음 | 변형 신국판 372쪽 | 15,000원

"어른이 없는 시대에 바치는 진정한 어른 이야기"

우리 시대 스물 한 명의 수행자가 인생길을 열어준 은사스님에 대한 회고와 마음 깊은 그리움을 전하는 책 〈흠모〉. 흠모하는 스승들의 가르침을 따르다 보면 제자는 어느새 중생의 흠모를 받는 또 다른 스승이 된다.

민족사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58번지 두산위브파빌리온 1131호 Tel. 02)732-2403~4 Fax. 02)739-7565 홈페이지. www.minjoksa.org
이메일. minjoksabook@naver.com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minjoksa 농협 053-02-109450 (예금주: 윤재승)

붓다 다시 보다



붓다의 생애와
가르침을
한 권으로 담아낸 성전!

장종천 편역 | 신국판 양장 | 926쪽 | 33,000원

붓다의 본생과 탄생, 성장과 출가, 수행과 전도, 열반에 이르기까지,
읽는 이의 가슴을 울리는 붓다의 감동적인 생애가 펼쳐진다.

방대한 아함의 불음佛音을 한 권으로 쉽게 풀어 엮은 책으로, 붓다의 일상적인 삶과 수행생활, 45년 간 펼친 방대한 가르침의 에센스가 오롯이 담겨 있다.

목숨을 건 수행과 통찰,
중생들에 대한 깊은 연민과 자비심,
제자들을 깨달음의 길로 인도하는 자상한 가르침,
한 사람에게라도 더 진리를 전하고자 하는
쉬임없는 전법활동……



부처님의 덕성과 자비심, 지혜와 공덕을
찬탄한 150게송!



부처님, 나의 부처님

- 일백오십찬불송 -



읽는 이로 하여금 깊은 환희심과 믿음,
존경심을 불러일으키는 부처님 찬가!

마트리체타의 「일백오십찬불송」은 종파를 초월하여 인도의 모든 수행승들이 계를 암송한 후 바로 배우는 게송으로, 아름답고 유려한 문장은 불교에 대한 믿음과 실천을 불러일으킨다. 이 책은 산스크리트, 한문, 영어본, 우리말을 대조하면서 읽을 수 있게 엮었다.

마트리체타 지음·의정 한역·S. 담미카 영역·허만항 한글 번역
신국판 | 252쪽 | 10,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주문 (02) 3672-7181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삶은 고가 아니다



대행 큰스님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

인생은 고통이 아닙니다.
생로병사의 괴로움이 있다고 하나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고통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
즉, 불성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불성을 이름하여 한마음이라 하였습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보배입니다.

이렇듯 내 집 창고에 보배가 가득한 줄도 알고
보배 창고 얘기도 많이 들었지만
열쇠가 어디 있는 줄 모른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마음공부는 열쇠를 얻기 위한 공부입니다.
누구든지 열쇠도 갖고 있고 곳간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열쇠를 갖고도 열지를 못한단 말입니까?
마음이 곧 그 열쇠입니다.

- 본문 중에서

생활 속의 불법을 설하는 대행스님 법어집 - (재)한마음선원 출판부 www.hanmaum.org

▶허공을 걷는 길 대행스님 법문 전집(법회별 출간) ▶한마음요전 (품절) 대행스님의 구도기 • 법어 • 게송 • 선화의 집대성
▶신행요전 (법요집) 기본적인 예불 의식과 관법의 기초를 담은 불자입문서 ▶대행스님의 뜻으로 푼 금강경 (독송용)
▶만 가지 꽃이 피고 만 가지 열매 익어 A Thousand Hands of Compassion (Korean/English) 대행스님의 뜻으로 푼 천수경 (한글/영어)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제12회 유심작품상 수상작 발표

신달자 시인 · 윤금초 시조시인 · 장영우 평론가 수상

낮달 또는 수월관음도

윤금초

#1.
옥판선지 속 빛 같은 문기文氣 어린 공중 거기
헤거름 낮달 한 채 양각으로 돋아 있다.
허공은 무젖은 화첩, 숨결소리 들려온다.

#2.
이따금 비늘구름 미점산수米點山水 그려놓고
풋잠 깜박 들었다가 한껏 부푼 구름 일가一家
빛바랜 수월관음도가 저 달 위에 내걸린다.

#3.
목화구름 반쯤 비낀 하늘 가녘 벗겨나 내고
소리 먼저 길을 트는 금시조가 나는 건지,
때로는 십이파필十二破筆* 굿고 항적운이 번져간다.

#4.
앙감질 하다 말고 일몰 또한 멈칫거리는
만 리 밖 적막을 흩는 안항雁行의 그림자들
화첩 속 일흔 날 이생이 꿈결엔 듯 머흘다.

* 동양화에서, 붓끝이 열두 갈래로 갈라지게 하여 그리는 필법.


신달자 시인


윤금초 시조시인


장영우 평론가

제12회 유심작품상에 시부문에 신달자 시인의 '종소리'가, 시조부문에 윤금초 시조시인의 '낮달 또는 수월관음도'가, 평론부문에 장영우 동국대 교수의 '불교적 문학관의 가능성'이 각각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신달자 시인의 '종소리'는 시인의 시적 탐색의 특징과 장점이 대표적으로 잘 드러나 있는 시로 범상치 않은 상상력의 깊이와 개성적인 이미지 구사의 참신성이 돋보인다는 평가를 받았다.

윤금초 시조시인의 '낮달 또는 수월관음도'는 상징적 의미를 표상하는 자연의 비유를 그림의 중심에 놓음으로써 초인간적인 자연력과 체험된 인식들이 결합해 미학적 경험으로 승화되고 있다는 찬사를 받았다.

장영우 동국대 교수의 '불교문학관의 가능성'은 벽관의 문학관과 연기론을 매개로 하여 회광반조(回光返照)의 시각까지 나아가 정찬의 소설 '숨겨진 존재'와 박완서의 소설 '환각의 나비'를 치밀하게 분석해 그만이 지닌 독자적 작품 해석을 보여준 뛰어난 비평이라고 평가 받았다.

또한 장 교수는 2007년에 간행된 비평집 〈거울과 벽〉에서는 정찬의 '베니스에서 죽음'에서부터 김동리의 '등신불'을 거쳐 조오현의 '아득한 성자'까지 불교적 시각을 원용하여 독자적 비평을 가한 바 있다.

심사위원으로는 시 이근배 이가림 권영민, 시조에 김제현 유자효 홍성란, 평론에 최동호 방민호 씨 등이 참여했다. 상금은 각 부문 2천만원이며 시상은 8월 만해축전 기간 중 백담사 만해마을에서 열린다.

심사위원 이근배 시인 등 8명

8월 만해축전 만해마을서 시상

정혜숙 기자

법문부터 사찰요리까지 TV로 공부해요

BBS TV 개편프로그램 인기

지난 봄 BBS TV는 공부하는 불자, 신행하는 불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편성을 1순위로 두며 파격적인 봄 개편 단행했다. 이는 BBS TV가 불교방송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겠다는 확고한 취지를 실현한 것으로 법문, 법회, 사찰요리 경전공부 등의 프로그램이 시청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 주목된다. 그렇다면 불자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프로그램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지광 스님의 법고대통'은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시청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문과 삶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 스님에게 질의 응답하는 형태의 프로그램이다. 지광 스님의 명쾌한 즉문즉설을 통해 불자들의 고민을 희망으로 바꾸어주며 마음치유의 시간을 갖는다. BBS TV는 "일방적으로 전하는 기존의 법문에서 탈피해 불자들의 고민을 직접 듣고 해법을 제시해준다는 측면에서 시청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설명한다. 월~금 오전 7시 30분, 오후 3시 · 9시 방송.

'혜국 스님의 화엄이야기'는 혜국 스님(충주 석종사 금봉선원장)이 부산 황령산 홍제사에서 5년 동안 매월 초하루 법회 때 불자들을 대상으로 〈화엄경〉을 알기 쉽게 강의한 법문이다. BBS TV는 "혜국 스님은 '참 나는 누구인가? 내가 내 마음의 소를 찾아 나선 아름다운 목동이 되어 봅시다'라는 말씀으로 대중들에게 법을 전해주셨다. 참선의 깊이와 어우러진 스님의 감로수 같은 법문이 시청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총 60편으로 제작되어, 현재 주 5일 방송되고 있다"고 전했다. 월~금 오전 2시 · 9시 30분, 오후 2시 · 8시 방송.

'경전의 숲을 거닐다'는 불교 초기경전인 '5부 니까야'를 이야기형식의 낭독을 통해 마치 소설을 읽는 것처럼 편안하게 만나는 시간이다. 이를 통해 2천6백 년 전, 부처님과 제자들의 삶과 수행, 전법의 모습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으며, 부처님께서 무엇을 통해 깨달음을 얻으셨는지, 부처님은 어떤 모습으로 열반에 드셨는지, 불자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등 불교에서 알아야 할 필수 교리들을 쉽고 재밌게 익힐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시청자들의 뜨거운 반응을 통해 불자들의 성향이 변화되고 있음을 감지하고 있다는 BBS TV는 "팔리어 경전을 통해 부처님의 설법을 전해준다는 측면에서

'혜국 스님의 화엄이야기'
'경전의 숲을 거닐다' 등
불자 시청자 만족도 높아

'경전의 숲을 거닐다'에 대한 시청자들의 반응이 뜨겁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이며 논리적으로 전개되어 있는 초기불교에 대해 불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방송은 월~금요일 오전 4시 · 11시, 오후 11시.

'테마가 있는 사찰음식' 역시 매주 다른 테마로 다양하게 만나는 사찰음식을 만날 수 있는 코너다. 스님들의 수행을 위한 음식이라는 점에서 사찰 음식은 지나치게 밋밋할 것이라는 편견을 갖게 되지만, 응용법에 따라 근사한 요리가 될 수 있다. 사찰음식 대중화에 앞장서온 홍승 스님과 함께 새롭게 변신시킨 레시피들을 소개한다. 화요일 오후 12시 30분 · 4시 30분 방송.

박상필 불교방송편성제작국장은 "훌륭한 법사들이 전하는 방송들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그래서 불교를 핵심적으로 잘 전달할 수 있는 장기적 진행자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통해 앞으로 전법과 포교를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또한 현장의 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다큐멘터리도 꾸준히 제작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BBS TV는 Sky Life 410번, SK Btv 556번, 올레KT 232번, LG유플러스 186번, CJ헬로비전 707번, 티브로드 206번, 현대HCN 616번, C&M 707번 그 외 지역 디지털 케이블 TV 등에서 시청할 수 있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북칼럼니스트 이미령 씨가 진행하는 '경전의 숲을 거닐다'는 불교 초기경전인 '5부 니까야'를 이야기형식의 낭독을 통해 마치 소설을 읽는 것처럼 편안하게 시청자들을 찾아간다.



홍성 스님이 진행하는 '테마가 있는 사찰음식'은 매주 다른 테마의 사찰음식을 만날 수 있다.

한국작가회의 '문제작으로 읽는 한국문학'

신경림 · 은희경 등 참여작가로 '어울림 마당' 펼쳐

한국작가회의에서는 '문제작으로 읽는 한국문학' 강좌를 마련했다. 한국현대문학사의 문제적인 작품들을 선정, 독자와 작가가 서로 어울리는 이야기마당으로 구성되는 이 강좌는 6월 13일~8월 1일 매주 금요일 오후 6시30분~8시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예술가의집 좋은공연안내소에서 진행된다.

총 8강으로 구성된 제1기 작품으로는 △〈농무〉(신경림, 1974) △〈새의 선물〉(은희경, 1995) △〈사평역에서〉(곽재구, 1983) △〈조동관 약전〉(성석제, 1997) △〈만국의 노동자여〉(백무산, 1988) △〈피어라 수선화〉(공선옥, 1994) △〈접시꽃 당신〉(도종환, 1986)△〈무기의 그늘〉(황석영, 1985)이 선정되었다. 강의에는 작품의 해당 작가들이 직접 참여하며 이명원, 서영인 등의 문학평론가들이 진행과 해설을 맡는다.

한편, 10월 17일부터 개강하는 제2기 문제작들은 △〈내일을 여는 집〉(방현석, 1991) △〈나는 이 세상에 없는 계절이다〉(김경주, 2006)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공지영, 1993) △〈모든 경계에는 꽃이 핀다〉(함민복, 1996) △〈밤은 노래한다〉(김연수, 2008) △〈섬진강〉(김용택, 1985) △〈지상에 숟가락 하나〉(현기영, 1999) △〈문의마을에 가서〉(고은, 1974)가 선정됐다. 정혜숙 기자

만만한 뉴스 작가 '붓다와 썸타요' 전

6월 16일부터 동국대 중앙도서관서

불교카툰전 '붓다와 썸타요전(展)'이 6월 16일~27일 동국대 중앙도서관 1층 홀에서 열린다. '젊은 그대 함께 하으리'라는 부제가 붙은 이 전시에는 불교카툰신문 '만만한 뉴스'의 어라(지찬 스님), 배종훈, 김동범, 양경수 작가가 참여 동국대생들에게 불교 카툰의 매력을 선사할 예정이다.

전시 타이틀인 '붓다와 썸타요'는 요즘 한참 유행어인 '썸타다'라는 용어를 활용한 것으로 부처님의 말씀에 설레고, 붓다의 삶과 가까워지자는 의미를 담았다. 만만한 뉴스 발행인 지찬 스님은 "동국대 일산병원 전시에서 이어지는 릴레이 카툰전으로 지성이 살아 숨 쉬는 도서관을 테마로 한 카툰 작품과 젊은 청춘들에게 어필하는 유쾌한 작품, 붓다와 커피를 매치한 붓다 카페, 붓다에 대한 새로운 해석 등의 작품이 선보일 예정"이라고 전했다. 010-6276-8620 정혜숙 기자


김동범 작가의 '신붓다'

대원 문재현 선사님의 대한불교조계종 전강 대선사님 인가 제자 66번째 저서 출간!

신간! 바로보인 선문염송 제25권

세계 최대의 공안집인 선문염송, 전 30권중 25권 출간!
운문, 장경, 경청선사, 부 상좌의 공안이 실려 있다. 선문 사상 최초로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한 칙도 빠짐없이 평하고 송하여 공안 참구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완전한 우리말 불공예식법



불공예식법이란, 우러러 공경을 다해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것으로부터 불보살님들의 가피를 구하는 예법 등을 총칭함이다. 이러한 귀중한 예법들이 흡족한 우리말본이 없어서 아쉬웠는데, (중략) 50여 년 전 대구 보현사 시절부터 준비했던 원고를 정리하여 오늘에야 출간하게 되니 감회가 새롭다.
– 대원 문재현 선사 서문 중에서

이 시대에 맞는 석문의범

www.zenparadise.com 참조
☎ 031-534-3373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30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혜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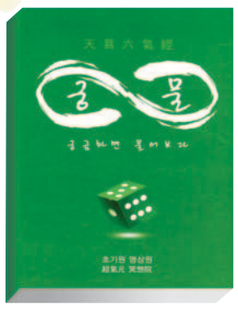
9번 구운
가루 자죽염 125g 40,000원
가루 자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새로운 "책"이 나왔습니다!
스스로 물어 알게됩니다



天易六氣經 궁물
궁금하면 물어보라

◆ 천역육기경은 우주삼원에서 받았습니다!
◆ 이 세상에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 답답한 삶의 돌파구!

운기 · 사업 · 소원 · 결혼 · 매매 · 대인 · 실물 · 가출인 · 출산 · 소송 · 여행 · 취직 · 시험 · 이사 · 질병 · 지능 (직업)

이들을 알고자 하시면 육기주를 두 번 굴리세요.
문제에 답이 풀립니다!
누구나 쉽게 궁물할 수 있습니다.

"책" 궁물은 영원한 동반서!!!

주문처 : 1588-5654. 010-3743-9943
정가 10만원 / 계좌 : 농협 195-02-157774 박규화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리며, 주문시 즉시 배송하여 드립니다.

문화人

대중이 공감하는 新불교음악 국악 선율에 담아내

5집 '추억' 발매한 해금연주가 성의신 씨

"5집 앨범은 추억이라는 주제로 만들어 봤어요. 우리 인생서 세월이 지나면 추억만 남잖아요. 40년 해금 연주를 하다보니 어느날 제 손에는 해금만 남아 있더라고요. 제가 7080세대이니 당시의 가요 팝 등을 국악으로 연주해 보았습니다. 음악에 대한 추억이 고스란히 담긴 음반이죠."

해금연주가 성의신 씨(54 · 숙명여대 겸임교수)가 해금 인생 40년, 앨범 발매 10년을 기념하는 5집 앨범을 발표했다.

추억을 담아낸 이번 앨범에는 꽃밭에서, 사랑이여, 내 마음 갈 곳을 잃어, 사랑의 기쁨 등 11곡이 실렸다.

"국악을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에게 쉽게 다가가기 위해 노력했어요. 여기에 '추억'이라는 아련한 부제까지 더해지니, 바쁜 일상 속에 잊고 지냈던 행복한 지난날을 추억할 수 있도록 편안한 음악으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2004년 'The Moon In The Clouds'로 첫 앨범을 낸 그는 'The Hill Of Memory' '열 두 송이 연꽃노래' '미래회상' '우리의 소리에, 마음을 놓다' '해금, 첼로를 만나다: 소박한 선물' 등의 음반으로 국악 대중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첫 앨범으로 낸 'The Moon In The Clouds'는 뉴에이지 음악을 국악으로 풀어내 대중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고 당시 각종 음원차트 10위권 안에 머무르며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첫 앨범을 낼 때는 명상음악을 해금으로 표현해보고 싶다는 생각에 음반제작을 결심했어요. 그런데 마땅한 작곡자를 찾을 길이 없었죠. 그러다가 신묘장구대다라니를 음악으로 만든 작곡자를 만나면서 곡을 의뢰하게 됐어요. 어느날 12곡이 작곡자로부터 왔는데 제가 생각했던 명상음악보다는 뉴에이지에 가까웠죠. 많이 망설였는데



해금연주가 성의신 씨가 해금 인생 40년, 앨범 발매 10년을 기념하는 5집 앨범을 발표했다.

명상음악 발원하며 첫앨범 발매
국악의 대중화로 호평 받아
93년 국악 실내악단 마하연 창단
불교음악 새로운 변화 시도

주변의 독려로 음반을 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의외로 반응이 너무 좋았고 이런 풍의 음악이 자연스럽게 제 음악처럼 대중들에게 인식되게 되었죠."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늘 자신이 이루고자 했던 명상음악과 불교를 기반으로 국악을 풀어내고자 하는 열망이 남아 있었다. 이런 의지가 반영이 되어 찬불가를 기반으로 한 '열 두 송이 연꽃노래'와 해금중심의 영산회상 '미래회상'을 발매하게 된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그가 이끄는 불교실내악단 마하연의 1집으로, 범패를 새롭게 해석한 '마음으로 올리는 나의 노래'를 내놓았다.

"사실 우리 주변에 불교음악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불교음악에 접근하고 이를 표현해야할까 많은 고민을 하다 범패를 떠올렸죠. 범패는 불교 의식용 음악이지만 우리나라 3대 성악곡 중 하나이니 여기에서 좋은 선율을 끄집어내어 음성공양하는 마음으로 앨범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작업은 제 음반 10개를 내는 것보다 더 뿌듯한 일이었지요. 하지만 워낙 무거운 주제라 공연할 곳도 마땅치가 않았고 대중들에게 주목받지 못해 안타까울 뿐입니다."

불교음악에 대한 염원이 컸던 성 씨는 지난 1993년 KBS 관현악단의 불자 단원들을 모아 불교 유일의 국악 실내악단 '마하연'을 창단했다.

현재 불교진흥원과 함께 찾아가는 음악회를 진행하고 있는 마하연은 국악은 물론 찬불가, 영화음악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으로 대중들을 찾아가고 있다. 지금까지 동국대병원, 선유도, 최순우 옛집 등 시민들과 가까이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장소에서 공연했으며 6월 28일 토요일 오후 5시에는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공연도 앞두고 있다.

"2010년에 KBS 국악대상과 불교진흥원 대원상을 동시에 받으며 불교음악을 계속 해나가야겠다는 확고한 결심을 했어요. 저는 많은 분야에서 다양한 불교음악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국악인이니 불교를 국악으로 풀어내는 방법을 늘 고민하고 있죠. 내년쯤 마하연에서 불교 관련 음반을 낼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늘 새로운 불교 음악을 보여드리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자 합니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새로 발매된 '해금소리 5-추억' 음반표지



성의신이 이끄는 불교 실내악단 마하연(1993년 창단)의 공연 장면.

고찰 풍경 속에 담긴 해탈의 꿈

임연태 시인 山寺에 깃든 선비의 詩心
㉕ 여주 신륵사 ㊥





강 건너에서 바라본 신륵사 풍경

좋은 풍경은 시심을 돋우지만 풍경만으로 시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 풍경에 인연된 이야기가 녹아 있어야 한다. 시속의 이야기는 어떤 사실을 전하기도 하지만 묘한 상징이 되어 풍부한 상상력을 자극하기도 한다. 풍경과 이야기가 잘 정제된 시는 맛이 잘 든 술과도 같다고나 할까?

세속 일을 떨치고 싶은 마음

신륵사의 경우 누구나 홀딱 반할 절경과 천년 고찰에 담긴 이야기가 있으니 시 창작 공간으로서의 조건을 잘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장암평첩가반각(長巖平 可盤脚)
청풍은행고림유(靑楓銀杏高林幽)
부시징담백척강(俯視澄潭百尺?)
청소획연경양후(淸嘯劃然驚陽侯)

긴 바위가 평평하여 앉아서 쉴 만한데
푸른 단풍 은빛 은행에 숲은 그윽하여라.
맑은 못물 굽어보니 백 척이 넘을 듯해
맑은 휘파람을 불어 양후를 놀라게 한다.

박은(朴誾 1479~1504)의 '밤에 신륵사(神勒寺)에 묵으며 달빛 비친 벽탑(ÆE塔) 아래에서 술을 마시다'라는 시 앞부분이다. 〈읍취헌유고(翠軒遺稿)〉 제2권에 실린 칠언고시인데, 시의 제목에 '승려 법희(法熙) · 신련(信連) · 의조(義照) · 처관(處寬) 등 네 사람이 함께 있었다'라는 설명이 붙어 있다.

박은은 18세에 과거에 급제하고 사가독서자(賜暇讀書者)로 선발되어 문재(文才)를 주목받았던 선비다. 성품도 강직하여 벼슬살이에 뜻을 두지 않았지만, 갑자사화로 옥사(獄死)했다.

시에서 박은도 '맑은 휘파람[淸嘯]'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 앞에서 목은 이색의 시에 나오는 '맑은 휘파람'을 속세의 번뇌를 떠난 '깨달음의 경지' 즉 초월적 세계에 대한 동경으로 읽었다. 박은의 경우도 비슷한 의미를 품고 있다.

사실, '맑은 휘파람을 불어 양후를 놀라게 한다'는 대목은〈회남자(淮南子)〉에 나오는 고사를 인용한 것이다. 〈회남자〉 남명훈(覽冥訓)에 "무왕(武王)이 주(紂)를 치러 가는 길에 맹진(孟津)을 건너는데 양후(陽侯)의 파도가 흐름을 거스르며 격렬히 일어났다."는 대목이 있고, "양후는 능양국(凌陽國)의 제후로서 물에 빠져 죽은 뒤 수신(水神)이 되어 큰 물결을 일으킬 수 있다"는 주(註)가 붙어 있다.

그러니까 목은과 박은이 신륵사 풍경 속에서 수신(水神)이 된 옛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세상 모든 잡사(雜事)를 떨치고 싶은 심경을 드러낸 것이라 하겠다. 그의 문집 〈읍취헌 유고〉 제3권에 실린 '배 안에서 신륵사를 바라보며'라는 시는 강물에 든 배에서 신륵사를 바라보며 풍경을 읊은 것이다.

차문신륵사(借問神勒寺)
직지황려강(直指黃驪江)
탄성근시영(灘聲近詩詠)
산색영봉창(山色映Æ 窓)
비도질귀조(飛棹疾歸鳥)
사휘여반강(斜暉餘半)
기유원불약(奇遊元不約)
승절구무쌍(勝絕舊無雙)

신륵사가 있는 곳을 물었더니
곧바로 황려강 쪽을 가리킨다.
여울물 소리는 시 읊는 소린 듯
산색 배의 창에 비치어 드누나.
나는 듯한 노는 새보다 빠르고
빗긴 햇살은 다리 반쪽에 남았네.
좋은 유람은 미리 약속하지 않는 법
빼어난 이 경치 예전에 못 본 것일세.

스님과 이별하는 선비의 마음

최립(崔 1539~1612)도 여강과 신륵사를 무척 좋아하고 스님들과 교분이 있었던가 보다. 그의 문집 〈간이집(簡易集)〉 제7권 '여강록(驪江錄)'에는 '신륵사(神勒寺)의 혜식(惠式) 장로(長老)와 작별하면서 그의 시권(詩卷)의 시에 차운하여 남겨 주다'라는 제목의 시가 2수 실려 있다.

편주일방고원귀(扁舟一放故園歸)
흡유동풍취아의(恰有東風吹我衣)
각향거승추창별(却向居僧Ø 別)
쇠년상시후기희(衰年常是後期稀)

조각배 띄우고서 고향땅 돌아가려 하니
동풍이 마침맞게 나의 옷깃을 불어 주네.
스님과 헤어지려 하니 왜 이다지 섭섭한지
쇠한 나이 되고 보니 다시는 또 못 볼까 봐.

첫 번째 시에서는 나이 들어 이별을 앞둔 심경이 담담히 그려지고 있다. 그러나 두 번째 시는 보다 적극적으로 애석함을 드러낸다.

승주동림운수간(僧住東林雲水間)
서린객황우상관(西隣客況偶相關)
차귀혼몽응래왕(此歸魂夢應來往)
포식강산승해산(飽識江山勝海山)

동림의 구름과 물 사이에 사시는 스님과
서쪽 이웃 나그네가 우연히 서로 어울렸네.
돌아가도 꿈속에서 분명히 또 오고 가리
강산이 해산보다 나은 걸 실컷 맛봤으니.

최립은 중국 동진 시대의 혜원(慧遠 334~416) 선사가 여산 동림사에 있었던 점을 들어 절[신륵사]을 '동림'으로 표현했다.

그리고 '서쪽 이웃 나그네'라는 어구로 대조를 이루었다. '서쪽 이웃 나그네'는 초나라 시인 송옥(宋玉 BC290? ~222?)이 절세미인의 서쪽 이웃집에서 살았다는 이야기를 끌어들인 것이다. 오랜 고사를 통해 절과 세속을 대비하고 신륵사 스님과 자신의 만남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만남도 이별의 순간을 맞았으니 꿈속에라도 다시 오고 또 오리라 다짐하는데, 이 대목은 마치 애절한 남녀의 이별 장면 같이 애잔하다.



나고 죽음이 없는 영원한 생명의 빛은
신성神性이자 불성佛性이다

"나는 만유 위에 있는 빛이라. 내가 곧 만유라.
만유가 나로부터 나왔고 또 만유가 나에게 이르노라.
통나무를 쪼개라. 그러면 내가 거기 있다.
돌을 들라. 그러면 거기서 나를 찾으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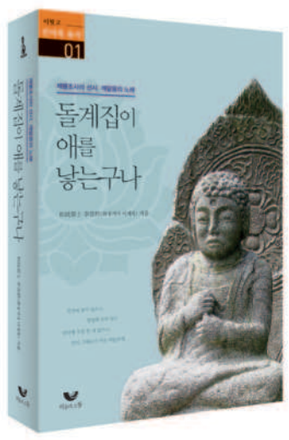
비극에서 마법으로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박동덕 지음|신국판|487쪽|19,500원

예수의 깨달음과 비전을 담은 비밀 성경 '도마복음'
그의 명상禪적인 가르침을 2,000여 년만에 해석하다

KBS, EBS 등에서 유명 교양/다큐프로그램을 연출한 저자 박동덕 씨(방송프로덕션 '비에마로' 대표)는 2001년 보리수선원에서 위빠사나를 배우면서 생활 속에서 수행을 해왔다. 2010년 여름, 알 수 없는 이유로 하루종일 쓰러져 있다가 의식을 회복한 임사(臨死)체험 후 '왜 돌아왔을까?'를 고민하다가 '도마복음'을 통해 나고 죽음이 없는 영원한 생명의 빛(無量光無量壽)이 바로 신성인 동시에 불성임을 확신하고, 불교적인 관점에서 도마복음을 본격적으로 해설했다.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이 말씀들을 올바로 풀 수 있는 자는 결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는 예수님의 설법을 깨닫게 될 것이다.

비움과소통 02-2632-8739, buddhapia5@daum.net



삼매(三昧)의 채로 걸러진, 뼈를 깎는 수행의 결정체
오도송 · 전법게 · 열반송 · 선문답 통해 참마음 깨닫기

제불조사의 선시, 깨달음의 노래
돌계집이 애를 낳는구나

이계묵 지음 | 신국판 | 무선 | 흑백 | 636쪽 | 28,000원

제1부 과거칠불과 선종 33조사의 전법게, 제2부 고승 · 대덕의 오도송과 수행송, 열반송을 모아 번역하고 해설했다. 제3부는 저자의 견도송(見道頌)을 비롯한 자작(自作) 선시와 선문답들로서 40여년간 참선하면서 그때그때 느끼고 깨달은 바를 노래한 책이다. 해인사 강주를 역임, 수행자들에게 선(禪)과 유식(唯識)을 지도해온 화정 이계묵 노거사의 역작(力作).

지상 불국토의 발원이 담긴 앙코르 와트 건설한
앙코르 제국의 불자 대왕, 자야바르만 7세

자야바르만 7세, 앙코르 제국의 대왕
소설 앙코르 와트

이형종 지음 | 신국판 | 부분 컬러 | 352쪽 | 15,000원



주캄보디아 대사관 총영사를 역임한 이형종 외교관이 지은 이 책은 자야바르만 7세를 주인공으로 한 소설형식으로 앙코르 제국의 역사와 유적을 흥미진진하게 소개한 역사 · 전기소설. 부록에 첨부한 앙코르 왕들의 연대기와 유적 일람표, 앙코르 제국의 영역지도, 시엠립 관광지도와 함께 캄보디아의 유적과 캄보디아인들의 풍속과 삶을 촬영한 사진들이 소설을 읽는 재미와 함께 역사적인 안목으로 앙코르 와트를 살펴보게 한다.

비움과소통 02-2632-8739, buddhapia5@daum.net

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6/4 ~ 6/10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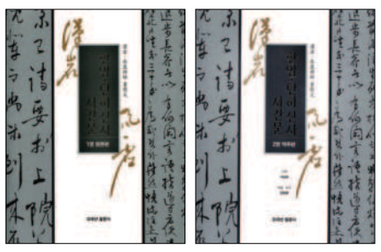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인생수업	법륜	휴
2	붓다순례	자현	불광출판사
3	닦는 마음 밝은 마음	김재웅	용화
4	도쿄대학 불교학과	정상교	동아시아
5	아들에게 남기는 어머니의 마음공부	최혜자	운주사
6	선시,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향적	조계종출판사
7	이것이 불교의 핵심이다	곽철환	불광출판사
8	향기로운 동다여 깨달음의 환희라네	원학	김영사
9	한영불교대사전 A. Charles Muller, 전옥배		운주사
10	위빳사나 백문백답 마하시 사야도 우 소바나		이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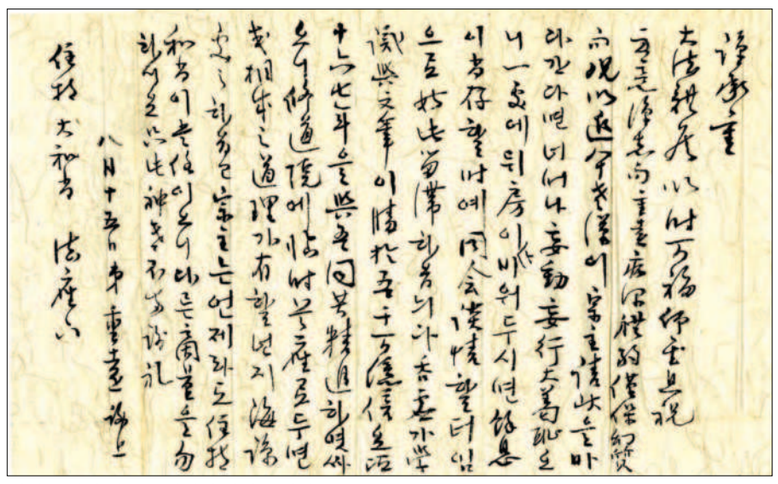
선지식의 서간에서 배운다

한암·탄허선사 서간문 1, 2권

이상하 역주 | 윤창화 해설·논고
오대산 월정사 펴냄 | 비매품



한암 스님이 경봉 스님에게 답하는 편지



한국 근현대 불교사에 큰 업적을 남긴 고승 중에는 오대산문의 한암 스님(1876~1951)과 탄허 스님(1913~1983)이 있다. 두 분은 스승과 제자 사이로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선지식이다. 책은 한암 스님과 탄허 스님이 경봉, 만공, 석주, 효봉 스님을 비롯한 선지식, 그리고 재가불자들과 생전에 주고받은 서간을 찾아 엮은 것이다.

책은 총 2권으로 간행되었으며, 그 중 1권(원본편)은 원문 이미지로 구성되어 있고, 2권(역주편)은 원문(한문)의 내용과 번역, 그리고 해설로 구성되어 있다. 2권의 1부에는 한암 스님의 서간 45편을 실었고, 2부에는 탄허 스님의 서간 17편을 실었다.

한암 스님은 한말에 태어나서 일제 강점기와 광복, 그리고 6.25 한국전쟁이라는 한국 근대사의 격변기를 살았고, 무려 네 번이나 종정에 추대될 정도로 당시는 물론 현재에도 불자들에게 존숭 받고 있다.

한암 스님의 제자인 탄허 스님도 일제 강점기와 6.25 한국전쟁, 불교정화, 4.19 등 격변의 역사를 살았다. 화엄학의 3대서인 화엄경과 화엄론, 청량소초를 완역했으며, 또 전통강원 교재를 완역하는 등 한국 불교 역경사와 강원 교육, 인재양성 등에 큰 족적을 남겼다.

두 선지식은 많은 법문을 통해 후학들을 지도했지만, 서간을 통해서도 후학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었기에 본 출간이 의미를 갖는다. 특히 한암 스님은 경봉 스님과는 24편에 달하는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간화의 방법과 오도 이후의 문제(보임, 점수), 선사상, 수행자의 자세 등에 대하여 이야기했다. 그 서간 속에서 한암 스님의 선사상과 가르침 등 여러 가지 면모를 볼 수 있다.

탄허 스님은 22세 때 상원사로 입산하기 전까지 2~3년 동안 한암 스님과 약 30여 편의 서간을 주고받았는데, 내용은 주로 도와 관련된 것이었다고 한다. 입산 이전에 스승과 30여 편이라는 비교적 많은 서간을 주고받은 것은 흔한 일이 아닐 것이다. 아쉬운 것은 한암 스님과 탄허 스님이 주고받은 서간이 겨우 3편만이 남아 있다는 것이다.

한암 · 탄허 스님의 서간문 소개
한암 · 탄허 간의 편지는 3편만 현존
원문이미지, 번역 · 해설 붙여
두 고승의 가르침, 삶, 오도의 경지
참선수행의 방법론 요체 담겨

한암 스님의 서간에는 불교 공부와 삶의 지침이 되는 가르침이 들어 있으며, 여성 불자들에게 보낸 서간은 순 한글로 썼다는 것이 특이하다.

'한암 · 탄허문도회'와 월정사에서는 한암 · 탄허 두 스님의 서간문을 간행하면서 가능한 원본의 모습을 전하고자 했으며, 탈초, 번역 해설을 붙였다. 이는 서간 원본의 느낌을 통해 두 선지식의 진면목에 다가가 보고자 한 것이며, 동시에 두 스님의 가르침이 많은 불자들에게 전해지기를 바라는 취지다.

한암 스님과 탄허 스님이 남긴 법어와 선문답, 그리고 선론(禪論)등의 글은 대부분 〈정본 한암일발록〉과 〈방산굴법어〉에도 실려 있다. 서간문은 주로 개인과 개인 사이에 주고받은 대화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두 스님의 서간문은 세속인들의 서간문과는 달리 선문답이나 선수행, 법거량 등 선(禪)을 주제로 한 대화도 적지 않다. 특히 한암 스님이 경봉 스님에게 보낸 서간에는 선문답이나 법거량 외에도 깨달음 이후의 문제, 즉 '오후수행(悟後修行)', '오후보임(悟後保任)'에 대하여 논한 것이 여러 편 있다. 이는 매우 중요한 글로서 한암 스님은 많은 용례와 고증을 들어가면서 오후수행, 오후보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본 책에서는 한암 스님과 탄허 스님이 남긴 서간문을 통해 두 선지식의 가르침과 삶, 오도의 경지, 그리고 서간문의 편수와 가치, 의의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했다. 아울러 이런 작업을 통해 참선수행의 방법론과 요체 등에 대해서도 함께 고찰하여 수행하는 이들에게 지남(指南)을 제시한다.

단순히 지식과 정보의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문장과는 다르게 '염려'와 '살핌', '보답', 그리고 '관심'에서 출발한 문장에는 '가르침'이라는 '주입'을 여의고도 충분한 가르침들이 심어져 있어 문자만을 앞세운 '책'에서는 맛볼 수 없는 색다른 공부의 맛을 느낄 수 있다.

책 후반부에서는 윤창화(민족사 대표)의 '한암 · 탄허 선사 서간문 고찰'을 싣고 있는데, 각 서간문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고, '맺음말'에서 한암 스님의 '오후수행론'을 소개하고 있다.

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중생 모두가 불국(佛國)의 주인공

유마경과 이상향

화공 강설 | 민족사 펴냄 | 2만9천5백원



"불자로서의 신앙생활에 대한 방법론은 논한다면 〈유마경〉 한 권이면 충분하고도 남는다." 책은 약 25년 간 일본 하나조노대학과 불교대학 B.A(京都 일본), 조지아 주립대학, 하바드 대학 HDS, 위스칸신 주립대학 등에서 불교학을 연구한 화공 스님의 학문적 결실이 집약된 첫 번째 저서로 〈유마경〉의 본격 해설서다.

〈유마경〉은 "중생이 아프니 나도 아프다"로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대표적인 대승경전으로, 대승불교의 실천 수행,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실천 덕목을 논한 경전이다. 한마디로 재가불교운동의 소의경전이라 할 수 있는 경전으로, 무엇이 불교의 핵심적인 가르침인지, 그 가르침을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등의 문제에 관해 의심을 풀어줄 수 있는 경전이라고 할 수 있다.

〈유마경〉은 출가자가 아닌 유마거사가 경전의 주인공으로 등장하여 부처님의 십대 제자들 및 여러 보살들과 대화를 나누며 불법에 대해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마거사는 해박한 교리 이해와 깊은 수행력을 갖춘 이로서, 그는 경전 속에서 핵심을 찌르는 그의 질문으로 부처님의 십대 제자들과 여러 보살들을 난처하게 한다. 이런 점이 〈유마경〉을 읽는 재미이며, '깨달음'이 출가자만의 것이 아님을 시사한다.

〈유마경〉은 본래 14장(14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책은 14장을 총 4막으로 구성했다. 서막-유마경과 이상세계/ 1막-유마 거사의 병과 붓다의 제자들/ 2막-문수보살과 유마 거사의 대담/ 3막-붓다와의 만남/으로 구성된 〈유마경과 이상향〉은 각 장마다 전체적인 해설을 하고 내용에 따라 경전 번역문과 원문, 상세한 해설을 덧붙였다. 책은 단순한 〈유마경〉 해설서를 넘어 인도 대승불교사상사 전반을 다루고 있는데, 특히 앞부분 서막 '유마경과 이상세계'는 이 책의 정수이고 핵심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세계를 두루 진단하고 현실세계를 이상세계로 만드는 방법과 보살에게는 중생계가 불국임을 명쾌하게 밝히고 있다. 특히 보살사상과 대승불교의 흥기, 인도불교의 멸망, 불전문학의 르네상스, 유마경, 구마라습의 일생 등을 통해 〈유마경〉이 발생한 인도 사회를 총체적으로 조망함으로써 〈유마경〉 이해를 돕고 있다. 교리적인 해석은 물론이고 종교 사회학적인 측면, 동서양 철학을 두루 망라해 해설함으로써 인도 종교사는 물론이고 불교교리전반에 대한 설명을 통해 〈유마경〉의 세계로 안내한다.

"〈유마경〉은 중생이 주인이 되어 이상세계를 실현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는 불국의 법률서이다." 첫 장을 넘기는 순간 만나게 되는 이 한마디는 저자인 화공 스님의 메시지를 직감할 수 있는 대목이다. 우리는 모두 '불국(佛國)'의 주인공이다. 그 세계의 성공 여부는 주인공의 관점 여하에 달렸다는 것이다.

〈유마경〉의 핵심 가르침은 이 세상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 주는 불이법문(不二法門)이다. 이원론적인 대립적 사고를 초월하면 온갖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세상의 모든 고통이 너와 나, 진보와 보수, 더러움과 깨끗함, 선과 불선, 생사와 열반, 출가자와 재가자 등 둘로 나누어 분별하고 집착하는 데서 오는 것, 그 점만 제대로 알게 되어도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고통을 견디며 살아야 할 사바세계 즉 현실세계를 남의 힘이 아니라 바로 스스로의 힘으로 이상향, 이상세계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박재완 기자

우리들 살아가는 이야기가 결국 법문

부처 마을의 손바닥 이야기

이형순 지음 | 클리어마인드 펴냄 | 1만5천원



"동자 스님인 칠성이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것은 젖이다. 눈을 뗬을 때나 잠을 잘 때나 항상 머릿속에 뱅글뱅글 돌아가는 것이 젖이었다. 칠성 스님은 젖을 쥐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었다. 보통은 풍선을 묶으면 생기는 꼬들꼬들한 가짜 젖꼭지를 쥐고 잔다."

MBC극본 공모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마을버스〉, 〈복날이 온다〉 등으로 유명한 이형순 작가가 40편의 짧은 이야기를 묶은 책이다. 40편의 이야기는 단편소설 같기도 하고, 에세이 같기도 하고, 콩트 같기도 하다. 새로운 형식의 우화집이라고 할 수 있다.

번뇌하는 인간 군상들의 일상을 그린 이야기들은 불교를 아는 사람이든 불교를 모르는 사람이든 불교에 다가가게 하는 이야기들로, 경전속에 들어 있는 정형화되고 딱딱한 이야기들이 우리들 삶의 현장에 그대로 적용되어 유쾌한 불교, 통쾌한 불교, 수행불교를 승화시킨 법문 같은 이야기들이다.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불자이거나, 부처님을 모르지만 부처의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이다. 불교의 관습적인 정서를 탈피해 당위적이거나 도덕적이지 않은, 웃을 수도 울 수도 없는, 유쾌한 아이러니와 현대적인 낯선 이야기 구조를 통해 부처님의 마음을 다시 생각하게 해 보는 발칙한 이야기들이 펼쳐진다. 다양한 소재와 여러 층의 등장인물을 통해 부처의 마음에 의지한 삶의 이야기들을 들려준다. 인간적이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통해 인간관계의 고민을 가진 삶이 왜 이따위냐고 소리치고만 싶은, 번뇌 만발의 사람들에게 빙긋이 웃음을 흘리게 할 수 있는 생기 넘치는 이야기들이다. 그래서 그 이야기들은 불교를 어렵게만 생각하던 사람들에게는 다시 한 번 불교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는 길잡이가 되어주고, 불교를 오랜 동안 공부했던 사람들에게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시 새겨볼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우리들이 울고 웃고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가 결국 우리에게 다시 법문이 되어 돌아오는 것이다.

박재완 기자



불교의 '진공묘유' ≒ 기독교의 '삼위일체'



봉정암에서 바티칸까지

정동채 지음
동연 펴냄
1만6천원

정동채 前 문체부 장관이 동서양의 종교를 아우른 순례기를 펴내 화제다. 국회의원 3선 출신인 저자는 아태평화재단 김대중 이사장 비서실장, 노무현 대통령후보 비서실장 등을 거치는 등 화려한 정치이력을 가진 현역이다. 저자는 이 자리를 잠시 벗어놓고 '자연인'과 '종교인'으로 마음과 믿음, 그리고 내려놓음의 길을 따라 떠난 순례길에서의 단상들을 모아 책으로 엮었다. 치열한 정치 현장서 바쁘게 산 그에게 이번 순례길은 자신을 반추해보는 깊은 성찰의 기회가 됐다. 스페인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로 떠난 성지 순례를 비롯해 사찰 순례, 선 수행 체험, 부탄에서 접한 아이들의 미소, 지금은 고인이 되신 김수환 추기경과 법정 스님과의 일화 등을 책에 실었다.

저자는 순례는 바로 자신의 진면목을 만나는 것이고, 스승을 만나는 것이라고 이 책에서 말한다. 여행기처럼 가볍게 써내려갔지만, 동서양 종교를 아울러 종교 평화를 꿈꾸는 그의 글은 깊다. 저자는 순례중 포교와 선교라는 명목으로 자신의 이념이나 교리를 강제해왔고, 폭력과 살육을 신의 이름으로 거리낌없이 자행돼온 슬픈 역사에 대해 가슴 아파한다.

저자는 이 책에서 "군대가 전쟁과 폭력을 멈추게 할 수 없고, 강대국들이 평화와 환경을 지켜낼 수 없기 때문에 세계평화와 환경보호는 오직 종교인들의 양심이 모아져야 가능한 일"이라며 "각각의 종교들은 개인의 해탈과 구원을 기반으로 인간 존엄을 위한 대승적 차원으로 자신의 목표와 활동들을 진정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가톨릭 신자이다. 법정 스님이 농담처럼 던지신 "요즈음 천불종 신자들(천주교 신자이며 불교에 관심을 두는 종교인들)이 늘어난다면서요"라는 말을 예로 들으며, 자신의 종교 정체성에 대해 말한다. 수행하는 법으로는 불교의 내려놓음과 비움을, 믿음으로는 하느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배운다는 것이다. 그래서 불교에서 가르치는 '진여불성' '진공묘유'가 기독교에서 믿는 하나님과 결국은 같은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부처님 진신사리가 모셔진 적멸보궁 순례길 중 봉정암에 올랐던 기억은 그의 종교관을 단적으로 잘 보여준다.

"안개비에 젖은 적멸보궁 사리탑에 마주섰다. 부처님 사리를 모신 성스러운 곳, 머리를 덜어내고, 마음을 씻어내고, 가슴을 털어내는 기도인 탐진치 삼독서 벗어나기를 소원했다. 털썩 주저 앉았다. 내가 나를 보니 이거 순전히 욕심덩어리인게 아닌가? 여기까지 기다시피 올라온 것도 무얼 바랐던 것이 사실이었다. 복 달라는 기도는 언제 어느곳에서든 하면 되니 제발 여기서만큼은 제대로 정신을 차려보고 싶었다. 늘 중얼거렸던 삼법인 화두를 올렸다. 한여름이었지만 1200미터 고지에는 한기가 돌았다. 으스스함이 느껴져 몸을 일으켰다. 부처님 뼛조각에 절한 것이 아니라 그 가르침에 머리 숙이는 것이 올바른 절이란 걸 깨달았다. 부처님은 법당에 모셔진 불상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 모셔진 가르침이란 것도 알았다"

절해고도에 자리 잡은 수비아코 수도원서 얻은 단상, 알함브라 궁전과 보스포러스 해협에서 짚어본 이슬람, 틱낫한 스님 · 서옹 스님 · 대행 스님 등이 전하는 선지식도 소개한다.

정동채 前 장관 국내외 종교순례기
김수환 추기경과 법정 스님 등 소개
"부처님, 마음안에 모셔진 가르침"

특히 대행 스님과의 각별한 인연은 저자의 삶에 지표가 됐다고 밝힌다. 저자는 국회의원 시절 자신의 지역구에 위치한 광주 한마음선원 주지 혜월 스님을 통해 접한 대행 스님의 주인공 법문에 큰 감화를 받았다. 저자는 "대행 큰 스님은 자기의 주인공에게 모든 것을 걸고, 맡기면서 수행하라 하신다. 한마디로 하자면, 밖으로 헤매지 말라는 것이다"라고 회고한다.

저자는 또한 가톨릭 신자지만 여러 종교에 열린 마음을 갖고 있다는 점을 책 곳곳서 느낄 수 있다. 국회의원으로 일할 때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은 복잡했다고 한다. 사무실에는 십자가, 성모마리아상과 미륵보살상, 목탁과 묵주 등이 이곳저곳에 모셔져 있어서다.

이외에도 저자는 "도대체 예수를 믿는가 아니면 부처를 믿는가"라는 질문에 "예수님은 믿고 부처님은 공경한다"고 답한다는 그는 불교의 공(空)과 무(無)를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의 가르침서 찾기도 한다. 저자는 "불교서 말하는 공의 의미는 그냥 텅 빈 것이 아니며 그 자리에 무엇인가 아름다운 것(妙有)이 있다고 설명한다. 이것을 진공묘유(眞空妙有)라 하며 이는 그리스도교의 삼위일체 신앙과 일맥상통한다"고 설명한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저자 정동채는?

1950년 광주에서 태어났다. 1976년 합동통신사에 입사, 1980년 신군부에 맞서 제작 거부투쟁을 벌이다 강제해직 당했다. 이후 미국으로 건너가, 망명 중이던 한국인권문제연구소 김대중 이사장의 공보비서로 일했다. 미국에서 돌아와 1988년 한겨레신문 창간멤버로 활동하여 정치부 차장, 여론매체부장, 논설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후 김대중 아태평화재단 이사장과 새정치국민회의 총재 비서실장으로 활동했다. 1994년 광주 서구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후 15 · 16 · 17대 국회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펼쳤다. 또한 문화관광부 장관을 역임했다. 현재 광주대 관광학부 교수, (사)국제문화도시교류협회 이사장으로 활동 중이다.

문장의 정확한 해석에 주안점 둔 옛 조사들 화두 48

무문관

안재철, 수암 공저 | 운주사 펴냄 | 2만3천원



책 〈무문관(無門關)〉은 중국 남송의 선승인 무문혜개 선사가 48개의 화두를 모아 엮은 것으로, 벽암록 종용록과 함께 선가의 대표적 선서중 하나다.

〈선종무문관〉이라고도 하는 이 책은 옛 조사들로부터 내려오던 선어록 중 공안 48칙을 뽑고, 무문 자신의 선적 체험을 바탕으로 48개 화두에 평창과 송을 덧붙이고 있다. 이 평창과 송은 참선자들의 쓸데없는 지식과 그릇된 인식을 불식시키고 깨달음의 눈을 뜨게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공안을 바르게 참구하고 그 핵심에 다가가도록 지도한다.

이미 다수의 무문관 번역서와 해설서가 나와 있지만, 대부분의 책들이 그 내용이 가리키는 종지에 치우치다보니 원문에 대한 정확한 문법적 이해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번역되고, 또 그에 근거한 해설이 이뤄져 왔다. 그런데 무문관은 선승과 학인의 대화가 대부분이며, 당대의 상황에 맞게 주고받은 말의 기록이다. 따라서 그 당시의 일상어에 대한 깊은 이해가 전제돼야만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한편 세월이 지나 언어의 용도가 달라지고, 문자에 뜻이 첨가됐으며, 문법체계도 역사적으로 많이 변화했다. 또한 그때의 상황마저 달라져 문자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렵게 됐다. 그래서 선어록을 읽으려면 당시의 언어와 상황, 그리고 문화를 바탕으로 입체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하지만, 중문학계에서는 불교 자체에 대해 별 관심을 쏟지 않고, 불교학계에서는 그 연구 대상을 주로 불교철학에 둘 뿐 언어를 따지는 것은 마치 불립문자(不立文字)를 손상시키는 것이라고 여겨, 중국언어학에 크게 관심 두지 않는다. 다행히 제주대 중어중문과 대학원서 〈선시특강〉 〈선어록연구〉 등 불전과 관련된 과목을 개설해 불교와 근대한어의 사휘와 문법 등을 강의한다. 이 책은 강의 중 텍스트로 사용한 것으로, 문법에 관한 것은 중국언어 전공자인 안재철 교수가 정리하고, 그 의미에 대해서는 수암 스님이 천착해 해설했다. 이렇듯 이 책은 선사들의 깨달음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문장의 정확한 해석에 주안점을 뒀다. 왜냐하면 원전을 제대로 읽어낼 수 없다면 선사들의 뜻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을 것이며, 또한 문법에 따라 살피지 않으면 엉뚱한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문의 선적 의미를 파악하기 전에 먼저 철저한 문법 해설과 예문 등을 통해 원문의 정확한 번역을 꾀했다.

철저한 문법 해설을 통해 원문의 정확한 이해에 중점을 둔 이 책은 깨달음의 문을 연 선사들의 속내에 대중들이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주일 기자

"현재에 집중하는 것, 마음의 짐 더는 첩경"

마음이 담긴 길을 걸어라

일운 스님 | 담앤북스 펴냄 | 1만4천원



3년 전 불영사 주지 일운 스님〈사진〉은 '만일염불회' 란 단체를 만들었다. 그리고 스님은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들에게 매일 아침 문자를 보낸다. 주제도 그리고 소재도 오직 '마음' 이다.

스님이 보내는 문자메시지는 하루에도 수만 번씩 천변만화하는 우리 마음에 언제 점을 찍어야 할지 아니면 언제 그 고삐를 당겨야 할지 알려준다. 문자메시지는 소문의 소문을 거쳐 이제 하루에 2천여 명이 매일 아침 8시 30분 '마음' 이라는 주제를 가슴에 품는다. 우리는 마음을 잘 모른다. 하지만 스님은 글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마음에 대해 이야기 한다.

예를 들면 스님은 이 책에서 마음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바람의 모습은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뭇가지의 움직임으로 그 방향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음도 모습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 마음을 볼 수 있고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건 이미 지나간 일을 갖고 마음에 갈등을 일으키고 스스로 고통을 만들어 고뇌하는 것보다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가게 하고 오지 아니 한 일은 미리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또한 스님은 수없이 강조한다. "우리는 이미 지나간 과거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점을 찍고 살아가고 있다"고. 이런 지나간 과거와 오지 않은 미래의 짐을 지고 사는 우리들에게 스님이 내놓은 진단은 '현재' 에 집중하기다. 그것이 마음의 '짐'



3년동안 '마음법문' 문자 발송
경전구절 인용한 치유 메세지

을 털어버리는 첩경이라고 말한다. 이 아름다운 세상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훌륭한 인연을 맺어 왔기 때문이라고 스님은 말한다. 세상에 함께하는 모든 존재들이 나와 같은 본성을 지녔다고 생각한다면 너와 내가 둘이 아닌 진리의 세상에서 아름답게 살게 될 것이라는게 스님의 생각이다. 모든 것이 둘이 아니기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 깊은 감사와 영광과 축복을 보낸다는 말도 덧붙인다.

스님은 마지막으로 당부한다. 세상이 나를 괴롭힌다는 착각서 벗어나고 매 순간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내라고. 이 처럼 이 책은 우리에게 주는 스님의 해법이자 치유의 메시지들로 가득하다. 혹여 '마음' 에 대해 무겁게 다가 갈까봐 혹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들릴까 봐 우려했는지 스님은 우리에게 익숙한 경전 구절 하나하나를 인용하는 것으로 하나의 글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인용구들에 잇닿아 스님이 알고, 진단하고 치유하는 '마음' 에 대한 이야기들은 아름다운 50여 컷의 일러스트와 잘 버무려져 책장이 술술 넘어가게 해준다.

김주일 기자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이 참 깨달음

자기에게 돌아오라

심성일 엮음 | 침묵의 향기 펴냄 | 1만2천원



부산 금정산 대덕사에 주석중인 춘식 스님의 가르침을 담은 첫 책 〈자기에게 돌아오라〉는 존재의 실상을 알려준다. 스님은 바깥의 헛된 모양에 속지 않고 본래 있는 자기에게로 돌아오는 것이 진정한 깨달음이며 참된 불교라고 말한다. 자기 바깥에서 부처를 찾지 말라고 역설한다. 시인이 오면 시를 읊고 검객이 오면 검을 논한다. 이것이 바로 선(禪)이라고 칠순의 노 선객은 말한다. 선이란 어떤 정해진 규격이 없다. 삼라만상이 자유자재하게 드러나듯이, 나고 죽음, 시공간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다. 불법이라 하기 이전에 본래 '이것' 이 그렇게 하고 있다. 그것이 자기다.

일상의 소란스러움에 떠밀려 밖으로 헐떡이며 구하는 현대인들에게 춘식 스님은 바로 지금 이 자리, 누구나 갖추고 있는 자기라는 한 물건을 돌아보라 말한다. 자기는 이미 자기이기에 따로 얻을 수도 없으며 결코 잃어버릴 수도 없다. 깨달음이란 엉뚱한 것을 나로 알고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 있는 그대로의 자기에게로, 생각과 감정, 삶과 죽음에 영향 받지 않는 영원한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이다.

스님은 제자들이 작은 깨달음에 멈추지 않고 궁극의 깨달음에 이르도록 지도하며, '이뭣고' '마삼근' 등의 화두를 바르게 참구하는 법을 비롯해 구도자들이 알아야 할 것들을 친절하게 알려준다. '자기에게 돌아오라' '어떻게 보임해야 합니까?' '이것이 무엇인가' '오직 돈법만을 전한다' 등 견성성불이라는 피안으로 인도하는 60편을 묶었다. 김주일 기자

수행도우미
미국FDA 등록인증 3009241067



발로해(두한족열양말)
노폐물 독소 쏙 빠지며
발 보들보들
발냉병 즉시 해소
법당에서 절할때 꼭 필요해요



자나깨나
중단전 챠크라 열리고
목, 뒷골, 어깨 확 풀림
스트레스 제로
온 몸에서 엄청난 氣감 체험



氣사라따
누구나 누워서 저절로
자동단전호흡 100%
피로회복, 氣모음 확실
환자에게 최고의 선물



호락호락 팬티
배, 엉덩이, 골반, 허리
차가움 냉병 즉시 해소
노폐물, 독소 배출 왕~



보디스킨
발목,장단지,허벅지,엉덩이,등허리
목, 뒷골은 3분만 밀어도 氣통하며
정신이 맑아지고 졸림, 나른,
피로회복 즉시 해소

세계최고! 다보명차, 슈퍼유산균 효소, 호두기름
www.법왕정사.net
010.3487.0035

웰빙 힐링 빌리빙
깨달은 호흡법

부처님 크신 은혜 고맙습니다
나는 본래 부처인 나다

◉ 절, 염불, 독경, 다라니, 명상, 수행시 가슴, 어깨로 들숨하면 100% 상기병, 화병, 냉병 걸린다. 조심하라!
◉ 행복 호르몬이 쏟아져 나와야 삼매 이룬다.
◉ 혀가 입천장을 탁탁 쳐야 생명뇌 일깨우는 진짜 건강법이다.
◉ 단전복식호흡이 저절로 되어져야 우주 태양, 지구 땅의 기운 모이고 돌려져 수승화강 된다.
◉ 신명나고 신바람 나는 기쁜 운률로 심신이완 되어야 번뇌가 뚝 떨어진다
◉ 수행, 운동, 등산, 공부, 일, 사우나 피곤하고 졸리면 호흡불량 100%

※ 건강법
귀에 소리나고 • 안구건조 비염 입안 헐고 • 머리 뜨겁고 • 얼굴 붉고 검고 손 발 배 차갑고 저리고 • 허리 무릎 손마디 검고 • 혈압 높고 • 가슴 답답 터질 것 같고 • 불면증 우울 공황장애 과호흡증 즉석에서 100% 효과

www.법왕정사.net
상담 ☎ 010-3487-0035

죽지 않는 천하대도 갑오년 윤달든해 음력 5월 20일과 21일 자오시에 양 6월 17일, 18일 일체 새로운 종교가 아나로 되는 천지공사 정법안장 대법회 및 120세 360세 도전하여 죽지 않는 생사해탈 득도법. 전무후무한법 전수

우주의 빛으로 120세 360세 1080세 증상대운으로 병없이 사는 천지공사에 동참하시여 3년을 더 사는 것도 원이 없는데 천지공사로 하늘의 진법 빛으로 늙지 않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증상대운 상생법인 마음에 문을 여는 진법을 만천하에 환성태일대사는 전하오니 마음을 열고 따라 오는 자 장수하는 비법을 받을지어다. 지구촌 일체종교가 발생된 것은 마음 근본으로 종교가 하나로 되는 心자로 도법에는 생아지문이 심자이고, 불교는 정법안장이 심이며 유교는 성리가 심이고, 도교는 황정의 문이 심이며, 카톨릭은 거존혈이 심이고, 오행은 중아정위가 심이고, 주역은 정이거채가 심이며, 명덕은 군자시중이 심이다. 이 마음심자로 모든 종교가 탄생되었으므로 천지공사로 마음을 여는 도법에 운명명부공사 법을 이어받아 직업에 구애받지 않은 도통 군자 되시며 병겁을 넘기는 스승되어 중생을 구하소서.

과거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선지식이나 도인들이 진법의 천지공사 근본도 모르면서 각종 종교를 빙자하여 천지개벽 천기누설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각종교주를 빙자하여 백성들을 기만하였기에 하늘에서 천벌을 내려 제명대로 살지도 못하여 철퇴를 맞았고 남이 써놓은 글자에 도통한 것도 아닌 글로 백성들을 제도하네 극락이네 천당을 찾으니 하늘이 그냥 두겠는가. 이제 지구촌 병겁으로 각종재난과 질병, 화산, 지진, 비바람, 병겁재난으로 하늘을 속이고 부모조상 무시한 업연으로 고통당함을 면하는! 경신법회가 양력 6월 17~18일 양일 자오시에 마음과 현문을 열러 주인공을 보는 소울움우는 수행처인 유불선 미륵달마경신도통회로 갑보세 갑보세 병겁에 도인되어 살 수 있는 빛을 받는 도량으로 가보세... 빛으로 각종 병을 다스리어 죽지 않고 오래 장수하려면 동참하시여 이 진광법을 받아 증상대운으로 오래사시소.

* 건강장수 정법안장 수명연장 십경신
동참금 일금 10만원, 간편한 옷, 필기도구 지참.
무박 2일
* 갑오년 윤달 든해 생전예수제 조상천도
구병시식 백중대제 맞이를 6월 17, 18.
하늘 땅이 열리고



구천에 모든 영가들이 해원상생하는 경신일에 백중제 77제를 조상오대 외가 삼대 친정 오대 외가3대, 조상영가, 모태영가, 유산영가, 청춘빙의영가, 유산 수자령 태아영가, 구대선망, 오대조상, 사대부조상을 해원상생의 진법으로 본 종단만이 계론, 시론, 생천론경과 천부경, 지부경, 인부경, 예단경, 헌식 진언으로 해원상생 왕생극락하는 금년 백중 칠칠제 49제를 드리어 명부공사 팔신공, 도천명, 천부팔력으로 이생에 수역, 조격, 충역 인간으로 태어나는 도리를 환성태일대종사만이 하는 백중 기간중 해원상생시키어 집안들에 고통과 모든 고액과 삼재팔란 불행한 일을 모두 제도하여 꿈속에 조상을 만나 마음먹은 대로 모두 이루어질 수 있는 진광진법으로 천도하오니 동참하시어 천복 대운 받으시어 만사형통하시고 살아있는 효도효행하소서.

거부장자로 사는 달마구입처 : 태일 02)821-6622/010-3239-3110

■ 기도입제 : 2014년 6월 17일(음 5.20) 화요일
■ 기도해제 : 2014년 6월 18일(음 5.21) 수요일
■ 자손만대 부귀영화 문무겸전을 득하는 전무후무한 49제 동참비 25만원 (처가,친정,외가,조상일체) 사대부일체 77제(농협 029-01-167866 곽한영)

전화 : 02)821-6622 / 7767 휴대폰 010-3239-3110
010-2481-3110/010-8533-1601 팩스 02)821-7768
서울 동작구 신대방 2동 360-188호 지하철7호선 신대방 삼거리역 2번출구

천지공사 불선도 미륵달마 십경신 도통회 총본산
사단법인 세계불교 달마조계종 태양의 집 진불선원 환성천룡진인 태일대사

“인간 마음은 백지… 경험 반복으로 관념 생겨”

불교로 읽는 古典

존 로크의 〈정부론〉



정천구
서울디지털대 석좌교수

오늘날 우리들이 향유하고 있는 자유, 평등, 권력분립, 제한 정부, 종교의 자유, 정교분리, 양도할 수 없는 인권 등 민주주의의 기본 아이디어는 존 로크의 정치철학에 크게 빚지고 있다. 유럽의 계몽주의 사상가들의 저작에서는 물론 영국의 의회민주주의와 1778년 미국의 독립선언서에서 우리는 그의 숨결을 느낀다.

〈정부론(the Two Treatises of Government)〉의 저자 존 로크(John Locke, 1632~1704)는 고전적 자유주의 이론의 선구자이며 계몽철학 및 영국 경험론철학의 원조이다. 그는 영국이 청교도 혁명(1640~1660)과 명예혁명(1688~1689) 등을 통해 절대왕정에서 근대 자유주의 국가로 변천해 가는 격동기를 살았다. 그는 당시 영국정치에서 큰 역할을 담당했던 사프츠베리(Shaftesbury) 백작의 정치고문이었으며 네덜란드에서 5년 반이나 망명생활을 했다. 〈정부론〉은 명예혁명의 이론적 기반을 마련한 책이며 혁명의 성공으로 로크는 망명지였던 네덜란드에서 혁명주도세력과 함께 귀국할 수 있었다.

인도독립운동에서 간디와 쌍벽을 이루는 인물이며 초대 법무장관으로 인도헌법을 기초한 암베드카르 박사(Dr.Ambedkar)는 자신의 사회철학은 “자유, 평등, 박애로 요약할 수 있는데,” 그것은 프랑스 혁명이 아니라 “나의 스승 붓다의 가르침으로부터 배운 것”이라는 유명한 말을 했다. 근대 서양의 민주주의 철학을 기초한 로크의 사상은 붓다의 가르침과 어떻게 비교될 수 있는가 그의 〈정부론〉에서 읽어본다.

왕권신수설 비판과 시민정부

〈정부론〉은 두 개의 논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총 11장으로 이루어진 첫 번째 논문은 왕권신수설을 주장한 로버트 필머(Robert Filmer)의 〈가부장제론(家父長制論)〉을 철저하게 논파하는 것이었다. 그것이 종교의 영향이 강했던 당시 왕당파의 이론적 기초였기 때문이다. 필머는 인간이 신에 의해 자유롭게 태어났으나 군주의 지배권은 신이 최초에 아담에게 준 것이라고 했다. 신은 아담에게 아내 이브와 자식들 그리고 만물에 대한 절대 지배권을 허락했고 이러한 지배권은 아담의 직계자손인 각 족장들에게 그리고 각국의 군주들에게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것이라고 했다.

로크의 필머 비판은 “노예는 가장 비열하고 비참한 인간 상태이다”라는 말로 시작하면서 인간이 신권을 부여받은 군주에 의해 노예상태에 있으며 인간의 자유는 군주의 은총에 의한 것이라는 논리는 성서의 어느 구절에서도 찾을 수 없다고 반박하였다. 아담은 모든 자의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따라서 군주는 절대적인 주권을 갖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오히려 신은 인간에게 자기 생존에 유익한 것을 선택하도록 이성(理性)의 분별력을 주었다고 주장했다. 그럼 왜 인간은 정치사회를 만들고 입법부가 제정하는 법에 복종해야 하는가? 〈정부론〉의 두 번째 논문은 바로 이러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총 19장으로 이루어진 제2논문은 정치권력이란 법을 제정하고 집행하며 재산을 보호하고 외국의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방어하는데 공동체의 물리력을 사용하는 권력으로 규정하였다. 여기서 로크는 사회계약론, 자연권, 제한정부론 및 국민의 저항권과 혁명권을 도출한다.

결국 최고 권력자는 ‘국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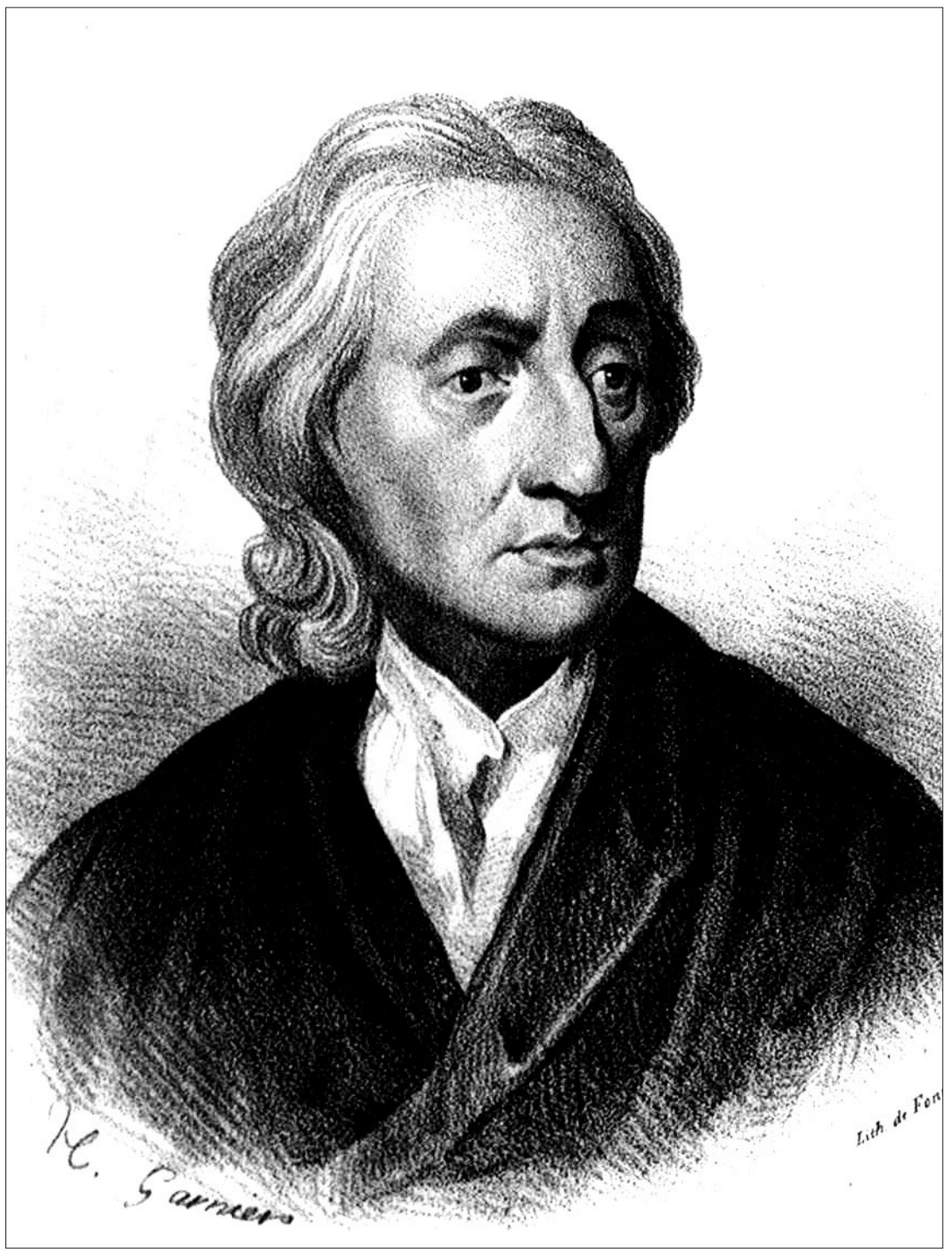
계몽시대 사상가들이 사회계약론을 다룬 것은 인지가 발전하자 백성들에게 정치권력의 지배 근거를 설명할 필요가 생겼기 때문이다. 토마스 홉스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인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국가와 계약을 맺어 자신의 모든 권리를 국가에게 양도하여 강력한 국가(Leviathan 리버이던)를 수립했다고 했다. 절대주의 국가를 합리화하는 이론이다.

필머의 왕권신수설 신랄히 비판
입법 · 행정 나눈 정치 시스템 고안
“사람은 자유롭고 평등하다” 주장

자연론은 붓다의 사성 평등과 유사
선입견 없이 인식할 수 있어야 진리

그러나 로크는 자연 상태에서 “모든 사람들은 자유롭고 평등하다(free and equal)”고 보았다. 여기서 모든 사람을 규율하는 자연법은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생명 · 자유 · 재산(소유물)을 유지할 자유를 주며 자기보존과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 한 다른 사람의 생명 · 자유 · 재산을 해치지 않을 의무를 지게 한다. 자연 상태는 평화로운 상태이며 전쟁상태란 타인을 절대 권력의 지배아래 두고자 상대의 목숨을 빼앗으려는 상태를 가리키는데 이는 자연 상태에서도 정치사회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절대왕정의 전제정치야말로 바로 그런 전쟁상태라고 보았다.

그러면 평화로운 자연 상태를 포기하고 사람들은 왜 사회계약으로 정부를 수립하는가? 자연 상태는 불편함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거기에는 자연법에 따라 나타나는 분쟁을 해결해 줄 판사도 없고 자연법을 강제할 경찰관도 없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사람들은 이웃들과 함께 정치공동체를 만드는 사회계약을 맺게 되었다는 것이다.



존 로크(John Locke, 1632~1704)의 초상화. 그는 고전적 자유주의 이론의 선구자이며 계몽철학 및 영국 경험론철학의 원조이다. 그가 저술한 〈정부론〉은 명예혁명의 이론적 기반을 마련한 책이며 이를 통해 공화주의의 초석을 닦았다.

홉스와는 달리 로크의 사회계약에서 인민은 생명권, 자유권, 재산권 등 기본 자연권은 양도하지 않으며 계약으로 만들어진 국가에서 정부는 개인의 생명 · 자유 · 재산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한 시민정부다. 시민정부는 통치기관으로 입법권 · 행정권 · 연합권을 두는데 입법권은 국왕, 상원, 하원으로 구성되는 의회에 있으며 행정권과 연합권(외교권)은 국왕에게 있다. 그러나 명예혁명으로 국왕은 군림하나 통치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확립되어 사실상 최고 권력은 의회에게 있다.

로크는 정치사회에서 전제지배나 폭정이 일어나지 않도록 세심한 장치를 고안했다. 국민이 선출하는 입법부가 최고 권력을 갖게 하고 입법권과 행정권을 분리시켰다. 또한 입법권과 행정권이 국민을 억압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누구에게도 양도할 수 없는 인간의 자연권을 보장하도록 요구하였다. 나아가 로크는 권력의 속성에 절대 권력을 향한 끝없는 욕구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국민에게 저항권과 혁명권을 부여했다.

로크는 부당한 권력에 대해서는 법의 틀 안에서 합법적으로 저항하는 것을 인정했고 정부권력(행정권과 입법권 모두 포함)이 인간이 정치사회에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 자체를 파기하는 극단적 사태에 이르면 정부를 전복할 수 있는 혁명권을 인정했다. 최고 권력을 갖는 입법부가 이를 위반하면 국민은 새로운 입법부를 만들어도 좋다고 하였다. 결국 최고 권력자는 국민이 되는 셈이다.

로크의 저작 중 민주주의의 원리를 설명한 〈정부론〉과 경험주의 인식론을 전개한 〈인간지성론〉은 1890년에 익명으로 동시 출간되었다. 명예혁명 2년 후였다. 그러나 그 내용의 상당부분은 이미 발표되었던 것이다. 로크의 철학은 생활 속에서 탄생한 것이며 그의 정치론과 밀접한 연관을 가진다. 그는 데카르트를 좋아했고 이성의 빛으로 무지를 타파하는 데 일생동안 관심을 가졌다. 신과 신앙심, 그리고 도덕률에 관한 논의가 한창일 때 로크는 그에 앞서 인간의 인식문제를 규명하려고 하였다. 칸트의 인식론이 나타나기 100년 전의 일이다.

그러나 그는 데카르트가 신의 개념을 타고난(생득) 관념으로 보는 견해에 반대했다. 청교도들의 신의 관념이나 왕권신수설과도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신의 관념은 타고나지 않았다”고 결론짓고 인간의 마음은 백지(tabla lasa, 깨끗한 석판)인데 경험의 반복을 통해 관념이 생긴다고 했다. 로크는 선입견에 사로잡히지 않고 지성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신이요 자연법이라고 보았다. 〈정부론〉은 그의 이런 철학적 사고와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

현대 공화주의 정신의 초석 닦아

로크의 왕권신수설 비판과 자연권 이론은 붓다가 브라만신의 사성(四姓)계급 창조신화를 부정하고 사성 평등을 설파한 가르침과 유사하다. 인간의 마음은 백지인데 그 위에 경험이 반복되어서 관념이 생겼다고 본 점도 인간의 본마음은 청정한데 경험의 반복으로 업을 쌓아 고통을 받는다는 붓다의 가르침과 통한다.

로크를 읽다보면 기본 발상이 붓다의 가르침과 유사한데 놀라고 2600년 전 붓다의 가르침이 얼마나 시대를 앞선 것인지 감탄하게 된다. 암베드카르가 자신의 자유평등사상이 붓다의 가르침으로부터 배운 것이라고 한 이유를 알 것 같다. 붓다의 가르침은 자유평등과 공화주의의 원리에서 근대 민주주의를 뛰어 넘는 것이다.

불교에서 공동체 문제를 처리하는 방식도 승가 회의인 갈마에서 그 내용을 볼 수 있다. 갈마는 만장일치든 다수결이든 어떤 경우에도 여법(如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다수결도 헌법정신에 합치해야 효력을 인정하는 현대 공화주의 정신을 엿볼 수 있다.

로크의 〈정부론〉의 내용은 공동체주의자들과 사회주의자들로부터 비판을 받아왔다. 사회계약이 역사적 사실이 아닌 허구에 불과하고 자유주의의 자유가 내용은 묻지 않고 외적 강제의 부재만을 목표로 하는 소극적 자유라는 비판이다. 그러나 칸트의 말대로 사회계약이 역사적 사실일 필요는 없으며 상상의 계약이지만 보편적 인간 이성에 의해 이끌어 낸 것으로 보면 된다. 불교에서 불설이냐, 아니냐의 최종 기준을 붓다의 법성(法性)에 합치 여부로 정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또한 로크의 자유는 “멋대로의 자유” 또는 외적 강제의 부재만 추구하는 소극적 자유가 아니라 자연 상태를 규율하는 이성과 공동체가 정한 법률 속에 놓여 있는 자유다.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정부론〉에 나타난 로크의 정치 철학은 신의 개념 자체를 극복하는 데는 이르지 못했고 생명, 자유, 재산의 보존을 중시하고 이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붓다가 가르친 궁극적 진리(眞諦, 진제)에는 못 미친다. 그러나 세속적 진리(俗諦, 속제)에는 매우 근접하여 인간의 무지와 편견을 극복하는데 크게 기여한 사상으로 평가할 수 있다.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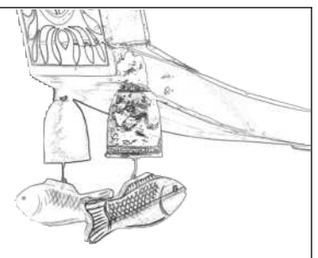
생 활 안 내

▷ 문 의 : 02) 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Box (4.5×4.5) 4만원, 1Box (9×4.5) 8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이익을 분에 넘치게 바라지 말라.
이익이 분에 넘치면 어리석은 마음이 생기나니,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되, 적은 이익으로써
부자가 되라 하셨느니라.

- 보왕삼매론 -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0-9002-8523
빙의 치료 전문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다음」에서 대명스님을 치세요!
대명 합장 (부산 · 밀양)

물상 역학 비법전수

일주일만 배워도 상담가능
사찰운영에 필요한 모든 방편전수
스님되실분, 사찰운영하시는 분
-사주, 궁합, 이사, 택일, 작명
※조상영가 배워 천도재 할 수 있음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부산) 010-3591-5277

수 맥

삼일단기 교육생 모집
수맥탐사 이론실기
* 교육과정 이수 후
* 개인사업자 창업지도
(사)한국수맥협회 부산수맥연구소
051)462-8711

영남범음의 그윽한 소리

로 염불,집전 해 드립니다.
사찰 각종 제 및 행사
대웅전 불사 원만 성취 발원
영남소리, 사물, 바라,
작법무료전수
055)744-5300
010-5243-3587
경남 진주 여여암 법일 합장

허리병 고치는 법

저서 : 허리병 7일만에 고치는 요법
2대째 이어온 기술
발명특허 출원
아픈분 및 배울분은
한번만 오시면 해결가능
네이버 허리선생 혜경
50년전통 010-3829-7582

범음범패 학인모집

불교의식 전문
초급, 중급, 고급반
실전위주 최단기간 교육
사찰행사 접수 받습니다
(49재, 천도재, 회심곡 등)
법 선 암 (부산, 통영)
010-6569-1010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1-850-0176

백발백중 귀장술

초보자 환영
쉽게보는 원판제공
다음. 네이버에서
"귀장술 원판" 검색
외울 필요 없음
010-8558-2345



천상을 여는 지장대사

원력으로 조상천도,
빙의퇴마,천병,신병,
우울증,틱장애,
가정우환, 병명없이
치유못한 환자 치유
(극락암)
010-5152-1222

천도재, 49재의식 배우며 기도하실 행자, 기도스님 모십니다

(대전, 60세이상도 가능)
010-4220-0566

몸이 자주 부으시는 분, 치유해 드립니다

(배우실 분)
010-4411-6636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남)
010-3865-0114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평생 형제처럼 부처님
공부하면서 같이 사실 분
010-6656-8117

빙의 기치유 한방쑥뜸

대구 심향사(약사도량 : 법화경)
전통사경,사불,현대사경,작품사경
사주 · 인생상담
부처님 진신사리 봉안도량
다음카페 : 심향사 사경원
053)244-9995
010-3677-3845 보성 합장

비구입니다 화주보살님 인연을 기다립니다

011-850-0176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북지역 천년고찰)
010-8559-9400

명리학(사주철학) 지도

(1)명리학+성명학
(2)완전기초부터 자격증
합격까지 완벽한 지도
(3)주1-2회, 3-4개월 완성
(4)경력34년, 병제철학원장
(5)사주,작명,개명,택일,모든상담
010-3695-1626
서울 9호선 가양역 10번 3분거리

달마도 40×60㎝, 한점 5천원

불사하시는 스님들을 위하여
선물이나 불사용으로
청암 달마도를 그려서
저렴하게 드립니다
010-2953-8770
농협 919-02-137213

부전스님 구함

불교를 잘 할 수 있도록 지도함
010-4220-0566
042)581-2022

디자인 결혼정보

초혼, 재혼
처음같은 마음으로 인연을
맺어 드리는 것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랑결혼,사랑행복,사랑미래
결혼은 인생의 디자인입니다
010-5230-3671
02)816-3671
서울 성북구 정릉4동 보국문로 195
반야도 합장

불사 준비하는 60대 비구입니다

절,신축,수리, 조립식 등
화재예방, 스프링쿨러
저렴하게
시설해 드립니다
010-7321-0404

인연 찾습니다

조건 최상으로 학교와
종단 괌, 등록 인수하실 분
미국령 GUAM사이버대학교
미국령 종단
2007년 등록 현재 라이센스
010-8774-2040
인터넷 070-8844-2030

기도의 달인 대주스님

- 사람은 하늘 문이 열리는 날짜와 시간이 서로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 서울 지하철 1호선 부천역 소명4거리 백선사

☎ 032)664-0048 / 011-741-0867

역학. 빙의 퇴마 (개인지도. 예약상담)

(아름다운 삶을 위한 마음의 치유) 저자 상담 지도

1. 빙의퇴마, 최면요법, 심리상담과정
(우울, 불안, 각종공포증, 정신질환의 치유)
2. 역학(기문둔갑) 사주, 궁합, 택일, 방향 과정
3. 성명학 강의 및 작명, 개명

* 빙의(신병) 출장 퇴마 해 드립니다

전화 011-772-4606 제행 합장
서울 지하철 2호선 방배역 3번출구. 7호선 내방역 3번 출구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1-412-8040 법광

불교문화시설 가입등록 안내

(불교문화원, 불교문화수련원,
불교문화센터, 선문화센터
설립 운영하실 분)
한국불교문화원연합회
011-412-8040 법광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 망고, 체리, 아보카도 수입과일 일체 판매합니다 〈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양다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
Fax 031-881-1350 전화 : 010-5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 (조명숙)

인비록人秘錄 - 죽어서 가는 길

도서출판 대도대한 펴냄 / 값 15,000원 / 전화 063)643-7285
"엄마 뱃속에서의 10달은 태어나서의 100년을 준비함이요,
살아서의 100년은 죽음 후의 1000년을 준비함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 이후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종교를 가졌든, 어떤 도를 닦든, 착하든 나쁘든
그 누구도 사후세계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바르게 알아, 바르게 사후를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판매서점 :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알라딘, 예스24 등)

강력한 삶의 변화 원네스 치유명상

1 부모, 자녀,부부,관계개선 치유명상
* 가족세우기(지도자과정, 특별세션, 개인세션)
2 하나로 깨어나기 명상
* 성장과 성공을 위한 깨달음
네이버카페 - 원네스 가족세우기(참조)
신청문의 : 혜산스님 010-4114-6600

달마일장금(경) 강의 (공양/숙식제공)

왕초보에서 고수로 3박 4일 (1일 8시간) 총 24시간 강의
- 강사 : 유천명리학당 원장직강 011-838-1134
- 내용 : 포태법, 십이신살, 십이운성, 불귀법, 혼령잡는법
- 장소 : 부산시 남구 대연동 540-5번지 3층 유천명리학당
월요일 ~ 목요일 (오전 9시-1시) (오후 2시-6시)

신도를 자연스럽게 천도제로 연결시켜줄 수 있는 비방법
법복안 손으로 짚어 1분 안에 당신의 과거10년 미래10년을 꿰뚫는다.
월요일 오후 2시 ~ 6시 수강 후 회비 입금가능 함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극락납골 봉안당
- 천도대도량의 쾌적한 법당형 납골 봉안당
- 도심사찰 최초! 영대네거리에 위치한 편리한 교통!
- 설, 추석, 기일마다 지극정성으로 축원해드립니다.
- 언제나 염불, 기도 소리 들리는 법당안에 모셔지므로 천도에 아주 좋습니다.
- 상조서비스 - 후불제 상품(163만원)으로 장례발생시 바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053-474-8228, 010-8582-7034
※ 예비수행승(행자) 모집 ☎ 010-9562-8228

영 가 찾 는 법 강 좌

간단하게 영가를 찾을 수 있는 전래비법과 사주로 찾는 법
생년월일만 알면 찾을 수 있는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 대 상 - 명리 왕초보반, 영가반(철학관, 포교원 운영자 등)
- 강 의 내 용 - 초 보 반 : 쉬운 오행풀이로 듣기만 해도 기억할 수 있음
- 영가특강반 : 한 맺혀 간 조상, 조상(귀신)의 발동을 아는 법 등

※ 수시 상담 및 접수를 받고 있으니 해당지역에 문의 바람

백암역리원 02)597-1101. 010-9150-2284 (1.9호선 노량진역 5번출구 동작구청 옆)
대 구 출 강 053)944-3272. 010-9885-8424 (1호선 아양교역 2번출구)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통영의 아름다운 경관 편백나무 숲으로 어우러진
웰빙의 조계종 사찰에서 기도하며
가족처럼 지내실 공양주 한분을 모십니다.
- 보시는 월 130만원 - 개인방사
- 2박3일 휴가, 기타사항은 상담 후 결정합니다.

상담전화 055)645-5324 (24시간상담)

3차 신묘장구다라니 천일기도

축령산 보현사에서는 '제3차 신묘장구다라니 천일기도' 를 아래와 같이 봉행합니다.
선근공덕의 인연으로 무루 동참하여 축령산 천하명당터의 기운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아 래

일시 : 불기 2558(2014)년 6월 25일 ~ 2017년 3월 22일까지
장소 : 축령산 보현사
문의 : ☎ 031)591-9023
(기도동참자 1인당 1년 10만원)

천일기도도량 축령산 보현사
보현선원 진명 합장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남가로 1723-34

풍수계 최초 밝혀낸
혈맥의 신통발복력!
-반드시 발복흥성유지되는 혈맥생기터-
- 명당은 반드시 땅속혈맥 갖춰야 진터
- 맥과 혈 짚어내는 비술득통
- 도승들이 펼친 산수혈맥주술법 도통

흥망성쇠 좌우하는 양택 음택!!

- 길터, 흉터 출장감정
- 명당점지, 묘이장 화장 상담
- ▶ 절암자 사업장(공장,매장) 점포 사무실 주택 묘지 납골터 수목장 등

※ 우리터문화는 자연과학이자 생명공학이다.
※ 태극혈맥터에서 인물나고 부자되고 가문이 흥성한다.

태극산수혈맥지리원
덕숭산인 지천공
H·P 010-4600-7399
절로암토굴 041)337-7399

영 혼 의 세 계 (빙 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전생최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천 광 수 련 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관계 및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불자정보

▷ 접 수 : 매주 월, 화요일 (팩스, 이메일로 광고 접수 받습니다.)
※ 화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해드립니다.
▷ 게 재 : 매다음주 수요일
▷ 문 의 : FAX 02)737-0696 / 02) 2004-8213 / iom@hanmail.net
▷ 가 격 : 기본규격 5㎝ 50,000원(1회) / 가로 7㎝ 70,000원(1회) / 가로 10㎝ 100,000원(1회)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인색함을 정복하는 것은 관용과 베풂이며 거짓을 정복하는 것은 바로 진실이라네."

- 법구경 -

사 찰 안 내

- 아름다운 토굴 -
(자급자족 가능)
- 위치 : 경남 고성
- 총부지: 970평, 건물 : 4동
- 청정지역지정, 자연산 약초 (봉삼, 비비초, 산초, 제피, 엉개, 산나물 등등)
- 요양처 최적지(환우 있는분)
- 가액 : 1억 8천

※ 전국 사찰 2,000개 보유

- 사 찰 -
- 위치 : 부산 바다 전망 좋은 사찰
- 대지 : 2,700평
- 건물 : 법당 50평, 요사채, 산신각, 다실, 주지실
- 텃밭 : 300평
- 가액 : 6억 8천만원

※ 전국 사찰 2,000개 보유

사찰전문 연산공인중개사사무소

※ 홈페이지 // 사찰전문 연산컨설팅 Daum카페
직통 051)863-6622

사찰(급)안내

- 경주시폭포사찰 양도
- 단청법당 36㎡, 삼성각 29㎡
- 요사채 90㎡ 지장전.토지6,400㎡
- 전통있고주변폭포와청정계곡사찰
- 양도금액 : 12억5천원(융자있음)

(원주이박사부동산공인중개사 이규철)
010-7347-1010 (사찰전문)
010-3426-9393(사찰경매전문)

사 찰 안 내

- 위치 : 지리산 청학동 하동군 청암면 묵계리 (계곡접 해발 700미터)
- 대지 1,815평, 부지조성완료, 정동향
- 법당 목조30평, 산신각 목조7평, 요사채25평, 창고1동, 해우소 1동
- 심야전기 및 전기판넬사용.
- 노인복지, 요양원, 연수원, 선원 등 최적임
- 가액 : 13억

010-3403-335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통영시 도천동 도리1길 부근
- 종교부지 800평, 산 812평, 전 350평,
- 법당 21.8평, 요사채 21.5평, 삼성각 2평
- 가액 : 6억

055)645-9171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북 군산시
- 법당 : 30평 목조 건물 문화재급 보유
- 요사채 및 식당 40평, 대지총면적 450평
- 즉시법회가능
- 가액 : 4억 7천만원

010-4725-5907

광진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
- 부지 : 90평
- 법당 : 30평
- 요사 : 40평
- 양도가 : 7억8천
- 위치 : 경기사찰
- 부지 : 220평
- 법당 : 40평
- 요사 : 70평
- 양도가 : 6억3천

※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일합니다. 출장상담 받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운영, 구하는사찰 있습니다.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광진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 김용각)
02)723-4082 / 010-4586-4525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원동 243-3(401호) (탑골공원길 21)

< 사찰안내 : 전문가 이박사에게 >

*전국에 도량을 구하시거나 양도 하실때는 이박사에게
*전국에 수백건의 사찰을 보유하고 있으며
*참되고 좋은인연을 찾아드립니다.(방문접수, 비밀보장)
■ 사찰, 암자, 토굴, 포교원, 사찰부지, 매매임대전문중개사

010-7347-1010 이박사부동산공인중개사(대표:이규철)
010-3426-9393 이박사공인중개사(대표: 이현종)
주소: 강원도 원주시 모래내길 50(성일아파트 상가 108호)
■ 전국사찰. 암자. 토굴. 포교원 양도 급히 구함!!!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울산 남구 신정 시장 입구
- 2층건물에 2층, 평수 45평
- 법당 20평
- 공양간, 큰방, 작은방, 옷방
- 보증금 2천만원, 월 60만원
- 보증금 1천만원, 월 70만원
- 전세도 가능
- 시설비 : 답사 후 절충
- 꼭 필요한 분만 연락 바랍니다

010-9767-4119

사찰(급)안내

- 위치 : 충북 옥천읍에서 5분거리, 대전에서 10분거리
- 대지 505평, 1층 요사채40평, 2층 와가법당 20평(단청필)
- 옥외건물 20평(창고), 화장실, 샤워실, 창고 6평
- 수려한 금잔디 및 조경, 6층석탑 주변 팬션 및 별장있음
- 대전 영동간 4차선 국도 300M 접
- 가액 : 3억7천만원

010-3645-136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밀양 백마산 줄기의 계곡이 흐르는 아늑한 사찰
- 법당 20평, 산신각 5평, 요사채 9평, 공양간 45평, 총평수 1,000평
- 가액 : 6억 9천만원

010-2772-7210

사 찰 안 내

- 위치 : 대전광역시 중구 태평동 오거리
- 대지 64평. 건물 2층 슬라부주택 3층 조립식 건물
- 요사채 : 1층 약 30평, 2층 약19평, 법당 3층 약 16평
- 삼존불 3자, 2.5자<동불> 약사여래불 목불 3.5자
- 가액 : 2억 6천 5백만원<융자 1억 포함>
- 주변 아파트 및 준상가지역

010-3409-4502

사찰(급)안내

- 위치 : 부산시내 전철역세권, 노선버스 최다
- 재벌을 길러낸 터, 포교 최적지
- 100M 전방재개발확정, 아파트 2천세대
- 법당 30평, 부처님 5분, 천불전불사중 현재 약 300분
  1층 : 차고, 창고, 일주문 / 2층 : 법당, 방3개, 공양간, 화장실2개
  3층 : 방3개, 산신당, 빈공간 20평, 화장실 1개
- 대지 140평, 건평 107평
- 가액 : 15억(융자 4억포함) 시세가 이하
- 학업관계로 부득이 안내(절충가능)

010-8634-7851
(부동산 사절, 꼭 하실분만)

사찰 안내 "가람"

- 전국 사찰 암자 포교원 양도 양수 해 드립니다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 계약체결시 까지 홍보
- 매물홍보 최적화(사진촬영) • 비밀보장(희망자 한함)
- 인터넷 검색창에 "사찰안내가람"을 입력해보세요

가람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 김인수)
02)492-6789 / 010-8980-4789
주소: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36번길 38(상봉동127-15호)

별장같은 토굴안내

순천 최고의 신도시 백화점뒤에 사찰
- 사찰창건 : 20년
- 대지 700평, 자연녹지 500평
- 대웅전(木) 22평, 삼성각 (木) 6평
- 요사채 (슬라브 2층) 방 6개, 주차장(15대 완비)
- 200M 거리 아래 : 백화점, 법원, 만(10,000)세대 아파트 단지
- 순천 최대 둘레길 완공
  순천, 여수, 광양 2015년도 광역시 통합 예정

010-5234-550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878-50번지
- 종교부지 1,700평(대웅사) 병산리, 산168-2번지 4,130평(총 5,830평) 건물, 대웅전 1동, 요사채(1,2층) 1동, 기도방 1동, 승방 1동
- 입주조건 : 양도 또는 임대(임대에서 매수전환, 절충가능)

010-4437-0088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충남 해수욕장 부근 (6차선 대로에서 30m)
- 법당: 삼존불, 후불, 신중, 각탱화
- 남향기와집, 큰방, 종무실, 입식주방, 화장실 넓음
- 텃밭, 대지 114평(건물 34평)
- 주차시설완비 소임관계로 급 양도
- 꼭 하실분만 연락바랍니다.
- 몸만오시면 됨, 조용한 마을에 위치
- 가액 : 1억 (시설비포함)

070-4142-4927

포 교 원 안 내

- 위치: 대구시 남구 대명동 성당시장 부근
- 4층 건물 3층 52평
- 법당, 친견실, 후원
- 가액 : 보증금 500만원 월45만원 시설비 1,800만원

010-6335-5995

포 교 원 안 내

- 위치: 부산시 사하구 감천1동 큰 도로변 아파트 상가 2층 약 60평
- 삼존불, 신중단, 칠성단, 영가단
- 큰 공양간, 큰방 1, 작은방 2, 욕실
- 시설환경, 위치 특 A급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월 45만원 시설비 2,500만원

010-5173-3355

사 찰 안 내

- 밀양 목조 단청 법당
- 요사채, 산신각, 용왕각
- 마을인근 전망좋고, 주차 얼마든지 가능
- 부산 40분, 창원 30분
- 대지 1100㎡, 건 180㎡
- 가액 : 4억 3천만원

(주)금호부동산 연산 가-13-1645
051)861-2233
010-5346-4138 (중개보조원)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153번길

절 터 안 내

- 부산 기장 최상의 위치입니다
- 해운대 기장 동부산관광단지 접근성이 좋습니다
- 현재 2층 주택이 있습니다
- 토지면적 1064㎡(322평), 2층주택 148㎡(45평)
- 가액 : 6억 7천만원 융자 4억 5천만원 가능합니다

(주)금호부동산 연산 가-13-1645
051)861-2233
010-8676-2278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153번길

큰사찰(터)찾는분

- 위치 : 경남 양산시 상북면 외석리 양산 시내 및 고속도로,지하철 20분거리 부산, 울산 40~50분 거리
- 높은산 중턱 자연녹지 1만평
- 평당 10만원,답사 후 결정,주인직접
- 현재 절 운영중
- 법당 20평,요사채40평,주차장넓음

010-3879-2544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대구 남구 대명동 대로변
- 평수 : 60평(조명, 냉난방 완비) 삼존불, 신중단, 영가단, 108소불 주차장 완배, 실내 화장실
- 가액 : 보증금 8백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2천만원
- 몸만오시면 법회 가능

010-5685-2229

사 찰 안 내

- 위치 : 대전 동구 낭월동 산 16-1
- 방 2, 부엌1, 법당1
- 가액 : 1500만원 월 30만원
- 시설비 4,000만원

042)273-1677
010-8775-1677

싼 암자외 터 안내

- 위치: 강원도 횡성군 청일면 신일리 계고물 흐르는 끝지점
- 대지 163평 법당 약 15평 요사채 33평, 주변 국유지
- 노스님 모시고 살기 딱 좋음
- 외 강원도 충청북도 경상남도 북도 있구요 꼭 필요하신분만 전화 주시면 지번알려드립니다
- 사례비는 일체 받지 않습니다
- 부동산업자 상담 불가

010-3288-1317

사찰(급)안내

- 위치: 경남 창녕군 부곡 온천 및 화왕산 국립공원대로변, 교통요지
- 목조단청, 전통토기와, 대웅전 30평
- 종교부지 600여평, 요사채(60평), 화장실2개, 석탑, 주차장, 창고(산신각,칠성각), 산밑에 위치,
- 도로인접, 심야보일라, CCTV설치, 컨1동, 텃밭경작
- 가액:융자3천안고, 3억3천만원(평당 70만원시세)

010-8664-8259
(답사하실분만 전화주세요)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 대로변
- 3층 건물에 2층(3층 옥상 사용 가능)
- 지장보살님, 약사여래, 종
- 내부수리 깨끗 법당, 주방1, 상담실1
- 가액 : 보증금 2천만원에 80만원 시설비 1,000만원

010-3293-1705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울산 언양 시장 (상가지역)
- 전체 75평, 2층건물 24평, 1층 요사채 방 3개, 주방, 욕실 2층 법당 삼존불, 삼성각
- 가액 : 보증금 2,000만원 월50만원 시설비 2,500만원
- 시설 일체(몸만 오시면 됨)

011-9542-8250

포교원 안내

- 위치 :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재래시장 입구
- 법당20평, 공간활용 15평 1층, 7보 삼존불 4자, 좌우보처 석자반 동소불 40불, 상담실, 주방, 에어컨, 냉장고, TV 컴퓨터(집기일체)
- 가액:1천오백만원 월 80만원 시설비 저렴

010-2397-9027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내사찰
- 대지 300여평, 법당 : 목조, 천불전(목조),
- 삼성각, 요사채 2동
- 텃밭있고 전망좋음
- 250년된 사찰
- 가액 15억

010-8625-1225

사찰(급)안내

- 위치: 경기도 포천시(50년된사찰)
- 대지 300평, 미륵불상4.5M
- 지장,신중,산신,칠성 탱화
- 삼존불, 텃밭, 집기일체
- 가액 : 전세 3,000만원. 양도도 가능

010-6311-4920
010-7128-5035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 주엽동 81번지
- 뉴서울쇼핑 2층 총 80평
- 가액 : 5,500만원, 월 40만원

010-8552-3934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 금정구 장전동 576-11 장전로타리 옆
- 2층, 3층 각 50평
- 부처님 전법도량, 최고 명당자리
- 가액 : 보증금 1,500만원 월 115만원 시설비는 상담후 결정

010-8533-1601
051)635-3110

사 찰 안 내

고추장, 된장, 간장에 들어가는 새로운 숙성 알코올 분말을 특허 받았습니다
제조에 참여 하실분 전화요망
- 토굴 200평, 삼존불, 황토방
- 가액 : 8500만원

010-3595-9856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밀양시 무안
- 대지 183평
- 건평 60평, 법당 18평
- 건강상 부득이 안내
- 가액 : 2억 6천만원

011-9330-5860

포교원안내

- 위치: 서울 강북구 미아동 삼양4거리
- 2층 시장인접 교통편리 포교하기 좋음
- 법당, 주방, 방2개 모든 조건 완벽함
- 가액 : 보증금 5백만원 월세 35만원 시설비 1,300만원

010-2230-357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김천 혁신도시
- 시내 10분거리
- 대지 300평, 대웅전 단청
- 건평 60평 1동, 50평 1동
- 방사10개, 종무소, 사무실 등등
- 가액 : 2억 5천만원 (대출 1억 포함)

010-8725-3196

사찰(터)안내

- 위치 : 밀양 IC 바로 앞
- 암자 적임지
- 1천평 평당 10만원

011-9323-8616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의령 유곡면
- 대지 약 800평, 임야 2,300평
- 대웅전 20평, 산신각 7평, 용왕전, 요사채 50평
- 가액 : 2억 9천(절충가능)

010-9395-6675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 대지 405평, 대웅전 30평, 단청필, 요사채 55평 단청필, 삼성각 5평 단청필, 공양실 20평
- 모자라는 금액은 부동산 교환가능
- 교통편리함, 화장실 및 창고 20평
- 주지스님 건강 악화로 급 안내함
- 가액 : 6억(융자 3억 가능함)

011-825-1662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대전시 유성구 상대동 예술 고등학교 부근
- 5층 건물에 2층 50평
- 아미타 삼존불 후불탱화
- 오피스텔 최신식형 법당
- 가액 : 보증금 1,000만 월 100만 시설비 3,500만원

010-2485-8799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남 해남군 현삼면 면소재지 부근
- 100가옥 사는 동네 맨 뒷집(산자락)
- 면적 1,164평방미터에 법당 34평, 주차시설 및 조경 좋음 (법당까지 승용차 진입가능)
- 모든시설 일체 완비
- 가액 : 6천만원(절충가능)

010-6621-9400

재개발 내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 남구 감만동
- 평수 : 대지 82평, 건평 약100평,
- 현대식 4층법당 (1층 상가 2층 빌라2동 3,4층 법당)
- 전망:재개발 임박지, 부산북항 대교근접지, 5분거리 난복지관, 시장,마트, 대학교, 버스정류장위치
- 가액 : 7억 5천 주인직접

010-4409-1347

사찰(전세)안내

- 위치 : 부산시 동래구 온천장
- 대지 210평
- 건평 80평
- 법당완비, 시설완벽
- 가액 : 전세 1천만원, 월세 120만원
- 시설비 4천만원

010-3193-3689

도심속의 암자(급)

- 위치 : 충북 옥천군 옥천읍
- 역, 나들목, 터미널 10분 이내
- 한옥 40평 (문중부지 200평)
- 5500만원
- 시설비 1500만원(상담후 조절가능)
- 몸만 오셔서 법회가능
- 상담 스님 최상

010-6651-6663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시 동래구 사직 3동 140-70 금정시장 사거리
- 4층 중 3층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시설비 1,500만원, 월세 40만원

010-5656-0445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시 사하구 감천 1동 큰 도로변 아파트 상가 2층 약 60평
- 삼존불, 신중단, 칠성단, 영가단
- 큰 공양간, 큰방 1, 작은방 2, 욕실
- 시설환경, 위치 특 A급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월 45만원 시설비 2,500만원

010-5173-3355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서울 중랑구 망우동 면목역(7호선) 8분거리
- 4층건물에 3층 평수 60평
- 법당, 요사채, 주차시설, 방3, 공양간, 화장실2, 창고
- 시설비 상담후결정
- 가액: 보증금 1,000만원 월 88만원

010-2439-0812

암 자 전 세 (동 해)

- 위치 : 강원 동해시내(바다 조망)
- 임야 3,349(대지 500평) 포함 건물 5동, 약 120평(1동 80평 신축건물)
- 특징 : 유명한 약수물 있음, 방13개 시내지만 산속같음, 차량 진입
- 창건: 약 70년된 암자, 소쿠리터
- 가액 : 보증금 6천만원(전세)

010-7325-3838

여기! 도심속 참 좋은 도량 포교원 임대

- 위치 : 경남 김해시 어방동 (대우유토피아 아파트 인제대)부근
- 2층 법당 45평, 1층 공양간 및 다용도실 30평
- 창고 주차장 시설은 완벽하며 즉시법회 가능한 참 행복이 샘솟는 도량입니다. 비구스님 인연 요망
- 가액 : 보증금 1천5백만원 월 90만원 시설비 5천만원(약간절충)
- 2층만 계약가능 1천만원 월 50만원

주지직 010-4288-3776

포교원 선원 안내

- 위치 : 서울 잠실, 자연선원 4층 건물 2층 약 45평
- 방2 화장실2, 선방과 거실
- 가액:보증금 2,000만원 월세 120만원
- 시설비 저렴함 협의사항, 모든 주거시설 완비, 몸만 들어와 운영됨

※ 인수시 모든 주거시설 양도함

010-8714-3922
070-7761-6616

암 자 안 내

- 위치 : 충남 예산군 예당저수지 위 150년된 암자
- 법당, 요사채, 예당저수지가 훤히 보이는 천하에 명당자리
- 약 2만평 관상수 주목 10년생
- 만평, 장뇌삼 5천평 요사채 및 창고
- 소유주, 직접매각(가격협의)

010-5097-3468
010-8505-2032

사찰 전세구합니다

시내 인접한 교통이 편리한 곳
기존 신도님들이
계신곳을 찾습니다.
전세 금액은 개의치 않습니다.
좋은 인연을 만났으면 합니다.

010-6717-6826

포교원(급)안내

- 위치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상가 3층 48평
- 아파트밀집, 재래시장 인근
- 시설 : 법당20평, 거실, 방2, 주방완비, 삼존불, 후불탱화, 신중탱화 시설물 집기일체 양도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월세 45만원 시설비 2,500만원(조정가능)
- 현재법회중, 불사관계로 저렴하게 급 양도

010-3102-5321

삶에서 깨어나기

타라 브랙 (명상가 · 임상심리학자)

〈1〉 임종에 이른 남편 간병 이야기 (사례)

"온전히 상대방과 함께 있을때 진정한 간병"

〈삶에서 깨어나기〉는 3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불교의 위빠사나 명상가이자 임상심리학자로서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해온 타라 브랙의 경험의 결정체를 담고 있다. 타라 브랙은 큰 고통을 극복하고 일어선 사람들의 감동적인 치유 이야기와 구체적인 명상법을 소개하며, 고통에 매몰되지 말고 내면의 참된 자신을 믿으라고 말한다. 본지는 〈삶에서 깨어나기〉(불광출판사 刊)의 내용 가운데 타라 브랙의 상담사례를 7회 발췌 · 요약해 싣는다.

정리=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명상 수업이 끝날 무렵, 팜이 나를 한쪽으로 데려갔다. 60대 후반인 팜과 그녀의 남편 제리가 3년 동안 겪어온 시련이 이제 막바지에 이르고 있었다. 림프종 진단을 받고 투병하던 제리는 죽음이 임박하자 팜에게 자신을 전적으로 간병해달라고, 자신이 죽어갈 때 이끌어주고 격려해달라고 부탁했다. 팜이 간절하게 말했다. "타라, 나는 도움이 정말 필요해요."

팜은 남편에게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려고 필사적이었다. "난 어떻게든 남편을 살리고 싶었어요. 아유르, 베다 의학, 침술, 중국 약초도 자세히 알아보았어요. 대체의학이란 의학은 전부 조사하고 연구 결과도 철저히 찾아봤어요. 우리는 그 병을 완벽하게 물리칠 계획이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지인들과 계속 연락하며 경과를 알려주고 호스피스 치료를 받고 있어요."

나는 조용히 말했다. "제리를 잘 돌보려고 정말 애쓰네요…몹시 바쁘겠어요." 이 말에 팜은 미소를 지어보였다. "맞아요, 바빠요. 이 말이 조금 이상하지만요. 기억하는 한, 정말로 항상 바빴어요. 하지만 지금은 글쎄요, 가만히 앉아서 제리가 그냥 죽게 내버려둘 수 없었어요."

팜은 말없이 앉아 있다가 불안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이제 남편은 언제 죽을지 몰라요. 타라, 내가 꼭 배워야 할 불교 의식이나 수행은 없을까요? 내가 읽으면 좋을 만한 것이 있나요? 〈티베트 사자의 서〉는 어때요? 죽어가는 제리를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요?"

대답을 하기 전에 나는 팜에게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말해달라고 했다. "나는 남편을 정말 사랑해요. 그에게 도움이 되지 못할까봐 두려워요." 팜이 흐느끼다가 말을 이었다. "평생 동안 내가 부족할까봐 두려워했어요. 어떤 일이든 더 잘해내려고 지나치게 애쓰고 살아온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내 노력이 부족할까봐 두려워요. 남편은 죽을 테고, 나는 정말로 혼자 남게 되겠죠. 내가 부족해서 제리를 살리지 못했기 때문에요."

나는 말했다. "팜, 당신은 이미 아주 많은 일을 해냈어요. 그렇게 바쁘게 열심히 노력할 시기는 지났어요. 지금 당신이 할 일은 없어요. 어떤 것도 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잠시 기다렸다가 말을 이었다. "그냥 제리 옆에 있어주세요. 매순간 온전히 함께 있는 당신을 통해 제리가 당신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세요."

그 힘겨운 시기에 나는 가장 단순한 가르침을 권했다. 그 가르침은 내가 이끄는 명상 수업이나 상담 치료 작업의 핵심이다. 다정한 현존이 우리의 본성임을 깨닫고 지금 이 순간에 그렇게 존재할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발견하게 때문이다. 피할 수 없는 상실의 순간에 이 영원한 현존은 우리와 타인의 마음을 치유하고 평화를 가져온다.

팜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 부부는 가톨릭 신자인데 내 수업에서 배운 마음챙김 명상 덕분에 신앙이 더욱 깊어졌다고 했다. 하지만 지금 팜은 갑자기 악화된 제리의 상태에 당황해 안절부절못했다. "호스피스 간호사들이 최선을 다해 도와주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제리는 완전히 기진맥진해 있고 너무 고통스러워해요. 어느 누구도 이런 일을 겪어서는 안 돼요. 이건 분명코 잘못된 거예요." 수많은 이들이 그렇듯이, 팜 역시 질병은 불공평하다고, 대항해야 할 적이라고 느꼈다. 그녀는 둑카(dukkha) 즉 삶에 가득한 괴로움을 마주하고 있었다.

"가장 힘든 그런 순간에 잠시 멈춰서 당신이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알아차리세요. 두려움이나 분노, 슬픔 같은 감정을 알아차리고, 속으로 이렇게 말하세요. '인정해, 인정해.' " 얼마 전에 나는 토머스 키팅 신부님에게서 그 말을 들었는데 팜이 가톨릭 신자니까 그녀에게 특히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 "인정해." 또는 내가 자주 가르치듯 "그래." 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을 거부하고 저항하는 경직된 마음을 이완시켜서 우리가 삶의 난제를 더욱 열린 마음으로 마주하게 해준다. 내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는 있었지만 팜의 표정에는 걱정스러운 기색이 역력했다. "타라,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하지만 극도로 불안할 때는 마음이 너무 소란해져요. 나 자신에게 끝없이 말을 하고… 제리에게도 계속 말을 걸어요. 어떻게 하면 멈추는 걸 기억할 수 있을까요?" 나는 대답했다. "멈춰야 한다는 것을 잊어버릴 거예요. 적어도 한동안은요. 그건 아주 당연해요. 멈추겠다고 그냥 다짐하기만 하세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감정을 알아차리고 '그대로 놔두겠다' 고 다짐하세요."

도움을 청하는 외침

내담자나 명상 수련생들은 다양한 형태로 내게 도움을 청한다. "이 끈질긴 두려움을 어떻게 다루면 좋을까요?" "이 무가치감과 실패감을 어떻게 하죠?" "이 괴로운 상실감은요?" 이 모두가 '도와주세요!' 라는 외침이다.

팜이 깨닫고 있었듯이, 삶을 통제하려고 아무리 애써도 우리는 변화와 상실과 죽음이라는 근본적인 현실을 통제하지는 못한다. 영원하지 않은 이 세상은 불안정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귀의처를 간절히 원한다. "도와주세요! 내가 안전하고 보호받고 살아받고 평화롭기를, 나의 삶이 편안하기를 원한다."



고통받는 현재를 피하기 위해
무언가를 하려고 분투하기보다
실제 느끼는 감정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평온한 참된 귀의처로 갈 수 있어

그러나 자신의 삶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우리는 이 깊은 염원에 현명하게 대응하지 못할 때가 자주 있다. 참된 귀의처를 찾지 못하고 우리는 '그릇된 귀의처' 로 나아간다. 그것이 그릇된 귀의처인 이유는 일시적으로 평온하고 안정될 뿐 장기적으로는 더 괴로워지기 때문이다. 팜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실패할까 두려운 나머지 항상 바쁘게 돌아다니거나 모든 일을 더 잘해내려고 분투하거나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것에서 귀의처를 찾곤 한다. 아니면 자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끼고 성공이나 부에 의지하기도 한다. 비난이 두려워서 갈등을 회피하고 다른 사람을 항상 기쁘게 하는 것에서 위안을 찾는다. 또는 불안하거나 공허해서 술과 음식, 인터넷 서핑에 의지하기도 한다. 자신이 지금 실제로 느끼고 있는 감정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대신 그릇된 귀의처에 의지하는 것은 정서적 고통을 회피하는 한 가지 방법이다. 하지만 이런 회피는 우리를 진정한 평온에서, 고향에서 더 멀리 떼어놓을 뿐이다.

그릇된 귀의처를 쫓아다니는 한, 괴로움이 우리를 쫓아다닐 것이다. 너무 긴장하거나 심란해서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고 있는 일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하루 종일 정신없이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릇된 귀의처는 참된 만족을 주거나 두려움을 없애주지 못하고 오히려 근본적인 자기 불신을 강화한다. 팜은 제리의 간병에 온 마음을 다해 헌신했지만 자신이 해낸 모든 것이 항상 부족해보였다. '올바로' 간병하려는 불안한 노력은 자신이 부족하다는 느낌만 강하게 했으며 자신에게 만족 하지 못하고 제리를 도와줄 방법을 끝없이 찾게 만들었다.

배우자의 배신,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등 위기에 처해서 휘청거릴 때에야 우리는 분명히 깨닫는다. 그릇된 귀의처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그릇된 귀의처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 즉 상실과 분리의 고통에서 우리를 구해주지 못한다. 위기는 그 힘이 강력해서 우리의 환상을 산산이 부숴버린다. 영원하지 않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딛고 설 튼튼한 토대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단단히 붙잡을 수 있는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 드러내준다. 이 위기의 순간에는, 삶이 무너지는 것 같은 순간에는 도움을 청하는 외침을 명확하게 알아차릴 수 있다. 이 외침은 우리의 가장 깊은 괴로움을 안아줄 수 있을 만큼 커다란 귀의처를 찾으려는 전설적인 어린 갈망이다.

다정한 현존으로의 귀향

나와 대화한 지 한 달 후, 팜이 전화를 걸어 제리가 세상을 떠났다고 말했다. 그러고는 우리가 대화한 그날 저녁의 일을 들려주었다. 집으로 돌아간 팜은 제리와 함께 묵언 기도를 드렸다고 한다. 팜이 말했다. "기도를 끝내고 우리는 각자 자기가 올린 기도를 솔직히 털어놓았어요. 나는 제리가 나의 사랑을 느끼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고 말했어요."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흐르다가 울먹이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제리도 나와 똑같이 기도했더군요. 내가 그의 사랑을 느끼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냥 가만히 껴안고 함께 울었어요."

제리가 임종하기 전 몇 주 동안에도 팜은 바삐 움직이며 자신이 쓸모있다고 느끼게 해줄 방법을 찾고 싶은 충동에 시달렸다고 했다. 어느 날 오후 제리는 이제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고, 자신은 죽음이 두렵지 않다고 말했다. 팜은 몸을 숙이고 그에게 입을 맞추며 서둘러 말했다. "여보, 오늘은 아주 좋았어요. 당신이 더욱 활기차 보였거든요. 허브차를 끓여올게요." 제리는 아무 말이 없었고, 그 침묵에 팜은 몸을 떨었다. "그런 순간마다 나는 확실히 깨닫곤 했어요.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에 온 마음을 다하는 것, 현재에 온전히 존재하는 것 외에 모든 것이 우리 둘을 실제로 갈라놓고 있다는 것을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을 나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인정하게 되면 그 일이 정말로 현실이 되어버리니까요. 그래서 허브차를 마시자는 말로 현실을 회피한 거죠. 하지만 진실을 외면할 때마다 나는 제리와 멀리 떨어졌고, 그건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었어요."

찻물을 끓이면서 팜은 자신이 매순간 제리와 함께 온전히 존재할 수 있기를 염원했다. 그대 이후로 이 염원이 그녀를 이끌었다. "마지막 두 주 동안 제리가 어떻게 죽음을 맞는 게 옳을지, 또 내가 어떤 일을 해야 옳을지에 관한 생각을 수없이 내려놓아야 했어요. 그리고 '인정해.' 라고 말하는 걸 기억해야 했지요. 처음에는 그 말을 기계적으로 중얼거렸지만 며칠 후부터는 내가 실제로 인정하기 시작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강렬한 감정에 사로잡힐 때 팜은 잠깐 멈춰서 내면을 들여다보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알아차렸다고 했다. 두려움과 무력감으로 가슴이 조여들 때는 그 느낌을 있는 그대로 경험하면서 자신이 매우 약하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뭐든 해야 한다' 는 충동이 솟구쳐서 안절부절못할 때면 그 충동을 알아차리고 가만히 앉아서 그 충동이 오고가는 걸 내버려두었다. 엄청난 슬픔이 파도처럼 덮칠 때도 "인정해."라고 말하면서 무겁게 짓누르는 그 아픈 상실감을 고스란히 받아들였다.

현재의 내적 경험과 함께 존재함으로써 팜은 제리를 완벽하게 보살필 수 있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두려움과 괴로움을 진심으로 인정하면서부터 어떻게 해야 제리를 잘 돌보는 것인지를 깨달았어요. 언제 그에게 용기를 주고 언제 귀를 기울여야 하는지, 언제 그를 어루만져서 안심시켜줘야 하는지, 언제 노래를 불러주고 언제 말없이 옆에 있어줘야 하는지를 느낌으로 알았지요. 제리와 함께 존재하는 방법을 알아낸 거예요."

전화를 끊기 전에 팜은 자신이 제리와 함께한 마지막 며칠은 선물이었다고, 기도의 응답이었다고 말하며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침묵 속에서 나는 '그' 와 '나' 라는 느낌 그 이상을 감지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바로 사랑의 공간이라는 것을, 완전히 열려있는 온기와 빛이라는 것을 점차 또렷하게 실감했어요. 제리는 떠났지만 그 따스한 기운은 항상 나와 함께 있어요. 내 마음은 내가 고향에 돌아왔다는 걸 알고 있어요. 사랑의 공간에 정말로 돌아왔다는 것을요."

이 글은 타라 브랙의 〈삶에서 깨어나기〉(불광출판사 刊)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타라 브랙(Tara Brach, 1953~)은



타라 브랙은 미국의 저명한 위빠사나 명상가이자 임상심리학자이다. 워싱턴 D.C. 통찰 명상회의 설립자이자 책임 교사이다. 스피릿 록 명상 센터, 오메가 인스티튜트, 크리팔루 센터, 스미스소니언 인스티튜트 등 미국 전역의 명상 센터에서 명상을 가르치고 있다. 또한 정신 건강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수많은 강의를 하고 워크숍을 이끌고 있다. 서양의 심리치료법과 동양의 불교명상을 결합한 타라 브랙의 심리치료 프로그램은 마음의 고통으로 아파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과 위안을 주고 있다.

997호 | 불자정보

TEL 02)2004-8213(直)
FAX 02)737-0696
(원고접수)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포교원(급)안내
- 위치 : 경남 사천시 시내중심지
- 평수 : 60평
- 바다와 인접한 완벽한 시설 완비, 시장과 인접함
- 시설비 3,000만원 보증금 500만원, 월 40만원

010-8616-5733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금정구 지하철 5분이내 거리 공원 옆 위치, 부산시내 최요지
- 1층 요사채, 화장실2, 방4, 거실4, 2층법당, 신축 개조, 법당 단청 일체 삼존불, 은행 옥불, 원목불단, 108소불 있음, 1층 약사불, 2층 산신각, 용왕단, 독성각 별도
- 가액 : 7억 5천만원, 사정상 급 안내

010-2503-0776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부산시 연제구 연산동
- 평수: 3층 100평(승강기 사용)
- 삼존불, 소불 300불, 인등, 산신 법당 1칸 외 방 4칸, 현대식 화장실 2칸, 에어콘3대, 시설, 비품 완벽,
- 즉시법회가능, 도심속 포교로 좋음
- 가액:보증금 4,000만원 월 90만원(월세 조절가능) 시설비 3,500만원(절충 가능)

010-4760-0413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합천군 용주면 계성마을
- 평수 : 730평, 법당 : 30평
- 삼존불, 산신각(신중탱화, 나한탱화), 칠성탱화, 연못, 정각, 두줄기 흐르는 냇가가 있음
- 주지실 : 방2칸, 공양간2칸, 방3칸 화장실2칸
- 가액: 3억2천만원(시설비 포함, 절충가능)

055)931-7971
010-4844-7098

사찰(터)안내
- 위치 : 경남 고성군 고성읍 회화면
- 평수: 3만6천평
- 평당 : 만오천원
- 최적의 절터

010-8616-5733

포교원안내
- 위치 : 경기도 안양시
- 법당 : 40평, 총평수 80평
- 방 2개 , 창고 2 개, 종무실, 시설좋고, 시장옆
- 최고의 시설. 전망 좋은 지역임
- 시설비 유, 전화주세요
- 가액 : 보증금3,000만원/월165만원

핸드폰 010-6722-2211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시 남구 감만동
- 평수: 약 80 ~ 90평 2층 공양간, 3층 법당, 4층 스님 친견실
- 전체 건물을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음
- 삼존불을 비롯한 완벽한 법당 시설, 주방기구 시설 완벽, 몸만 오시면 언제든지 법회 가능
- 가액 : 전세 1,000만원, 월세 40만원 시설비: 2,000만원

010-2575-9876

포교원안내
- 위치 : 경주시 성근동
- 4층 중 3층, 아래시장 근처 시외터미널 10분거리
- 총평수 80평, 법당 30평, 방4, 거실, 주방 시설일체 완비
- 가액:1,000만원 35만원 시설비 1,500만원(절충가능)

010-3863-4956
054)777-2064

사찰(급)안내
- 위치: 대구 남구 대명 10동 1627-26
- 삼존불, 지장보살, 후불탱화, 에어컨2, 방2, 주방, 다용도실
- 총평수 40평 법회 즉시 가능
- 가액 : 보증금 300만원 월25만원 시설비 1,500만원 사정상 저렴한 가액 (급)절충 가능

010-4415-5780
(꼭 하실분만 연락요망)

사무실 임대
- 위치: 서울 종로 5가역과 버스정류소
- 4층 건물중 3층 약14평
- 용도 : 한의원, 병의원, 포교원, 철학관 사무실외 다양하게 쓸수 있음
- 현재 확장이전하여 비어있음(언제든 입주가능)
- 가액:보증금 일천만원 월 77만원(시설비 200만원)

02)443-0108번
02)762-0108번

포교원(급)안내
- 위치: 대구 동대구역 부근
- 한옥독채 38평
- 아미타 사존불
- 후불탱화(신중,산신,용왕), 소옥불77불
- 방 2, 공양간
- 보증금 5백만원, 월 25만원
- 시설비 2천만원(절충가능)

010-3381-0800

현대불교신문 구독문의

■ 불교의 현대화
시대의 요구를 수용하고 삶의 보편적 가치를 올곧게 지탱하는 힘

■ 불교의 생활화
생활속의 지혜와 자비로 꽃피는 가르침

■ 불교의 세계화
국경과 인종을 초월한 모든 인간 모든 생명의 행복한 삶

현대불교신문사는
생명 있는 모든 존재의 행복을 위해
험한 길일수록 먼저 달려가겠습니다

현대불교신문과 함께 하십시오

문의 전화 : 02)2004-8200

갤러리 색즉시공



‘나’

한순간도 시끄럽지 않은 날이 없다.
모두 ‘나’ 때문이다.
모두 ‘나’를 떠나지 못해서 그렇다.
욕심 가득한 ‘나’
분노 가득한 ‘나’
무명 가득한 ‘나’
너의 ‘나’, 나의 ‘나’, 그의 ‘나’ 때문에 그렇다.

봄날이 그렇게 지나갔고
간밤이 그렇게 지나갔다.
봄이 가고서야 겨우 몸이 꿈틀대고
어둠이 걷힌 뒤에야 겨우 용기를 낸다.
바람은 아직도 그 모습이 없고
우리는 아직도 ‘나’ 밖에 모른다.

글 · 사진=박재완 기자

진정한 회향은 ‘시작’

이란보살의 인과이야기



20여년 동안 매달 가정법회 운영
“금강산에도 여여원 있었네”
금강산 여여원방문 후 불사 원력
20년 이어온 ‘여여회’ ‘여여원’으로
원력 세우니 신기하게 도움 잇달아

금강산에서 여여원을 만나다

지금 생각해보면 20여 년 동안 매달 한 번씩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집에서 법회를 운영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래서 나는 때로 나에게 “잘했다!.” 하고 박수를 보낸다.

그러나 오랜 세월 집을 공개하고 법회를 하는 것이 부담이 되는 면도 있었던 것 같다. 사명감을 가지고 편하게 한다고는 했지만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고, 개인생활이 오픈되니 항상 조심스런 나날을 보내야 하는 것도 요인이 되었을 것이다. 어느 순간, 답답한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즈음 오는 사람들도 한 개인의 집에서 오랫동안 법회를 여는 것이 부담이 되었던 모양이다. 그만큼 그들도 성장한 것이다.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에 가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으면 생각하고, 어디를 무인도로 정할까 하고 눈여겨보고 있는데, 마침 북한에서 금강산을 개방해 남쪽에서 관광단이 그곳을 다니고 있었다. 그 해에 금강산에 다섯 번이나 다녀왔고, 여여회를 여여원이라는 이름으로 문을 열게 되었다. 집안의 법당이 집 밖으로 나온 것이다.

금강산에 두 번쯤 다녀왔을 때 즈음, 불교신문을 보다가 송광사 스님들께서 효봉스님이 오도송을 읊은 법기암에 가신다는 사실을 알았다. 금강산에 마음이 온통 가 있던 터라 바로 신청을 하고 따라갔다. 금강산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송광사에서 나온 책자 하나를 보게 되었는데 금강산 온정리에 있는 여여원을 소개하는 글이었다.

여여회를 20여 년 끌어오던 나는 이름만 보아도 반가운 마음이 들었다.

“금강산에 여여원이 있었네.”

사연인즉슨 이러하다.

금강산 온정리에는 여여원이라는 암자가 있었다. 해방되기 전 효봉 노스님께서 그곳에 몇 년 주석하시다가 마하연으로 가셨다고 한다. 내금강에 있는 마하연은 여여원에서 수십 리 떨어져 있다. 효봉스님은 조계종 종정을 지낸 스님으로, 1925년(38세) 금강산 신계사 보운암에서 석두스님을 은사로 출가해서 1929년(42살) 겨울, 금강산 온정리 여여원 선방에서 안거하며 장좌불와의 용맹정진을 했다

금강산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안팎이 넉넉해보이는 비구니 스님을 만났는데 그분에게 물었다.

“석두스님이 누구세요?”

“석정스님의 아버지 스님이세요.”

“석정스님은 누구세요?”

“부산에 계시면서 불화를 그리시는 분이시죠. 불교회화의 장인인 불화장이세요. 중요무형문화재 제118호 불화장이시지요.”

석정스님을 만나 뵈면 여여원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아 금강산에 다녀오고 바로 비구니스님과 함께 석정스님을 찾아뵈었다. 스님은 부산의 한 주택가에 위치한 선주산방에서 그림을 그리시고 계셨다.

“옷이 참 곱네요. 서울 바느질이라 그런가요?”

삼배를 올리고 나자 스님께서 광목에 녹차물을 들인 내 블라우스를 보시고 하신 말씀이었다. 손님 일행을 맞는 스님의 태도가 참으로 따스하고 진실했다. 비구니 스님께서 우리가 찾아간 목적을 말씀하셨다.

“스님, 여기 이 보살님하고 금강산에 갔더니 온정리에 여여원이라는 절이 있었더군요. 그 내력을 좀 듣고 싶어왔습니다. 이 보살님이 서울에서 가정 법회를 열고 여여회라는 신행단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름이 같아서 내력이 궁금하다고 하는 군요.”

스님께선 잘 알고 계시다는 듯 여여원의 내력을 이렇게 말씀하셨다.

“석두스님께서 금강산 비로봉에서 오도송을 읊고 내려오셨는데, 북간도 용정에서 온 처사 김현을 만났다고 해요. 금강산에 석두라는 도인이 산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사람이었지요. 그는 독립군 전사자 미망인들을 돌보며 그들과 함께 작은 재가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는데, 석두스님의 설법을 듣고 아예 금강산으로 옮겨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온정리 온정천 다리 건너 숲속에 당시로서는 보기 드문 이층 양옥 여여원을 지어 수행처로 삼았다고 합니다. 석두스님이 그곳에 계실 땐 절에 갈 형편이 못 되는 사람이나 상궁 등 많은 사람들이 법문을 들으러 다녔는데, 돈을 전혀 받지 않고 무조건 베풀기만 했다고 하는 군요. 자식이 없고 형편이 넉넉한 김현 처사의 이모님이 많은 시주를 했다고 해요. 석두스님이 그곳을 떠난 뒤로는 효봉스님이 그곳에서 수행하시기도 했죠.“

석정스님께선 상세하게 옛일을 들려주셨다. 맑고 담백하고 겸손한 분이셨다.

“석두스님께선 김현 처사를 가리켜,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 아니고 사람다운 사람이 김현이지” 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여여원의 내력에 대한 스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스님을 모시고 법문을 들으며 여여회를 이끌어오던 지난 세월을 떠올리고는 묘한 전율을 느꼈다. 금강산에 그렇게도 이끌렸던 이유, 보덕암에 가서 그렇게 뜨거운 눈물을 흘렸던 이유, 온정리에 가자 그렇게도 환희심이 올라왔던 이유를 알 것만 같았다.

“스님 제가 서울에서 여여회라는 공부 모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여여원이라고 해도 될까요?”

“남한에도 있으면 좋죠.”

돌아오는 길에 석정스님께서 즐겨 입으시던 옷 한 벌을 가지고 와 감을 끊어 입으실 옷 세벌을 보내드렸다. 스님을 뵙게 된 인연을 감사하게 여긴 나의 작은 감사의 표시였다. 돌아가시고 나서 들으니 세 벌 모두 즐겨 입으셨다고 한다.

스님을 다시 찾아뵈었을 때다.

“스님 이제 제가 나이도 있고 해서 회향(回向)을 제대로 한번 하고 싶습니다. 회향의 진정한 뜻은 무엇일까요?”

"좋은 일이지요. 회소향대(回小向大)가 회향입니다. 작은 것을 돌려 큰 것으로 나아간다는 뜻이지요. 보통 회향을 끝나는 것으로 아는데 진정한 회향은 시작에 있습니다. 여태껏 해온 작은 것을 돌려 앞으로 큰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스님을 뵙고 와서 밖에 절을 한번 세워야겠다는 원력이 생겼다. 집에서 법회를 하는 것에 한계를 느낄 즈음이었다. 여여원을 운영한 김현처사의 이모님처럼 넉넉한 부자는 아니지만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다섯 번째 금강산 보덕암에서 조촐한 금강산에서의 마지막 순례 회향식을 치르면서 많이 울었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한없이 흘러나왔다. 누가 보던 말던 목놓아 울었으니 전생에 무슨 인연이 있었지 싶다.

그러한 인연으로 서울 광진구에 여여원이 세워졌다. 공부방이 집밖으로 나온 것이다. 어린이 대공원 앞 건물 3층에 조그마하지만 정갈하고 소박한 법당을 운영하게 되었다. 신묘하게도 금강산에 다녀오고 나서 법당을 꾸릴만한 비용이 내 앞에 왔다. 돈을 축적해 두는 삶과는 거리가 먼 내게 그것은 부처님께서 회향을 한 번 잘 해보라고 주신 선물이란 생각이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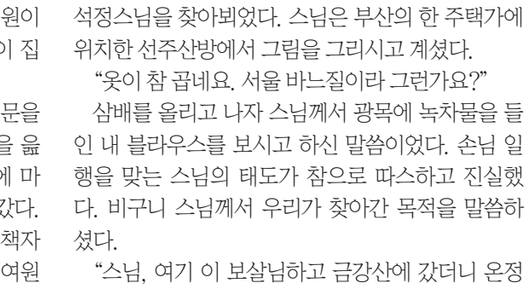
〈여여원 원장〉

孝 불경 라디오 成佛

불경과 라디오를 하나로!!!

언제 어디서나 불자의 기도, 각종 염불, 찬불가를 간단한 조작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등산, 산책, 모임, 법회 언제 어디에서나 간편하게...

※일반 가요 듣기도 가능합니다.
(USB 포트에 가요데이터 삽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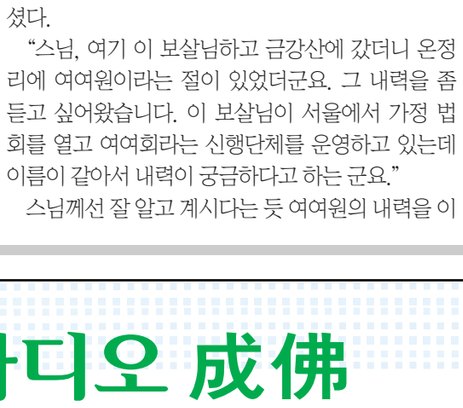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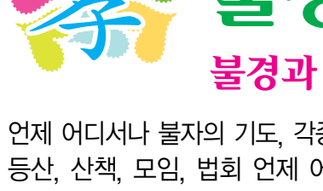
사용설명
원하는 번호만 누르면 해당 불경이 바로 나오며, 불경 SD카드를 빼시면 바로 라디오로 전환됩니다.
(자세한 설명은 사용설명서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제품구성
가로 13cm × 세로 6cm × 두께 2cm(청색, 홍색) + 4GB 불경 SD카드 + 이어폰 + 1200AM 베터리 + USB 충전케이블 + 충전아답터 + 불경목록 + 사용설명서

● 가격 : 6만원 (발송비 포함)

* 스님들께서 불자들에게 드리는 선물로도 더욱 좋습니다.
(100개이상 구입 시 사찰명 별도 표기해 드립니다)





구 입 처 : 현대불교현불샵 (02)2004-8214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 불경목록 (음원 저작권 협약)

□ 정천의 삶을 위한 기도
1. 불자의 기도
2. 아침의 기도
3. 가내 평안을 위한 기도
4. 병마 쾌유를 위한 기도
5. 명상음악
6. 행복한 가정을 위한 기도
7. 자녀을 위한 부모의 기도
8. 생일의 기도
9. 장엄 염불
10. 저녁의 기도
11. 마음이 머무는 곳에
12. 빈손으로 왔다가
13. 사람을 쓸때는
14. 여름 벌레는 겨울이 있음을
15. 가난은 죄가 아니요
16. 마음이 머무는 곳에
17. 시간이란 누구에게나
18. 향수를 바르면
19. 남의 과실을 꾸짖는 마음으로
20. 일시에 분을 참으면

□ 향공스님의 염불시리즈
21. 광명진언 1
22. 광명진언 2
23. 개경게
24. 지경공덕분
25. 예불문
26. 아산 혜원선사 발원문
27. 천수경
28. 반야심경
29. 화엄경 약찬게
30. 법성게
31. 참선곡
32. 우리말 반야심경
33. 관음정근

□ 찬 불 가
34. 삼귀의
35. 찬양합니다
36. 예불가
37. 청법가
38. 불교의 노래
39. 새 법우 환영가
40. 부처님께 기원합니다
41. 부처님께 바칩니다
42. 사홍서원
43. 산회가
44. 관세음의 노래
45. 보현행원
46. 감로법을 전하자
47. 초파일의 노래
48. 마하반야의 노래
49. 성도제의 노래
50. 우리도 부처님 같이
51. 홀로 피는 연꽃
52. 관세음보살 1악장
53. 관세음보살 2악장
54. 개경게
55. 이상정멸분

박태원보석감정원 천연A비취(玉)

비취는 세계7대 보석중의 하나이며, 중국사람들이 비취를 하늘의 돌로 생각하여 항상몸에 지녔으며, 유럽인들은 병마를 치유하는 신빈의 보석으로 여겨왔으며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하여 영혼을 부활시키는 보석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비취는?
- 비취 경도는 6.5 ~ 7이다.
- 비취의 유일한 산지는 미얀마(버마) 뿐이다.
- 예로부터 신비의 돌이라 불리며, 성경과 불경에 최고의 보석으로 서술되고있다. 왕위를 상징하는 보석으로 중국의 국석이 되었다.
- 중국 명나라 이시진의〈본초강목〉, 허준선생의〈동의보감〉에도 약석으로 기록.
- 아주대 오흥국 교수팀의 실험 결과 –
  - ▶ 원적외선 방출량 94% (신진대사 원활, 혈액순환 원활, 화상치료, 저혈압 고혈압 조정, 통증완화, 뇌세포 재생)
  - ▶ 음 이 온 방출량 86% (음이온 : 세포활성화, 혈액정화, 피로회복, 자율신경안정, 면역력증가, 통증완화, 알러지 체질 개선)
  - ▶ 탈취율 90% 1시간 ▶ 항균성 85%
  - ▶ 대장균 감소율 83.6% ▶ 녹농균 감소율 86.3%
- 비취는 생리작용과 피부탄력에 영향을 주는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 혈액 순환에 효과가 커서 정신을 맑게 해주면 독성을 중화하고 수면기능을 높임.
- 비취에는 A, B, C비취의 단계로 나뉜다.
  - ▶ A비취 : 광산에서 채굴한 천연원석을 가공.
  - ▶ B비취 : 수지처리 ▶ C비취 : 원석에 염색





◀보석감정서 ▲보석감별서 (앞,뒤)
◀박태원보석감정원 ☎ 1599-9231

가격
비 취 목 걸 이(진옥) 가액 ₩180,000원
비취팔찌 – 상(연옥) 가액 ₩80,000원
비취팔찌 – 중(흰옥) 가액 ₩60,000원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3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대행 스님

마음 하나 잘 쓰면 잘 쓰는 대로 모두가 뒤바뀌집니다

여러분이 생활하시는 것을 보면 항상 자기 마음에서 나오니까 자기 마음인 줄만 아시고 그것을 다스리는 마음이 부족합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여러분이 과거에 살 때 인연 지은 악업 선업의 그 생명체들이 과거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 몸속에 다 주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연이 돼서 말입니다. 한 덩어리에 있죠. 그런데 그 한 덩어리가 컴퓨터라면 바로 그 덩어리 속에 의식들이 잠재하고 있어요. 잠재하고 있다가 살아나가는 데에 차례차례로 생각을 내게 해서 애고도 오게 하고 불만도 생기게 하고 싸움도 하게 하고 병고도 생기게 하는 그 가지가지를 어떻게 말로 다 하리까. 그런데 여러분이 생활하는 가운데 천차만별로 다가오는 거, 안에서 천차만별로 일어나는 거, 그것을 마음이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은 우주에 직결이 돼 있고 세상과도 가설이 돼 있는 바로 한 마음의 주인공입니다. 그 주인공 속에서 마음이라는 것은 수억겁을 거쳐 나오면서 경험과 체험을 한 장본인이기 때문에 나쁘고 좋은 거를 너무나 잘 압니다. 해(害)가 오는 것도 알고 또 좋은 일이 생기는 것도 잘 알고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도 잘 압니다. 알고 있는 이 마음이 각자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속에서 그 헤아릴 수 없는 생명의 의식들이 자꾸자꾸 나오게 되면 그 마음을 거쳐서 나옵니다. 나오는 구멍은 한 구멍이기 때문이죠. 들고 나는 구멍이 한 구멍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그 몸속에 있는 생명의 의식들이 바로 악업 선업을 지은 장본인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마음이 나오면 그저 내 마음이 그렇게 하는 줄 아시지만 내 마음이 그러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은 잘못됐다는 것도 알고 잘된다는 것도 알고 전체 모든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사람답게 살려고 하는 마음도 그 마음속에 있고 모두 다 잘 아는데, 그 아는 마음대로 행하는 게 아니라 잠재해 있는 생명의 의식에 의해서 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 뜻을 헤아릴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해하시게끔 이러한 말을 항상 해 드리죠. 마음의 선장이 있고, 그 선장에 의해서 의식들이, 자생중생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있다 이런 소립니다. 그 자생중생들의 의식이 내 마음을 거치면서 나오는 것을 항상 마음의 선장으로 다스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건 줄 알고 속아서 항상 그렇게 헤매고 있다는 얘기죠. 마음 하나 잘 쓰면 잘 쓰는 대로 모두가 뒤바뀌지고 이 세상이 그렇게 참답게 잘 돌아갑니다. 빛보다도 더 빨리 지구도 돌아가고 모두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놓여진 이 컵 자체도 이 책상도 모두가 다 지금 쉴새없이, 눈에 보이지 않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의식 속에서 나오는 거를 진짜인 줄 알고 항상 나오는 대로 분노를 일으키고 그러시는데, 거기에서는 내가 인연 지은 대로, 즉 말하자면 악업을 지었으면 악업이 나오고 선업을 지었으면 선업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 모든, 즉 말하자면 유전성이라든가 영계성 업보성 세균성 인과성, 이 전체가 바로 내 악업 선업 지은 그 자체에 들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나가는 데 쉴 사이 없이 안팎에서 자꾸 나오는 것을, 나오는 대로 속고 자꾸자꾸 끄달리신다 이겁니다.

그러니 내가 항상 여러분한테 얘기해 드리는 것은 여러분을 끄달리게 하는 그 마음을, 잘 나오는 거든지 못 나오는 거든지, 잘 나와서 잘 이루어지는 것은 감사하게 마음의 선장에 놓고, 잘 안 나오는 것은 '잘 나오게 하는 것도 선장에게 달려 있으니까 당신만이 잘 이끌어 갈 수 있게끔 나오게 할 수 있다.' 하고 거기에다가 맡겨 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맡겨 놓으면 맡겨 놓는 대로 의심을 하고, 또는 맡길 수가 없다고 그러거든요. 여러분의 마음의 선장은 하나지 둘이 아닙니다. 그런데 선장이라는 그 타이틀이 선장이 아닙니다. 진짜 그 좋은 생각과 알 수 있는 마음, 심안으로 볼 수 있는 마음, 마음의 귀로 들을 수 있는 마음, 가고 옴이 없이 가고 올 수 있는 마음, 남의 속을 헤아릴 수 있는 마음, 자기가 부모의 몸을 빌려서 영원함과 더불어 형성됐다는 앎을 숙명통이라고 한다면 그 다섯 가지 속에서 바로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컴퓨터에 입력이 된 것처럼 항상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몸속의 그 의식들이 컴퓨터에 입력돼서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나오는 것처럼' 이 아니라 사실이 그렇습니다.

이거 들으실 때는 어려우시겠지만 어려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무조건 내 마음의 선장은 그 모든 걸 알고 보고 듣고 하지마는 바로 몸속에 있는 중생들은 그렇게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거기서 입력된 대로 나오기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 선장에 의해서 한마음 속에서 나온 거니까 한마음 속에다가 모든 걸 맡겨 놓으시라는 겁니다. 그 안에서 병이 났으니까 그 안에서 고쳐야 하고, 그 안에서 애고를 내보낸 거니까 그 안에서 애고를 처리해야 하고, 모든 것은 다 그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대답이 안 나옵니다. 하하하….

대중: 네!

큰스님: 지금 우리에게는 생활 자체가 중요한 것이고 그 속에서 뛰어야 합니다. 지금은 시대가 변천하는 대로 순응해서, 즉 말하자면 내 마음속으로 두뇌 즉, 누진을 굴려서 뛰면서 생각하고 생각하면서 뛰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입니다. 시대에 따르면서 한생각을 해서 뛸 때에 천 리를 뛸 수 있고 만 리를 뛸 수 있는 그런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그 내용을 모르시지만 이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항상 얘기해 드리죠. 이 자리에 앉아서도 자기 집을 갔다 올 수 있다고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도 자기 집에 갔다가 한꺼번에 보고 오실 수 있죠? 내 육신이 움죽거리지 않고도 집에 갔다 올 수 있듯이 무엇이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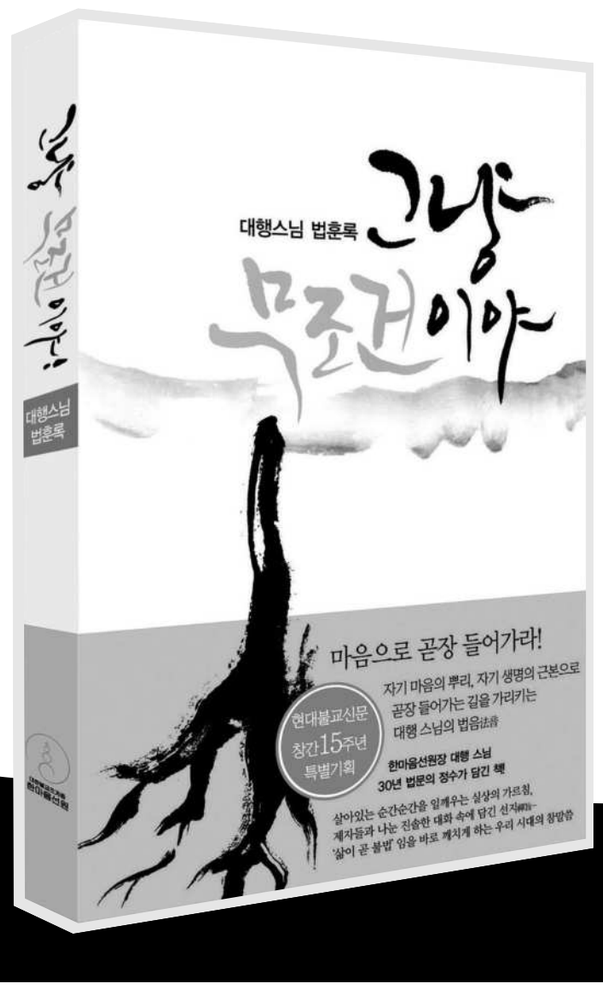
그런데 마음의 눈이 떠지지 못하고 마음의 귀가 뜨이지 못해서, 지금 여기서 자기 집에 갔다 오는 것처럼 어디든 그렇게 갔다 오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상세히 보고 오실 수가 없는 거죠. 갔다 온다 못 갔다 온다 이런 것도 없죠. 지금 집에 갔다 오시는 데는 내가 '갔다' 하고 말할 수도 없고 '왔다' 하고 말할 수도 없고, 그냥 한 찰나에 내가 그냥 눈 한 번 깜짝하니까 그냥 갔다 오게 되고 알게 되더라 이런 거와 똑같이, 심안이 뜨이면 일체를 다 우주와 더불어 같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모두, 이 공부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도 그렇고 일체제불도 그렇고, 모든 천백억화신

☞ 30면으로 계속



그림 · 최주현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3(수송동) 2층 **현대불교 현불샵**

여러분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세세생생이 달려 있어요

☞ 29면에서 계속

의 보살들도 그렇고 역대에 내려오는 조사님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한테 내가 "너희 집에 갔다 왔다." 이러지는 않아도 여러분 가정에 가면 뜰이 어떻게 돼 있고 신발이 어떻게 놓여 있는 것까지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배 속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공부입니다. 여러분의 배 속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가 하면 여러분의 마음속까지 들여다볼 수 있으며,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알 수 있으며 미래에 어떻게 살아갈 거라는 것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여러분한테 얘기해 드리는 것은 미래에 어떻게 되고 과거에 어떻게 됐고, 이것을 논하는 게 아닙니다. 단, 과거는 지나갔으니까 없고 미래는 앞으로 오지 않았으니까 없는 것입니다. 단 하나 있다면 여러분의 몸속에 지금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인연이 돼서 자생중생들이 북적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 안에 들어도 못 면한다는 뜻은, 왜 요새 컴퓨터 있죠? 컴퓨터에다 입력을 해 놓으면 입력대로 나오지 그 외에 다른 게 나오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와 같이 컴퓨터에 입력이 되듯 모두 자동 컴퓨터에 입력이 돼서 여러분이 가정생활을 하며 살아나가는 지금 생활 속에 자꾸자꾸 나오는 겁니다. 좋은 일도 나오고 언짢은 일도 나오고 애고도 생기고 병고도 생기고 뭐, 일이 한두 건이 아니죠.

이렇게 생기는 이치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과거에 죄를 많이 지어서 내가 이렇다고 하는데, 입력이 돼서 바로 여러분 몸속에 있는 겁니다. 그런 거니까 과거도 찾지 말고 미래도 찾지 말고, 현실도 모든 게 공했다 이겁니다. 단지 입력대로 나오는 거니까 그 입력한 데다가 다시금 맡겨 놓는다면 과거에 입력된 자체가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팔자 운명도, 영계성 세균성 인과성 유전성 업보성 이 모두가 무너지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새로이 생각하고 사시는 그것이 그냥 입력돼서 자꾸자꾸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달려 있고, 여러분이 어떡하면 사는 동안까지 애고나 병고에 휘달리지 않고 자유스럽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는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교가 생겼다고 봅니다. 그러나 불교는 영원한 겁니다. 생명이 불(佛)이요, 말로 전달이 되고 통신으로 전달이 되고 뜻으로 전달이 되고 마음과 마음이 전달이 되는 그 자체가, 바로 무의 세계 유의 세계, 죽은 세상 산 세상이 전부 연결이 되고 곤충에 이르기까지 연결이 되는 그 자체가 바로 교(敎)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리 깎은 사람만이 불교를 믿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를 믿든지 가톨릭교를 믿든지, 알라신교를 믿든지 티베트 불교를 믿든지, 어떠한 종교를 믿든 간에 불교 안에 있는 거지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왕지사 칼을 뽑았으면 그 칼로 내 동료들도 살리고 이웃도 살리고 나라도 살리고, 모든 일체 만물의 은혜도 갚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법을 배운다면 모든 조상들과 일체 제불의 은혜도, 돌 쪼가리 하나 나무 한 그루의 은혜도 다 갚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최상승 공부를 하는 겁니다. 지금 과학이 아무리 발전이 됐다 하더라도 과학자들이 자기가 은하가 될 수가 없고 자기가 태양이 될 수가 없고, 자기가 위성이 될 수가 없고 자기가 나무가 될 수가 없고, 자기가 곤충이 될 수가 없고, 천차만별의 일체 만물만생이 자기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일체 만물만생이 다 내가 될 수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어떤 용도, 어떤 소원이든지 그것에 따라서 모두 원자에서 입자가 나가고 분자로 화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응해 주시는 응신으로서 그 자체가 바로 부처님의 마음이 만 개도 되고, 곤충에 이르기까지 이 세상을 꽉 차게 다 응해 주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바로 부처님의 뜻이 그러하다 이겁니다. 만약에 소가 무명을 벗겨 달라고 애달프게 애원을 하고 마음공부를 하면서 정성을 지극하게 한다면 바로 부처님은 소 속에 들어가서 그 소 무명을 벗겨 줄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 마음이 그 소 속에 들어간다면 소가 되시고, 한 찰나에 말입니다. 한 찰나에 무명을 벗겨 주고 나오시고, 돼지 속에 들어가면 돼지의 무명을 벗기고 나오시고, 사람의 차원에 따라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화하시고, 또 찰나에 화해서 부처가 되시고, 이렇게 찰나찰나에 나투시는 그 만 가지 법은 헤아릴 수 없는 법입니다. 그래서 말로 하려면, 바로 평등공법으로서 문 없는 문으로 오고 감이 없이 여러분에게 응해 주시는 천차만별의 이름을 가진 여래라고 합니다. 또 부처님이라고도 하지요.

> 우리가 이왕지사 칼을 뽑았으면
> 그 칼로 내 동료들도 살리고 이웃도 살리고 나라도 살리고
> 모든 일체 만물의 은혜도 갚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 정법을 배운다면
> 모든 조상들과 일체제불의 은혜도
> 돌 쪼가리 하나 나무 한 그루의 은혜도 다 갚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 공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소리를 하니까 또 이 생각이 나네요. 마음은 바다도 없기 때문에 배도 소용이 없고 높은 산이 있다 할지라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미국을 간다고 합시다. 그런다면 산과 물을 넘는다고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미국도 한 찰나요 요 문지방 너머도 한 찰나입니다. 마음이기 때문에 저승과 이승을 찰나찰나 한 찰나에 넘나들 수 있다 이 소립니다. 이 세상 자체가 바로 죽은 세상 산 세상이지 딴 세상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생활을 하시면서 잘 아시겠죠. 나쁜 일을 하면 교도소에 가고 감옥소에 가고 경찰서에 가고 이런다고요. 또 남이 알지 못하게 일을 저질렀는데 남이 모른다고 그래서 지옥고가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은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서 알기 때문에 그게 마음의 지옥고입니다. 마음에 지옥고가 벌어지기 때문에 현상세계에 나오는 대로 받는 겁니다. 마음에 지옥고가 입력이 돼 있으니 그게 안 받고 될 법한 일입니까? 한 치도 에누리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은 거는 여러분이 꼭 받게 마련이고, 여러분이 좋은 일을 하신 거는 여러분이 그 결과를 꼭 받게 마련이니까 누구에게 무엇을 줬다고 해서 '내가 그걸 줬지.' 이러지 마세요. '내가 살렸지. 내가 참 많은 걸 갖다 주었는데….' 하시지만 그게 아닙니다. 남을 갖다 준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왜 은행에 돈을 갖다 넣습니까? 그 은행 사람들 잘 먹고 잘 살라고 갖다 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되찾아다 쓸 양으로 은행에 갖다 넣으시죠? 그거와 똑같습니다.

그냥 남은 이렇게 힘들여서 얘기하는데 여러분은 그저 희미하고 아리송하게, 들을 때만 듣고 그냥 잊어버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말씀드린 것을 좀 심사숙고해서 이 손을 가슴에 얹고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이 말 한 마디에, 이 행동 하나에, 이 마음먹고 행동 한 번 하는 데에, 허! 세세생생이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세세생생이 달려 있는가 하면 자손 대까지 내려가면서 달려 있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길을 지나가다가 보니까 어떤 처사가 직수굿이 짐을 지고 가는데…, 스님네들이 어떠한 일을 하든 상관없이 자기 일만 꾸준히 할 수 있는 어떤 처사가 눈에 보였습니다. 근데 그 아주 하찮은 것이지만 꾸준히 짊어지고 가는, 아무 이유도 붙이지 않고 가는 그 행을 보고 '아!' 하고서 생각을 하는 순간,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천 년 만에 한 번 만날까 말까 하다고 그러지만 여러분이 하나하나 말하고 행동하는 데 있어서 정말 눈 뜨고 귀 뜬 사람한테 한 번 띄기만 하면 그게 천지를 진동하고도 남음이 있는 도리가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조그만 거라고 우습게 생각하고 크다고 크게 생각을 하고 이러지 마세요. 조그마한 데서도, 즉 말 한마디에 천냥 빚을 갚는다는 속담의 뜻이 아마 거기에 맞는가 싶습니다. 내가 경험을 해 보니까 그렇거든요.

이걸 어떻게 속속들이 여러분한테 말로 다 하리까? 내가 스스로 깨친 건 내가 아는 것이지 여러분이 아시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이 공부를 하면서 느끼고 체험하고 그러면서 반야줄을 잡고 놓치지 마시고 항상 생활하는 데서 행선으로써 하십시오. 참나를 믿고, 그 의식에서 그냥 나오는 자체가 바로 헛생각으로 나오는 거니까, 그거를 번뇌 망상이라고 합니다. 헛생각으로 나오는 것을 마음에서 나오는 줄 알고 속지 마시고, 또 속지 않기 위해서 선장의 주장자에 모든 것을 다 맡겨 놓으십시오. 맡겨 놓으면 거기서 바로 입력이 되면서 나오기 때문에 모두가 재생이 되고, 구정물이 나올 것도 바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새 물로 바뀌어 나옵니다. 주장자에 한 번 굴러서 나오는 그 마음은 바로 법이 되지마는 의식에서 나오는 생각대로만 여러분이 그냥 하신다면 그거는 바로 중생들의 마음이기 때문에 걸리게 됩니다. 모든 게 잘못되게 되고 잘되는 것이 없습니다.

어떤 분이 파산까지 이르게 됐다고 어떡하면 좋으냐고 하기에 야단을 막 쳤습니다. 왜 당신네들이 그렇게 해 놓고, 그것도 처음에 그렇게 됐을 때 말을 하지 못하고 인제 아주 망하기 직전에 그냥, 다 뺏길 때 와서 얘기하느냐고요. 좀 생각들이 있어야죠. 야단을 치고 나니까 내 마음도 안됐죠. 하지만 그대로 보냈어요. 며칠 있다가 그게 어떻게 뒤집어져서 잘됐다고 좋다고 하고 왔는데 말입니다, 나는 그래도 미심쩍은 게 뭐냐 하면 그 한 찰나의 괴로운 거는 면했는데 그 사람에게 또 그런 게 닥쳐오면 어떡합니까, 네?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남한테 자꾸자꾸 의지할 수가 있습니까? 자기가 뿌린 것 자기가 거두어야 하고 자기가 뿌려서는 안 될 일이라면 냉정하게 단호히 끊고, 해야 할 일이면 단호히 해야죠. 이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의 자유를 얻어야만이 이 세상에 조금도 어김이 없고 자유스럽고 즐겁고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자유인이 될 수 있다 이겁니다.

이 공부는 이 세상을 다 주고도 살 수 없는 공부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아무렇게나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과학자들만 얘기할 게 아니라 모든 종교인들도 가만히 보십시오. 모두 바깥으로 끄달리고 다닙니다. 지금 뿌리가 썩어서 죽어 가는데 저 딴 나무를, 남이 볼 때 크고 좋은 나무를 보고서 그냥 살려 달라고 하니, 아니 그 나무에서 이쪽으로 와서 이쪽 싹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모두가 어리석습니다. 냉철하고 좀 단호하게 인생을 돌아다볼 줄 알고 자기가 어디서 와서 지금 무엇을 하면서 걷고 있는지 그것을 여러분이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왜 두 발을 만들어 놨습니까? 기울지도 틀지도 말라고 두 발을 해 놨지 않습니까? 한 발만 없어 보십시오. 절름발이죠. 왜 두 손을 만들어 놨습니까? 한 손이 없으면 병신일 뿐만 아니라 한 손으로 다 들 수가 없어요. 한 손으로 집을 거나 집지요. 이러니 한 다리 병신, 한 팔 병신, 한 귀 병신, 귀머거리, 한 눈 까막눈, 이렇다면 여러분이 살기가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여러분은 한쪽 눈이 없고 한쪽 귀가 없고 한쪽 손이 없고 한쪽 발이 없습니다. 그것을 몽땅 다 겸해서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호에 계속)

※위 법문은 1994년 6월 19일 국내지원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불자 세상보기

이별 범죄… 지독한 '집착'의 산물



선업 스님
뫔 행복치유 센터 원장

최근 연인과 헤어지는 과정에서 이별을 인정하지 못한 채 앙심을 품고 다양한 흉악 범죄를 저지르는 일명 '이별범죄'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이성에 대한 잘못된 집착과 애정 표현이 낳은 이런 행위의 종류에는 헤어진 상대의 알몸이나 속옷 차림의 사진, 동영상 등을 인터넷에 유포하는 '리벤지 포르노(Revenge Porno)'와 스토킹 등이 포함되어 있다.

지난해 발표된 경찰청의 통계에 따르면, 2012년 검거된 강력범죄자 중 피해자와 애인 관계였던 경우가 9912건에 달하고 2010년 1만354건, 2011년 9710건 등 연인을 상대로 한 강력범죄가 매 해 1만 건 정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별범죄에 대한 심리적 원인에 대한 이론으로는 '동기의 대립과정 이론'이 있다. 어떤 정서나 동기 상태와 상반되는 내적상태가 유도되는 경향성을 '대립과정'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어떤 대상에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중립 대신 실망감으로 물들게 된다. 이 이론을 헤어짐에 직면한 연인 관계에 적용해 보면, 사랑의 감정이 사라진 빈 자리에 그 만큼의 고통이 찾아오고 당사자는 내면의 부정적 심리를 외면화시켜 상대방에게 폭력 등을 통해 복수의 형태로 분출하는 것이다.

니까야를 보면 곳곳에서 좋아하는 대상과 헤어지는 것과 싫어하는 대상을 만나는 것이 대표적인 괴로움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헤어짐을 마주한 연인의 경우를 보면 한 쪽은 좋아하던 대상과 헤어질 수 없어서 괴롭고 또 한 쪽은 좋아하던 대상이 싫어하는 대상으로 돌변해서 괴로운 형태가 된다.

쌍방이 모두 괴로운 이 경우는 괴로움의 세 가지 성질(三苦性) 중 하나인 '변화에 기인한 괴로움의 성질' 때문이다. 이 점에 대하여 청정도론에서는 "즐거운 느낌은 그것이 변할 때 괴로운 느낌이 일어날 원인이 되기 때문에 변화에 기인한 괴로움(壞苦)이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즐거운 느낌이 괴로운 느낌의 발생 원인이 된다는 점에서 동기의 대립과정 이론과도 닮아 있다.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상대에게 충동조절 장애에서 기인한 반사회적 수준의 공격성을 표출하는 이들에 대한 치유법은 약물사용에서 심리치료까지 다양하다.

불교적으로는 "갈애를 조건으로 집착이 생겨나며(S12:2)" 결국은 이를 조건으로 "늙음 · 죽음과 근심 · 탄식 · 육체적 고통 · 정신적 고통 · 절망이" 있게 된다고 경전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갈애와 집착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치유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본다.

특히 네 가지 집착 중에서 '감각적 욕망에 대한 집착'을 이해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왜냐하면 상대방을 '감각적 욕망'의 대상으로 보는 순간 자신의 소유물로 착각하는 불손한 의도가 개입되기 때문이다. 잘못된 의도에 전도되면 상대방이 '나의 소유'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화가 나고 동시에 해치려는 마음이 고개를 내밀게 되면서 폭력사용에 의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된다.

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팔정도의 '바른 의도'이다. 바른 의도란 "감각적 쾌락으로부터 떠나려는 의도, 성내지 않으려는 의도, 해치지 않으려는 의도(DN. II. 312)."를 말하는 것으로 바른 의도를 성숙시키는 것은 네 가지 무한한 사랑의 마음, 즉 사무량심이다. 자애와 연민, 그리고 함께 기뻐하는 수희의 마음과 평등 · 평정심을 기르면 집착으로부터 탈출하는 지름길이 열리게 된다.

샤론 살스버그는 붓다의 러브레터에서 상대방을 평등하게 보고 자타(自他) · 애증(愛憎) · 원친(怨親)의 차별을 없애기 위해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를 수용하고,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라는 평정심 향상 문구를 반복할 것을 권하고 있다.

현재 이별 범죄의 예방 방법으로 '싫다'는 의사 표현을 명확히 할 것을 권하고 있지만 그 전에 서로의 의도를 있는 그대로 바로보고 수용하는 훈련부터 해야 "갈애와 집착의 번뇌의 화살을 뽑아 모든 슬픔을 뛰어 넘어" 헤어짐이 또 다른 만남의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외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社說

어긋난 종교 · 역사관의 총리 후보

인적 쇄신을 다짐한 박근혜 정부의 인사가 첫 단추부터 잘못 꿰였다. 3공 이후 처음 언론인 국무총리로 나선 문창극 후보자의 과거 행적이 상식 이하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교회 장로로 활동 중인 문 후보자는 2011~12년 강연에서 식민지 시대의 친일파가 말할 수 있는 수준의 발언을 이어갔다.

그의 발언을 정리하면 일제 식민지도 남북 분단도 하나님의 뜻이다. 조선 민족은 게으르다고 민족성을 비하했다. 일본이 한국 옆에 있는 축복이라는 일본 찬양 발언까지 했다. 과거의 칼럼을 통해서는 "위안부에 대한 일본의 사과는 필요없다"는 국민 정서 절대 부합되지 않는 망언을 써내려갔다.

이런 상황에도 그는 교회라는 공간에서 특수하게 이뤄진 강연이 오해의 소지가 있어 유감이고 일반인의 정서와는 거리가 있고 해명했다. 다시 말해 문 후보자는 사과할 마음도 없고 자신의 망언에 잘못이 없음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교회라는 공간에서 이뤄진 강연이고 자유기고가로서 쓴 글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문 후보의 무책임한 가치관은 한 나라의 국정을 책임지는 총리로서는 매우 부적합하다. 교회 장로로서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을 운운하는 총리가 공평한 행정을 할 수 있을 것이며, 위안부의 아픔을 모르는 사람이 책임있는 국정 운영을 이뤄낼 수 있겠는가.

문 후보자의 발언은 일본 군국주의자들이 전쟁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쓴 논리와 놀랍게도 흡사하다. 대한민국 헌법의 근본인 3 · 1운동 정신을 스스로 부정한 것이기도 하다. 그의 발언이 논란된 직후 역사정의실천연대와 항일독립운동가단체연합회는 12일 오전 문 후보자가 출근한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친일 총리는 필요 없다"며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그렇다. 우리에게는 어긋난 종교관과 역사관을 가진 총리는 필요 없다.

불교학 학점은행제 16년만의 쾌거

교육부가 학점은행제 불교학전공 학사학위 표준교육과정 신설을 승인했다. 이에 굳이 대학서 불교학을 전공하지 않더라도 평생교육원 등 별도의 교육기관을 통해 불교학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1998년 학점은행제가 실시된 지 16년만의 쾌거다. 사실 다른 종교의 교육 기관은 우리 불교보다 한 발 빨랐다. 기독교신학전공은 1999년, 가톨릭신학전공은 2004년 신설돼 전국의 대학 산하 평생교육원을 비롯한 평생교육기관서 수강할 수 있었다.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기관서 기독교와 가톨릭 신학은 이미 자리를 잡아 체계적이고 질 높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됐다. 하지만 우리 불교학 전공은 최근까지도 검토조차 되지 않았다. 이같은 악조건인 상황서 동국대 평생교육원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문을 두드렸다.

그 결과 불교정신의 확산과 대학의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 지난해 6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제안해 1년만에 최종 승인을 얻어냈다. 이 과정서 서울대를 비롯한 국내 주요 9개 대학의 동의를 받아냈고, 수요조사, 영향평가, 학점인정심의위원회 등의 절차를 모두 통과했다. 이런 각고의 노력 끝에 얻어낸 결실이라 더욱 값지다.

이번 불교학 전공 신설을 통해 동국대를 비롯한 전국의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은 불교에 관심이 있는 성인들에게 대학 졸업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으며 체계적으로 전공할 수 있는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현재 침체된 불교학 연구의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외에도 불교학자들의 연구활동 활성화와 강의 기회 확대는 물론, 사찰에 설치된 불교교양대학도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으로의 전환이 가능해졌다. 이미 사찰에 설립된 조계사와 통도사 마인드케어 교육원의 경우 교과목 승인만 받으면 운영이 가능하다. 이번 쾌거가 불교학 발전은 물론 새로운 신행문화 정립에 크게 기여되길 바란다.

발언대

빈곤 문제 불교적 진단

한국사회의 양극화는 이제 폭발 직전이다. 양극화로 인한 빈곤층의 고통은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될 지경에 이르렀다. 조계종 노동위원회는 6월 11일 토론회를 열고 한국 사회의 빈곤 문제에 대한 진단을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뤄진 주요 패널들의 발언을 정리했다. 〈편집자 주〉

기초생활보장법 기준 완화되어야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우리나라의 경우 하루 평균 44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20%는 생활고를 비관해 자살을 한다.

2013년 기준으로 보면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는 135만명인데 반해 비수급빈곤층은 약 4배에 가까운 400만명으로 추정된다. 광범위한 사각지대의 주요 원인은 부양의무자기준, 소득인정액과 같은 대상자 선정 방식에서 기인한다.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상이라 할지라도 실제 소득이 전무하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지만 현행 제도는 간주부양비, 추정소득 방식으로 수급권을 제한한다.

실제 생활과 무관한 까다로운 기준으로 수급자를 가려내는 방식은 복지 소외계층 발굴 일제조사를 하더라도 실효성에 있어 한계가 있는 것이다.

정부가 내놓은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은 기존 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 등 7가지를 통합적으로 지급하던 것을 맞춤형 개별급여로 나눠서 지급하는 것이다. 이는 최저생계비를 무너뜨리고 책임주체를 각 부처로 떠넘겨 빈곤 문제에 대한 국가 책임을 부정하는 개악이다. 전 국민에게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계를 권리로서 보장한다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해체시키고 무력화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우리나라 빈곤율은 16.5%로 OECD 전체 평균인 11.3%를 크게 웃돈다. 노인 빈곤율은 그 절반을 차지한다.

이런 현실에서 현행 기초생활보장법은 전 인구의 2.7%만을 포괄할 뿐이다. 때문에 최저생계비 현실화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검토해보아야 한다. 노동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대해 간주소득만큼 수급비를 삭감하는 조항역시 마찬가지다. 재산, 소득기준역시 개선되어야 하며, 추정소득을 부과해 기초 수급자에서 탈락시키는 제도역시 개선되어야 한다.

빈곤은 즉각적으로 해결할 과제



유승무
중앙승가대 교수

연기법의 이치를 경제영역에 적용하면 불교적 경제공동체는 사회주의도, 사회주의 생산력 단계를 거친 공산주의도 아닌 원시적 형태의 공산사회에 가깝다. 그속에서 개인은 그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고정된 수입을 보장받아야 한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고정된 수입을 가지고 안전하게 자신의 기본욕구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원칙을 국민경제 전체에 적용시키면 경제능력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안정된 고용을 통해 수입을 보장받아야 하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국가에 의해 지원을 받아야 한다. 완전 고용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국가는 실업자들이 고용될 때까지 그들을 지원해 주어야 한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그들의 인간적 존엄성에 어떤 손상도 받지 않은 채 국가로부터 지원 받을 필요가 있는 것이다.

불교적으로 보면 빈곤은 식량, 의복, 주거지, 의료 등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리고 이러한 기본욕구가 충족되지 않는다면 개인이나 집단에게 어떠한 발전도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부처님은 빈곤을 무서운 것으로 간주했다.

제자들과의 대화에서도 부처님은 빈곤에 대해 수차례 질문하며 그것이 무서운 것이냐고 묻고 있다.

이처럼 부처님은 빈곤의 위기를 즉각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우선적 과제로 보았다. 국가의 의무를 적빈 상태에 빠진 모든 사람들을 소생시키는 것에서 찾았으며, 국가는 사회적 약자층이 빈곤상태로 전락하지 않도록 전략을 발전시키고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계셨다.

경제정책을 통해 물질적 · 비물질적 자원 분배에 있어서 불균형을 바로 잡기 위해 적극적으로 국가가 간섭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배성한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전국
서울. 수원

수강생모집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 40-0863341호
서비스등록번호 : 41-0213393호
저작권등록번호 : C-2011-003967호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 ·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신문,인터넷, 정 · 부정기 간행물,
도서, TV, 유 · 무선라디오 광고 및
교재 무단복제, 강의하면 민 형사상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 저작권 :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상표법 :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저작권자
상표권자 정 흥 교 (법화 종헌)

저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교주」로서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강 의 일정표
◇ 제 1일 – 구단구궁의 제법칙
◇ 제 2일 – 구단구궁비결 문구해석
◇ 제 3일 – 교재 중심(일련의 사태 재해석)
◇ 제 4일 – 구단구궁용신의 제밥칙
◇ 제 5일 – 구단구궁 실전감정

■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신동법으로 미래를 예측함
■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 **귀신뽑아 조상천도연계**
■ 교육이수 후 **즉시 영업 가능함**
■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구단구궁법대학
경기도 화성시 떡전고을로 114-1. 1층 (서울지하철 1호선 병점역 앞) ☎ 전화 010-7415-0803
인터넷 검색창 : 구단구궁법
〈우체국 601401-01-001843 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法果

생활속에 만나는 부처님 말씀

지혜와 깨달음을 담은 법구경, 그 귀한 가르침을 법과에 담았습니다. 과자 하나하나에 들어있는 귀한 가르침!

세대를 가리지 않고 진한 감동을 선물할 수있는 법과.. 법과와 함께 하세요!

■ 법과란?

기존의 포춘쿠키를 현대적이고 불교식으로 재해석하여 생활법구경, 각종 행사 용도에 맞는 문구를 넣어 불교형으로 탄생시킨 것이 **'법과(法果)'** 입니다

법과는 과하지 않으면서 고급스러운 법과전용 포장지에 포장되며
법과안에는 법구경의 지혜로움이 적혀있는 슬립지가 있습니다.

쿠 키



포장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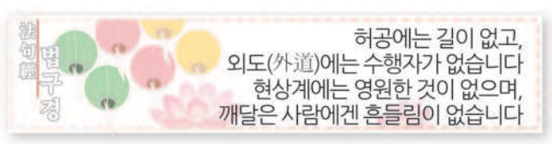
슬립지

■ 앞면예시



원하시는 문구(30자 이내)를 넣을 수 있습니다.

■ 뒷면예시



현대어로 재편집된 생활 법구경이
각각 다른디자인으로 랜덤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 법과의 효능

이미 많은 사칠과 불교 단체, 기업 등 3,000여 곳이
법과(法果)를 활용한 봉축행사, 템플스테이, 어린이법회, 광고,
돌잔치, 결혼식, 전시회, 경품당첨 이벤트 등을 통해
효과를 경험했고, 점차 그 활용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 법과와 함께 하세요!

"부처님과 함께하는 기쁜 날,
法의 지혜를 나누며
법과와 함께하세요~"



법과 문의 현대불교 현불샵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TEL 02)2004-8216

계좌번호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500개 이상부터 주문가능하며 원하시는 이미지 / 문구를 넣으실 수 있습니다.